

경복궁영건일기

연번	위치	수정전	수정후	수정시기
1	58쪽 10줄	경기도 감사	경기 감사	2024.02.
2	67쪽 19줄	호판	호조판서	2024.02.
3	71쪽 13줄	경기도	경기	2024.02
4	95쪽 15줄	본 도감에서 제를 올렸 아뢰었다. (5월 4일 마지막 줄)	5월 5일로 첫번째 출로 이동	2024.02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景福宮
營建
日記

발간사

서울역사편찬원은 1949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70주년이 됩니다. 시대의 요구와 연구지형의 변화 그리고 서울 역사에 관심을 가진 시민과 연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수많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사료총서 발간은 서울역사편찬원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역사 연구와 편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료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사료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서울 역사 사료의 국역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국여지비고』, 『한경지략』, 『준천사실·주교지남』, 『하재일기』, 『경성부사』는 연구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서울 역사 관련 사료를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료를 읽는 이유는 바로 당대의 역사상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70주년 기념 서울사료총서 제16권이 더욱 특별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사료총서 제16권은 『(국역)경복궁영건일기』입니다. 『경복궁영건일기』는 고종시대 흥선대원군 주도로 진행된 경복궁 중건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자, 중건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료입니다. 고종시대 경복궁 중건은 단순히 궁궐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조선의 중심’으로서 경복궁에 의미를 부여하며, 조선이라는 국가의 지향점

을 보여주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역사상은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 과편적으로 짐작했을 뿐, 직접적인 사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서울역사편찬원은 일본 와세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경복궁영건일기』가 소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국내의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번역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868년 경복궁 중건을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지 150년이 넘는 시점에서야, 고종시대 경복궁 중건의 역사상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0여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경복궁 중건에 참여했듯이, 『경복궁영건일기』의 국역화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해 주신 선생님들, 교열과 교정을 담당하신 서울역사편찬원의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간행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복궁이 한 층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목 차

제1권 국역 경북궁영건일기 1

발간사	4
해제 『경북궁영건일기』의 여정 _이우태	8
경복궁 중건의 모든 것에 관한 매일 매일의 기록 _배우성	24
일러두기	36
찾아보기	442

경북궁영건일기 1

경북궁영건기	40
을축년(1865, 고종2) 4월	44
을축년(1865, 고종2) 5월	90
을축년(1865, 고종2) 윤5월	126

경북궁영건일기 2

을축년(1865, 고종2) 6월	150
을축년(1865, 고종2) 7월	174
을축년(1865, 고종2) 8월	198
을축년(1865, 고종2) 9월	215

경북궁영건일기 3

을축년(1865, 고종2) 10월	248
을축년(1865, 고종2) 11월	293
을축년(1865, 고종2) 12월	328

경북궁영건일기 4

병인년(1866, 고종3) 1월	358
병인년(1866, 고종3) 2월	376
병인년(1866, 고종3) 3월	403
병인년(1866, 고종3) 4월	422



제2권

경북궁영건일기 6 · 병인년(1866, 고종3) 11~12월

경복궁영건일기 7 · 정묘년(1867, 고종4) 3~8월

경북궁영건일기 9 · 무진년(1868, 고종5) 1~7월

제3권

景福宮營建日記 六

景福宮營建日記 七

景福宮營建日記 八

景福宮營建日記 九

해 제

『경복궁영건일기』의 여정

이우태(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경복궁영건일기』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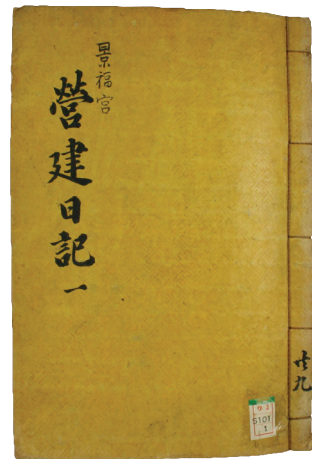
본 번역서의 대본인 『경복궁영건일기』는 현재 일본 와세다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귀중서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모두 9책의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34cm이며, 황색의 표지와 붉은색 실로 5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장정된 책으로, 1면은 10행 매행 22자이다. 매책의 첫면에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의 장서인과 함께 ‘낙랑서재樂浪書齋’란 장서인이 있어서, 이 책이 원래 요시다 도고吉田東梧의 소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책 표지의 배접지는 글자가 그대로 노출된 폐지를 이용하였고 중간중간에 틀리거나 보충할 내용을 적은 부전지附箋紙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완성본이 아니라 정서본을 만들기 위한 초고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각 권별의 기재 기간과 분량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9책의 일기는 경복궁의 영건이 결정된 1865년 4월 1일부터 경복궁이 완공되어 고종이 이어移御한 1868년 7월 4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3년 3개월 여(윤달을 포함하여 41개월 4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의 진행 현황과 자금 및 물자의 조달 상황을 기록한 일기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날 그날의 일기를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공사의 모든 내용을 재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와세다대학교 소장본 『경복궁영건일기』의 권별 내용

책수	기재 기간	분량
1	서문, 을축년(1865) 4월-윤5월 (3개월)	81장
2	을축년(1865) 6월-9월 (4개월)	81장
3	을축년(1865) 10월-12월 (3개월)	81장
4	병인년(1866) 1월-4월 (4개월)	67장
5	병인년(1866) 5월-10월 (6개월)	69장
6	병인년(1866) 11월-정묘년(1867) 2월 (4개월)	71장
7	정묘년(1867) 3월-8월 (6개월)	71장
8	정묘년(1867) 9월-12월 (4개월)	65장
9	무진년(1868) 1월-7월4일, (7개월 4일, 윤4월 포함)	86장
합계	을축(1865) 4월-무진(1868) 7월4일 (41개월4일)	672장



『경복궁영건일기』 제1권 표지

경복궁 중건에 관한 의례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경복궁 중건의 의례가 사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본 영건일기 이외에 경복궁 중건에 관한 기록물로는 토지주택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건일감營建日鑒』 1책이 있다. 『영건일감』은 1865년 4월부터 1867년 12월까지 공사와 관련된 일을 월별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재정 중심의 기록이다. 경복궁 중건의 의례는 편찬되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금전의 출납을 기록한 등록이 편찬되었다고 추측되는데, 『영건일감』은 이런 등록을 토대로 자재 조달이나 금전 납부 등과 관련한 문제들만 따로 문서들을 묶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영건일감』은 번역본이 있다.¹

『경복궁영건일기』의 이본으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규장각 소장본 『경복궁영건일기』 1책이 있다. 1865년의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의 내용만을 수록한 이 책은 와세다대학교 소장본의 제2책에 해당하는데, 전체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체제와 표기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아마도 와세다대학교 본을 토대로 정서한 완성본이라고 생각되는데,

1 정정남·이선희, 『국역 영건일감』, 국립고궁박물관, 2016.

9책 중에 오직 1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 이전에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바가 있다.²

그리고 『경복궁영건일기』를 발췌한 자료로 일본 궁내청 소장본 『이태황실록자료』 2책이 있다. 『이태황실록자료』는 일본의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에 의해 편찬된 조선왕실 관련 자료집인데,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자료에 대한 논문을 통해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아사미 린타로가 본 『경복궁영건일기』는 완성본, 즉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포함된 정서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자료 이외에도 『경복궁영건소 개성부원납성책景福宮營建所開成府願納成冊』(1책 20장, 성암고서박물관)과 『경복궁영건소 전일만량봉수책景福宮營建所錢一萬兩捧授冊』(2책,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 등의 자료도 있지만 주로 원납전 납부를 다룬 제한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³

『경복궁영건일기』의 편찬

『경복궁영건일기』는 모두 9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이 필사본을 작성한 이는 제1권의 서문에 “한성부 주부 원세철元世澈이 1865년 4월부터 1868년 7월까지 일기를 주관하여 9권을 편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세철임이 확실하다. 먼저 승정원일기와 여타의 기록을 통해 그의 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세철의 본관은 원주原州 이고, 1817년(순조17)에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원석범元錫範이다. 1870년(고종7) 경오 식년시庚午式年試에 붙어 진사가 된 후 울산 부사蔚山府使, 진주 목사晉州牧使, 해주 판관海州判官 등을 지냈다. 원세철은 1864년(고종 원년) 12월에 음서로 효

2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경복궁석조조형물학술연구 및 보존관리방안연구의 별책으로 국역본 pdf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3 정옥재, 「日本 宮内廳 所藏 ‘公族實錄’의 편찬과 특징」, 『한국사학보』64, 2016; 정옥재, 「日本 宮内廳 所藏 『李太王實錄』·『李太王實錄資料』의 체제와 특징」, 『한국사학보』69, 2017; 이왕무, 「19세기말 고종대 경복궁 중건자료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학보』72, 2018.

문전 참봉(孝文殿參奉)이 되어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데, 이 때 그의 나이는 48세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가 종친부 주부를 제수 받은 것은 1867년(고종4) 3월 23일인데, 본 『경복궁영건일기』에 의하면 그는 1866년 7월에 영건도감(營建都監)의 낭청(郎廳)이 되었으며, 종친부 주부가 된 이후에도 영건도감 낭청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⁴ 그는 1867년 12월 1일 한성부 주부(漢城府主簿)로 임명되지만⁵ 여전히 영건도감 낭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서문에 그의 직함을 ‘한성부 주부’라고 하였던 것이다.

원세철이 임실 현감(任實縣監)이 되어 지방으로 나가는 것은 다음해인 1868년 윤4월 14일의 일이다.⁶ 그러므로 본 『경복궁영건일기』가 완성된 것은 그가 한성부 주부가 되는 1867년 12월 1일 이후 1868년 윤4월 15일 사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870년(고종7) 전주 판관(全州判官)을 거쳐 1874년(고종11) 영천 군수(永川郡守), 1876년(고종13)에는 밀양 부사(密陽府使)에 제수됐다.

이렇듯이 얼핏 보면 본서의 편찬자와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한 모순점이 발견된다. 우선 앞서 제시한 서문의 말미에 세주(細註)로 『경복궁영건일기』의 편찬 대상 시기가 밝혀져 있는데, 그 기간이 ‘을축(乙丑, 1868) 사월(四月)에서 무진(戊辰, 1868) 칠월(七月)’로 되어있다. 그런데 원세철이 임실 현감이 되는 것은 1868년 윤4월 15일이므로 일기의 편찬이 끝나는 시점인 1868년 7월의 원세철의 관직은 한성부 주부가 아니라 임실 현감이 되어야 옳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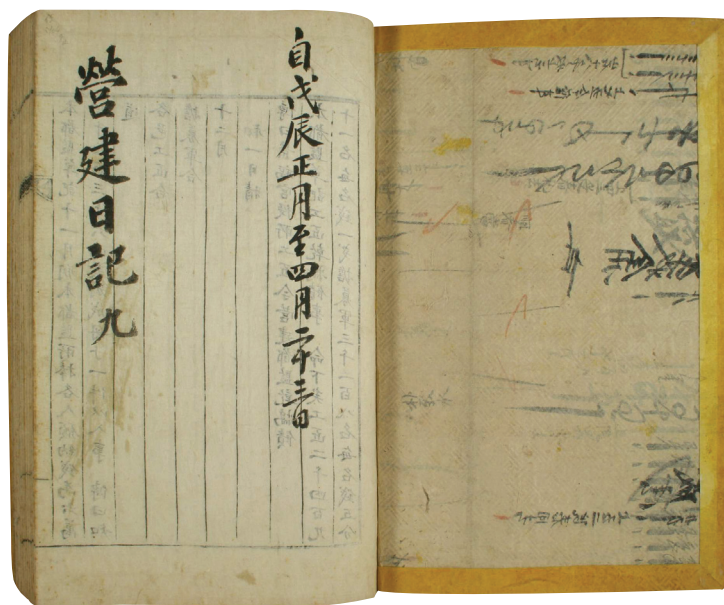
그렇다면 혹 그가 임실 현감으로 제수받기는 했으나 부임하지 않고 계속 영건도감 낭청의 임무를 적어도 그해 7월 정도까지는 맡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임실 현감으로 제수되는 바로 다음날에 새로운 영건도감의 낭청으로 공조 정랑 김석근(金皙根)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⁷

4 근정전 상량문에는 그의 직위가 “삼방낭청 선략장군 행용양위 부사와 원세철”로 되어있다.

5 『승정원일기』 2721책, 고종 4년 12월 1일 경진.

6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원세철을 임실 현감으로 삼았다.(『승정원일기』 2726책, 고종 5년 윤4월 14일 신유)

7 영건도감이 아뢰기를, “본 도감의 낭청인 원세철이 임실 현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대신에 공조 정랑 김석근을 차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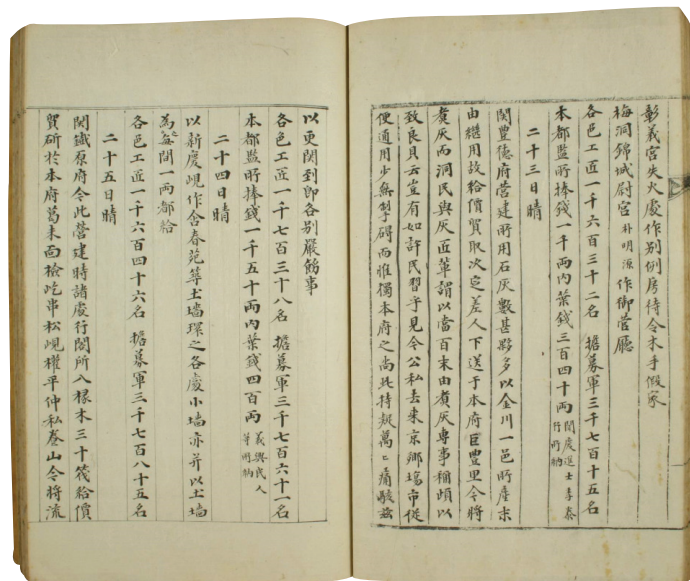


『경복궁영건일기』 제9권의 속표지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추정할 수 있는 가설은 원래 『경복궁영건일기』의 편찬이 1868년 7월까지가 아니라 4월 23일로 끝날 예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경복궁영건일기』의 각 권의 표지나 속표지에는 대상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1권에는 1865년 4월부터 윤5월까지의 3개월임을 가리키는 “을축 4, 5, 윤 3개월[乙丑四五閏三朔]”이라는 표시가 있다. 그런데 제9권의 속표지에는 그 대상기간이 “무진 정월부터 4월 23일[自戊辰正月至四月二十三日]”이라 기록되어 있어서 1868년 1월부터 1868년 4월 23일까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래 『경복궁영건일기』의 편찬은 1868년 4월 23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자료이다. 이에 의거하여 원세철은 이날까지의 일기를 정리하여 9권의 책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 2726책, 고종 5년 윤4월 15일 임술)



『경복궁영건일기』 제9권의 무진년 4월 23~24일자 부분

으로 완성하였던 것이고, 그의 임실현감 발령 날짜가 다음 달인 윤4월 14일인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리 예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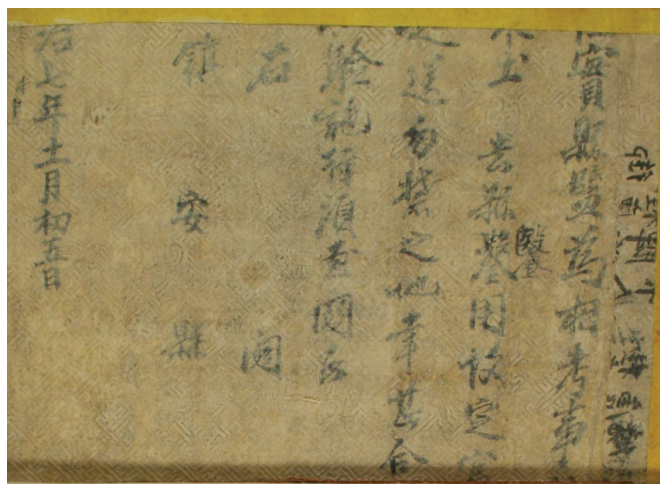
그런데 제9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기는 4월 2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 7월 4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약 2개월 10일 정도가 더 첨가된 것인데, 이는 아마도 상부(대원군)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868년 4월 23일은 근정전이 완성되어 임금이 그곳에서 진하(進賀)를 받은 날이고, 7월 4일은 고종과 왕실 구성원들이 새로 완성된 경복궁으로 이어(移御)를 마치고(7월 2일) 시원임대신과 봉조하, 의정부 당상 등이 근정전에 입시하여 고종에게 치하의 말씀을 올리는 날이다. 아마도 대원군은 근정전의 완성이 아니라 왕의 이어를 영건의 완성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고, 따라서 일기는 2개월 정도 더 연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복궁영건일기』 제9권의 마지막 2개월분의 작성자는 누구였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세철의 후임자인 공조 정랑 김석근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석근이

상부의 명을 받들어 원세철의 일기 초고에 2개월분을 더 첨가하여 완성하였지만, 대부분의 초고가 원세철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까닭에 서문이나 속표지 등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없는 추론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서문의 말미에 그 대상 기간을 7월까지라고 명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원세철이 4월에 일기를 완성하고 서문을 작성하였다면 서문 세주細註의 대상기간도 당연히 4월까지로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1968년 7월 이후에 원세철이 서문을 작성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는 9권의 용지가 원래 계획되었던 4월 23일을 경계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 23일까지의 용지는 패선이 굵고 판심版心에 어미魚尾가 있는 약간은 고급스러운 용지임에 반해 24일 이후의 용지는 패선도 가늘고 판심에 어미가 없는 단순한 용지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권에서 8권까지의 용지가 모두 어미가 있는 용지임으로 보아 이는 영건도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로 기록된 4월 23일 이후의 일기의 용지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4월 23일과 24일 이후의 일기의 필체가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할 점이다.



『경복궁영건일기』 제7권의 뒷표지에 배접지로 사용된 고문서 (반전시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제7권의 뒷표지에 배접지로 사용된 고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반전시켜 보면 이 문서가 1868년 11월 5일에 임실현에서 진안현으로 보낸 관문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실현감이 상고하는 일	(任)實縣監爲相考事
□土를 귀 현에서 파서 쓰고자 관원을 정해	□土貴縣鑿用故定官
□보내오니, 금지시키지 않으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送勿禁之地幸甚合(行)
살펴보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照)驗施行須至關者
관문이 반드시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右關
진안현	鎭安縣
(동)치 7년 11월 초5일	(同)治七年十一月初五日

이 문서는 윗부분이 일부 잘리기는 했지만 대략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독된다.

첫행은 ‘실현^{實縣}’으로 시작되는데, 조선의 현 중에 ‘□실현□^{實縣}’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은 임실현^{任實縣} 이외에는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치 7년^{治七年}’도 ‘동치 7년^{同治七年}’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내용 중에 ‘착鑿’, ‘물금^{勿禁}’ 등의 용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임실 현감이 이웃한 진안 현감에게 두 현의 경계 부근에서 임실현에 필요한 토목공사가 있을 터인데 혹시 경계를 범하더라도 금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배접지로 쓴 본 문서가 임실현에서 진안현으로 보내려다 취소하거나 파기한 불발문서^{不發文書}인지 아니면 진안현에서 임실현으로 회이^回한 문서에 원본을 다시 딸려 보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8 이 문서의 존재는 본서의 번역책임자인 배우성 교수의 도움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서의 판독과 해석에 대해서는 본서의 번역자 중의 한 사람인 최진욱 군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여하튼 이 문서의 ‘동치 7년’은 1868년이고, 당시의 임실 현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세철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1868년 11월 5일 이후에 임실현에서 원세철에 의해 제책製冊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경복궁영건일기』의 편찬과정을 복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 ① 1866년 7월에 영건도감의 낭청이 된 원세철은 영건도감의 관련 문서들을 수합하고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 ② 그런 그에게 경복궁의 근정전 공사가 완성되는 1868년 4월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공사 과정을 종합하여 일기의 형태로 정리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 ③ 이 명에 따라 원세철은 1968년 4월 23일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9권의 책으로 완성될 분량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는 시점에 임실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다.
- ④ 그런데 상부의 명령으로 일기의 서술기간을 왕의 이어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 ⑤ 이 결정에 대해 이 사업은 과거에 이를 맡아 진행해온 원세철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전의 초고와 함께 2개월분의 자료를 임실 현감인 원세철에게 내려 보내 일기를 완성할 것을 명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 ⑥ 원세철은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기왕의 초고에 이어 2달분의 일기를 더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영건도감에서 사용하던 용지와는 다른 용지가 9권의 뒷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⑦ 원고를 완성한 원세철은 여기에 서문을 고쳐 쓰는데, 아무래도 임실 현감이란 직책은 어울리지 않아서 이전의 직책인 한성부 주부를 그냥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 ⑧ 완성된 원고를 원래의 계획대로 9권으로 제책하면서 과거의 속표지는 그냥 사용하고, 진안 현감이 보낸 관문은 배접지로 재활용하였다.(혹은 7권만 수선했을 수도 있다.)
- ⑨ 이렇게 하여 완성된 9권의 초고가 다시 영건도감으로 보내졌고, 이 초고를 여타의 다른 자료들과 대조하여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수정 사항은 부전지로 첨가되었다.(혹시 수정자가 원세철의 후임자인 김석근이 아니었을까?)

⑩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행식上行式을 지킨 최종 완성본이 정서되었다.⁹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정서본의 제2권이 바로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몇 부가 정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후에 『경복궁영건일기』는 아사미 린타로가 ‘공족실록公族實錄’을 편찬할 때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아사미 린타로가 본 『경복궁영건일기』는 완성본 즉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포함된 정서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완성본이 어떻게 하여 다시 규장각에 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규장각본과는 다른 미지의 완성본이 있어 이것이 아사미 린타로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원세철에 의해 완성된 초고본의 그 후에 행방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는 지금부터의 과제라 할 것이다.

요시다 도고의 조선서적 수집과 『경복궁영건일기』

요시다 도고(1864~1918)는 니가타현新潟県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이며 일본 고전연구자이기도 하다. 13세에 니가타의 중학교를 중퇴할 때까지 단지 3년의 학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근세 최대의 저술가와 학자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해서 19세에 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소학교의 교원이 되었고, 27세에 결혼 후 북해도로 건너가 이듬해 11월까지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사학잡지史學雜誌』에 기고한 「고대반도흥폐고古代半島興廢考」가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한다. 28세에는 요미우리讀売 신문사에 입사하였고 청일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파견되었는데, 이때부터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후 13년이 걸려 이 책을 완성하였는데, 총 11책 분량으로 원고의 두께만 해도 5미터에 달했다고 한다. 1901년에 와세다대학교의 전신인 동경전문학

9 완성본에는 부전지에 의한 수정뿐만 아니라 특정 용어에 대한 일괄적인 수정도 있었다. 예컨대 초고본의 ‘所捧錢’은 일괄적으로 ‘願納錢’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東京專門學校의 강사가 되었고, 국사·동양사·지리 과목을 담당했다.

그의 저서 중 우리나라에서는 『일한고사단日韓古史斷』(1893)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그의 나이 29세에 펴낸 최초의 저술이고, 그의 최대의 업적은 『대일본지명사서』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사에 대한 업적으로는 역사 서술의 시점을 현대에서부터 출발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신한 기획으로 유명한 『도서일본사倒敘日本史』(1914)와 당시로서는 현대사라 불릴만한 『유신사팔강維新史八講』(1910)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예술인 노[能樂] 연구에도 일가견이 있어 노의 기원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사료인 『능악고전세아미십육부집能樂古典世阿弥十六部集』(1909)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저서를 출판한 그는 1918년 53세의 아까운 나이에 급서(急逝)하는데, 사후 그가 수집한 책들의 많은 부분이 와세다대학교에 기증되었다. 현재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의 서적은 285종인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경복궁영건일기』이다.

『경복궁영건일기』가 그의 소유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를 조선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필자도 처음 그의 약력을 보았을 때에는 그가 『경복궁영건일기』를 소장하게 된 것이 청일전쟁 당시 중군기자로 파견된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즉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 일본군이 무력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¹⁰과 요시다 도고가 요미우리 신문사의 중군기자로 파견된 것을 연관지어, 당시에 그가 일본군에 의해 탈취된 책자를 구입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군함에 승선하여 중국까지 간 다음에 곧 일본에 돌아왔으며 한반도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요시다 도고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했지만, 한반도를 찾은 것은 1915년 7월 30일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간행하던 잡지인 『조선공론朝

10 조재근, 「1894년 일본군의 조선왕궁(경복궁) 점령에 대한 재검토」, 『서울과 역사』94, 2016.

11 高橋源一郎, 『故文学博士吉田東梧先生略伝』私家版, 1919, 13쪽. 이에 의하면 그의 중군은 1895년 1월 15일에서 같은 해 3월 상순 사이에 우지나(宇品)에서 출발한 운송선을 타고 대련을 거쳐 군함에 승선하여 웨이하이 해전(威海衛海戰)을 취재한 뒤 귀국하였다.

『鮮公論』 주최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방문한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¹²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최남선崔南善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유명 장서가들을 순방하고 면담한 기록들을 「동도역서기東都釋書記」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그중 3회에 걸쳐 요시다 도고의 서재인 낙랑거樂浪居(樂浪은 그의 雅號)를 방문하고 그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조선서 수집의 배경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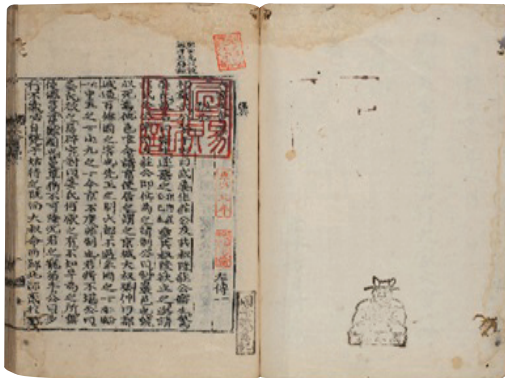
일본인이 조선서(朝鮮書)를 존상(尊尙)함은 대개 2가지로 분류를 하리니, 하나는 필요에 의함이고 하나는 취미로 인함이라. ... 이에 별도로 한 사람-역사지리학으로 학계에 중망(重望)을 가지고 일본 개벽 이래 최대 저술의 성공자로 문단에 성예(盛譽)를 떨치는 사람이 있어, 조선서(朝鮮書)에 음(淫)하다 할 만큼 즐겨 이를 모집하고 즐겨 이를 완독(玩讀)하니 그 전문(專門)하는 학문상으로 말하면 혹은 필요로 인함이라고 하겠지만 그 애호(愛好)와 기욕(嗜慾)이 주류보편(周流普遍)하야 취사(取捨)가 호무(毫無)함은 분명 취미로 인함이라 할지라. 이러듯 필요와 취미를 양겸쌍유(兩兼雙有)하매 그 조선서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타에 비하여 적절함은 고연(固然)하다 하리로다.

그의 서재(書齋) 사오칸(四五間)에 창외(窓外) 일면을 제외하고는 삼벽(三壁)에 가득 쌓인 것이 모두 황의홍사(黃衣紅絲)의 조선서(朝鮮書)라. 역대(歷代)의 전적(典籍)도 있으며 제가(諸家)의 문집(文集)도 있으며 공거관문(公車官文)도 있으며 패사소설(稗史小說)도 있으며 조선류(朝鮮流)의 목궤(木櫃)에 들어있는 것도 있으며 중국류[支那流]의 포질(布帙)에 들은 것도 있으니 그 수(數)가 족히 수천(數千)으로 셈할 것이다. 그의 말에 알, 이 방[此室]에는 조선서 이외에 한 권도 우접(寓接)치 못하게 하노라 하더라.¹³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남선은 요시다 도고를 조선서朝鮮書에 빠져 책을 수집하고 완독玩讀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호가 ‘낙랑樂浪’이었던 것도 조선에 대한 애정이나 취미가 각별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시다 도고가 스스

12 『매일신보』 1915년 7월 30일, 2면.

13 최남선, 樂浪居, 「東都釋書記」, 『매일신보』 1916년 1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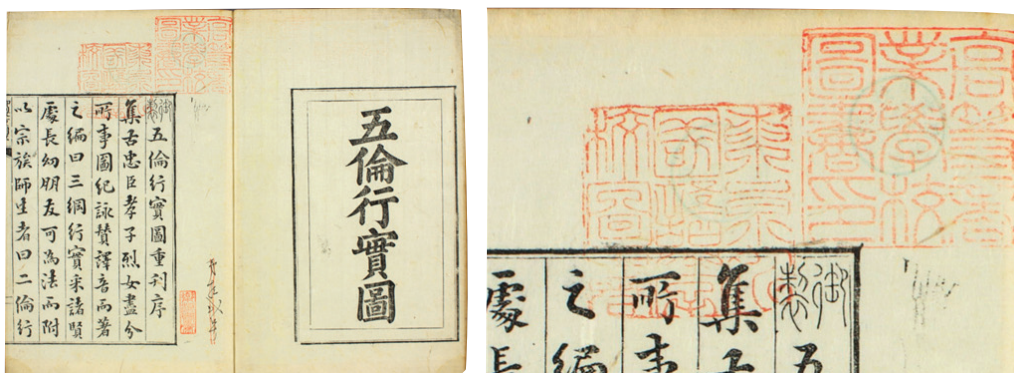
동양문고 소장 『대가문회』 권수제면

로 “이 방에는 조선서 이외에는 한 권이라도 놓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오직 조선서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와세다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그의 책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에는 그의 구장^{舊藏} 도서 285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일본책^[和本]은 15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270종이 조선본으로 95%에 달한다. 그리고 그의 구장 도서는 와세다대학교 이외에도 동양문고^{東洋文庫}에 24종 69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조선본이다.¹⁴ 그가 수집한 조선의 도서들 중에는 문집류가 가장 많고 그 이외에 역사, 제도, 문학 관련 서적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책들이 그의 저술의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에서 최남선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취미로서 수집된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그의 장서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소장본 중에서는 일본의 개인이나 사찰의 장서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14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요시다 도고(吉田東梧, 1864-1918)」(<http://kostma.korea.ac.kr>).



와세다대학교 소장 『오륜행실도』 권수제면의 장서인(오른쪽은 확대한 모습)

먼저 동양문고 소장의 『대가문회 大家文會』는 조선 중기의 문장가 유몽인 柳夢寅이 엮은 책으로, 1608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권수제면 우측 공란에 찍힌 물형인 物形印의 인문 ‘강본 岡本’, 권수제면 우하단 난외에 찍힌 인문 ‘강본장서기 岡本藏書記’, 우상단 난외에 찍힌 ‘염마암도서부 閔魔庵圖書部’는 모두 요코하마의 무역상이었던 오카모토 규지로 岡本久次郎의 장서인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있던 장서를 요시다가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와세다대학교 소장본 중에서도 이러한 예는 여럿 있다. 예를 들어 『어제오륜행실도 御製五倫行實圖』에는 요시다 도고의 장서인 이외에도 두 종의 장서인이 더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고등상업학교도서인 高等商業學校圖書印’과 ‘동경외국어학교도서 東京外國語學校圖書’로 이 책이 그의 소유가 되기 이전에는 이들 학교의 도서관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도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시기도 1910년 이후라고 보인다. 1909년에 『동경일일신문 東京日日新聞』의 기자가 요시다 도고의 집을 방문하여 작성한 기사에 의하면 “방

15 백진우,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 『열상고전연구』36, 2012, 33~70쪽;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위의 글.

에는 낮은 책상만 있을 뿐 책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시다 도고가 이렇게 많은 조선책을 보유하게 된 것은 『대일본지명사서』의 간행 이후 생활이 다소 여유가 생긴 뒤의 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¹⁶

그러나 본 『경복궁영건일기』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의 장서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언제 와세다대학교에 기증되어 도서관의 장서가 되었으며, 본 자료가 인터넷상에 등재된 시점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그의 소장 도서 중에 현재 소개된 자료 이외의 귀중본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들은 시급히 조사, 연구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이다.

번역서가 나오기까지

필자가 이 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6월 1일 일본의 군마현群馬県 아카호온천伊香保温泉에서 오랜 지인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선생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기미지마 선생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1권만이 남아있는 『경복궁영건일기』 전체가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경복궁에 대한 저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경복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온 기미지마 선생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인데, 이에 대해 한번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이 자료를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번역·출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귀국하는 대로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귀국 후 즉시 와세다대학교 소장의 『경복궁영건일기』를 다운로드하여 읽어본 결과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복궁영건일기』가 모두 9책으로 이루어진

16 윤소영, 「요시다 도고(吉田東梧)의 조선 연구」, 『日本思想』 29, 2015, 149~185쪽.

사실과 편찬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의 영본 1책은 와세다대학교에 있는 전체 1~9권 중 제2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6월 14일에 서울역사편찬원 관련자들과 숙의한 끝에 가능하면 와세다대학교 소장의 『경복궁영건일기』를 번역·출판하기로 하고, 먼저 와세다대학교 측에 자료의 이용에 대해 문의해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필자와 서울역사편찬원 관련자가 직접 일본으로 가서 와세다대학교의 관계자를 만나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연락을 담당한 기미지마 선생의 열성적인 노력과 중재 덕분에 서신으로 요청서를 보내고 승인서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6월 21일 ‘자료 이용 기획서’를 와세다대학교에 제출하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와세다대학교로부터 자료 이용에 대한 승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번역책임자를 서울시립대학교의 배우성 교수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번역팀의 구성은 배우성 교수에게 일임하여 본 번역서의 출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해 제

경복궁 중건의 모든 것에 관한 매일 매일의 기록

배우성(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 번역서는 와세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경복궁영건일기』(9책, 이하 『일기』로 약칭함)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일기』는 1865년(고종2) 4월부터 1868년(고종5) 7월까지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9권의 책이다. 책 제목 속에 들어 있는 ‘영건’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건축’에 해당하는 당시 용어다. 조선시대에는 ‘영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그 과정을 기록하여 ‘의궤’라는 이름의 책자로 남겼다.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 다른 어떤 것에 뒤지지 않는 일이었으므로 당연히 의궤가 남아 있을 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일기』는 경복궁 중건의 실상을 온전히 전해주는 유일한 사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기』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일지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각 별로 터 닦기, 상량, 도배, 현판에 이르는 전각 ‘영건’의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재활용품을 포함한 각종 건축 자재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조달되었는지 알 수 있다. 궐내로 흐르는 물길과 하수구가 언제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육조대로, 건춘문 앞, 영추문 앞 등 경복궁 주변지역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대원군에서 공사장 안팎의 인부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인간 군상들도 엿볼 수 있다.

매일매일의 기사는 대부분 날씨로 시작된다. 공사 진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비가 온 날은 강우량도 기록했다. 실제로 비가 와서 또는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멈춘 날도 있었다. 기사의 끝은 호조나 종친부 등에서 받은 원납전의 숫자 혹은 공사에 참여한 자원군의 출신지역 및 숫자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는 그날그날의 공사현황과 관련 현안에 관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 『일기』는 그 자체로 경복궁 중건에 관한 모든 것의 연대기인 것이다.

영건을 정당화하다

권1 첫머리에 붙어 있는 서문은 1865년(고종2) 3월 의정부 공사과정에서 발견한 돌 이야기로 시작된다. 거기에 “경복궁을 다시 지어 임금이 그곳에 살면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는 예언과 “이 돌을 보고도 아뢰지 않으면 역적”이라는 위협이 적혀 있었다. 이 소식이 ‘대원위 합하’를 거쳐 임금에게 보고된 뒤 드디어 경복궁 중건이 결정되었다 한다. 1865년(고종2) 4월 1일, 대왕대비가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두순처럼 신중한 입장을 보인 대신이 없지는 않았지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날 영건도감이라는 임시기구가 설치되고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책임자와 실무자도 임명되었다. 『일기』에는 그 세부규정과 명단이 들어 있다. 며칠 뒤 대왕대비는 재정 문제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해 백성들에게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원납’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받아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을 가진 원납전이라는 명목이 탄생했다.

영건도감은 경복궁, 종묘, 사직, 경모궁, 효문전, 북악산, 목멱산, 한강에서 터 닦기 시작을 고하는 제사를 드렸다(권1, 1865년 4월 10일). 경모궁은 사도세자의 사당이며, 효문전은 철종의 신주를 모시던 곳이다. 철종은 직전 임금이며, 사도세자는 정조 이후 모든 왕들의 혈통상 뿌리이므로 이 두 곳이 특별히 중요했던 것이다. 영건도감은 곧이어 옛 궁궐의 터를 확인하고 못과 수로를 뚫은 뒤 본격적으로 전각을 세우고 궁궐 담장을 쌓기 위한 일정도 논의했다. 전각 중 가장 먼저 공사가 계획된 곳은 교태전이었다.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며 상량하는 일체의 일정은 모두 미리 길한 날을 받아 두고 미리 정해진 그 날짜에 맞추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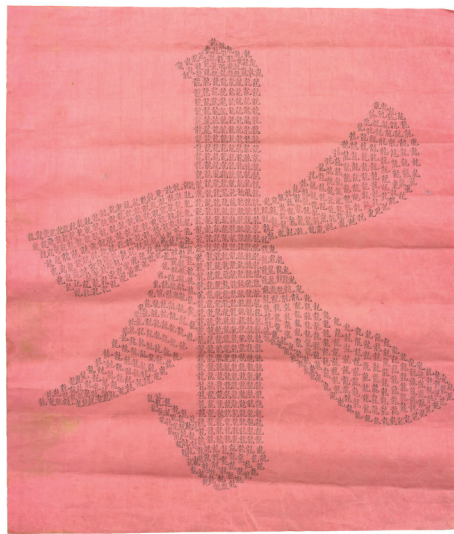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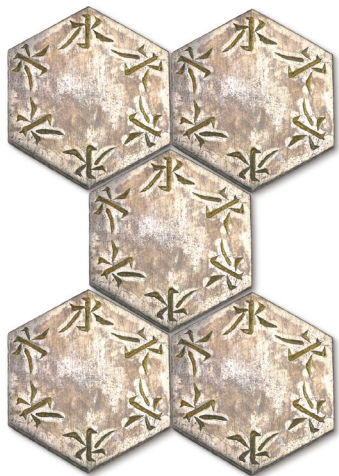
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를 시작하던 그 즈음 대원군은 지관을 불러다 옛 경복궁의 방위와 중건하는 경복궁의 방위를 측정하게 했다.(권1, 1865년 4월 27일) 지관의 보고에 따르면, 옛 터의 방위도, 중건하는 경복궁의 방위도 정확히 남향이어서 마치 중건하는 경복궁이 옛 터에 따라 방위를 따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한다. 중건공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왕조 초기의 옛 경복궁에서 찾으려 했던 분위기가 엿보인다. 영건도감의 입장에서 보면 경복궁 중건은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토목공사였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예언이 적힌 그런 돌이 발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일기』 곳곳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럿 확인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마도 『일기』의 편찬자는 중건공사가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것은 물론 영건도감의 생각을, 나아가 영건도감을 지배한 대원군의 의지를 충실히 읽어낸 결과일 것이다.

불의 기운을 제압하라

1865년(고종2) 5월, 공사가 막 시작되던 즈음 호남의 법성창에 소속된 조운선의 인부들 320명이 18개의 배 깃발을 앞세우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닻줄을 끄는 방식으로 썰매에서 베어낸 나무를 근정전 뜰 앞에 옮겨 쌓았다. 대원군은 그들이 가져온 배 깃발을 남겨두어 근정전 월대 위 네 면에 영원히 꽂아 두도록 명했다. 배 깃발은 “물을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는 물건”이므로 근정전에 꽂아두면 관악산의 불 기운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권1, 1865년 5월 6일) 1866년(고종3) 7월, 후원 연못 공사를 하다가 남쪽으로 난 옛 물길이 발견되었다. 이미 서쪽으로 물길을 낸 상태에서 옛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영건도감은 옛 방향에 맞추어 남쪽으로 새 물길을 내기로 결정했다. 옛 사람들이 관악산의 불길을 제어하기 위해 남쪽으로 물길을 낸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권5, 1866년 7월 1일)

경희루 연못을 준설한 진흙 속에서 옥돌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관악산 머리에 우물을 파서 불기운을 위로하네.”(권1, 1865년 5월 25일) 일종의 예언도참이



'수'자명 육각형 은판과 '수'자문 지류(국립고궁박물관)

지만 사실상 경복궁 중건을 주도한 대원군과 영건도감이 관악산의 불기운을 어느 정도 의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듬해인 1866년(고종 3) 1월, 영건도감은 훈련도감 장교 정응현을 관악산 꼭대기로 보내서, 그날 사시巳時, 즉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나무를 베어 솥을 만들게 했다. 정응현이 정북쪽 방향으로 솥을 걸어두고 베어낸 나무로 솥을 구워 6섬을 만들어 돌아왔다. 정확히 20일 후, 즉 26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되었다. 영건도감은 근정전의 북서쪽 그리고 경회루 북쪽 제방 위에다 정응현이 구워온 솥을 묻었다. 그냥 묻지 않았다. 『주역』이라는 책에서 물을 상징하는 감괘坎卦 모양으로 만들어 묻었다. 오로지 관악산의 화기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권4, 1866년 1월 6일)

불기운을 눌러야 한다는 기대는 전각의 상량 때 함께 올린 물품에도, 나아가 단청이나 현판 색깔에도 들어 있다. 1865년(고종 2) 10월 강녕전에 상량할 때, 순은으로 만든 돈은 육각 모양이었다. 여섯 귀퉁이 안팎에 모두 수水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무게는 6푼이다. 6을 고집한 것은 이 숫자가 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곧 불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권3, 1865년 10월 11일) 근정전을 상량할 때 함께 올린 진홍색 종이들에는 용이 그려져 있

거나 용龍이라는 글자 천 개로 수水라는 글자가 형상화되었다. 모두 불 기운을 눌러 제압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근정전과 경회루의 단청은 용과 구름의 형상을 표현하였는데, 모두 불 기운을 제압하려는 뜻이 들어 있었다.(권6, 1867년 2월 20일) 영건도감은 근정전, 강녕전, 교태전, 경회루, 광화문, 근정문, 건춘문, 신무문 등 주요 전각과 문의 현판 바탕색을 예외 없이 검정으로 결정했다. 역시 검정색이 불기운을 누르기 위한 상징색이었다.(권7, 1867년 4월 21일)

공사장 풍경

공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장인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다. 나무를 다루는 목수, 돌을 다듬는 석수,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뿐만이 아니다. 온돌이나 벽에 진흙을 발라야 했으며, 2인 1조가 되어 톱으로 나무도 잘라야 했다. 문짝이나 금속 장식처럼 전각 등에 들어가는 온갖 부속 자재도 만들어야 했다. 심지어 전각의 처마 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철망도 만들어 설치해야 했다.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장인들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나무와 돌 그리고 기타 각종 건축자재를 조달하는 일도 시작되었다. 특별한 곳에서만 나는 자재들은 그 지방에 품목과 수량을 배정하고, 개인 소유의 목재는 값을 주고 베어내 운송해 오게 했다. 영건도감은 어떤 기능을 가진 장인을 얼마의 품삯을 주고 동원했는지, 어떤 자재를 어떻게 얼마나 조달했는지도 상세히 파악했다.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서울을 지키는 세 군영은 경회루 연못의 제방공사나 궁궐 담장 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경회루 제방공사의 경우 담당 구간을 정할 때 추첨으로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석재를 조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크기도 크기지만 무겁기 때문이었다. 이 일을 맡은 것도 세 군영이었다. 돌은 큰 바위나 절벽에서 떼어냈다. 그것을 부석浮石이라 한다. 떼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옮기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삼청동에서 돌기둥 한 개를 떼어낸 뒤 멀지 않은 경복궁 공사장까지 인력으로 끌고 오는 데만 어영청 군사 300명과 하루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했다.(권1, 1865년 5월 26일)

소가 끄는 수레나 다른 기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훈련도감은 옥천암이라는 곳에서 석재



녹로(수원화성박물관)

두 덩어리를 떼어낸 뒤 각각을 수레 위에 실어 옮겼다. 하나의 수레는 각각 25마리의 소가 끌었다.(권1, 1865년 윤5월 3일) 수레 대신 화물 운송용 틀을 활용하거나 나무판 아래 바퀴 역할을 하는 둥근 통나무를 깔 뒤, 그 위에 돌을 얹어 옮겨오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큰 돌은 모두 수레로 운반하게 되었다. 돌이 아주 크고 무거운 경우 하나의 수레를 45마리의 소로 끌어오기도 했다. 가파른 언덕이나 좁은 길을 내려갈 때는 소의 반은 순방향으로, 나머지 반은 역방향으로 부려서 수레가 위험하게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권3, 1865년 11월 3일)

공사 현장에서는 녹로라는 기구가 사용되었다. 이 장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인데, 정약용이 수원 화성 공사를 위해 제안한 그것이다. 녹로는 효율성이 좋은 기구였지만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다. 흥미롭게도 공사장에 동원된 뱃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했다. 배에 돛을 매다는 일에 능숙했던 그들에게 공사장에 녹로를 설치하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권2, 1865년 7월 12일)

인부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발을 딛고 서거나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

필요했다. 『일기』에서 ‘부계’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도 건설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비계라 불리는 임시 계단 혹은 디딤판 위에서 일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공사현장에는 부계를 만드는 기능공들이 동원되었다. 광화문의 경우에는 2층의 부계를 만들었는데, 위층 부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지러울 정도였으므로 대나무로 난간을 만들고 그 겉을 포장으로 감싸기도 했다.(권2, 1865년 8월 1일) 완성된 부계 위로 짐꾼들이 대들보와 같은 건축자재들을 짊어 올렸다. 공사현장을 둘러보던 고종도 광화문에 이르러 그 부계 위를 올라가 보기도 했다.(권3, 1865년 10월 12일)

대원군의 그림자

『매천야록』은 황현이 한말의 역사를 적어놓은 일종의 야사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1864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 동안 나라 안이 온통 공포에 휩싸였다. 백성들은 혀를 깨물고 서로 경계하며 감히 조정의 일을 말하지 못하고, 항시 귀신이 문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 예전에는 하교를 내릴 때 반드시 ‘임금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첫머리에 썼지만, 이때 10년 동안에는 ‘대원위 분부’라는 다섯 글자를 사용했으므로 이 말이 안팎으로 유행했다.” 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그러나 황현은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매천야록』은 개인이 자기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책이지만, 『승정원일기』는 왕의 비서실이라 해야 할 승정원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의논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공식 기록이다.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되는 실록과는 달리 『승정원일기』는 일종의 일기책이어서 기록이 훨씬 생생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식 기록에서 대원군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원위 분부’라는 다섯 글자는 전혀 없다. 황현은 대원군 권력이 10년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말했지만, 『승정원일기』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승정원일기』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알려져 왔던 다른 어떤 공식 기록들도 대원군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기』는 조선왕실이 만든 기록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대원군의 실체를 가감 없이 보

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언이 적힌 돌이 ‘대원위 합하’에게 보고된 것을 계기로 경복궁 중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웅변해준다. 『일기』의 편찬자에 따르면, 273년 동안 역대 왕들이 이루지 못했던 경복궁 중건이 실현된 것은 “대원위 합하의 지혜로운 안목과 명확한 판단이고 임금을 잘 도운 결과”였다 한다. 『일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원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경복궁 중건을 명한 대왕대비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일체를 대원군에게 맡긴다.” 이제 임금의 생부는 경복궁 영건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영건도감을 통해 자기 권력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원군은 곧바로 영건도감의 여러 당상들을 소집하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사실상 거느리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원군은 공사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신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원군은 공사 초기 매일 공사장으로 출근하여 하루 온종일 집무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갔다.(권1, 1865년 4월 22일) 그는 현장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거의 모든 일에 직접 개입했다. 인부들에게 술과 안주, 밥과 고기국을 내려주기도 하고, 잡역을 면제해 주거나 상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아침하는 자들에게 장을 치게 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상과 낭청들을 위해 관복 대신 간편복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허락한 것도 그였다.

『일기』에는 황현이 말한 ‘대원위 분부’ 다섯 글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다. 그 대부분은 대원위의 분부를 받아 영건도감에서 각 감영에 내려 보낸 공문들이다. 그중에서도 1865년(고종2) 6월 영건도감이 ‘대원위 분부’를 받들어 팔도 감영과 유수부에 내린 공문은 압권이다. 이 문서의 논점은 분명하지만 섬뜩하다.

요지는 이렇다. “지금 사대부들은 원납을 수치로 여기고 민간의 부유한 자들은 인색하여 선뜻 원납하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원납을 기피하는지 그 이름을 자세히 보고받아 알고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책하는 꼴이 되리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다시 한 번 간곡히 권장한다. 전국 팔도의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이 문서의 취지를 담아 한글과 한문으로

적어서 백성들에게 원납을 독려하라. 원납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저버리고 임금의 명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전에 소액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재차 삼차 형편껏 더 납부한다 해도 안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일러 준 후에도 여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로 엄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모두 잘 생각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권2, 1865년 6월 24일) 이것이 ‘대원위 분부’와 원납전의 실체였던 것이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강제와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원통하게 납부하는 돈’이라는 비아냥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전각의 명칭을 정하는 데도 대원군의 입김이 미쳤다. 전각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던 1867년(고종4) 4월, 만춘전과 천추전으로 가정하고 지어 이미 상량문까지 올렸던 두 채의 전각 이름이 갑자기 연생전과 경성전으로 바뀌었다. 만춘전과 천추전이라는 전각 이름은 대신 사정전의 동서 전각의 이름이 되었다.(권7, 1867년 4월 21일) 그렇게 해서 강녕전 동서 전각과 사정전 동서 전각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된 것이다. 대원군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

일탈과 일상

평안도 은산현에서 백성들이 원납전을 모으고 있을 때 장령 벼슬을 한 김정헌이라는 인물이 원납을 방해한 일이 있었다. 영건도감은 김정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특히 원납에 비협조적일지도 모르는 다른 사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정헌을 의금부로 압송하여 신문한 후 멀리 유배하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은 대원군과 영건도감이 가졌을 그런 위기감 때문이었다.(권2, 1865년 6월 18일)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영건도감이 ‘대원위 분부’를 받아 전국 백성들에게 원납전을 독촉했던 것이다.

황현의 말을 감안하면, 대원군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크고 작은 일탈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공사 초기의 일이었다. 방효함 등은 민간에서 재력 있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재력에 어울리



풍속화에 나온 조리돌리기 모습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지 않는 소액을 원납했을 뿐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부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방효함 등은 결국 북을 지고 조리돌리는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북지위 조리돌리기’는 죄인에게 등에 북을 지고 마을을 돌게 하는 것이다.(권1, 1865년 4월 24일)

지방에서 거둔 원납전을 대납해주겠다면서 반아간 다음 그 돈을 값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함경도 사람 김용성은 원납전 3000냥을 서울까지 가져다 바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스스로를 포목상이라 주장하는 공이갑 등 5명이 매력적인 제안을 해 왔다.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서울에 남겨둔 돈이 4천~5천냥이 있다. 지금 여기 함경도에서 당신이 가진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액수만큼 환표換標를 써 줄 수 있다. 당신은 이 환표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우리 포목상 동업조합의 사무실에 제시하면 그 액수만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서울까지 3000냥을 싣고 가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현금을 조달해 쓸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은가?”

그 말에 속은 김용성이 돈을 건네고 환표를 받았다. 서울에 가서 환표를 제시했지만, 돈을 찾을 수는 없었다. 공이갑 등이 조합 사무실에 맡겨 둔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용성이 받은 그 환표는 원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위조 환표였던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간 김용성은 함경도 병영에 공이갑 등을 신고했지만, 병영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의 영건도감과 함경도의 남병영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느낀 김용성은 영건도감의 문을 두드렸다. 원납전 재정 확보가 시급한 영건도감은 함경도 남병영에 지시하여 사기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3000냥을 피의자들에게 받아내도록 명했다.(권4, 1866년 4월 20일) 『일기』에는 이와 유사한 환표 사기사건이 여러 건 확인된다. 이러한 일탈 행위는 당시 신용 거래의 실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조학석의 사례는 더 흥미진진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너무 가난해서 원납전을 낼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한다. 윤병덕에게 빌려준 돈 2200냥이 있었지만 돌려 받을 길이 없었다. 조학석은 영건도감이 나서서 채권을 추심해주면 그 돈을 원납하겠다고 제안했다. 조학석의 채권은 개인간의 사적 거래에서 생긴 것이어서 처음부터 원납전과는 무관했다. 영건도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영건도감은 ‘이미 조학석이 채권을 추심하여 원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올렸다면, 그 돈은 이미 공적인 기부금’이라고 판단하고, 채권 회수에 나섰다.(권7, 1867년 5월 6일) 원납전 징수액을 늘려야 할 영건도감과, 어차피 받지 못할 사적 채권을 영건도감에 넘겨 원납전을 냈다는 생색을 내려 한 조학석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가능한 일이었다.

영건도감은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군영 군사들의 급료 그리고 공사장 인부들의 품삯과 식비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일탈이 있었다. 어영청의 군사들 중 무려 80명이 거짓으로 기록하고 급료를 받아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건도감에서는 근정전 월대에 큰 북을 설치해 둔 뒤, 새벽에 북을 울려 인부들 명부와 인원 수를 대조했다. 임금은 확인된 숫자를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대조 과정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까지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웃한 다른 그룹에서 인부를 빌어 와 거짓으로 인원 수를 채우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생겼다.(권6, 1867년 2월 2일)

대원군이 마침내 세 군영 군사들을 동원해 인부들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명부와 인

원수를 대조하는 일을 하루에 세 번으로 늘렸다. 그 결과 238명에 달하는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었다. 대원군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도리어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치심을 자극하는 쪽을 택했다. 대원군의 예상대로 부정을 저지른 인부들은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했다.(권7, 1867년 7월 10일)

일탈과 단속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삶은 이어졌다. 인부들은 그렇게 지급받은 비용 중 적지 않은 돈을 공사 현장에서 소비했다. 영건도감에서 인부들에게 지급한 품삯은 호조가 정한 표준 임금에 비해 좀 더 많았다. 인부들이 숙식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돈이 풀리자, 공사장 주변에는 주점과 식당, 사탕장수와 담배장수, 심지어 지붕 없는 가마를 탄 기생들까지 몰려들었다. 대원군이 벌인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원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을 활기 넘치는 도회로 만들었다.

일러두기

1. 기본 지침

- 번역 대상 원문은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 소장 『景福宮營建日記』를 기준으로 삼는다.
- 총9권 중 1~4권의 번역문은 제1책, 5~9권의 번역문 제2책, 원문은 제3책으로 구성하였다.
-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며,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2. 건축, 유적, 지리, 나무, 음식 관련 각주

- 건축 등의 관련 각주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국역 영건일감』(국립고궁박물관 고문한국역총서 제5책, 2016)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영건 의궤 -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조선시대 의궤 용어 사전 I -왕실 전례 편-』(여찬영 외, 경인문화사, 2015)

3. 각종 표기

- 원문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 원문이 의도적으로 비워졌을 때는 □로 표기하였다.
- 각종 표기의 기준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승정원일기 번역지침 및 사례(영조대)(2014.07.14)』와 『推敲必知』를 따르며 본 번역에 주로 사용되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자병기

- 번역문 기준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명, 지명 등은 한자를 병기하고 같은 페이지와 동일한 기사 내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다.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러 번 표기할 수 있다.
- 관사명과 관직명 중 의정부, 홍문관, 이조, 영의정, 이조 판서 등 쉽게 알 수 있는 관사나 관직은 한자 병기를 하지 않는다.
- 난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어휘는 한자를 병기한다.
- 한글과 한자가 이음뿔일 때는 []안에 넣는다. 단, 이두음일 때는 []를 생략한다.

2) 보충역 표기

- 주어 또는 목적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에 내용을 넣는다.

예) 저는 그 사이 서울로 올라가 있어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張가는 도리어 〈돈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여

3) 전거 표기 방식

- 편년사료의 경우 왕의 재위연도, 월일까지 표기한다.

예) 『태조실록』 태조 4년 10월 7일

- 논문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역 영건일감』 민속원, 2016.

4) 부전지 표기 방식

- 원문에 부전지로 표기된 부분은 번역 본문의 시작 부분에 〈부전지〉로 표기하고, 끝나는 부분에 〈/부전지〉로 표기한다.

예) 〈부전지〉충친부는 이달 25일, 의정부는 28일에 모두 이등악二等樂을 내려주라는 명이 있었다.〈/부전지〉

5) 간주 표기

-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간주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흑룡黑龍(임진년)과 적서赤鼠(병자년)

6) 단위명

길이	尺		寸			分		釐/厘								
	척	자	촌	치	1/10 자	분	푼	1/10 치	리	리	1/10 푼					
넓이	石落		斗落			升落		結			負(卜)			束		
	석락	섬지기	두락	마지기		승락	되지기		결	목	부(복)	짐	목의1/100	속	못	짐의1/10
부피	石		斗			升[부피]		습			勺					
	석	섬	두	말	1/15 석	승	되	1/10 말	합	흙	1/10 되	작	사	1/10 흙		
무게	斤		兩			錢[무게]		分			釐/厘					
	근	근	냥	냥		전	돈	1/10 냥	분	푼	1/10 돈	리	리	1/10 푼		
기타	柄		枝			錢[화폐]		卷			笏			領		
	병	자루	지	자루		전	돈	1/10 냥	권	권		홀	홀		령	벌
기타	升[피륙]		同			注之		立			軸			株		
	승	새	동	동		주지	주지		립	뇨		축	축		주	그루

- 단위명은 다음 표대로 표기하고(음영 굵은 글씨), 필요한 경우 한자 병기한다.

7) 세주 및 소자小字

- 세주는 원문 입력 텍스트대로 ()로 묶는다.

8) 숫자 및 연도 표기

- 숫자 : 만 단위로 아래비야 숫자로 표기하고, 연결되는 숫자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2만 1468섬 3말 / 1만 570명 / 6, 7십명 또는 60~70명 / 120~130명 또는 1백2, 3십 명
- 연도 : 원문이 간지일 경우 원문대로 번역하고 괄호 안에 서기 연도와 재위년을 넣어준다. 예) 을사년(1785, 정조9)

9) 시간 표기

- 시간 표기는 12지시법(十二支時法)과 오경법(五更法)에 의거하여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다음과 같으며, 본문에 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한다.
 - 12지시법(十二支時法): 하루를 12등분으로 구분한 것
 - 자시(子時): 밤 11시 30분 ~ 오전 1시 30분
 - 축시(丑時): 오전 1시 30분 ~ 오전 3시 30분
 - 인시(寅時): 오전 3시 30분 ~ 오전 5시 30분
 - 묘시(卯時): 오전 5시 30분 ~ 오전 7시 30분
 - 진시(辰時): 오전 7시 30분 ~ 오전 9시 30분
 - 사시(巳時):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 오시(午時):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미시(未時):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신시(申時):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유시(酉時):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술시(戌時): 오후 7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해시(亥時):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 오경법(五更法): 해가 저서 뜨기 전까지 시간을 5등분한 부정시법(不定時法)이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기 때문에 경마다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초경(初更), 이경(二更), 삼경(三更), 사경(四更), 오경(五更)으로 표기한다.
- 기타 시간 관련 표기
 - 개동(開東): 동이 트는 새벽녘
 - 인정(人定): 매일 밤 1경(更) 3점(點) 말에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린 것.
 - 파루(罷漏): 매일 밤 5경(更) 3점(點)에 쇠북을 33번 쳐서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한 것.

10) 날씨 표기

- 조선 시대 측우기록인 『풍운기(風雲記)』를 보면 비의 종류를 강우량의 정도, 혹은 비의 강약에 따라 다음과 8단계로 구분한다. 본문에서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 미우(微雨), 세우(細雨), 소우(小雨), 하우(下雨), 쏜우(灑雨), 취우(驟雨), 대우(大雨), 폭우(暴雨)
- 읍진(洑塵): 겨우 먼지를 축일 정도로 비가 적게 온 것을 가리킨다.

경복궁영건일기

1

경복궁영건기

景福宮營建記

우리 성상께서 즉위한 이듬해인 을축년(1865, 고종2) 3월, 의정부를 수개¹修改할 때 대청大廳의 계체¹ 아래에서 평평한 돌 하나가 나왔다. 그 색은 까맣고 그 모양은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졌다. 새겨진 내용에 이르기를, “계해년(1863, 고종즉위) 말에서 갑자년(1864, 고종1) 초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더라도 나라를 이을 자손이 또 끊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복궁을 다시 짓고 보좌²寶座를 옮기면 성자신손²이 대를 이어오면서 국운이 다시 연장되고 인민이 부유해지고 번성하리라.” 하였다. 아래의 제목에는 ‘동방노인비결³東方老人秘訣’이라고 하였고 뒷면에는 “을축년 3월 일 의정부를 수개할 때 이 돌이 드러날 것이니, 이를 보고도 아뢰지 않으면 동국東國의 역적이다.”라고 하였다.

이 비기가 나온 것은 이달 그믐이다. 역부⁴役夫가 얻어서 대원위 합하⁵大院位閣下에게 바쳤고 임금께 아뢰자 이내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조가 있게 되었다. 대원위 합하가 먼저 3만 꿩미[緡]의 돈을 내어 창설하게 하였으니, 바로 4월 4일의 일이다. 이에 벼슬아치와 어린아이부터 하인과 천인에 이르기까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서로 알리고 마음을 다해 원납하였다. 5일 뒤인 임신⁶壬申에 대왕대비께서 특별히 10만 금을 내려 공사비용에 보태도록 하

1 계체(階砌): 뜰에서 건물로 오르내리는 돌층계, 즉 섬돌이다.

2 성자신손(聖子神孫): 임금의 자손(子孫)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였다. 바야흐로 공사가 시작되자 멀고 가까이에 사는 백성들이 삼태기와 가래를 가지고 식량을 지참하여 서로 다투어 달려오는 것이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오는 것과 같았는데, 하루에 1만을 헤아렸다.

아! 예전에 나라를 건국할 때 무학³이 미래의 운수를 내다보면서 ‘청우가 다시 도움을 정하면 아마도 호중⁴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⁵라고 하였으니 이 궁궐의 중건이 어찌 기수⁴가 부흥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기이한 기록이 때마침 나오고 백성들이 기꺼이 부역하러 오니 진실로 천의⁵와 인심⁶이 부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73년 동안 열성조⁷께서도 겨를이 없어 이루지 못한 일이 뜻밖에도 금방 완성될 희망이 생겼으니 이는 대원위 합하의 지혜로운 안목과 명확한 판단이고 임금을 잘 도운 결과일 것이다. 억만 세대 동안 무궁할 아름다운 나라는 실로 이것에 기반할 것이니 아름답고도 훌륭하다. [무학⁸은 고려조 경양위⁹ 성익재⁵의 서자¹⁰로 이름은 사겸¹¹이다. 배꼽 아래에 ‘귀鬼’자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기이하게 생각되어 아비에게 쫓겨났다. 황삼노인¹²으로부터 삼법문¹³을 얻어 기묘하게 귀신 변화의 정수¹⁴를 빼앗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으며 무학을 법명¹⁵으로 삼았다. 태조¹⁶가 도움을 정하라고 명하자 무학이 말하기를, “저 한양¹⁷ 땅을 바라보니 천문¹⁸으로 논하면 천화동인¹⁹ 궤에 속하고, 지리²⁰로 논하면 산천대축²¹ 궤에 속합니다. 흑룡²²과 적서²³(병자년)에 남북의 병란이 있으며 가뭄을 자주 겪게 되고 화재도 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궁수²⁴로 말하자면 바로 법령이 한결같이 나오는 형상으로 왕자, 대군, 종족, 형제가 필시 많을 것이니 왕도²⁵에 부합합니다. 중후반의 운세는 성주²⁶와 명신²⁷이 때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정사를 하게 됩니다. 청우²⁸가 다시 도움을 정하면 대업을 다시 일으키고 아마도 호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호중’은 태평한 마을을 말합니다. ‘아마도²⁹’라는 글자는 때에 따라 변통하여 정사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하소서.”라고 하였다. 국왕이 그 말을 깨닫고 칭찬과 감탄을 그치지 않았다.]

3 청우(靑牛)가 … 것이다: 청우는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소를 말하며, 호중은 안휘성(安徽省) 봉양현(鳳陽縣)에 있는 호수(濠水)를 말하는데 경치가 매우 좋아서 장자(莊子)와 혜자(惠子)가 노닐었다고 한다.

4 기수(氣數): 길흉화복(吉凶禍福)의 운수(運數)를 일컫는다.

5 성익재(成翊齋): 원문은 ‘成翊齋’로 되어 있으나 『동사약(東史約)』과 『용이와집(龍耳窩集)』에 따라 ‘成翊齋’로 번역하였다.

태조가 즉위한 지 3년인 갑술년(1394, 태조3)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을해년(1395, 태조4)에 새로운 궁궐이 완성되었다.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이 경복궁(景福宮)이라 이름 짓고 말하였다.

“신의 생각에 궁궐은 인군이 정사를 하는 곳으로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이고 신민들이 다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장엄하게 만들어 존엄을 보이고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 보면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 궁전(宮殿)의 호칭은 혹은 이전 이름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바꾸기도 하였으나 그 존엄을 보이고 감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그 의의는 같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3년 만에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시고 먼저 종묘(宗廟)를 세운 다음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듬해 10월 을미에 전하께서 친히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고 선왕(先王)과 선후(先後)께 새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군신들에게 새 궁전에서 잔치를 여셨으니 대개 신(神)의 은혜를 넓히고 후대에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술이 세 순배가 돌자 신도전(道傳)에게 명하시기를, ‘지금 도읍을 정하여 종묘에 제사 지내고 새로운 궁전이 완공되어 군신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고 여기에서 잔치를 열게 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일찍 궁전의 이름을 지어 궁전이 나라와 더불어 길이 아름답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은 명을 받들고 삼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주아⁶의 ‘이미 술에 흠뻑 취하였고 이미 덕에 배가 불렀도다. 군자(君子)께선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소서[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라는 문구를 외워 새 궁전의 이름을 ‘경복궁(景福宮)’이라고 짓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자손들과 더불어 만년 동안 태평한 대업을 향유하시고 사방의 신민들 역시 영원토록 보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춘추(春秋)』에 ‘백성들의 힘을 중히 여기고 토목 일을 삼가야 한다[重民力謹土功].’고 하였으니 어찌 인군(仁君)된 자가 백성들을 부려 자신을 받들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가로이 넓은 집에 거처할 때는 가난한 선비를 덮어 줄 생각을 하시고 서늘한 바람이 전각(殿閣)에 불어오면 맑은 그늘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만백성의 받들음을 저버리지 않게

6 주아(周雅): 『시경(詩經)』의 「대아(大雅)」와 「소아(小雅)」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통훈대부 행 한성부 주부 원세철⁷이 삼가 쓰다.

[을축(1865, 고종2) 4월부터 무진(1868, 고종5) 7월까지 일기를 주관하여 9권을 찬출^{撰出} 하였다.]

7 원세철(元世澈): 1817년(순조17)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1864년(고종1) 음서로 효문전(孝文殿) 참봉이 되어 벼슬길에 나갔으며, 1866년 영건도감의 낭청이 되었다. 1867년 한성부 주부를 거쳐 1868년 임실 현감, 전주 판관, 영천 군수, 밀양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을축년^{1865, 고종2} 4월

1일

맑음

2일

맑음

○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경복궁은 바로 우리 왕조가 설 때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정궁[正衙]이다. 규모는正大하고 위치는 엄숙하니 성인聖人의 심법心法을 우리러 볼 수 있다. 정령政令의 시행도 정도正道에서 나오지 았음이 없어 팔도의 백성들이 모두 복을 입은 것이 이 궁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병란으로 불타 버린 뒤 지금까지도 중건하지 못하여 뜻 있는 이들이 탄식해 온 지 오래되었다. 지금 의정부가 다시금 새로워짐에 따라,⁸ 국가가 융성할 시기에 민물民物이

8 지금 의정부가 … 따라: 의정부는 비변사가 생긴 이래로 실제적인 행정 기능이 약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1864년(고종1) 1월 이후 의정부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2월 비변사에서 의정부와의 분장절목(分掌節目)을

변창하고 훌륭한 이들이 등용된 것을 매양 생각하면 공경히 송축하며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또 돌이켜보면, 익종⁹께서 정사를 대리하실 때도 여러 번 경복궁에 행행하시어 그 터를 둘러보시면서 분연히 중건할 뜻을 가지셨지만 이루지 못하였고, 헌종^{憲宗}께서도 여러 번 그 뜻을 계승하려 하셨으나 또한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다. 아! 오늘을 기다림이었던가. 지금 우리 주상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도 일찍이 <경복궁을> 유람하신 적이 있었고, 요즈음에는 매양 ‘조종조께서 이 궁궐에 계실 때 태평스럽던 기상이 지금은 어찌하여 옛날 같지 않은가.’라고 탄식하셨다. 이는 조상의 사업을 계승한다는 성의^{聖意}일 뿐만이 아니라 도량의 크고 넓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생령^{生靈}들의 복이자 무궁할 터전이 실로 여기에 기초할 것이므로 내 마음에 경하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궁궐을 중건하여 중흥의 대업을 이루려면 여러 대신과 일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시원임 대신은 내일 사찬¹⁰ 뒤에 머물러 기다리라.”[사찬은 『소학^{小學}』 제3권 강^講을 마친 뒤의 책례^{冊禮}이다.]

3일

맑음

전교하였다.

“오늘 입시할 때 호조 판서도 함께 입시하고, 2품 이상은 빈청¹¹에 와서 모이라.”

○시원임대신(영종추부사 정원용^{鄭元容}, 영돈녕부사 김좌근¹², 판돈녕부사 이경제^李

올려 의정부의 담당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의정부는 평안·함경 감사 및 사도(四都) 유수(留守)의 추천권을 확보했으며, 외교와 군사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행정을 관할하게 되었다.([『고종실록』 고종 1년 2월 11일])

- 9 익종(翼宗): 순조의 세자이며 헌종의 아버지이다. 이름은 영(暻),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현(敬軒)이다. 1812년(순조12)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27년(순조27) 대리청정을 하면서 인재 등용과 형옥의 신중한 처리 등 위민정책의 구현에 노력했으나 대리청정을 수행한 지 4년 만에 죽고 말았다. 이후 그의 아들 헌종이 즉위한 뒤 왕으로 추존되어 익종이라 하였다. 묘호는 문호(文祜), 능호는 수릉(綏陵)이며, 시호는 효명(孝明)이다.

- 10 사찬(賜饌): 국왕이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내려 주거나 내려 준 음식을 말한다.

- 11 빈청(賓廳): 궁중에 설치한 고위 관료들의 회의실이다. 경복궁에는 근정전 서남쪽에 위치한 승정원의 남쪽에 있었다.

- 12 김좌근(金左根): 『승정원일기』에는 김흥근(金興根)으로 되어있다. 김흥근과 김좌근 모두 이때 영돈녕부사였으므로 어떤 기록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둘 다 입시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발언을 한 사람은 김좌근이다.

景在,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화성 유수 이유원李裕元), 호조 판서(이돈영李敦榮)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대왕대비전이 말씀하셨다.

“어제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에 대해 명하였는데, 경들은 들었는가?”

정원용이 아뢰었다.

“경복궁 중건은 몇 백 년 동안 미처 행하지 못한 일로 열성조께서 유념하시던 바이며, 옛날의 명망 있는 석학들의 논의도 한결같았습니다. 이번에 명을 받들게 되자 대소 신민들이 모두 축하하고 있습니다. 무릇 궁실을 짓는 데는 먼저 계획이 있는 뒤에라야 경영을 시작할 수 있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우선 그 터를 살펴본 뒤 전각 중 먼저 건축할 것과 목재, 석재 등 물자와 재원, 백성의 노동력을 모두 헤아려 본 뒤에야 공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왕대비전이 말씀하셨다.

“국가에서 진실로 경영하려고만 한다면 어찌 완성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예전에 이 궁궐에 머물던 때는 백성과 물자가 풍성하여 태평성대라는 칭송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상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를 경영할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정원용이 아뢰었다.

“당시는 어진 임금과 훌륭한 신하가 성대하게 모여, 백성들은 안정되고 물자는 풍성하였으므로 태평하고 화락한 기상이 있었습니다.”

김좌근이 아뢰었다.

“어제 내리신 자전의 하교는 어조나 뜻이 매우 간절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겨를이 없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만약 새로 중건한다면 이는 오래된 나라를 유신維新하는 일이니, 누군들 찬양하고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일이 매우 중대하나 재력도 갑자기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조두순이 아뢰었다.

“옛 궁궐의 중건을 300년 동안 겨를이 없어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밝고 빛나게 유신하라는 훌륭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말하는 구물舊物을 다시금 빛나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경사스럽고 다행입니까. 다만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재물이 부족하니 사치스러운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리면 신과 같이 용렬한 자는 막막하여 헤

아릴 수 없지만 대저 국가에 대역大役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을 적절히 부려야 하니 이른바 신身이 있으면 용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초에 축성할 때도 역시 이와 비슷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억지로 결정해서는 안 되니 조정의 의논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결재를 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라.”

이경재가 아뢰었다.

“이번에 옛 대궐을 중건하는 일은 수백 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국가 재정은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군색할까 걱정이 되는 형편이니 장차 어떻게 조치해서 마련하겠습니까. 실로 백성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려면 형편상 앞으로 거두어야 하는데, 절약할 방도는 일을 담당할 신하가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이유원이 아뢰었다.

“옛 대궐을 중건하는 일은 그 천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서민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일에 자식이 달려오듯 할 것이고, 재원 문제는 일을 담당할 신하가 마련할 것이니, 신은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김병학이 아뢰었다.

“옛 대궐을 중건하는 일은 천명을 새롭게 할 기회로서 만세의 태평한 기틀이 실로 여기에 근거할 것이니, 신은 흠양과 경축하는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백성의 힘을 빌리는데, 이것이 이른바 자식이 아버지의 일에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재용財用에 관해서는 일을 맡은 신하가 마땅히 차차로 계획할 것이니,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돈영李敦榮이 아뢰었다.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은 오랫동안 조정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자전의 하교를 만들게 되니 누군들 흠양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부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같은 것은 자연 묘당에서 계획할 것이니, 신은 오직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조두순이 아뢰기를,

“명을 이미 내렸으니 영건도감^{營建都監}의 당상^{堂上}과 낭청¹³을, 승정원^{承政院}에서 정관¹⁴을
패초¹⁵하여 정사를 열게 한 다음 먼저 차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왕대비전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하라.”

이어 전교하였다.

“이번의 중건은 오로지 백성을 위한 계획인데, 어찌 먼저 백성의 힘을 소비할 수 있겠는가?”

정원용이 아뢰었다.

“옛 제도에도 1년에 3일간 백성의 노동력을 썼습니다. 이렇게 큰 국가의 역사에 어찌 백성들이
노동력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니 스스로 그 노고를 잊을 것
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재정은 오히려 둘째 문제입니다. 목재와 석재를 수송할 때에 백성을
노역시키는 일이 매우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을 담당한 이들이 백성들의 실정을 살피
고, 백성들의 노고에 마음을 써서 일의 형편에 따라 힘을 펴도록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조두순이 아뢰었다.

“나라의 큰 역사에 백성들이 나와 일을 하는 것은 좌상이 아뢴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의
일에 달려오는 것과 같은 의리입니다. 무릇 나라의 역사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쓰는 것은 이
미 전례가 많습니다.”

대왕대비전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단지 백성들의 노동력만 쓸 것인가?”

조두순이 아뢰었다.

“비단 서민들 뿐만이 아닙니다. 위로는 공경^{公卿}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
지 당연히 모두 노동력을 낼 것입니다.”

13 낭청(郎廳): 조선 후기에 실록청·도감(都監) 등의 임시기구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 벼슬로 각 관서에서 차출되었다.

14 정관(政官):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 속하여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리로 전관(銓官)이라 하였다.

15 패초(牌招): 국왕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이다.

대왕대비전이 말씀하셨다.

“이처럼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일체를 대원군에게 맡긴다.
모든 일은 반드시 의논해서 결정하라.”

조두순이 아뢰었다.

“마땅히 하교대로 하겠습니다.”

○사알¹⁶에게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였다.

“2품 이상이 의논한 내용을 승정원에서 봉입捧入하게 하라.”

이에 모든 신료가 주의¹⁷하는 데 칭송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전교하였다.

“영건도감의 도제조는 영의정 조두순과 좌의정 김병학으로 하라. 제조는 흥인군(최응最應),¹⁸
좌찬성 김병기金炳冀, 판부사 김병국金炳國, 겸 호조판서 이돈영李敦榮, 대호군 박규수朴珪壽,
중정경宗正卿 이재원李載元을 차하¹⁹하라. 대사성 이재면李載冕, 부호군 조영하趙寧夏, 조성
하趙成夏를 아울러 부제조에 차하하라.”

○전교하였다.

“삼영三營의 장신將臣, 총융사總戎使, 좌우변 포도대장을 모두 영건도감 제조로 더 차하하라.”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 어영대장 허계許契, 금위대장 겸 좌변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 총융사 이현직李顯稷, 우변
포도대장 이주철李周喆이다.]

○당일 정사에서 도청²⁰의 네 자리 단말은 부사과 이명응李明應, 이창호李昌鎬, 홍원식洪遠植, 수

16 사알(司謁): 사알은 액정서(掖庭署)의 최고위직으로, 궁중에서 국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17 주의(奏議):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어 의논하는 것을 말하거나 올리는 글을 의미한다.

18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이다.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의 아들이고,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형이다. 이최응은 1865년(고종2) 4월 영건도감 제조를 지냈으며, 9월에는 판의금부사, 호위대장 등에 임명되었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뒤에 좌의정을, 1878년 영의정이 되었다. 1881년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때 유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홍재학(洪在鶴)은 이최응의 처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하기도 하였다.

19 차하(差下): 관직 또는 특정 직무에 차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도청(都廳): 도감 내 중간 관리직의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진척 상황을 관할하였다.

찬 이종정李鍾正이다.[이종정은 종정경宗正卿과 음훈이 서로 비슷해서 단자를 올려 종준鍾濬으로 바꾸었다.²¹⁾

○낭청 10자리 단망은 호조 정랑 임면수林冕洙, 공조 정랑 김헌진金獻鎭, 선공감 부정 홍배후洪配厚, 한성부 서윤 홍재원洪在元, 선혜청 낭청 한교원韓敎源, 군자감 판관 정유수鄭愔秀, 광흥령廣興令 김우근金友根, 형조 좌랑 박헌양朴憲陽, 공조 좌랑 남종우南鍾友, 와서 별제瓦署別提 이상순李象恂이다.

○감조관²²⁾ 9자리 단망은 사옹원 직장 윤홍선尹弘善, 상의원 직장 임경준任慶準, 군자감 봉사 정직용鄭稷容, 예빈시 직장 조학재趙鶴在, 내자시 봉사 이준영李俊永, 의금부 도사 이만시李晩蓍, 선공감 봉사 이경로李景魯, 돈녕부 참봉 홍순궁洪淳肯, 제용감 봉사 정대림丁大林이다.

○대원위가 도제조, 여러 당상들과 관상감에서 회동하였다.

○영건도감 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본 도감에서 응당 행해야 할 일들을 전례를 참고해 마련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입니다.”

－ 낭청은 14원이다. 그중 4원은 도청都廳이라 칭하며, 그 나머지 10원은 3방房으로 나누어 직임을 살핀다.

－ 감조관은 9원이다.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에서 각각 3원씩 감독한다.

－ 도감의 처소는 예조에 설치한다.

－ 당상, 도청, 낭청, 감조관은 본사本司의 사진仕進을 면제하고, 모든 공회²³⁾에 참여시키지 말며, 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除服制式暇], 제사에 차출하는 것을 보류한다.

21 이에 대한 이종정의 상소는 『승정원일기』 고종 2년 6월 20일에 나온다. 부교리 이종정은 면직을 비는 소장에서 자신의 이름인 종정(鍾正)과 직명인 종정(宗正)이 글자는 달라도 음이 서로 같아 장애되는 일이 많아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나 이름이 조적(朝籍)에 실려 있어 감히 멋대로 할 수 없기에 왕에게 이름을 종준(鍾濬)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뢰고 있다.

22 감조관(監造官): 경복궁 영건도감에서는 주로 7품 관료들이 감조관에 임명되었고, 낭청을 보좌하여 각 방(房)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23 공회(公會): 관청의 일이나 공사(公事)를 의논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의를 말한다.

- 당상, 도청이 사용할 인신印信 각각 1과顆는 예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
- 사용되는 종이, 붓, 먹은 각 해당 관사에서 헤아려 바치도록 한다.
- 별공작 감역관別工作監役官은 선공감繕工監에서 택하여 정하게 한다.
- 각 도各道의 시급한 공사公事는 규례대로 파발을 보내어 알린다.
- 각 사各司에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관리들은 입계入啓하여 논죄하며 하인인 경우에는 직접 치죄하되 각사에 분부할 때는 분패²⁴를 사용한다.
- 궐內闕內 대령 낭청待令郎廳은 다른 곳의 규례대로 입직하되, 무신 겸 선전관이 돌아가면서 직임을 살핀다.
- 모든 목재와 석재를 운송하는 수레와 복마²⁵는 한성부와 군문에서 가져다 쓴다.
- 각색 장색²⁶은 한성부에서 영부領付하게 하되 액정서,²⁷ 여러 궁가宮家와 군문, 상사上司를 막론하고 소속 및 조예皂隸, 나장羅將을 데려다 사역시킨다.
- 치목治木과 치석治石을 할 때 철을 제련하는 야로冶爐가 없어서는 안 되니, 가가²⁸를 치목과 치석 근처에 짓는다.
- 수직 군사守直軍士 10명은 병조에서 정하여 보내게 한다. ○도청방都廳房에는 4명이, 일방, 이방, 삼방에는 각각 2명씩 이날부터 시작하여 고립²⁹으로 사역한다.

24 분패(粉牌): 나무 조각을 길쭉하게 만들어 흰 분을 발라 사용한 목패이다. 왕이 당하관을 부를 때, 또는 동궁이 신하를 부르는 경우에 명패로 사용되었다.

25 복마(卜馬): 짐을 운반하는 말로 태마(駄馬)라고도 한다.

26 장색(底色): 각종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건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비슷한 용어로 공장(工匠), 장인(匠人), 공인(工人) 등이 있다.

27 액정서(掖庭署): 조선 시대 궁궐 내에서 왕명의 전달, 알현 안내, 국왕이 쓰는 붓과 벼루의 관리, 궁중의 자물쇠 관리, 궐内の 각종 행사준비 및 시설물 관리, 청소, 정돈 등을 맡은 관청이다. 고려의 액정국(掖庭局)을 계승하여 설치한 것으로, 1392년(태조1) 관제 제정 때 액정서로 개칭하고 환관직으로 지정하여 문무관 정직과 구분하였다. 종7품 이하는 보통 별감(別監)으로 통칭되었다. 액정서는 1894년(고종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28 가가(假家): 임시로 지은 건물을 말한다. 의례를 행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29 고립(雇立):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이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일을 시키고 이에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一 응용잡물 應用雜物 가운데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계품을 하지 말고 도감에서 곧바로 이문^移文하여 가져다 쓴다.
- 一 미진한 조건은 추후 마련한다.

낭청^{郎廳} 감조관 분방별단^{分房別單}

일방^(치목 治木, 철물 鐵物, 번와 燔瓦를 담당한다.)

낭청 임면수^{林冕洙}, 김헌진^{金獻鎭}, 홍배후^{洪配厚}, 홍재원^{洪在元}

감조관 임경준^{任慶準}, 정직용^{鄭稷容}, 윤홍선^{尹弘善}

이방^(부석 浮石, 치석 治石, 지정 池定과 정초³⁰의 입배³¹를 담당한다.)

낭청 한교원^{韓敎源} 정유수^{鄭楡秀} 김우근^{金友根}

감조관 조학재^{趙鶴在}, 이준영^{李俊永}, 이만시^{李晩著}

삼방^(은구³² 축성 築城과 그에 딸린 개기³³를 담당한다.)

낭청 박헌양^{朴憲陽}, 남종우^{南鍾友}, 이상순^{李象恂}

감조관 이경로^{李景魯}, 홍순궁^{洪淳肯}, 정대림^{丁大林}

별간역³⁴

전 교수^{教授} 이해준^{李海準}, 전 별제^{別提} 이해두^{李海斗}, 전 군수 강윤^{姜潤}, 사역원 교수 김재신^{金載信}, 전 중군 손흥윤^{孫興允}, 전 오위장 김재수^{金在洙}, 전 첨정 김재형^{金在衡}, 전 영장 임상현^{林相賢}, 수문장 김상우^{金相友}, 전 판관 임봉장^{林鳳章} 등은 본 도감 초기³⁵에 따라 차하하였고, 전

30 정초(定礎): 초석(礎石: 주춧돌)을 처음으로 놓는 공정이다.

31 입배(入排): 의식이나 연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설(排設)하는 일, 즉 벌이어 차려 놓는 일이다.

32 은구(隱溝): 땅속에 묻은 수채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만든 시설이다.

33 개기(開基): 공사를 하려고 터를 닦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4 별간역(別着役): 일반 장인보다는 상위의 존재로서 신분적으로도 한량(閑良) 이상의 상급 무인이다. 별간역은 일반 장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한 기술을 처리하였고, 자재 조달, 새로운 공사 기법이나 도구의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35 초기(草記): 서울 각 관아에서 정무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략히 적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이다.

첨지 박기준(朴基駿), 전 정(正) 김석준(金奭準)은 추가로 차하하였다.

계사(計士)

전 행 산학별제(行算學別提) 이석환(李錫桓), 전 행 산학별제 윤기정(尹岐楨), 전 행 산학별제 홍석정(洪錫鼎), 전 행 산학별제 최석륜(崔錫崙), 전 행 산학별제 이교선(李敎善) 전 행 산학별제 이시성(李時聖), 행 산학별제 이해만(李海萬)

구료관³⁶

전 첨정 정동빈(鄭東賓), 전 첨정 안병익(安秉益), 전 직장 정집(鄭楫(이상 전의감(典醫監)
전 직장 이명석(李命錫), 전 직장 고훈(高薰), 전 직장 이장환(李章桓(이상 혜민서(惠民署)
이상 6인의 의학(醫學)이 정명(精明)하지 못하여 다시 7인을 뽑았다.

전의감 전 정(正) 최성협(崔性協), 전 정 정동빈

전 정 변수륜(卞壽崙), 전 직장 정집

혜민서 전 직장 이명석, 전 봉사(奉事) 윤귀정(尹龜楨)

전 참봉 김동익(金東翼), 전 참봉 정의경(鄭宜慶)

패장³⁷

지복록(池福祿(어영청 별무사 승정대부), 강민수(姜民秀(금위영 교련관 가선대부), 정응현(鄭應賢(훈련도감 교련관 가의대부), 이종혁(李宗赫(훈련도감 교련관 가선대부), 염진영(廉鎭榮(금위영 별무사 승록대부), 박종섭(朴宗暭, 박영춘(朴英春(어영청 별무사 가의대부), 인완손(印完孫, 이용철(李龍喆(어영청 별무사 가선대부), 염진일(廉鎭一, 윤정묵(尹正默(전 오위장 절충장군), 서인보(徐麟普(훈련도감 별무사 절충장군), 김시엽(金時燁, 김계완(金啓完, 박태형(朴台炯(어영청 교련관 한량), 김정화(金鼎和(어영청 교련관 절충장군),

36 구료관(敎療官): 환자의 치료를 위한 관리이다. 경복궁 영건에는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소속 의관들이 발탁되었다.

37 패장(牌將): 현장에서 장인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관리로, 대체로 기술적인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희성李熙誠(훈련도감 교련관 자헌대부), 이경배李敬培(어영청 별무사 절충장군), 이종륜李鍾倫(금위영 별군관 절충장군), 김기석金箕錫(훈련도감 별무사 절충장군), 차창신車昌信(금위영 별무사 자헌대부), 이
해겸異海謙(훈련도감 교련관 가선대부), 송응필宋應弼(금위영 별기위 가의대부), 이원길李元吉(어영청 별
무사 절충장군), 김희순金喜順(어영청 별무사 한량), 이종식李宗植(훈련도감 교련관 한량), 이황필李璜
弼(금군 가선대부), 이사복李士福(어영청 별무사 가선대부), 윤석신尹錫臣(훈련도감 별무사 자헌대부), 반
경연潘敬淵(어영청 교련관 절충장군), 이완손李完孫(훈련도감 교련관 가선대부), 강경훈姜慶勳(훈련도감
별무사 가선대부), 차준모車俊模(훈련도감 별무사 한량), 송완석宋完錫(훈련도감 교련관 한량), 이명길李
命吉(어영청 별무사 한량), 정치홍鄭致弘(어영청 별무사 절충장군), 장덕령張德齡(총융청 교련관 절충장
군), 박수명朴守命(금위영 별무사 출신), 김응규金應奎(금위영 별기위 출신), 이성춘李盛春(어영청 별무사
출신), 최명린崔明麟, 박진규朴鎭圭(어영청 교련관 가선대부), 김종덕金鍾德(훈련도감 교련관 가선대부),
김원철金源哲(금위영 교련관 가의대부), 박치영朴致英, 김종호金鍾浩, 김흥서金興瑞

담군패장擔軍牌將

오치홍吳致弘, 장만규張萬奎

대령 포교待令捕校

최영신崔永信(좌변포도청 군관), 김한성金漢性(우변포도청 군관)

서리(서원書員, 고지기[庫直], 사령使令도 배속하였다.)

도청都廳

김학준金學準, 김완조金完祖, 정석희鄭錫禧, 이규환李奎煥, 정석진鄭錫眞, 윤태선尹泰善, 윤명식尹
命錫, 김유인金裕仁, 이응상李應相(이상 호조), 한창기韓昌基, 최진태崔鎭泰(이상 훈련도감), 김한
영金漢永, 엄진우嚴鎭祐(이상 병조), 김학윤金學胤, 김신묵金信默, 김학돈金學敦(이상 종친부), 장원
식張元植, 김영진金永鎭(이상 의정부), 윤태신尹泰信(양향청糧餉廳), 김궁원金兢遠(선혜청), 김영진金
英鎭[경연經筵]

서사書寫 안광의安光毅(호조), 김택주金宅壽(병조)

고지기 황중후黃鍾厚, 한성민韓性敏, 서상필徐相弼, 신재영申在永(이상 호조), 홍성흡洪成洽, 김
진한金鎭漢(이상 선혜청), 조영진趙永鎭(사복시), 이봉래李鳳來

일방一房

김우정金禹鼎, 최두길崔斗吉, 김선웅金善應, 조석린趙錫麟(이상 호조), 박기호朴基祐, 유희복劉熙
復(이상 내각內閣), 김홍기金弘基(호조), 김한영金漢榮(어영청), 이기석李岐錫(금위영), 김동옥金東
沃(병조), 석완영石完永(선혜청)

서원 조응하曹應夏(내섬시)

고지기 박대용朴大鏞(예빈시)

이방二房

김시용金時庸(공조), 고세진高世鎭, 정복윤鄭宓潤(이상 훈련도감), 윤광석尹光錫, 정태일鄭兌一(이상
의정부), 지갑원池甲源, 이기정李基禎, 오정묵吳正默(이상 금위영), 임창식林昌植(어영청), 김정식金
定植(병조)

서원 이희태李喜泰(병조)

고지기 최치석崔致石(양향청糧餉廳)

삼방三房

이경규李慶揆, 김성원金性源(이상 선혜청), 김완중金完鍾, 김호식金好植, 김정렬金正烈(이상 호조),
송응귀宋應龜(의정부), 최치유崔致庾(선혜청), 남수창南壽昌(충용청), 최성호崔聖鎬(호조), 서용무徐
容懋(충용청)

서원 이희문李喜文(호조)

고지기 오도근吳道謹(병고水庫)

각방 사환各房使喚

도청 사령都廳使令 11명, 기수旗手 5명

○일방 사령一房使令 4명, 기수 6명

○이방 사령二房使令 3명, 기수 4명

○삼방 사령三房使令 3명, 기수 4명

○별간역청 기수別看役廳旗手 2명

4일

맑음

의정부에서 초기로 아뢰었다.

“이번에 옛 궁궐을 영건하는 것은 천명天命을 새롭게 하는 기회이니, 마땅히 고유³⁸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종묘, 사직, 산천의 고유제를 날짜를 받아 시행할 일로 예조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제문은 문임³⁹에게 짓게 하고, 헌관獻官은 대신, 종친, 의빈⁴⁰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임명하여 충당하도록 하라.”〔고유제는 10일로 정해 아뢰었으며, 제문祭文은 예문관 제학 이명적李明迪이 지어 올렸다.〕

○경복궁 전기殿基를 대원위가 도제조, 여러 당상과 함께 1차로 간심看審하였다.

○대원위가 3만 냥을 창출하여 영건 공역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위로는 관료와 유생 및 부녀자로부터 아래로는 하인(阜僮), 수레꾼[輿賤]과 병자[癰疾]에 이르기까지 흥기하지 않는 자가 없이 원납願納하였다. 선파⁴¹들은 종친부에 내고 다른 성씨들은 호조에 냈다. 호조에서

38 고유(告由): 중대한 일을 거행할 때에 그 내용을 사당이나 신명에게 고하는 일을 말한다.

39 문임(文任):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을 이르는 말로, 국왕의 교서(敎書) 또는 외교문서를 맡아 보았다.

40 의빈(儀賓): 조선시대 국왕의 사위를 말한다. 관제상으로는 의빈부의 1품직을 뜻한다.

41 선파(璫派): 조선 왕실 중 부계 지파(支派)를 말한다.

받은 원납전은 2만 7180냥이다.[1000냥 이상 및 물종物種으로 낸 경우는 모두 기록한다. 전 오위장 조윤
현趙胤顯은 전후 3차례 1만 8000냥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 1000냥 ○어영대장 허계許槩 1000냥]

5월

맑음

의정부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을 영건할 때 경재卿宰 이하와 지방의 감사나 절도사 및 수령
이하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덜어 도와야 합니다. 비록 사서인士
庶人이라 하더라도 중외를 막론하고 만약 원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
면 벼슬이나 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전한前漢 시대에 이미 있었던 일입

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억지로 배정하여 징수해서는 안 되고 오직 각자 스스로 보답할지 여
부에 달렸습니다. 이런 때에 이를 빙자해서 협박하여 함부로 징수하거나 중간에서 가로챈
다면, 그 해로움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것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팔도와
사도四都에 각별하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였다.

“마땅히 대왕대비전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이번에 옛 대궐을 중건하는 일은 실로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나라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공사비용이 너무 많다. 정말로 백성에게 힘을
보태도록 하자니 매우 애처롭고 근심스러워 바야흐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와 오
늘 이를 사이에 도성의 원납전願納錢이 10만에 이르고, 선파에서 보조한 비용도 수만을 넘
는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의 역사는 천의天意와 민심民心에 부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우리 백성들의 임금을 향하는 정성이 실로 옛날 융성하던 때의 그것보다 못
할 것이 없다. 게다가 선파인들이 선조께서 터전을 닦은 곳을 추념하여 마치 한집안 사람들
이 걱정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함에 있어서라. 너무나도 가상하여 기쁘고 다행스
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어제 공경 재상들이 의논한 내용에 비록 백성들의 힘을 사용
하자고 아뢰었으나, 불쌍한 저 백성들이 자신의 환곡還穀이나 군포軍布 등 매년 내야 하는

것도 늘 어렵게 여기며 모자랄까 걱정하는데, 하물며 며칠 동안 부역을 하게 되면 어찌 붙쌍하지 않겠는가. 백성들을 부리는 문제는 우선 접어 두라. 도성 백성들의 원납^{願納}이 오히려 이러하다고 하니, 지방 인심이라고 어찌 다르겠는가.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전국에 알려 방방곡곡의 부유한 백성들을 효유하도록 하라. 만약 의연금^{義捐金}을 내어 크게 돕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특별한 성의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선파인에 대해서는 종친부^{宗親府}에서 알려 기꺼이 부역에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대공역을 제때 준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심의 향배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니, 아울러 이러한 뜻을 신속히 행회⁴²하라.”

호조에서 받은 돈은 7만 5629냥이다.[영의정 조두순^{趙斗淳} 5000냥 ○영돈녕부사 김좌근^{金左根} 5000냥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5000냥 ○좌찬성 김병기^{金柄冀} 5000냥 ○판중추부사 김병국^{金炳國} 5000냥 ○동녕위 김현근⁴³ 2000냥 ○영은부원군방^{永恩府院君房} 5000냥 ○경기 감사 조재응^{趙在應} 2000냥 ○출신^{出身} 이승검^{李承儉} 전후 3차례 1만 냥 ○종친부 서리 도중⁴⁴ 1000냥 ○포전^{布廩} 도중 2000냥 ○백목전^{白木廩} 도중 5000냥 ○선희청 서리 도중 1000냥, 고지기 도중 1000냥 ○잡곡전^{雜穀廩} 도중 1000냥 ○장흥고^{長興庫} 공인^{貢人} 도중 1000냥]

6월 맑음

본 도감이 계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 중건 일자를 일관^{日官}(이병홍^{李秉洪})에게 뽑게 하였더니, 이번 달 13일 신시^{申時}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시로 정하여 시행함이 어떨겠습니까?”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처음에 손시^{巽時}로 하였다가 나중에 신시로 정하였다.]

42 행회(行會): 상급 기관의 명령을 하급 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3 김현근(金賢根): 1823년(순조23) 순조의 장녀 명온공주(明溫公主)와 결혼하여 동녕위(東寧尉)가 되었다. 1830년(순조30) 5월에 효명세자가 사망하여 국상(國喪)을 치를 때 종척집사(宗戚執事)와 향관(享官)으로 임명되었으며, 1834년(순조34) 11월 순조가 사망하자 종척집사와 빈전향관(嬪殿享官)으로 임명되었다. 1865년(고종2) 10월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44 도중(都中):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역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세현^{韓世顯}은 본래 가난한 사람인데 때마침 집을 판 돈 100여 냥이 있어서 100냥을 의로운 마음으로 원납하였다. 대원위가 그의 임금을 향하는 정성을 가상히 여겨 1000냥을 상으로 내렸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6만 2496냥이다.(봉조하 김흥근^{金興根} 5000냥 ○유학 천치관^{千致寬} 2000냥 ○전 오위장 안시윤^{安時潤} 2000냥 ○선혜청 사령 도중 1000냥 ○입전⁴⁵ 도중 3000냥 ○사복시 공인 도중 1000냥 ○내어물전^{內魚物廩} 도중 2000냥 ○사도시⁴⁶ 공인 도중 1000냥 ○저포전^{苧布廩} 도중 3000냥 ○태상시⁴⁷ 공인 도중 1000냥 ○지전^{紙廩} 도중 3000냥)

7일

맑음

전교하였다.

“이번 12일 친히 경복궁 궁궐터를 살펴볼 것이니 해방^{該房}은 그리 알라.”

○대원위가 도제조인 여러 당상과 함께 2차로 간심^{看審}하였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6만 2346냥이다.(남녕위^{南寧尉} 윤의선⁴⁸ 2000냥 ○지중 주부사 김영근^{金泳根} 1000냥 ○인천 수령 김병완^{金炳完} 1000냥 ○호조 공인 도중 1000냥 ○사역원 도중 1000냥 ○상미전^{上米廩} 삼소임⁴⁹ 이원식^{李源植} 등 1000냥 ○기인공인^{其人貢人} 등 1000냥 ○미전^{米廩} 도중 2240냥)

45 입전(立廩): 육의전 가운데 주로 비단을 취급하던 시전이다.

46 사도시(司樂寺): 궁중의 곡식과 장(醬) 등의 관리를 담당하던 관사이다.

47 태상시(太常寺):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이다.

48 윤의선(尹宜善): 순조의 삼녀 덕온공주(德溫公主)와 결혼하여 남녕위(南寧尉)가 되었다. 1864년 국장도감(國葬都監) 하현궁명정서사관(下玄宮銘旌書寫官)과 이듬해 영건도감(營建都監) 제조(提調), 대왕대비전 서사관(書寫官)으로 일을 했으며,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역임하였다. 이후 상호도감(上號都監)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왕세자책례도감(王世子冊禮都監) 서사관, 상호도감익종대왕추상존호(上號都監翼宗大王追上尊號) 서사관 등 왕실 관련 일을 보았다.

49 삼소임(三所任): 도중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을 말한다.

8일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이번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돈 10만 냥을 내하⁵⁰할 터이니 먼저 보태어 쓰도록 영건도감에 분부하라.”

○또 전교하였다.

“오는 10일 효문전(孝文殿)〔철종대왕(哲宗大王)의 3년 상을 치르는 혼전(魂殿)의 칭호이다〕 고유제(告由祭)는 섭행(攝行)으로 마련하라.”〔〈10일은〉 경복궁 영건 고유제이다〕

○궁궐의 역사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한 것이 각종 기계이다. 훈련도감에 이문(移文)하여 정철⁵¹ 1만 근을 우선 빌려 써서 공역이 시작되는 곳에 분배하였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6만 975냥 5전이다.〔도승지 김병지(金炳地) 1000냥 ○전 오위장 백낙선(白樂善) 1000냥〕

9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바람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9589냥이다.〔호군 조경하(趙敬夏) 1000냥 ○부제조 조

성하(趙成夏) 2000냥 ○장성 진사 김종휴(金鍾休) 1000냥 ○인제 유학 신중덕(申鍾德) 1000

냥 ○금군 등 1034냥 ○제용감 공인 등 1000냥〕

50 내하(內下): 공식적인 하사 이외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국왕이 내탕(內帑)의 돈이나 물품을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51 정철(正鐵): 순도가 높은 철이다. 일반적으로 철의 가공단계는 철광석, 생철(生鐵), 수철(水鐵), 작철(斫鐵), 정철, 강철(強鐵), 추조(鑄造), 정조(精造), 정정조(精精造) 등이다.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각 가공 단계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

10일

맑음

개기 고유제開基告由祭를 경복궁, 종묘, 사직, 경모궁,⁵² 효문전,⁵³ 북악산北嶽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행하였다.

경복궁 고유문 景福宮告由文

성조聖祖께서 용처럼 날아 <나라를> 수립樹立하신 일이 광대하니
 기틀을 공고히 하고 도읍을 정하여 면면히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복궁을 창건하니 근엄하고 정돈되었으며 시원하고도 깊은 곳이었으니
 전殿은 근정勤政이고 누樓는 경회慶會였습니다.
 남면南面하여 임금의 정사를 내고 국토를 수호하다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옛터에는 쉼도 아직 자라지 못했습니다.
 열조列朝의 유지遺志가 저를 바라보며 신뢰하고
 자전께서 하교로 크게 선포하여 짐을 쳐서 묻습니다.
 궁실을 정중正中에 중건하니 바라건대 무외⁵⁴하며
 예관을 보내어 정성껏 고하노니 신령을 감격하게 하기를(헌관獻官은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다.)
 종묘宗廟(헌관은 판부사 이유원李裕元이다.)
 경모궁景慕宮(헌관은 보국지사輔國知事 윤치희尹致義이다.)
 효문전(초헌관初獻官은 판돈녕부사 이경재李景在이고, 아헌관亞獻官은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이며, 종헌관終獻官은 우찬성右贊成 정기세鄭基世이다. 이번 3년 동안은 삼헌을 한다.)
 사직社稷(헌관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목멱산木覓山(헌관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북악北嶽(헌관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52 경모궁(景慕宮):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와 그의 비 헌경왕후의 사당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내에 있었다.

53 효문전(孝文殿): 창덕궁에 있던 철종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이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54 무외(無外): 왕(王)이 된 자는 천하를 집으로 삼기 때문에 외방(外方)이라고 할 데가 없다는 뜻이다.

한강漢江〔한관 겸 호조 판서 이돈영李敦榮〕

○먼저 치목소治木所 가가假家를 지어 방외坊外 각처로부터 재목材木을 영출營出하고 사양목私養木의 경우에는 모두 값을 주고 베어내 운송하게 하였다. 사용될 각 항의 물품은 그 토산물에 따라 관문을 보내어 지정⁵⁵하였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8077냥이다.〔영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 3000냥 ○상호군 서헌순徐憲淳 1000냥 ○황주 수령 윤주진尹周鎭 1000냥 ○전 첨사 단치궁段致兢 1000냥 ○하미전下米廩 시민市民 등 1000냥 ○입전立廩 차지 시민次知市民 등 1000냥 ○태학생太學生 유달린柳達麟 등 및 기재생⁵⁶ 각각 1냥씩 내어 도합 120냥, 도배지塗楷紙 300속⁵⁷〕

11일

맑음

전교하였다.

“내일 경복궁을 간심看審할 때 시원임대신, 영건도감 당상은 와서 대령하라.”

○경기, 강원 두 도에 관문을 보내어 기계소器械所에 들여보낼 생갈⁵⁸ 각각 2500동⁵⁹을 지정하였다.

55 지정[卜定]: 배정하다, 부담시키다, 떠맡기다, 부과하다 등의 뜻이 있다.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바치게 하던 일을 말한다. 이두로 ‘디덩’이라고 표기하고, 현대어의 음으로는 ‘지정’이라고 부른다. 부정(負定)과 같다.

56 기재생(寄齋生): 성균관(成均館)의 하재(下齋)에 거처하던 유생(儒生)을 말한다. 하재생(下齋生)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사학(四學) 생도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한 승보기재(升補寄齋)와 부조의 공덕으로 입학한 문음기재(門蔭寄齋) 등으로 구성되었다.

57 속(束): 1속(束)은 한지(韓紙) 20장이다.

58 생갈(生葛): 생 쉼넝쿨이다. 공역에서 물건을 묶거나 끌어당기기 위한 줄이나 끈으로 사용하였다.

59 동(同): 1동은 50사리(沙里)이고 1사리는 50발[把]이다.

○황해도에 관문을 보내어 정철^{正鐵} 1만 근, 강철 5000근, 석회⁶⁰ 5000석, 어교⁶¹ 100근을 지정하였다.

○경상, 전라 두 도에 관문을 보내어 숙마⁶² 각각 1000근을 지정하였다.

○정철 2만 근을 공충도에 지정하고, 2만 근을 강원도에 지정하였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만 328냥 2전이다.[홍양부부인 민씨⁶³ 5000냥 ○관중추부사 김병국^{金炳國} 대부인⁶⁴ 정부인⁶⁵ 신씨^{愼氏} 5000냥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정경부인⁶⁶ 이씨^{李氏} 3000냥 ○관중추부사 김병국 정경부인 윤씨^{尹氏} 3000냥 ○전 참판 김병필^{金炳弼} 정부인 유씨^{兪氏} 2000냥 ○충주 수령 민우세^{閔禹世} 1000냥 ○서흥 수령 남호중^{南鎬重} 1000냥 ○사역원 왜학^{倭學} 등의 인사 1000냥 ○검 화성유수 이유원^{李裕元} 5000냥 ○화성 판관 유승근^{柳承根} 1000냥]

12일

맑음

대가^{大駕}가 경복궁에 이르러 친히 간심하였다.

○전교하였다.

“문소전⁶⁷ 터에 전배^{展拜}할 것이다. 해방^{該房}에서는 잘 알도록 하고, 백

60 석회(石灰): 산화칼슘(생석회)과 수산화칼슘(소석회)을 말한다. 생석회는 석회석을 가열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것이고, 소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혼합하여 불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궁궐 건설에서는 주로 소석회를 사용하는데, 모래나 황토 등을 섞어서 미장 마감용이나 토목 기초용으로 활용된다.

61 어교(魚膠): 어류의 껍질, 뼈, 내장막 등을 원료로 한 접착제이다.

62 숙마(熟麻): 잿물에 삶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삼[麻] 껍질이다. 여러 가닥을 꼬아서 줄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63 홍양부부인(興陽府夫人) 민씨(閔氏): 철종의 부인인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의 계모이며, 영돈녕부사 영은부원군 김문근(金汶根)의 부인이다.

64 대부인(大夫人):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로, 자당(慈堂)이라고도 한다.

65 정부인(貞夫人): 조선시대 정2품, 종2품 관원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숙부인(淑夫人)의 위이고,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아래로, 1865년(고종2)부터는 2품 종친의 아내에게도 주었다.

66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시대 1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작위를 말한다.

67 문소전(文昭殿):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위패를 봉안했던 사당이다. 1433년(세종15) 문소전에 태조와 태종의 위패도 봉

관의 행례行禮는 그만두어라.”

[전배할 때의 복색服色은 무양흑단령,⁶⁸ 청정소옥대,⁶⁹ 흑피화⁷⁰이다.]

○문소전文昭殿 터는 궁성 안의 동쪽 신무문神武門의 왼쪽 두 번째 기슭 아래에 있다. 남아 있는 지초址礎와 계단이 전형典型에 딱 맞아 떨어진다. 1칸의 비각碑閣이 있는데 비碑는 남포藍浦 오석⁷¹으로 길이(3자 8치 5푼), 너비(1자 9치), 두께(7치 5푼)이다. 앞면에는 ‘문소전 옛터[文昭殿舊基]’라고 되어있고, 뒷면[陰刻]에는 ‘황조송정무진삼임진오월삼십일 립皇朝崇禎戊辰三壬辰五月三十日立’이라고 되어있는데, 대개 영조[英廟]의 친필이다. 『경복궁구지』⁷²를 살펴보면 후침後寢 5칸, 전전前殿 3칸에 각각 감실龕室이 있고 앞에 3계단이 있었다. 신좌神座는 전전前殿에 태조太祖가 가운데에서 남향하고 있고, 소⁷³ 2위位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있으며, 목⁷⁴ 2위位는 서쪽에서 동향하고 있다. 후침은 모두 북쪽에서 남향하고 있으며 서쪽을 위로 삼는다. 삭망제朔望祭는 후침에서 지내고 사시四時의 대향大饗 때는 신주를 전전前殿으로 꺼내서 합제合祭 한다.

○『율곡전서栗谷全書』「경연일기經筵日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조[宣廟] 조에 인종仁宗, 명종明宗의 양묘兩廟를 문소전文昭殿에 합사合祀하려 하였는데 문소전의 협향禋享 위치位次가 태조는 북쪽에서 남향하였으며 소목昭穆은 동서향이였다. 전

안했으며,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후 복원되지 못했다.

68 무양흑단령(無揚黑團領): 흉배를 달지 않은 흑단령을 말한다.

69 청정소옥대(靑靚小玉帶): 푸른 빛깔의 가죽에 소옥(小玉)을 박아 장식한 띠로 여겨진다.

70 흑피화(黑皮靴): 검은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발이다. 관리들이 공복이나 상복(常服) 차림에 신었던 신발이다.

71 오석(烏石): 바탕이 단단하지 아니하고 빛이 검은 파리 광택(光澤)의 바윗돌로, 흑요암을 말한다. 비석(碑石), 도장(圖章), 기물, 장식품(裝飾品)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인다.

72 『경복궁구지(景福宮舊志)』: 『경복궁지』 또는 『궁궐지』의 이칭으로 추정된다.

73 소(昭): 사당에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인 소목(昭穆) 가운데 왼쪽 줄을 말한다.

74 목(穆):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인 소목 가운데 오른쪽 줄을 말한다. 『주례』에 의하면 제1세를 중앙에 모시는데 천자는 소에 2, 4, 6세, 목에 3, 5, 7세를 각각 봉안하여 삼소삼목(三昭三穆)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는 소에 2, 4세, 목에 3, 5세를 각각 봉안하여 이소이목(二昭二穆)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일소일목의 삼묘(三廟)가 된다.

우^{殿宇}가 남북은 짧고 동서는 길어서 인종, 명종의 양묘를 합사하기에 전이 좁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신들이 전우를 헐고 남쪽을 증축하여 가설^{加設}할 위패를 들여놓으려 하였다. 판중추부사 이황^{李滉}은 옛 예법대로 태조는 동향하게 하고 소목은 남북향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면 전우를 허는 폐단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풍속이 옛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이 원묘^{原廟}에 고례를 시행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이^{李珣}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왕이 선조^{先祖}를 받들고자 한다면 당연히 종묘^{宗廟}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원묘^{原廟}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아니다. 이황은 원묘를 혁파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헤아렸기 때문에 원묘에서라도 옛 예법을 행하려 했지만 대신들이 이를 막았으니 현자^{賢者}가 조정에 설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인종^{仁宗}의 담제⁷⁵ 뒤에 권간^{權姦}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는[권간은 윤원형^{尹元衡}이다.]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일 년도 넘기지 못한 국왕이라 하여, 문소전에 모시지 않고 연은전^{延恩殿}에 제사를 지냈다. 연은전은 덕종⁷⁶의 위판^{位版}을 모신 곳으로, 덕종은 즉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연은전에서 제사 지냈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비분했다. 이때 여론은 명종 담제 뒤에 인종을 명종과 함께 문소전에 모시자 하였으나, 이준경^{李浚慶}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번갈아 가며 글을 올리자 이준경이 스스로 인정하여 그 논의를 거두었다.

75 담제(禫祭):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의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낸다.

76 덕종(德宗): 초명은 이승(李崇), 이름은 이장(李暲)이다. 세조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이다. 1455년(세조1)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딸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를 부인으로 맞아 월산대군(月山大君)과 성종을 낳았다. 1457년 병이 들어 21명의 승려가 경회루에 공작재(孔雀齋)를 베풀고 병의 치유를 빌었으나 2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471년(성종2)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율곡연보**栗谷年譜』 선생 48세 1580년(선조 13) 2월. 선생이 시무육조時務六條를 말씀드릴 때 말단에 극론하기를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 양전兩殿에 하루에 3번 제사를 지내고 산릉에는 한 달에 두 번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양전에는 하루에 한 번 제사를 지내고 산릉에는 단지 사시四時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풀어주기를 청하였다.

전교하였다.

“대신과 여러 당상은 입시하라.”

국왕이 말씀하셨다.

“기지基址의 여러 곳을 몸소 돌아볼 때 대신과 도감 당상들은 수행하라.”

정(원용)이 아뢰었다.

“마땅히 성상의 하교대로 하겠습니다.”

이어 아뢰었다.

“이 궁궐은 왕업이 처음 일어난 터전이고, 국왕이 남면南面하고서 정사를 하던 정궁입니다. 중건하라는 명을 하시어 길일을 잡아 역사役事를 시작하자 못사람들이 송축하였습니다. 장차 태평성대의 기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성상의 하교를 받들건대 옛 대궐을 중건하는 일은 오로지 백성을 위하시는 성상의 진념軫念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 백성을 부리는 일은 형편에 따라 그 힘을 펴도록 해서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이 여긴다면, 조상의 뜻을 받들어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공업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처럼 유념할 것이다.”

이어 전교하였다.

“궁궐 담장 밖에 소민小民들이 집을 지어 거주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원용)이 아뢰었다.

“형세상 앞으로 모두 이사시켜야 합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소민들의 사정이 불쌍하니 해조^{該曹}에서 구분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가?”

정(원용)이 아뢰었다.

“궁궐 담장 근처에 집을 짓고 거처하는 것은 바로 금법^{禁法}을 범한 것이니 죄를 면하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이제 궁궐의 공역을 시작하면 마땅히 스스로 철거해야 할 따름입니다. 어찌 별도의 은전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김(좌근)이 아뢰었다.

“성저^{城底}의 민가는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입니다.”

김(병학)이 아뢰었다.

“호조 판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호조 판서도 소견을 진달하는 것이 가하다.”

이돈영^{李敦榮}이 아뢰었다.

“성상의 진념이 여기에까지 미치시니 누군들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민들이 성저에 집을 지은 것은 본디부터 법으로 금한 것이니 유사^{有司}의 입장으로는 거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용]이 아뢰었다.

“호조 판서의 말 역시 이와 같습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의 상주가 비록 동일하기는 하나 소민들이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지금 비록 부득이하여 철거하기는 하지만 그 거처를 잃어버리는 정상은 실로 가련하다. 비록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해조에서 특별히 은전을 후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용]이 아뢰었다.

“이것은 어가^{御駕}가 거동하시는 길에 훼손된 백성들의 전답이나 집에 대해 유사에서 헤아려 값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께서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돌보시는

마음과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를 잡지 못할까 하는 염려에서 누누이 하교하시어 특별히 파격적인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시니, 이는 진실로 어진 마음의 발로로서 어진 정사가 이로부터 시행될 것인바 신 등은 흠양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을 맡은 신하는 오직 그 아름다움을 받들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병학]은 아뢰었다.

“아랫사람을 공홀히 여기시는 성덕이 여기에까지 이르시니 진실로 흠양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돈영은 아뢰었다.

“누차 하교를 받들게 되니 송축하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대한 뜻을 선포하는 일을 다른 예에 따라 거행하겠습니다.”

[병학]이 아뢰었다.

“오늘 연석의 말씀을 여러 조지⁷⁷로 반포하여 많은 백성이 성덕의 지극함을 우러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좋다.”

○사시^{巳時}에 출궁하였다가 신시에 환궁하였다.

○동서의 성저^{城底} 민가 138호 안의 초가^{草家} 619칸 반^半에 대해 매 칸마다 가전^{價錢} 3냥씩, 가가^{假家} 84칸 반에 대해 매 칸마다 가전 2냥씩(모두 호조에서 상정^{詳定}하였다.) 도합 전^錢 2277냥 5전을 본 도감에서 계산하여 출급하였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620냥이다.〔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정경부인 □씨 3000냥 ○사재감 공인 등 1000냥〕

77 조지(朝紙): 조보(朝報)라고도 한다. 승정원에서는 매일의 행정을 조보에 적어서 각 관사로 반포하였다.

13일

맑음

신시申時에 경복궁에 개기開基하였다. 먼저 근정전勤政殿의 터를 닦고 그 위 묘방卯方에서 고사告祀를 지냈다. 이날 대원위가 하림下臨하였고, 도제조 이하 당상과 낭청들이 일제히 나아갔다.

○방내坊內의 자원 부역군은 지기紙旗를 들고 대기하였으며 기旗 위에는 각각 ‘삼일부역三日赴役’이라고 썼다.

○정철正鐵 2만 근을 평안도에 이문移文하여 지정하였다.

○서흥부瑞興府에 보내는 관문

본 부府 북면北面 권초애權初厓 지역에 사양私養 송목⁷⁸ 수만 그루가 있다. 이를 거주하는 백성들이 베어 납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장리將吏를 차정하여 상세하게 구별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가가假家에 들여올 문내목文乃木을 값을 치르고 베어오기 위해 차인差人을 차정하여 춘천春川, 홍천洪川 등지로 내려보냈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294냥이다.〔좌찬성 김병기金炳冀 정경부인 정씨鄭氏 3000냥 ○함중 수령 정운성鄭雲星 1000냥 ○훈련도감 좌열협련군左列挾輦軍 김정윤金鼎潤 기와[瓦子] 1342장〕

자원군自願軍은 두 곳에서 온 190명이다.

14일

맑음

자원군에게 궁궐 터와 크고 작은 수도水道를 청소하게 하였다. 역민役民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도 스스로 즐거운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대개 비록 <왕조가> 오래되었지만 유신維新하는 것이니⁷⁹ 인정人情이 같

78 송목(松木): 소나무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집의 재목은 소나무로 한다. 소나무 이외의 다른 것은 재목이 좋다 해도 헛간이나 마구간 등 잡용으로만 쓴다.”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소나무는 건축 용재로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79 대개 … 것이니: 『시경(詩經)』의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命)은 새롭다.[周雖舊邦 其命維新]’를 인용한 말이다.

이 즐거워서 그런 것이다. 근래 ‘상대궐, 하대궐, 경복궁 신대궐’이라는 노래가 있었으니, 이때 <노래가> 불리게 되었다.

○본 도감의 당상과 낭청 대부분은 이날부터 날마다 일제히 근무하러 나왔는데 처소가 준비되지 못하였으므로 당상은 상수궁⁸⁰上下守宮(상수궁⁸⁰上守宮은 경회루지慶會樓池 남쪽 제방[南堤], 곧 내시⁸⁰內侍의 번소⁸⁰番所이고, 하수궁⁸⁰下守宮은 홍례문 터 동측 즉 경복장⁸⁰景福將의 직소⁸⁰直所인데 모두 예전에 궐이 비었을 때 수직소⁸⁰守直所였다.)에 모이고, 낭청은 근정전⁸⁰勤政殿 터 앞에 막幕을 설치하였으며, 도감은 예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부는 원역⁸⁰員役이 주관하여 당일 사역하는 장색⁸⁰匠色의 실수⁸⁰實數를 써서 위로 올리는데, 이를 수본⁸⁰手本이라고 한다. 감조관⁸⁰監造官이 먼저 단함⁸⁰을 쓰고 도청⁸⁰都廳부터 호조 판서까지 모두 단함을 쓰고 수결⁸⁰手決을 한다. 물종⁸⁰物種을 차하⁸⁰差下한 것과 돌려쓴 것,⁸¹ 장차 시행해야 할 일을 쓰는데, 이를 품목⁸⁰稟目이라고 한다. 계사⁸⁰計士가 먼저 서명을 하고 낭청 도청⁸⁰都廳부터 호조 판서까지 모두 단함을 쓰고 수결⁸⁰手決을 한다. 수본과 품목은 모두 본청의 신안⁸⁰信案으로 삼는다. 정묘년(1867, 고종4) 2월 이후부터는 품목 또한 별간역⁸⁰別看役의 직함을 넣어서 받는다[參受].

○강원도에 보내는 관문

도내 양구⁸²楊口, 인제⁸²麟蹄 등에 궁재,⁸² 두리목,⁸³ 벽련⁸⁴ 각각 5000개, 대연⁸⁵대⁸⁵대, 중연⁸⁵목⁸⁵목 각

80 단함(單銜): 간략하게 직함을 적고 성명을 적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직함을 모두 갖추어 적는 것을 구함(具銜)이라고 한다.

81 돌려쓴 것[挪用]: 물건이나 돈을 잠시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82 궁재(宮材):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원체목(園體木)보다 길이가 길고 굵기도 1치 크게 기록된 부재이다. 궁재는 여러 개로 쪼개어 장혀, 익공, 행공 등의 부재들에 많이 사용된 반면, 원체목은 여러 개로 쪼개어 사용하는 예가 적다.

83 두리목(豆里木): 통나무 형태의 둥글게 생긴 재목이다.

84 벽련(劈鍊): 둥근 나무를 네모지게 대강 다듬은 것이다.

85 중연목(中椽木): 목조 건축에서 기본 골격이 완성된 다음에 도리와 도리 사이에 직각으로 걸쳐 올려 지붕을 형성할 바탕이 되게 하는 서까래를 말한다. 위치와 길이에 따라 장연(長椽), 중연(中椽), 단연(短椽) 등으로, 길이와 굵기에 따라 대연목(大椽木), 중연목(中椽木), 소연목(小椽木), 소소연목(小小椽木)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무대연(貿大椽), 별대연(別大椽), 선자대연(扇子大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명칭의 서까래가 있다.

2만 개, 금성金城, 낭천狼川 등지에 궁재, 두리목, 벽련 각각 3000개와 대연, 중연 각 5000개를 값을 주고 베어오고자 차인을 차정하여 내려보낸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1002냥 5전이다.(맹인盲人 한종필韓宗弼 돈 50냥 및 타고 다니던 토산 나귀 1필) 자원군은 1동洞에서 48명이다.

15일

맑음

개성부開城府 석수石手 39명, 강화부江華府 17명, 공충도公忠道 19명을 후록後錄하여 관문을 보내 재빨리 올려보내도록 하였다.

○훈련도감에 보내는 이문

이번 경복궁을 영건할 때 대와大瓦, 방전,⁸⁶ 방초⁸⁷ 등을 번조燔造하는 구역이 매우 시급한데 와서瓦署의 어지간한 사막私幕으로는 많은 수의 기와를 구워낼 길이 전혀 없다. 귀영貴營에 설치된 와막瓦幕을 구역이 끝날 때까지 와서瓦署 대와계大瓦契 공인 처貢人處에 붙여 합설合設할 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번와 장색燔瓦匠色 중에 경기 고을에 거주하는 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장교將校를 정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122냥 3전이다.(고故 판서 이계조李啓朝 정경부인 박씨朴氏 1000냥 ○화성 이수 이유헌李裕元 정경부인 정씨鄭氏 1000냥 ○유학 김성균金性均 왕대부인⁸⁸ 정경부인 씨 1000냥)

86 방전(方輦): 바닥에 까는 네모난 벽돌이다.

87 방초(防草): 지붕의 처마 끝에 놓이는 막새를 말한다.

88 왕대부인(王大夫人): 다른 사람의 할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자원군은 6동에서 280명이다.

16일

맑음

전교하였다.

“방민坊民 중에 부역을 자원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는데, 소식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선전관을 파견하여 일일이 위문하고 장려하는 뜻으로 영건도감에서 적당히 헤아려 나누어 주도록 하라.”

본 도감이 계략을 올려 아뢰었다.

“삼가 하교를 받들어서 각 동洞에서 자원한 부역군 683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도합 68냥 3전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밤에 자황색紫黃色의 서기瑞氣가 북악北嶽에서 시작되어 백악白嶽을 가로질렀는데, 한참 동안 지속되었다. 내하전內下錢은 10만 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187냥 9전이다.〔평균 감사 홍호길洪祐吉 500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683명이다.

17일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지금 궁궐의 공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성의 안팎은 물론이고 거주민 중 자원하여 역사役事에 나오려는 자들이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일에 달려오는 것처럼 수고로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 백성들의 뜻을 보니 가상하기 그지없다. 다만 지금 한창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이 일로 인하여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면, 이는 왕도 정치에서 백성들의 농사 지을 때를 빼앗지 않는 도리에 흠이 될 뿐만 아니라, 불쌍한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여기 생각이 미치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한가한 사람을 제외하고 근교의 농민은 각자 돌아가서 먼저 농사에 힘쓰도

록 할 일을 한성부 낭관<부전지> ‘낭관郎官’ 아래에 ‘조귀호趙龜鎬’ 3자를 쌍행으로 쓴다.</부전지>을 파견하여 일일이 전유하도록 하고, 다시 위문한 뒤에 들이도록 하라.”

[방외坊外 자원군이 식량과 가래[鍾]를 가지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서 공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다.]

○파주坡州 자원군이 전교에 따라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식량 중 남는 것과 돈 60여 냥을 공역에 보태도록 자원하며 바쳤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30냥 4전이다.[황해 감사 홍순목洪淳穆 3000냥]
자원군은 24동에서 1711명이다.

18일

비

비가 와서 공역을 중지하였다.

○밤에 서기瑞氣가 궁궐 터[殿基]를 돌렸는데 한참 계속되었다.

○전殿 안의 당가⁸⁹에 들일 백자판栝子板(갓나무 판자) 20널 각각 길이(20자) 두께(4치) 너비(1자 5치), 추판楸板(가래나무 판자) 30널 각각 길이(20자) 두께(4치) 너비(1자 2치), 가판檉板(피나무 판자) 30널 각각 길이(20자) 두께

(4치) 너비(1자 2치)를 평안도에 이문移文하여 지정하였다.

○각 전당殿堂의 고주,⁹⁰ 들보⁹¹ 등 각종 재목을 골라잡아 베어 오게 하는 일로 공충 수사公忠水使에게 관문을 보냈으며, 별도로 계사計士, 패장牌將, 목수木手를 정하여 보냈다.

89 당가(唐家): 궁궐의 용상 위 혹은 법당의 불상 위를 장식하는 덮개를 이르며, 우리말로로는 단집이라고 한다.

90 고주(高柱): 건물에 사용하는 기둥 중 가장 길이가 긴 것이다. 기둥의 길이가 같은 외곽의 기둥을 평주(平柱)라고 하고, 건 축물 내부의 긴 기둥을 고주라고 한다.

91 들보(樑樑): 복(楸), 보(樑), 량(樑)으로도 쓰였다. 가구(架構: 기둥을 중심으로 보, 도리, 서까래 등의 부재를 짜 맞추어 조립하는 구조물) 형식의 건물에 사용된 부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378냥이다.

19일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그저께 근교의 농민들에게 제각기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라는 뜻을 전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모두 다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사적인 일을 뒤에 하는 의리를 알아 그만두고 돌아가려 하지 않고 그대로 부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다만 거주지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종일 일을 하다가 밤에 돌아가게 되면 피곤한 나머지 쉽게 질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 백성들의 위에 있는 자로서 가장 염려스러운 바이다. 지금부터는 교외에 사는 백성들로서 당일 일을 마친 뒤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반집이나 상민집을 논할 것 없이 제각기 분배하여 숙박할 수 있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묵을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한성부에서 호구마다 지시하라. 또 이 뜻으로 공역에 나온 백성들에게도 일일이 효유曉諭하라.”

호조에서 받은 돈은 9005냥 7전이다.〔황해 병사 이원희李元熙 1000냥 ○전 중군 양건식梁健植 1000냥〕
자원군은 44동에서 1950명이다.

20일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성안과 근교에 사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부역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 마치 메아리가 호응하는 것과 같고 오직 뒤처질 것만 걱정하고 있다 하니, 이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절로 그렇게 된 것이어서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다. 실로 앞장서서 권장하고 통솔한 자가 없었다면 많은 백성이 한마음으로 기꺼이 부역하는 것이 어찌 이런 정도까지 이를 수

있었겠는가. 각 방과 각 동리의 군사를 영솔하는 동장에게 장려하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한성부에서 일일이 조사하여 5일마다 책자를 만들어 병조에 보고하여, 차례로 체가자⁹²하여 시상하도록 분부하라.”

전교 가운데 ‘병조兵曹에서 체가하여 시상한다.’는 내용을 ‘이조吏曹’로 고쳐 써서 내렸다.

○전교하였다.

“경복궁 궁장宮牆 아래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는 일은 형세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애처롭다. 서궁西宮 함춘원含春苑 안 담장의 바깥쪽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것을 한성부에 분부하라.”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000냥이다.〔선천 수령 이방현李邦鉉 1000냥 ○평산 수령 이남보李南輔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9531냥 3전이다.〔판돈녕부사 이경재李景在 정경부인 민씨閔氏 1000냥 ○평안 감사

홍우길洪祐吉 정부인 신씨申氏 2000냥〕

자원군은 70동에서 1174명이다.

21일

○전교하였다.

“정아正衙의 공역을 시작하자 방민坊民들이 권하지 않았는데도 다투어 달려오니, 그 기상이 매우 좋다. 이번 25일에 직접 가서 살펴볼 것이니 해방該房은 그리 알라.”

○전교하였다.

“25일 경복궁에 친림할 때 시원임대신, 도감 당상, 한성 관윤은 와서 대령하라.”

〔관윤은 신관호申觀浩이다.〕

○전교하였다.

“김 봉조하도 와서 대령하라.”〔봉조하는 김흥근金興根이다.〕

92 체가자(帖加資): 조보(朝報)에는 내지 않고 교지(教旨)나 체지(帖紙)만을 주던 가자(加資)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88냥이다.[공충 병사 이동현李東鉉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4287냥이다.[강원 감사 박승휘朴承輝 2000냥 ○서원 수령 김익정金益鼎 1000

냥 ○전라 감사 정건조鄭健朝 5000냥]

자원군은 92동에서 5544명이다.

22일

맑음

경상도 진주晉州 사람 전 낭청 박양진朴陽鎭이 궁궐 안의 크고 작은 은구隱溝의 수축修築을 스스로 담당하기를 원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 도감에서 초기를 올려 별간역別看役에 추가로 차하하였다.

○후원지後苑池를 준척濬滌하는 공역을 시작하였다.

○경회루지慶會樓池의 방기풀[葑]이 합쳐진 뿌리(속명俗名은 ‘줄’이다.)를 잘라내는 공역을 시작하였다.

○대원위가 역소役所에 하림下臨하여 종일토록 시무視務하자 백성들이 친히 위로해주는 데 대해 감격하였다.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와 같은 일을 매일 하였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5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212냥 1전이다.[전 현감 안시혁安時礪이 2만 냥을 선납하였다.]

자원군은 111동에서 5965명이다.

23일

맑음

각 전당殿堂 온돌에 들일 박석⁹³ 5000냥은 각각 길이와 너비(4자) 두께(2치), 5000냥은 각각 길이와 너비(3자) 두께(1치 5푼), 1만 냥은 각각 길이와 너비(2자 5치) 두께(1치 5푼)이다. 도합 2만 냥을 황해도에 지정하였다.

93 박석[礪石]: 바닥에 까는 얇은 돌이다. 대체로 궁궐 뜰이나 온돌석에 쓰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8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951냥 4전이다.

자원군은 116동에서 6469명이다.

24일

맑음

방효함方孝涵, 이도흥李道興은 모두 시정市井의 상당히 부유한 자들인데 그들이 원납한 것은 매우 사소하였으며 또한 해당 동민洞民이 부역赴役하는 동안에 사사로이 지근덕거리며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동민들이 일제히 분개하고 하소연하였으므로 마침내 복을 지워 조리돌렸다.

○간의대⁹⁴ 가까운 곳에서 석함石函 1개를 얻었는데 도로 묻었다.[새겨진 내용에 이르기를, ‘을사 5월 6일에 왕자王子가 탄생하였다.’ 하였다. 이것은 태봉胎封인데, 원자元子라면 밖에 다 태봉하고 왕자녀王子女의 경우라면 안에 태봉하니,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7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7만 6384냥 6전 9푼이다.[경상 감사 이삼현李參鉉 1만 냥, 정부인 류씨柳氏 1000냥 ○전 영장 임상현林相賢 2000냥 2차 ○순흥 진사 김진수金震銖 5000냥 ○안시혁安時爌 7만 냥 2차 ○안홍덕安鴻惠 8만 냥 2차 ○태평동 유학 김예식金禮植 1000냥]

자원군은 292동에서 1만 7552명이다.

94 간의대(簡儀臺): 천체 관측을 위한 천문대이다. 1432년(세종14) 세종이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경복궁 북쪽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간의를 설치하였다.

25일

맑음

대가(大駕)가 경복궁에 나아갔다.

○국왕이 친히 임하여 둘러볼 때 시원임대신, 봉조하 김흥근(金興根), 영건도감 당상, 한성부 판윤이 입시하였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사관(史官)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정(元容)이 아뢰었다.

“오늘 일기가 맑고 아름다우니, 여론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롭게 거동하신 뒤에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국왕이 말씀하셨다.

“한결같다.”

또 아뢰었다.

“침수와 수라는 어떠하십니까?”

국왕이 말씀하셨다.

“한결같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봉조하는 최근에 근력이 어떠한가?”

김(흥근興根)이 아뢰었다.

“노쇠함이 갈수록 더 심하여 보고 듣고 걸어 다니는 것이 다 수월하지 못합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전국의 많은 백성이 자원하여 부역(赴役)하려고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정원용이 아뢰었다.

“과연 그러합니다. 이 궁궐의 공역은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즐거이 부역을 하니, 옛날에 이른바 서민들이 자식처럼 와서 수고로움도 잊어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민심은 바로 천심(天心)인데, 하늘과 사람이 화합하는 것을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에 청소와 준척하는 공역(公役)에 그리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았는데, 많은 인력이 갑절로 공력을 들이니 연못과 주초와 옛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공력과 물자가 애당초의 계획에

비하여 많이 절감되었으니, 이것이 더욱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다 같은 것이다.”

김홍근이 아뢰었다.

“신이 이 궁궐에 들어와 본 것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미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와서 보니, 터가 존엄하고 정대하여 전부터 매우 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건하라는 명을 내려 이제 공역을 시작하게 되니, 참으로 경사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역하는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니 의도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마음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천심입니다. 이 또한 민정民情을 보면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이런 선량한 백성들을 근자에 어찌하여 도탄 속에 빠지게 하였단 말인가. 자성慈聖께서 하교하시기를 ‘현재 백성들의 마음이 문왕文王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잘 인도한다면 어찌 융성했던 주나라와 견줄 수 없겠는가.’라고 하셨다.”

[정원용]이 아뢰었다.

“자교慈敎는 참으로 우리러 공경해야 할 바입니다. 이 백성들은 삼대三代의 백성과 같은데, 근자에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였던 것은 모두 신들의 책임이자 방백方伯 및 수령의 죄입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잘 인도하지 못하였더라도 앞으로는 〈백성을〉 품어주고 보살피주는 정사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것이다.”

조[두순斗淳]이 아뢰었다.

“현재 많은 백성이 부역을 하는 것을 보니, 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선량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은 모두 신들의 죄입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영건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조두순]이 아뢰었다.

“궁전의 재목을 아직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는데, 형편을 보아 가며 감독하겠습니다.”

김[병학炳學]이 아뢰었다.

“서민들이 자식처럼 달려왔으니, 머지않아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이제 역사[役事]를 하는 곳을 직접 살펴보겠다. 대신 이하는 수행하도록 하라.”

[정원용]이 아뢰었다.

“삼가 마땅히 성교[聖敎]를 따르겠습니다.”

[김병학]이 아뢰었다.

“오늘의 연설⁹⁵을 조보[朝報]에 반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왕이 허락하였다.

국왕이 편여[便興]에 올라 두루 살펴보고 후원에 도착한 후 대신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하교하였다.

“모든 대신들은 다 부역을 하는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는가?”

[정원용]이 아뢰었다.

“과연 진심으로 기뻐하여 공역을 권면하는 복소리를 멈출 수 없었으니⁹⁶ 민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국왕이 말씀하셨다.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선량함이 본래 이러한 것임을 오늘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전교하였다.

“대가를 수행한 군병들에게 각 군영에서 건호궤⁹⁷하도록 하고, 부역을 한 방민들은 영건도

95 연설(筵說): 경연에서 국왕과 신하들이 주고받는 말을 말한다.

96 공역을 ... 없었으니: 『시경』 「대아(大雅)」에 나오는 내용으로,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공역에 참여하므로 권면하는 복을 그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97 건호궤(乾稿饋):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음식을 베풀어 주는 것을 호궤(稿饋)라고 하는데, 음식 대신에 돈으로

감에서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삼가 하교를 받들어 부역한 방민 3만 5881명에게 한 명당 견호케로 돈 1전씩 3588냥 1전을 나누어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시에 출궁하였다가 신시에 환궁하였다.

○공역을 시작한 뒤로 이때까지 13일 동안 1일은 비가 와서 공역을 중지하였다. 12일 동안은 고인雇人을 쓰지 않고도 지초址礎와 수도水道의 전형典型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대개 병란 이후 거의 100년 동안 폐허였던 곳이다. 근정전勤政殿 터의 북쪽은 노송老松과 오래된 밤나무가 뻗뻗하게 숲을 이루었고 풍성한 풀과 무성한 덩불이 잡다하게 있어서 틈이 없었다. 남쪽은 푸른 밭과 푸성귀 언덕이 종횡으로 들을 이루어, 당시에 보기에는 매우 아득할 정도였다. 이에 풀을 제거하고 땅을 개간하였는데, 깨진 기와는 쌓아서 담을 쌓은 일에 대비하고 그을린 흙은 모아서 꺼진 곳을 메우는 일에 대비하였다. 깨끗하게 치우는 공역이 차례로 끝나게 되었으니 전에 본 것으로 말한다면 공역이 며칠 되지 않았지만 생각건대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 같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9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873냥 5전이다.[주부 이승렬李承烈 2차 1000냥 ○전 오위장 백낙선白樂善 1만 냥 2차 ○전 감목관監牧官 백남승白南升 1만 냥 2차]

자원군은 616동에서 3만 6479명이다.

18학사學士 기旗[직제학 이재원李載元, 검교대교 이재면李載冕,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 승지 조경하趙敬夏, 검교대교 조성하趙成夏, 조영하趙寧夏, 부제학 이호준李鎬俊, 검교대교 민규호閔圭鎬, 홍승억洪承億, 전한 민승호閔升鎬, 응교 이명응李明應, 교리 남상룡南商龍, 김성근金聲根, 김규홍金圭弘, 직각 이세용李世用, 한림 조강하趙康夏,

주는 것을 견호케라 한다.

주서 조경호(趙慶鎬, 김영석(金永奭)에서 각각 가정⁹⁸ 10명의 값으로 돈 20냥을 내어 <10명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3일간 부역(赴役)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각 궁가(宮家) 및 경재가(卿宰家)의 가정 이 차례로 부역하였다.

26일

미우(微雨)

○전교하였다.

“경외의 백성들이 부역하니 이미 매우 가상하게 여겼다. 게다가 방금 적간⁹⁹하여 회주(回奏)한 내용을 들어보면, 유독 안산(安山)의 백성 60명이 비를 맞으면서 못을 파 마음과 힘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찌 뜻을 보이는 조치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들을 감독하고 통솔한

삼소임(三所任)¹⁰⁰을 해조에서 이름을 물어 상으로 가자하도록 하고, 회량미(回糧米)도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영건도감에 분부하라.”

[매일 무감(武監) 2인을 보내고 5일마다 내시 2원(員)을 보내어 적간하였다. ○못을 판 곳은 경회루지(慶會樓池)이다.

○상으로 가자한 삼소임(三所任)은 박명대(朴明大), 윤춘중(尹春重), 최종근(崔宗根)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삼가 하교를 받들어 안산(安山) 마유면(馬遊面) 월곶리(月串里) 백성 60명에게 한 명당 회량전(回糧錢) 2전씩 12냥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대원위 역시 안산 백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보내고 상으로 20냥을 주었다. 그리고 해당 면의 잡역을 영원히 면제하여 그들이 정성껏 수고한 일을 장려하였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77냥이다.

98 가정(家丁): 집에서 부리는 남자 일꾼이다.

99 적간(摘奸): 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피는 일, 또는 실태(實態)를 조사하는 것이다.

100 삼소임(三所任): 동리의 일을 번갈아 가며 맡아보던 세 사람, 곧 동장, 집강(執綱), 풍헌(風憲)을 말한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9509냥이다.〔영유 수령 김선근金善根 1000냥 ○금구 수령 홍순영洪淳永 1000냥 ○ 전 지사 현일玄鎰 2000냥 2차 ○연지동 유학 박용구朴用九 안경眼鏡 1개〕
 자원군은 232동에서 1만 2561명이다.

27일

흐리다가 밤에 비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궁전의 터가 모두 드러났고, 못[池塘]과 수로[溝渠]도 거의 파서 뚫었습니다. 교태전交泰殿은 우선 영건하기 위한 제반 길일吉日을 삼가 다음과 같이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전각殿閣은 재목과 석재가 다 준비되는 것을 기다려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교태전 영건 길일은 정초定礎가 6월 20일 신시이고, 입주¹⁰¹가 10월 9일 인시寅時이며, 상량¹⁰²은 같은 달 11일 자시子時이다.

○또 본 도감에서 경복궁 축성 길일은 6월 20일 신시로 초기를 올렸다.

○법궁의 좌향坐向은 국승國乘과 야사野史에 모두 임좌¹⁰³라고 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임좌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대원위가 지리관地理官을 불러다 동참同參시켰을 때, 안명호¹⁰⁴가 윤도¹⁰⁵를 가지고 추측하였는데 교태전 이하 제전諸殿의 옛 주춧돌[舊礎] 및 광화문光化門〔당시 옛 광화문이 있었다〕은 모두 자좌¹⁰⁶였으며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안명호

101 입주(立柱): 건물의 첫 기둥을 세우는 절차이다.

102 상량(上樑): 목조 건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종도리를 올리는 일을 말한다.

103 임좌(壬坐): 집터, 밭자리 등이 임방(壬方: 정북쪽에서 서쪽으로 15도)을 등지고 앉은 자리이다.

104 안명호(安命鎬): 안명호는 1863년(철종14) 12월 산릉도감에서 철종의 능자리를 살펴볼 때 방외지사(方外地師) 손동찬(孫東贊)과 함께 술업(術業)에 정통하다고 하여 상지관(相地官)에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 철종 14년 12월 18일; 12월 24일〕

105 윤도(輪圖): 지관이나 풍수가가 방위를 헤아릴 때 쓰던 기구로, 가운데 지남침을 꽂고 가장자리에 원을 그려 24방위로 나뉘어놓았다.

106 자좌(子坐): 밭자리나 집터 따위의 자방(子方), 즉 정북(正北) 방향을 등지고 정남향으로 앉은 자리를 말한다.

가 말하였다.

“백두정간白頭正幹이 몇백 리를 위이¹⁰⁷하여 도봉道峯, 삼각三角에 이르렀으니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듯[龍飛鳳舞] 서기瑞氣가 영룡[蕙瓏]하여 엄연히 하늘에 가득한 수성水星이 되고 관악冠嶽은 화성火星을 바르게 이어받아[正體] 본방本方에 우뚝합니다. 이는 주객主客이 서로 만남에 단정하고 엄숙하게 공읍拱揖하여 저절로 감리¹⁰⁸의 두 상[二象]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기상이 홀룡[氣概]하고 자연스러운 자좌입니다. 북악北嶽이 우뚝 서서[聳立] 좌우익左右翼을 열고 가운데로 떨어진 임감방¹⁰⁹의 맥脈은 교태전의 뒤로 입수入首하니 이는 곧 좌맥左脈이 먼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좌에 우뚝 서서, (패철 상 기맥이 왕성한) 경자분으로 분금되는 방위가 됩니다. 오른쪽으로부터 돌아들어오는 건해¹¹⁰와 곤신¹¹¹의 물을 받아 들였다가 <그 물이> 손방¹¹²으로부터 나와서 진방¹¹³으로 돌아가니 특별히 신자진의 삼합국¹¹⁴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내당¹¹⁵의 자연스러운 자좌이며, 임감방壬坎方에서 입수하여 이방離方을 향해 안산案山을 마주함으로써 중남, 중녀¹¹⁶의 배합配合이 되니 이것은 이기理氣의 자연스러운 자좌입니다. 일법日法을 헤아려 추측해 보면 오정午正의 해 그림자[晷影]는

107 위이(逶迤): 마치 뱀이 구불구불하게 기어가는 모습처럼 용맥(龍脈)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108 감리(坎離): 감위(坎位)가 지(地)인 음(陰)이 되고, 이위(離位)는 천(天)인 양(陽)이 되므로 천지의 중기(中氣)를 주관하는 중요한 패이다.

109 임감(任坎): 임방과 감방 사이, 11시30분~12시 방향 사이를 말한다.

110 건해(乾亥): 24방위 중 건(乾)과 해(亥)의 방위로 대략 서북쪽이다.

111 곤신(坤申): 24방위 중 곤(坤)과 신(申)의 방위로 대략 서남쪽이다.

112 손방(巽方): 24방위(方位)의 하나로, 정동과 정남 사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방위, 곧 남동쪽을 말한다.

113 진방(辰方): 24방위의 하나로, 정동(正東)에서 남으로 30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방위를 말한다.

114 신자진의 삼합국[申子辰三合局]: 풍수지리설의 용어로 지지삼합(地支三合)중 하나이다. 12지지의 장생(長生), 제왕(帝旺), 묘(墓)에 해당하는 오행 3자가 동시에 합체하여 강력하게 되고 목(木), 화(火), 금(金), 수(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데, 신자진은 삼합하여 수국(水局)이 되고, 임(壬)으로 변화한다.

115 내당(內堂): 풍수지리에서 묘 앞의 안산(案山)과 무덤 사이의 평지를 내당 또는 내명당(內明堂)이라 한다.

116 중남중녀(中男中女): 중남은 팔괘 가운데 오패인 감수(坎水), 중녀는 팔괘 가운데 육패인 이화(離火)의 인륜(人倫)에 해당한다. 즉 중남, 중녀는 감리(坎離)패로서 음양의 중(中)을 얻어 일월주야한서(日月晝夜寒暑)의 천도(天道)의 운행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패이다.

정향^{正向}의 윗선^[上線]에 똑바로 부합하니 이것은 영법^{影法}의 자좌이며, 밤에 중성¹¹⁷을 점쳐서 시각^{時刻}의 중성^{中星}이 정향의 선상^{線上}과 차이가 생기지 않으니 이것은 별 궤도^[星躔] 측후^{測候}의 자좌입니다. 또한 상원갑자^{上元甲子}의 운으로써 자좌한 정궁을 영건하시고, 주상 전하께서는 임자년(1852년, 철종3)에 탄강하셨으니 이것은 일기삼합^{一氣三合}의 이치를 합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홍무^{洪武} 연간의 반석^[磐泰]의 운은 전후로 같은 것이리니 이는 우리 동방의 억만년의 끝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대저 옛 제왕들이 남면하여 다스릴 때 도읍을 세움에 자좌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방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군, 기자, 신라, 고려가 도읍을 세우는 것도 역시 모두 자좌로 하여서 오랫동안 나라를 향유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평범한 눈으로 보더라도 교태전의 뒤는 옥침^{玉枕}과 체요^{體要}가 자좌를 벗어나지 않은 데다가 궁궐의 터와 옛 주춧돌^[舊礎]이 완전하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치 오늘 비로소 정한 것이 옛 터를 따라 자좌로 한 듯하니, 그새 어찌 다시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국승^{國乘}과 야사^{野史}에서 〈임좌라고 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수습된 것으로 착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태조 3년 갑술(1394, 태조3) 정도전^{鄭道傳} 등에게 명하여 한양^{漢陽}에서 대궐 자리를 정하게 하였다. 승^僧 무학^{無學}은 인왕산^{仁旺山}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산^{木覓山}(남산)을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로 삼으려 했다. 정도전은 난색을 띠며 말하였다.

“옛날부터 제왕^{帝王}은 모두 남면^{南面}하고 정치를 하였지, 동쪽을 향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고 결국 자좌로 정하였다.〔정도전의 『삼봉집^{三峰集}』에 보인다.〕

○별간역^{別看役} 박양진^{朴陽鎭}이 전적으로 재력^{財力}을 담당하여 이날 은구 공역을 시작하였다가 2일째 되는 날 잠시 공역을 정지하였다. 전각^{殿閣} 중에 아직 짓지 않은 것을 새로 지을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6냥이다.

117 중성(中星): 28수 가운데 해가 질 때와 돋을 때 정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이다. 혼중성(昏中星)과 단중성(旦中星)이 있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919냥이다.[전 승지 임승준(任承準) 대부인(大夫人) 정경부인 엄씨(嚴氏) 1000냥]

자원군은 104동에서 5468명이다.

28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 동편 성 아래 민가는 이미 철거하였으나, 건춘문¹¹⁸ 앞의 도로가 협착하니 성 동쪽 천변(川邊)의 민가도 똑같이 철거하여 왕래하기에 편리하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한성부에 분부하여 일일이 〈집주인들에게〉 알려 거행하고, 집값을 넉넉하게 마련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와집 85칸은 매 칸의 값을 10냥으로 쳐서 850냥, 초가 592칸은 매 칸의 값을 5냥으로 쳐서 2962냥 5전, 가가(假家) 10칸 받은 매 칸의 값을 2냥으로 쳐서 21냥으로, 이상 3833냥 5전을 도감에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후원지(後苑池)를 준척(濬滌)하는 공역을 마쳤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7일 동안 자원군 2만 5324명을 썼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557냥 5전이다.[안변 수령 이인명(李寅命)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419냥이다.[부평 이한영(李漢榮) 1000냥 ○성주 수령 남희중(南羲重) 1000냥 ○평

안 병사 오길선(吳吉善) 5000냥 ○경기도 재인(才人) 등 300냥]

자원군은 23동에서 912명이다.

118 건춘문(建春門): 경복궁의 동문이다.

29일

미우微雨

사알司謁에게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였다.

“많은 백성이 꺾문과 지척인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부역하고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역소役所는 역소이고 꺾 밝은 꺾 밝이다. 더구나 음악까지도 중지시키고 있는 이런 때¹¹⁹에, 민정民情이 어찌 이처럼 무엄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해당 동洞의 두민¹²⁰과

삼소임을 내병조內兵曹에 잡아들여 엄히 신칙하라. 그 후에도 다른 백성들이 다시 이런 행동을 야기하면 두민들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뜻으로 분부한 후 내보내라.”

〔‘음악까지도 중지시키고 있는 때[遏密]’라는 것은 곧 철종대왕哲宗大王의 3년 상을 말한다. ○부역赴役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몇천의 역기役旗가 앞에서 인도하고 홍백의 고깔모자 대오를 이루어 뒤따르는 가운데 채동彩童이 사람 어깨에서 춤을 추고 길 한 편에서 징과 북을 치니 조용한 동네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교가 있었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2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1742냥이다.〔안시윤安時潤 8000냥 2차〕

자원군은 72동에서 3549명이다.

30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이상순李象恂을 중부령中部令으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송사가 번다하여 직임이 서로 방해되니, 해조에서 구전으로 한산한 관사와 서로 바꾸게 하겠습니다.〔와서 별제瓦署別提이다.〕 도청都廳 이창호李昌鎬가 헌납에 제수되었습니다. 직임이 서로 방해되니, 맡고 있는 대관臺官 직을

119 음악까지도 중지시키고 있는 이런 때[遏密]: 알밀팔음(遏密八音)의 준말로 국왕이 돌아가시어 온 세상에 음악 소리가 끊어져 고요하다는 말이다.

120 두민(頭民): 동네의 나이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우선 체차하겠습니다. 감조관監造官 윤홍선尹弘善을 한성부 주부로 옮겨 제수하여 지금 6품으로 승급되었습니다. 그가 개차改差 되었으므로 그 후임으로 사옹원 봉사 심병규沈炳奎로 차하겠습니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장苑牆 밑에서 옛 수도水道를 발견했다. 애당초 수도로 여겨졌던 것은 주춧돌이 좌우로 있어서 마치 문 자리 같고 또한 곧장 원지로 흐르게 되어 있었으니, 옛사람이 물을 인도하는 것이 어찌 연못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도록 해서 쉽게 모래로 막히도록 하였겠는가. 의심스럽던 차에 그 우변 몇 걸음 밖에서 수도 하나를 발견하였고, 하류에 돌다리가 있었다. 이것이 옛 수도였음은 의심할 나위 없었다.

○이년목¹²¹(속명 가사목柯紗木) 20개 각 길이(20자) 너비(8치)인 것을 제주목濟州牧에 지정卜定하였다.

○각 전당殿堂의 도배塗槽에 들일 백지白紙 2만 2500권 중에 5000권을 공충도에, 8750권을 경상도에, 8750권을 전라도에 지정하였다. 후백지¹²² 9000권 중에 2000권을 공충도에, 3500권을 경상도에, 3500권을 전라도에 지정하였다. 장지¹²³ 6000권 중 1000권을 공충도에, 2500권을 경상도에, 2500권을 전라도에 지정하였다. 초주지¹²⁴ 2000권 중 400권을 공충도에, 800권을 경상도에, 800권을 전라도에 지정하였다. 영창지影窓紙 600권 중 300권을 경상도에, 300권을 전라도에 지정하였다. 대각장¹²⁵ 800장 중 400장을 경상도에, 400장을

121 이년목(二年木):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창자루, 화살대 등을 만드는 목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122 후백지(厚白紙): 두꺼운 백지를 말한다. 백지는 닥나무 껍질을 재료로 하여 얇게 만들어진 종이를 말하며, 흰 종이 전체를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벽, 바닥, 천장, 창, 문, 기둥 등 실내 모든 곳에 제일 처음 바르는 초배지의 용도였다.

123 장지(壯紙): 조선시대 종이의 한 가지로, 종이 질이 두껍고 질기며 지면에 윤기가 흐른다. 제책용, 창, 장판에 사용하였다.

124 초주지(草注紙):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던 두껍고 품질 좋은 고급종이이다. 어람용 책자와 중요 문서, 관청의 업무용 용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건축에서 초주지(草注紙)는 기둥과 창, 문 등 초벌로 도배를 끝내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125 대각장(大各張): 주로 공문서나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던 각장류(各張類)의 하나이다.

전라도에 지정하였다. 중각장中各張 1200장 중 600장을 경상도에, 600장을 전라도에 각각 관문을 보내 지정하였다. 그런데 절반은 오는 병인년(1866, 고종3) 봄 사이에 올려보내도록 하고 절반은 정묘년(1867, 고종4) 봄 사이에 올려보내도록 해서 차례대로 들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교동 수사喬桐水使에게 보내는 관문

덕산묘¹²⁶에 쓰고 남은 목木 55개가 덕산 구만포九萬浦에 거주하는 김계만金啓萬, 노중철魯重喆에게 있으니, 덕적德積의 선척船隻으로 황급히 나누어 싣고 오는 윤달 20일 전에 경강京江에 도착하도록 하라.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38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7746냥이다.〔안주 수령 이경李敬 1000냥〕

자원군은 87동에서 3651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4월 한 달 동안 선파인璿派人에게 받은 원납전 7만 6450냥 5전과 호조가 각 인에게 받은 원납전 75만 7816냥 4전 9푼을 별도로 네 건의 책자로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4월 한 달 동안 자원군은 1903동에서 도합 10만 7194명이다.

126 덕산묘(德山墓):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묘이다. 충청남도 덕산에 있다.

을축년^{1865, 고종2} 5월

1일

맑음

목역^{木役} 할 가가^{假家}가 점차 구성되었다. 우선 교태전과 여러 당상과 낭청 이하의 처소에 대한 공역을 하고 50냥을 목수방^{木手房}에 내려 먼저 치목 가가^{治木假家}의 고사^{告祀}를 지내게 하였다.

○지난번 전교로 인해 채의 무동^{彩衣舞童}을 금지하였다. 당시 무더위를 맞아서 역부^{役夫}들이 노고를 잊고 흥을 북돋으려는 뜻이 없어서, 다시는 금지하는 신칙을 내리지 않았다. 도내에 거주하는 석수^{石手}를 모두 다 올려보내라는 내용으로 팔도에 관문을 보냈다.

○부내^{府內}에 거주하는 목수^{木手} 13명을 밤을 새서 올려보내도록 〈목수 성명을〉 후록하여 강화부에 관문을 보냈다.

교태전 목수는 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8228냥 5전이다. [강화 전 오위장 김윤규^{金潤奎} 1000냥 ○전 오위장 변재성^{卞在成} 2000냥과 생갈^{生葛} 2태¹²⁷ ○전 오위장 최석조^{崔錫祚} 2000냥 2차 ○의주 세감^{稅監} 오경석^{吳慶錫} 1000냥]

¹²⁷ 태(駟): 말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짐의 양으로 140근(斤)이다.

자원군은 36동에서 5440명이다.(수원 문봉규文鳳奎는 홀로 1개월간 부역하였다.)

2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의 사문四門 및 소동문小東門을 고쳐 세우기에 길한 일시日時를 일관日官에게 가려 뽑게 하였더니, 광화문의 상량上樑은 금년 10월 11일 술시戌時가 길하고, 신무문¹²⁸의 상량은 9월 22일 진시辰時가 길하고, 건춘문建春門의 상량은 12월 25일 진시가 길하고, 영추문¹²⁹의 상량은 11월 25일 신시가 길하고, 소동문(을진방¹³⁰)의 건조建造는 12월 25일 진시가 모두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시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계를 올려 아뢰었다.

“각 항項의 택일은 이미 계하啓下(국왕의 승인) 받았고 목재와 석재石材도 현재 한창 운반해 모으고 있으니, 하루가 급하게 다듬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배匠手輩가 민간의 공사에 뛰어드느라 온갖 피를 내어 도피하면서 끝내 응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강에 관련된 일이니, 오부五部에서 기일을 확정해 소집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소홀히 함이 없게 하고 먼저 책자로 만들어 보고해 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가私家의 공역을 일체 정지한다는 내용의 감결¹³¹을 오부에서 똑같이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히한다.”고 전교하였다.

128 신무문(神武門): 경복궁의 북문이다.

129 영추문(迎秋門): 경복궁의 서문이다. 연추문(延秋門)이라고도 한다.

130 을진방(乙辰方): 동남 방향에 해당하는 방위이다.

131 감결(甘結): 조선시대 상급관아에서 하급관아로 보내는 공문이다.

○상원¹³² 담장 밖의 세 기슭[三麓]은 하나는 신무문神武門의 후록後麓이고, 하나는 교태전交泰殿의 후록이며, 하나는 문소전文昭殿의 후록으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길 주변으로 구덩이가 생겼다. 먼저 신무문의 후록부터 보토¹³³하고 박석碑石을 깔기 시작해서 5일 만에 일을 마쳤다. 자원군 1521인을 썼다.

○경회루지慶會樓池를 준척하는 군사들 전체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토봉土棒’이라고 불렸다. 인파 속에서 춤을 추자 사녀士女들이 깔깔 웃으며 흠뻑 젖었다가 다시 모여드니 또한 일대 장관이었다.

교태전 목수는 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54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682냥 2전이다.[죽산 유학 박해명朴海明 3300냥 선납 ○중화 수령 한용선韓用善 1000냥 ○장흥 수령 박봉하朴鳳夏 1000냥 ○청도 수령 김석근金奭根 1000냥]

자원군은 135동에서 5081명이다.

3일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정王政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백성을 부린다면 필시 농사철을 잃게 하는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기 돌아가 농사에 힘쓰도록 하라는 뜻으로 지난번에 칙유飭諭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듣자 하

니 기읍畿邑에서 자원하여 부역赴役하는 자들이 계속 그치지 않으니 마치 영대靈臺를 지을 때 백성들이 아들같이 왔었던 것과 같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 다행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는 그 시기가 있는 만큼 시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만약

132 상원(上苑): 궁궐의 후원(後苑)을 이른다.

133 보토(補土): 우묵한 땅을 흙으로 채워 다지는 공역의 절차이다.

우리 적자赤子들로 하여금 그 시기를 잃게 만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다면, 비록 아름다운 궁궐이 생긴다 한들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는가. 그리고 원납願納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백성에게 의연금義捐金을 내게 해서 이 공역을 돕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말하기를, ‘함께 부역을 할 수 없다면 자장¹³⁴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빈부貧富를 따지지도 않고 집집마다 거두어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면 부역을 가는 자나 머물러 있는 자나 모두 피해를 받는 것이니, 필시 경작할 여가가 없이 똑같이 소란스러운 결과를 빚고야 말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게 되면 정말 근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이후로는 근기近畿 지방에서 부역을 자원하는 백성들을 일체 모집하지 말도록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게 하라는 뜻으로 각 고을에 엄히 신칙하고, 이를 진문과 언문¹³⁵으로 옮겨 써서 방방곡곡에 효유하여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이를 모르는 탄식이 없게끔 하라. 그리고 이외의 다른 제도諸道 역시 이런 폐단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것이니, 영건도감에서 위와 똑같이 삼현령¹³⁶으로 사도四都와 팔도에 알리도록 하라.”

대원위가 날마다 친히 감독하여 백성을 귀농歸農하게 하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엄하게 신칙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부역에 나왔다. 그래서 또한 이같이 간절하고 진지한 하교가 있었다.

교태전 목수는 1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88냥이다.〔금산 수령 이봉소李鳳沼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5603냥이다.〔조윤현趙胤顯 2차 2000냥〕

자원군은 138동에서 5182명이다.

134 자장(資裝):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혼수 또는 큰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135 진문과 언문(眞諺): 한문과 한글을 말한다.

136 삼현령(三懸鈴): 현령(懸鈴)이란 긴급한 공문서를 빨리 전송하는 통신 제도를 말한다. 일의 급한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제일 급한 3급(急)은 공문의 봉투에 세 개의 방울을 달고, 그 다음 2급은 두 개의 방울을, 1급은 한 개의 방울을 달아 전송하였다. 이때 방울 대신에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하기도 하였다. 삼현령은 제일 급한 3급을 의미한다.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으니 날마다 수고하는 공장^{工匠}과 역부^{役夫}들에게 병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런데 근래의 약재^{藥材}는 오래 묵은 것이 아니면 대부분 품질이 형편없는 것이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번에는 영건도감에서 양의사¹³⁷를 엄히 신칙하여 좋은 약재를 미리 준비해 두게 함으로써 구료^{救療}할 방도를 강구하라.”

○전의감^{典醫監} 의생^{醫生} 3인과 혜민서^{惠民署} 의생 3인 가운데 각 1인씩 2인이 3일씩 돌아가며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도록 했다. 약재는 전의감과 혜민서 두 관사의 공인^{貢人}이 진배^{進排}하도록 하여 여러 공장과 역부 중에 병든 자를 모두 증상에 따라 치료하도록 하였다.〔뒤에 다시 8인을 뽑았다〕

○남별궁¹³⁸에 있던 패하석¹³⁹을 가져와서 다시 금천교^{禁川橋} 서쪽 우변 석축^{石築} 위의 본래 자리에 두었다.〔패하석 4개는 금천교를 축성할 때 좌우 사변에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평양위^{平壤尉} 조대림¹⁴⁰이 패하석 하나를 자기 집의 북쪽 섬돌 소나무 아래로 옮겨 두었다. 조대림이 복병되자¹⁴¹

137 양의사(兩醫司): 혜민서와 활인서를 아울러 이르던 말이다.

138 남별궁(南別宮): 태종 때 경정공주(慶貞公主)의 남편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대림(趙大臨)에게 이 땅을 준 뒤부터 속칭 ‘소공주댁(小公主宅)’으로 불렸다. 이후 1583년(선조16)에 선조가 이 집을 크게 수리해 셋째 아들 의안군(義安君)에게 주었으며,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명나라 장수와 관원들을 접견하면서 왕의 거소(居所)를 의미하는 별궁, 즉 남별궁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139 패하석(虺蜥石): 서수(瑞獸)로서, 지금 영제교(永濟橋) 주변 4마리의 서수상에서 그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김민규, 『경복궁영건일기』와 경복궁의 여러 상징 연구, 『고궁문화』11, 2018). 패하는 용의 9마리 새끼 중 6번째로 명나라 양신(楊愼)의 『단연록(丹鉛錄)』에는 물을 좋아해서 다리 기둥에 세운다고 하였으며, 『대류총귀(對類總龜)』에는 말하기를, 용의 아홉 마리 새끼 중에 하나는 패하(霸夏)라 하여 무거운 것을 좋아하므로 비석의 바탕으로 하였다고 한다.

140 조대림(趙大臨): 태종의 부마이다. 1403년(태종3)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혼인하여 11월에 평녕군(平寧君)에 봉해졌다. 이후 1406년(태종6) 평양군(平壤君)으로 개봉되었다. 1408년 반란자 목인해(睦仁海)의 꾀에 빠져 도성에서 군사를 일으키다가 순군사(巡軍司)에 감금되었으나, 왕의 부마로서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 이후 1409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윤사수(尹思修)와 함께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11년 태조의 어진(御眞)을 평양부에 봉안시켰다. 세종대에도 유후사(留後司)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신을 접반하였으며,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의 집을 빈관(僊館)으로 만들었는데 <이곳에 머물던> 청나라 사신이 <그 패하석을> 매우 신령스럽고 괴이하다고 하여 그 등(背)에 구멍을 뚫어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서쪽 담장 밖 썩은 다리(朽橋)[돌다리(石橋)를 썩었다고 이름붙인 것은 의미상 근거가 없다. 생각건대 본래 서금교(西禁橋)였는데 ‘서금(西禁)’의 음이 비슷해서 ‘썩은(朽)’으로 바뀐 것이다. 그 남쪽에 또한 남정(藍井)이 있는데 아마도 역시 궁인들의 염소(染所)였을 것이다. 모두 담장 밖에 있으니 옛 담장의 제도는 지금보다 넓지 않았겠는가.)의 물이 수문으로 들어가 금천(禁川)이 된다. 좌우의 돌을 수문의 아래부터 쌓기 시작하여 바닥에 엄석¹⁴²을 깔고 그대로 지대석(支臺石)을 3층으로 쌓았는데 높이가 4자에 너비 1자이다. 윤5월 9일에도 금교(禁橋)까지 공역을 마치지 못하였기에 잠시 정지하고 그 석수(石手)들을 옮겨 경회루지(慶會樓池)의 두 섬에서 공역하게 하였다.

○병조 판서 김병기(金炳箕)가 도화동(桃花洞)에 지은 와가(瓦家) 70여 칸을 허물어 원납하였다.

교태전 목수는 1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16냥이다.〔전 도사 이희적(李熙績) 2000냥 선납〕

호조에서 받은 돈은 2575냥이다.〔전라 감사 정건조(鄭健朝) 정부인(貞夫人) □씨 1000냥〕

자원군은 171동에서 5515명이다.

5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본 도감의 도청(都廳) 홍원식(洪遠植)이 대직¹⁴³에 제수되었는데 직임이 서로 방해되니, 그가 겸대하게 된 대직(臺職)을 지금 우선 개차하겠습니다.” “유택한다.”고 전교하였다.

141 조대림이 복법(伏法)되자: 복법은 형벌에 복종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대림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142 엄석(掩石): 지대석 아래에 설치하여 지대석의 하부를 고정하는 석재를 가리키며, 주로 왕릉 호석 하부나 궁궐, 관청 등의 주요 전각에서만 썼다.

143 대직(臺職): 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경회루지慶會樓池에 한가득 방기풀[葑]이 뭉쳐져서 있었는데 오래도록 얹혀 있었다. 삼으로 잘라내고 새끼줄로 묶어서 끌어내니, 크게 떠 있는 것[大浮]은 뗏목과 같았고 작게 떠 있는 것은[小浮] 방석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 징과 북을 치며 화답하고, 흙투성이가 된 군사들이 늘어서서 흙탕물 위로 끌어내니, 흙사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4월 22일에 시작해서 이때까지 모두 14일 동안 전부 제거하였고 자원군 9210명을 썼다. 이 날부터 또 진흙을 준설하는 공역을 시작하였다.

○교태전과 문소전 뒤쪽 두 기슭의 원장苑牆 밖에 패인 구덩이 자리를 경회루지慶會樓池를 준척할 때 나온 방기풀이 섞인 진흙으로 보토補土하였다. 흙에 힘줄과 뼈대[筋骸]가 있어서 견고하게 엉겨 풀어지지 않으니 폭우가 내리거나 사람이 마구 밟고 다녀도 쓸려 무너질 염려가 없었다.

교태전 목수는 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33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7764냥이다.[제용감 공인들 2000냥]

자원군은 77동에서 2604명이다.

6월 맑음

원장苑牆을 헐어내면서 철통鐵桶만 남아 있는 조총鳥銃 한 자루를 발견하였는데 ‘만력 정해(1587, 선조20) 7월 일 제조[萬曆丁亥七月日造]’라고 새겨져 있었다. 대원위가 철이 좋으니 큰 칼 한 자루를 주조하라고 하였다.

○호남 법성창法聖倉 조졸漕卒 320명이 18개의 주기舟旗를 앞세우고 댕줄을 끄는 방식으로 궁내에서 베어낸 나무를 근정전 앞뜰로 옮겨 쌓았다. 110명이 무리를 이루어 끌어내는 동안에 댕 푸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그 소리가 <박자를 쳐주는> 큰 북소리보다 컸다. 대원위가 ‘주기는 물을 멈추게도 하고 물을 가게도 하는 물건[水宿水行之物]으로 관악冠嶽의 화성火星을 제어할 수 있으니 <깃발을> 그대로 두고 근정

전 월대¹⁴⁴ 위의 4면에 영원히 꽃아 두도록 하라.’ 하고 18필의 무명과 20냥의 돈으로 넉넉하게 상을 내렸다.

교태전의 목수는 1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957냥이다.[거창 수령 이정모李鼎謨 1000냥 ○경상 좌수사 이종무李鍾武 100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8393냥이다.[김제 수령 신단申檀 1000냥 ○안동 수령 심동신沈東臣 1000냥 ○삼화 수령 윤선응尹善應 1000냥 ○사과 정재범鄭在範 1000냥 ○원주 출신 함의정咸義正 1000냥 ○군기시 직장 김형묵金亨默 기와[瓦子] 5875장]

자원군은 65동에서 2846명이다.

7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맑음

의정부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법궁法宮의 공역을 시작한 뒤로 방리坊里와 교외의 백성은 물론이요 경기[畿甸] 백성과 조운하는 군졸에 이르기까지 징발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뒤처질세라 부역하러 나오고 있으니 위를 향한 이 백성들의 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성慈聖께서 하교하시어 농사철

을 걱정하여 전후에 걸쳐 〈부역을〉 금지한 것이 매우 진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단자單子를 올린다면 오히려 덕스러운 뜻을 받들지 못할 뿐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공적과 상을 바라면서 강제로 몰거나 힘으로 위협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성부에서 빠짐없이 효유하여 철저히 금단하도록 하고 오늘 이후로는 임장배任長輩에 체가帖加해 주는 조목은 거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호서湖西, 해서海西, 관동關東 등 경사京師와 거리가 조금 가까운 지방의 감사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44 월대(月臺): 근정전과 같은 정전이나 내전, 종묘의 정전과 영녕전, 왕릉의 정자각 등의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기단이다.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강원도에 보내는 관문

영건營建에 쓰일 철물鐵物의 수가 매우 많은데 지정한 약간의 철로는 배정하여 쓸 방도가 없다. 따라서 별정 차인別定差人 박제朴齊를 도내의 강릉江陵, 양양襄陽, 홍천洪川, 영월寧越 등지로 보내니 각 해당 읍에 엄히 신칙하여 밤을 새서라도 채취하도록 하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남양南陽 마도면馬道面 금당동金堂洞의 정씨 반가班家와 백로동白鷺洞의 조씨 반가班家의 사양산¹⁴⁵에 있는 나무로 누주¹⁴⁶ 200개, 궁재宮材 300개, 통벽通辟 300개, 차벽次辟 300개, 대연大椽 1만 50개와 가평군加平郡 조종면朝宗面 태봉동胎封洞 이씨 반가班家의 사양산에 있는 나무로 무대연,¹⁴⁷ 선자대연¹⁴⁸ 각각 1000개를 베어내기 위해 차인差人을 정하여 내려보낸다.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에 거도장巨刀匠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밤을 새서라도 찾아내 올려보내도록 하라.

교태전 목수는 1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7978냥이다.〔평양 수령 신태정 2000냥〕

자원군은 68동에서 3084명이다.

145 사양산(私養山): 나무를 기르던 사유지의 산을 말한다.

146 누주(樓柱): 누각의 기둥감으로 쓰는 굵고 긴 나무이다.

147 무대연(貿大椽): 처마와 처마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계 지점에 걸치는 추녀이다.

148 선자대연(扇子大椽):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의 측면과 가장자리에 쓰이는 선자서까래이다. 45도 방향으로 추녀를 걸고 추녀 좌우로 선자서까래를 조립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부챗살 퍼진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선자서까래라는 이름이 붙었다.

옛 광화문에 사람들이 걸어 놓은 노랫말이 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오호라 좋다. 경복궁은 조선 가운데 큰 땅이로다. 삼각산에 내려온 용龍인 태조 성군太祖聖君이 처음 터를 잡으시고 다섯 강으로 둘러서 경복궁을 지어내니 좌청룡은 금강金剛이요, 우백호는 구월九月이라.

오호라 좋다. 경복궁은 이런 명당 또 있는가. 성자신손聖子神孫이 대를 이어 계승하시어 현명한 임금이 거듭 나와 은택이 대대로 이어지니 더욱 좋다.

임금이 밝은 신하와 좋은 덕을 닦아 백성은 풍성한 물건에 큰 덕을 누리로다. 오호라 이런 좋은 집 에 임진년의 병화兵火가 불탔도다.

육황상제 돌보아 주시고 조종祖宗의 신령들이 도우시사 이 제독李提督(이여송), 진 제독陳提督(진린)은 대명 황제의 명을 받고 거북선 창조 이 충무공은 만고萬古 해전의 명장이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취하여 삼도三都 회복이 유쾌하도다.

오호라 남겨진 터 경복궁은 열성조列聖朝에서 크게 계획하였으나 일은 크고 힘이 미약하여 뜻을 있으나 성취하지 못하셨도다.

상원갑¹⁴⁹의 좋은 운의 요순 성군이 등극하사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일을 잘 따라하시어 온갖 법도를 새롭게 하시도다.

조정에 가득찬 충신들이 힘을 합치고 팔도의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니 천명을 말하는 비기秘記가 심상치 않고 백성들이 성심으로 스스로 오는 일이 거룩하다.

북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깃발의 광채는 해를 빛나게 한다. 성주聖主께서 친림하시어 상을 하사하고 여러 신하들이 시위侍衛하여 명을 받드니 춤 잘 추는 무동이며 소리 치는 역부役夫로다. 억만 명이 자원自願하니 남녀노소의 즐거움이로다.

149 상원갑(上元甲): 일원은 60갑자이고, 삼원은 60갑자가 세 번, 즉 180년을 뜻한다. 삼원을 상원, 중원, 하원으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인 상원의 갑자년이 상원갑이다.

대나무가 덩불을 이루듯 터를 닦고 소나무가 무성하듯 상량하여¹⁵⁰ 흙을 퍼올려서 흙을 치고 흙을 다져 벽을 쌓아 꿩이 날아가는 듯 지어내니 군자가 편안히 계시는 곳이다. 크고 아름답게¹⁵¹ 제도를 만드니 여기에서 웃고 저기에서 말하니 즐겁도다.

오호라 중건한 경복궁은 이런 명당 또 있는가. 종묘宗廟를 봉안하니 왼편이요, 사직에 차례를 지내니 오른편이라.

앞에는 육조六曹를 갖추고 뒤로는 시장을 갖추어 옛 법대로 설치하여 좋게 지어내니 상서로운 해와 구름이 드리워 비와 바람이 순조롭게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철에 맞고 풍년이 많으니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첫 번째라.

임사¹⁵²의 덕이 안에서 돕고 문무文武(주 문왕과 무왕)의 덕이 밖에서 그 다음을 이으니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좋은 터에 꿈과 큰 꿈을 낳는 꿈을 꾸어 인지麟趾의 경사가 번성하고 종사螽斯의 경사가 많고 많으며¹⁵³ 길이 복과 자손을 주시니 거룩하고 순수한 복을 내리고 장수를 기원하니 더욱 좋다.

오호라 좋다. 이 대궐의 오복과 온갖 복을 누리소서. 백 명의 아들을 낳으시고 영원하소서.

오호라 좋다. 경복궁이 영원히 천명을 누리기를 기원하나이다.

於乎 조타 景福宮은 朝鮮中の 大地로다 三角山 너린 龍의 太祖聖君 肇基호스
五江으로 썩릴썩여 景福宮 지어너니 左靑龍은 金剛이요 右白虎은 九月이라
於乎 조타 景福宮은 이런 明堂 또잇는가 聖繼神承 하오시니 重熙累洽 더욱조타
君明臣良德을 닦가 民殷物阜福이로다 於乎 이런 조흔집의 壬辰兵火 憤호도다
玉皇上帝 眷佑 호고 祖宗神靈 도으시스 李提督 陳提督은 大明皇帝命을 받고
龜船創造 李忠武은 萬古水戰名將이라 戰必勝 攻必取的 三都 恢復 快호도다
於乎 遺址 景福宮은 列聖朝의 經綸호스 事巨力綿 호압기로 有志未就 호시도다

150 대나무가 ... 상량하여: 『시경』 「소아」에 나오는 내용으로 새로 지은 궁실의 낙성을 축하하는 말이다.

151 크고 아름답게: 『예기』 「단궁(檀弓)」의 내용으로 건물이 완성되었음을 축하하는 의미로 쓰인다.

152 임사(姪姒): 주 문왕(周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妊)과 주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妣)를 말한다.

153 인지(麟趾)의 ... 많으며: 인지(麟趾)는 인후한 공자를 비유한 말이고 종사(螽斯)는 후손을 비유한 말이다.

上元甲조흔 運의 堯舜聖君 登極 ㅎ스 善繼善述 ㅎ읍시니 百度維新 ㅎ시도다
 滿朝忠臣 合力 ㅎ고 八道百姓 樂從 ㅎ야 天命秘記 이승 ㅎ고 民心自來 거룩 ㅎ다
 磬鼓之聲 動天 ㅎ고 旄旗之光 耀日 ㅎ다 聖主親臨 頒賞 ㅎ고 諸臣侍衛 奉命 ㅎ니
 춤잘추는 舞童이며 소리주는 役夫로다 億萬名 自願 ㅎ니 男女老少 樂이로다
 如竹苞矣 터덜다고 如松茂矣 上樑 ㅎ야 栒之陟陟 흙을 치고 築之登登 벽을 쌓아
 如翟斯飛 지어너니 君子攸寧 ㅎ시도다 奭焉輪焉 制度 ㅎ야 愛笑愛語 樂이로다
 於乎 重建 景福宮은 이런 明堂 또인는가 宗廟奉安 左편이오 社稷祭禮 右편이라
 압흐로는 六曹排辦 뒤흐로는 坐市排辦 옛법티로 設施 ㅎ야 於乎 조케 지어너니
 瑞日祥雲 影이드러 雨順風調 休徵 ㅎ고 時和歲豐 多年 ㅎ니 國泰民安 第一이라
 姒姒之德 內助되고 文武之德 外次되야 龍飛鳳舞 조흔 터의 維熊維羆 꿈을꾸어
 麟趾之慶 振振 ㅎ고 螽斯之慶 誥誥 ㅎ니 永錫祚胤 거룩 ㅎ고 純嘏眉壽 더욱 조타
 於乎 조타 이 大闕의 五福百福 누리소서 則百斯男 ㅎ읍시고 於萬斯年 ㅎ읍소서
 於乎 조타 景福宮의 祈天永命 ㅎ노이다

[그 노래가 선송善頌 이면서 선도善禱이므로 기록하였다.]¹⁵⁴

교태전 목수는 1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69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7547냥이다.[나주 목사 송정희宋正熙 2000냥 ○대호군 이예李執 2차 1000냥 ○공

충 수사 이교창李敎昌 1000냥 ○전 오위장 양희운梁熙運 2000냥]

자원군은 37동에서 2138명이다.

154 경북궁 중건사업을 소재로 한 가사에는 「경복궁영건가」와 「경복궁중건승덕가」, 「복궐중건가」, 「기완별록」의 4개의 작품이 있다.(고순희, 「『경복궁영건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34, 2008; 고순희,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복궐중건가」의 작품 세계와 형식적 변모」, 『고시가연구』 22, 2008; 박은빈, 『경복궁중건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은빈, 「『경복궁가』의 이본 양상 연구」, 『어문논총』 29, 2016) 여기에 소개된 것은 「경복궁중건승덕가」에 해당한다. 기존의 「경복궁중건승덕가」가 44조의 순환글 가사인 데 반해, 『경복궁영건일기』의 가사는 한문과 한글이 혼용되었고 내용에도 차이가 있으며, 작성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안산^{安山} 사인^{士人} 김귀현^{金龜鉉}이 가정^{家丁} 10명을 데리고 와서 경회루지^{慶會樓池}의 진흙을 준설하였는데 두레박으로 퍼 나르니 사람은 적으나 공은 배가 되었다.

○수천 명의 역부^{役夫}가 패랭이^[平涼子]에 공작 깃털^[孔雀尾]을 끼우고 오색^{五色} 고깔에 전채화¹⁵⁵를 장식하여 무리를 이루니 울긋불긋 한 색이 햇살에 빛났다. 징과 북, 피리와 장구가 쟁쟁하고 요란하게 울리며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우레처럼 울렸다. 역기^{役旗}의 경우에도 서로 이기려고 힘을 써서 종이가 변해서 비단이 되고 비단이 변해서 양모^[氈]가 되어 종일 드날렸다. 춤판이 벌어진 곳에서는 주점과 식당, 엽장수와 담배 상인이 곳곳에 나열해서 어느새 일대 도회^{都會}를 이루었다. 경향^{京鄕}의 사녀^{士女}들이 날마다 모여드니 흥에 겨워 의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9월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지금 이 경복궁의 각 전당^{殿堂}을 영건할 때 들어가는 대량¹⁵⁶ 고주^{高柱} 등은 몸체가 큰 목물인데 마땅한 것을 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건했을 때 각 능침^{陵寢}의 화소¹⁵⁷ 안에 있는 송목^{松木}과 회목¹⁵⁸을 수요에 따라 베어 쪼던 예¹⁵⁹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전례대로 각 능원^{陵園}의 묘소가 있는 곳에서 쓸 만한 재목을 골라 벌채한 뒤 가져다 쓰기로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55 전채화(剪綵花): 잘라 만들어 색칠한 꽃이다.

156 대량(大樑): 대들보이다. 목조 건축물의 가구 중에서 가장 단면이 크고 길이가 긴 보를 말한다. ‘대보(大樑)’, ‘대들보’ 등으로 불렸다.

157 화소(火巢): 산불을 막기 위해서 능(陵), 원(園), 묘(墓) 등의 해자(垓子)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이다.

158 회목(檜木): 편백나무이다. 노송나무라고도 한다.

159 『경복궁영건일기』에는 ‘隨所用斫伐入用之意’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隨所用斫伐入用之例’로 번역하였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송목¹⁶⁰ 62개, 진목¹⁶⁰ 30개를 장릉¹⁶¹의 구역 내에서 베어내고 송목 18개, 회목¹⁶² 5개, 진목 3개를 장릉¹⁶²의 구역 내에서 베어내며 송목 2개를 효릉¹⁶³ 구역 내에서 베어내어 지금 바로 운송해 오도록 한다. 끝어서 옹기고 포구로 내는 등의 절차는 많은 읍민을 선발하여 황급히 거행하라는 내용을 교하¹⁶⁴交河, 김포군¹⁶⁴金浦郡에 알리고, 효릉에 있는 송목 2개는 수로¹⁶⁴水路가 없으니 곧바로 육지로 운송하라는 내용을 고양군¹⁶⁴高陽郡에 알리도록 하라.

파주목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목물¹⁶⁴木物은 소령원¹⁶⁴화소¹⁶⁴火巢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바로 베어내도록 하고 출포¹⁶⁴出浦 할 때는 승군¹⁶⁴僧軍이 끝어서 옹기도록 하고 문산포¹⁶⁴文山浦에 도착한 뒤에는 배로 운송하여 경강¹⁶⁴京江에 도착하게 한다. 사용되는 선척¹⁶⁴船隻은 온전하고 튼튼한 것으로 다수 붙잡아 두고 목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운송하여 바치도록 한다. 이런 일도 임진 별장¹⁶⁴臨津別將에 알리고 진선¹⁶⁴津船 몇 척도 대기하며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

교태전 목수는 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4454냥 5전이다.〔순천 수령 이교복¹⁶⁴李教復 1000냥 ○경상 좌병사 이규석¹⁶⁴李奎奭 1000냥 ○마포 한량 장현우¹⁶⁴張鉉禹 박석¹⁶⁴朴石 100장〕

자원군은 41동에서 1972명이다.

¹⁶⁰ 진목(眞木): 참나무이다. 특정 한 가지 수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가시나무, 너도밤나무, 밤나무, 졸참나무 등과 같은 참나무과의 수종을 통틀어 지칭한다.

¹⁶¹ 장릉(長陵): 인조(仁祖)와 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¹⁶² 장릉(章陵): 인조의 생부 원종(元宗)과 생모 인헌왕후(仁憲王后) 구씨(具氏)의 쌍릉이다.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에 있다.

¹⁶³ 효릉(孝陵): 인종(仁宗)과 비 인성왕후(仁聖王后) 박씨(朴氏)의 능이다.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중 하나이다.

¹⁶⁴ 소령원(昭寧園): 조선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사친인 숙빈 최씨의 묘이다.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에 있다. 처음에는 소령묘로 불렸으나 1753년(영조29) 숙빈 최씨를 화경(和敬)이라 추시(追諡)하고, 묘(廟)를 궁(宮)으로, 묘(墓)를 원(園)으로 승격시켰다.

10일

맑음

경회루지慶會樓池의 뭉친 방기풀을 모두 제거하고 나자 물과 진흙이 혼
합되어 지금 막 파종한 논과 비슷했다.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오랜 세월 동안 흙이 썩은 것이다. 손으로 움켜 삼태기로 끌어내서는
준공을 기약할 수 없었다. 동문東門 밖의 군인들이 나무 바가지로 가득
담아 차례로 늘어서서 밖으로 전달하였다. 이때부터 나무바가지를 두
루 사용하여 뽕뽕하게 벌여 늘어서서 물고기를 꿰듯이 차례로 전달하니 멀리서 바라보면
벌떼와 개미떼 같았다.

교태전 목수는 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11냥이다.[의주 부윤 이건필李建弼 2000냥 ○영흥 수령 이종호李鍾浩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2010냥이다.[상주 목사 김증현金曾鉉 1000냥 ○진주 목사 성이호成彝鎬 1000

냥 ○박해명朴海明 2차 1700냥 ○구례 전 오위장 김치환金致桓 7000냥]

자원군은 44동에서 2122명이다.

11일

맑음

마포麻浦와 이현梨峴의 군인들이 각기 진선津船 1척으로 연못의 진흙을
신고 제방 밖으로 끌어내니, 육지를 다니는 배[陸地行船]라고 할 만했다.

강원도에 보내는 관문

평창平昌 미탄면美灘面 두만산斗滿山의 체목¹⁶⁵ 1만 개, 누주樓柱 1만 개
와 영월寧越 상동면上東面 성황동城隍洞 무대연貿大椽 1만 개를 베어내기 위해 차인差人을 정
하여 내려보낸다.

¹⁶⁵ 체목(體木): 가지와 뿌리를 잘라내는 등의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기둥, 들보 등과 같이 중요한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목재이다.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정한 박석¹⁶⁶을 지금 떠내려는데 물력¹⁶⁷이 몹시 부족해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도내에 원납전을 거두어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2만 냥을 한도로 우선 가져다 쓰고 돈은 구획하기를 기다렸다가 환납¹⁶⁸하도록 하라.

황해 감영에 다시 보내는 관문

목석¹⁶⁹을 수운¹⁷⁰하는 구역이 매우 많다. 듣자니 해주¹⁷¹ 지역에 단구거¹⁶⁶ 수백 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는 원래 농업에 사용하지 않고 단지 수레로서 쓰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이 긴급하므로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부내¹⁷²(해주)에 있는 단구거를 100량을 한도로 우선 올려보내도록 하라.

인거장¹⁶⁷과 기거장¹⁷³은 수원과 강화에서 각각 8패¹⁷⁴, 개성에서 20패, 광주¹⁷⁵에서 10패를 밤을 새서라도 찾아낸 후 장교를 정하여 올려보내도록 관문을 보냈다.

교태전 목수는 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82냥이다.[이규식¹⁷⁶ 500냥 선납]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956냥이다.[구례 유학 김상영¹⁷⁷ 5000냥 ○마포 전 오위장 김경연¹⁷⁸ 2차 1000냥 ○정주 목사 서경순¹⁷⁹ 1000냥 ○대구 관관 정헌조¹⁸⁰ 1000냥]

자원군은 37동 2311명이다.

운현궁¹⁸¹ 저동¹⁸²의 아동 50명이 3일간 부역¹⁸³하자 각처 아동들의 구역이 이를 이어서 일어났다.

166 단구거(單驅車): 소나 말 한 마리가 끄는 수레이다.

167 인거장(引鉅匠): 두 사람이 톱을 마주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목재를 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대인거장(大引鉅匠)은 큰 톱을 쓰고, 소인거장(小引鉅匠)은 작은 톱을 쓴다. 이외에도 사용하는 톱의 종류에 따라 기거장(歧鉅匠), 걸거장(𡵇鉅匠) 등의 장인이 있다.

12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이번 영건하는 공역에 장수匠手가 충분치 못한 관계로 목석木石을 다듬는 일을 기한 내에 마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승려들 가운데 장수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책자로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고 일을 끝마칠 때까지 부역하게 한다는 뜻으로 재빨리 팔도와 사도四都에 행

회行會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교태전 목수는 6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682냥이다.[사과 이균순李均純 2차 도합 500냥 ○창원 수령 이명석李明錫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7018냥 5전이다.[해주 진사 임재식林在植 1만 냥 ○해주 관관 성혁수成赫壽

1000냥 ○홍주 목사 조병로趙秉老 1000냥]

자원군은 35동에서 2104명이다.

13일

맑음

연못을 준설하면서 나온 진흙은 날마다 제방 밖에 쌓였다가 옮겨서 후록後麓을 보토補土하였는데 흙을 지고 나르는 군사들이 각자 대오를 이루어 연이어 숙마熟麻와 흰 무명으로 만든 새끼줄을 잡고 물고기 꿔뚝 줄지어 서서 갔다. 채기彩旗가 앞에서 이끌고 징과 북이 뒤에서 호응해 주었다. 숫자가 많은 군사들의 경우에는 맨 앞의 새끼줄이 이미 후록後

麓을 넘어섰는데도 맨 끝의 새끼줄이 연못의 앞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아 마치 긴 뱀의 수미首尾와 같았다.

강원도에 보내는 관문

무목패장質木牌將 2인을 회양淮陽, 금성金城, 인제麟蹄, 춘천春川, 낭천狼川 등지로 나누어 보내어 값을 주고 베어내도록 하였다. 방금 패장의 보고를 보니 소위 수검 장교搜檢將校와 공

방 색리(工房色吏)들이 관령(官令)이 있어 수량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여러 날 동안 붙잡아 두고 수납(輸納)을 연기하게 했다고 하니 매우 놀랍다. 이번 영건은 실로 천년의 드문 사업이다. 전국의 백성들이 누군들 앞다투어 부역하러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 소리(小吏)가 감히 토색(討索)할 계책을 생각해 내어 어렵게 여기지 않고 막아서 막중한 대역(大役)이 끝내 낭패를 보게 되었다. 폐단을 일으킨 해당 이배(吏輩)를 각별히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붙잡아다 본 도감으로 올려보내고, 회양 등지의 무목 패장에게 전령(傳令) 2장을 성급하도록 하라.

교태전 목수는 6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75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4985냥이다. [공충 감사 신억(申億) 3000냥 ○대호군 송종수(宋宗洙) 1000냥 ○경주 부윤 홍익섭(洪翼燮) 1000냥 ○황주 신상칠(申相七) 2000냥 ○부안 수령 이운필(李雲弼) 1000냥]

자원군은 46동 2728명이다. [서부 공덕 역부(役夫) 1320명이 3일간 공역하였다.]

재동(齎洞) 군인 80명이 자원하여 우물을 준설하였는데, 이달 2일에 시작하여 이날 공역을 마쳤다. 상으로 20냥을 지급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이 궁궐의 우물은 열수¹⁶⁸에 상응하는 28좌(座)였다고 하는데, 옛 우물의 벽을 따라 준설했지만 10좌(座)만 발견하였다.

14일

맑음

교태전 터 밖에 울타리(柵)를 두르고 옛 섬돌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나서 터를 닦았다.

교태전 목수는 6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62냥이다. [박천 수령 이응수(李應洙) 5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4603냥이다. [태천 수령 이충익(李忠翼) 1000냥]

¹⁶⁸ 열수(列宿): 하늘에 제성(帝星)을 둘러싸고 늘어서 있는 별들이다. 오성(五星)은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목성이고, 열수는 28개로 동방의 목성, 서방의 금성, 북방의 수성, 남방의 화성에 각각 7개씩 배치되어 있다.

자원군은 52동 2794명이다.[종친부의 권두¹⁶⁹ 등 30명이 1달을 기한으로 터를 다지는 일에 부역하였다.]

15일

맑음

교태전 계체階砌의 석재石材를 떼와서 다듬기 시작했다. 50냥을 석수방石手房에 내려 먼저 치석가가治石假家에서 고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교태전 목수는 78명이고 석수는 3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72냥이다.[전라 좌수사 이주옹李周膺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378냥이다.[황해 수사 윤석구尹錫九 1000냥 ○봉산 수령 조술영趙述永 1000냥 ○신천 유학 민봉호閔鳳鎬 1000냥 ○신천 경내境內 민인民人 등 9920냥]

자원군은 54동에서 2863명이다. 그중 승군僧軍은 92명으로 북한산 중흥사中興寺의 승도僧徒들이 처음 부역하였다. 승도가 성안에 들어온 지 거의 8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각 처의 승군들의 부역이 이를 이어서 일어났다.

16일

흐리다가
오후에 세우瀟雨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방금 가평加平 북면北面 이곡리梨谷里에 거주하는 유학 박기우朴夔祐의 단자單子를 보니, 그의 조산祖山이 본리本里에 있는데 기르고 있는 송추¹⁷⁰가 이미 자랐으므로 연목楡木 1만 개를 한도로 베어 납부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소장訴狀에 따라 베어내는 일을 허가하고 지체하지 말고 운송하여 납부하라는 뜻을 해당 고을에 알리고 부내府內에 거주하는 목수를 50명을 한도로 올려보내도록 사도四都에 관문을 보내도록 하라.

169 권두(權頭): 종친부, 의정부, 의빈부, 충훈부, 돈녕부, 중추부 등에 소속된 하례(下隸)들의 우두머리로 권도(權導)라고도 한다.

170 송추(松楸):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교태전 목수는 74명이고 석수는 3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98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4560냥이다.〔상원 수령 허소許燾 1000냥 ○군위 유학 송규진宋奎鎭 1000냥〕

자원군은 84동에서 5548명이고 그중 승군은 262명이다.

17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영건 구역이 한창 진행 중인데, 목석木石과 각종 물품이 길가에 그대로 놓여 있으니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본 도감의 제조 가운데 네 곳 영문營門의 장신將臣이 표하군¹⁷¹ 50명을 거느리고 오늘부터 돌아가며 입직하면서 순찰하게 하고, 각방各房의 낭청과 감조관監造官들도 전례에 따라 돌아가며 상직上直하게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궁성 및 사문四門의 공역을 마친 뒤에 표하군을 철수시켰다.〕

○각방 생기各房省記

장신將臣 1원員〔유고有故한 경우에는 중군中軍이 대신 당직을 선 뒤에 문신 제조를 참작해서 입직하게 하는데 승후관¹⁷²은 참여하지 않는다.〕

낭청, 감조관 중 1원

도청의 원역員役 2인

일방, 이방, 삼방의 원역 각각 1인

도청 이방 및 전각 중에 패장牌將 3인, 기수旗手 3명

¹⁷¹ 표하군(標下軍): 대장(大將)이나 각 장관(長官)의 수하 친위 부대이다.

¹⁷² 승후관(承候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임금의 기거(起居)와 안부를 묻는 일을 맡은 벼슬이나 관리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신을 보좌하는 중군 아래급의 관원을 가리키는 듯하다.

○광화문의 건조建造는 훈련도감에서 맡고, 건춘문建春門, 소동문小東門은 금위영에서 맡으며, 영추문迎秋門은 어영청에서 맡고, 신무문神武門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두 군영에서 맡되 비용은 영건소營建所에서 받은 원납전을 잠시 돌려썼다. 이날 광화문 목석木石의 공역을 시작하였기에 고사를 지냈다.

○각처 부석소¹⁷³

삼청동三清洞, 옥천암,¹⁷⁴ 영풍정,¹⁷⁵ 해창위계,¹⁷⁶ 노원蘆院 납대울,¹⁷⁷ 상계上契·중계中契, 손가정,¹⁷⁸ 동소문東小門 밖, 안남동安南洞, 사월리沙月里, 불암佛巖, <부전지>조계鳥溪</부전지>

○대원위가 수궁守宮에 임하였는데 해주海州의 한 백성이 글을 바쳤다. 주공周公의 훈덕勳德을 비유하여 찬송贊頌하는 내용이었다. 대원위가 아첨하는 부류라고 하여 결국 장杖을 친 뒤에 북을 지워 조리돌렸다.

교태전 목수는 60명이고 석수는 30명이다.

광화문 목수는 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554냥 5전이다.〔의영고 주부 이조황李祖潢 2000냥 ○진 군수 이봉구李鳳九 2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8355냥이다.〔백목전白木廛 민인 이도응李度應 2차 2만 냥 ○방효합方孝涵 2차 1만 냥 ○대구 영교 김달권金達權 1000냥 ○대구 하리下吏 정노윤鄭魯潤 1000냥 ○대구 가선嘉善 문선호文善鎬

173 부석소(浮石所): 석재를 떠내 가공하는 일을 하던 곳이다.

174 옥천암(玉泉庵):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암자로 추정된다.

175 영풍정(映楓亭): 동대문 밖 연미정동(燕尾亭洞: 지금의 창신동, 송인동 일대)에 있던 정자이다.

176 해창위계(海昌尉契): 성북구 종암동에 있던 지역이다. 조선 명안공주(明安公主: 현종의 셋째 딸)와 남편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의 묘가 있던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177 납대울(納大蔚): 노원구 중계동에 있던 중심 마을로 납대동이라고도 한다. 조정에 바치는 조공(租貢)을 모아 놓은 곳이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178 손가정(孫稼亭): 조선시대 동부(東部) 사아리계(沙阿里契)에 있던 지역 이름이다. 성북구 삼선동 일대이다.

1000냥 ○함양 수령 서호순徐護淳 1000냥 ○함흥 수령 조운궁趙雲兢 1000냥]

자원군은 99동에서 5114명이다.

18일

맑음

승군僧軍이 끄는 일을 잘하기에 함께 소령원 예목소曳木所로 보냈다.

각색 공장各色工匠 280명[각 역소의 공장들을 각기 기록하였더니 매우 번잡하므로 총수를 기록한다.]

각색 공장, 담군, 모군이 맡은 일과 품삯

목수木手

석수石手[부석浮石과 치석治石을 함]

니장泥匠[박궁朴宮, 온돌, 수도와 궁성의 원장苑牆을 건축하는 일 및 도벽塗壁, 도회塗灰를 함]

기거장鉅匠[톱니가 반은 순방향이고 반은 역방향이므로 2인이 1패牌가 되어 나무를 톱질하여 판板으로 만듦]

선장¹⁷⁹[대작이¹⁸⁰를 잘 다루고 또한 큰 구멍을 뚫음]

조각장¹⁸¹[보랑樑樑(들보)의 머리와 공포栱包를 조각함 ○이상 매일 품삯은 3전 8푼이다. 이는 호조의 상정詳定에 다시 1전을 더한 것이다.]

대소 인거장大小引鉅匠[큰 것은 5인이 1패가 되고 작은 것은 3인이 1패가 되는데 역시 나무를 톱질하여[鉅木] 널빤지로 만듦[作板] 상정詳定한 품삯 2전 5푼에 다시 1전 5푼을 더하였다.]

결거장¹⁸²[목두木頭를 톱질함]

179 선장(船匠): 배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장인이다.

180 대작이(大斫耳): 큰 자귀이다.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이다. 주로 큰 나무를 다루기 때문에 대목(大木: 주로 큰 건 축물을 짓는 목수)이나 선장(船匠)이 사용한다.

181 조각장(彫刻匠): 건물을 장식하는 조각을 담당하는 장인이다.

182 결거장(戛鉅匠): 결거를 쓰는 장인이다. 결거는 톱의 일종으로, 나무의 결을 따라 세로로 자르는 데 썼던 것으로 보인다.

거도장¹⁸³[툼[鉅]에 자루가 하나라 칼과 같고 큰 것은 키[箕]와 같은데 역시 나무를 톱질하여[鉅木] 판板으로 만듦
○이상 상정한 품삯 3전에 5푼을 더하였다.]

목혜장¹⁸⁴[공포[拱包] 변면[邊面]을 잘라냄]

박배장¹⁸⁵[창호[窓戶]의 배목[排木]을 맡음]

안자장¹⁸⁶[궁추[弓錐]로 연목[椽木] 구멍을 뚫음]

조줄장¹⁸⁷[실[綸]로 갈줄[葛絛] 및 숙마줄[熟麻絛]을 만듦]

마조장¹⁸⁷[속명 ‘가리장’으로 부계¹⁸⁸ 기둥의 회룡통[回籠桶] 및 난함[欄檻] 머리의 종자목[鍾子木]을 매끄럽게 다듬음
○이상 상정한 품삯 2전 2푼에 다시 1전 3푼을 더하였다.]

가칠장¹⁸⁹[기둥, 서까래, 들보의 첫 번째 단청[丹青]을 칠함]

기계장¹⁹⁰[부계[浮階]를 엮음]

선인[船人][녹로[轆轤]를 담당하여 ‘녹로군[轆轤軍’이라고 부르기도 함]

야장,¹⁹¹ 두석장,¹⁹² 철망장¹⁹³[속명[俗名] ‘적쇠정어’로 근정전[勤政殿]의 부시철¹⁹⁴을 결속함[結勤政殿罕惹鐵]

183 거도장(鉅刀匠): 톱 종류의 하나인 거도를 쓰는 장인이다.

184 목혜장(木鞋匠): 나막신을 만드는 장인이다.

185 박배장(朴排匠): 문짝에 돌쩌귀, 배목, 고리 등을 박아서 문얼굴에 들이 맞추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

186 안자장(鞍子匠): 안장이나 마구를 제작하는 장인이다.

187 마조장(磨造匠): 쇠, 나무, 돌 등의 재료를 갈아 무기, 악기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 편경, 맷돌, 절구, 향합, 돌방아, 바둑판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었다.

188 부계(浮階): 건축공사를 할 때 그 주변에 설치하는 비계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디디고 서기 위해 나무를 써서 다리처럼 잡아매어 놓는 시설이다. 부계(浮械), 부계(浮階)로도 쓰인다.

189 가칠장(假漆匠): 가칠(바탕칠)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다.

190 기계장(機械匠): 공역에 필요한 각종 도구, 즉 기계를 만드는 장인이다.

191 야장(冶匠): 쇠를 생산하고 단련하여 각종 연장, 무기, 농기구 등을 만드는 대장장이다. 야철장(冶鐵匠), 철야장(鐵冶匠), 노야장(爐冶匠), 철장(鐵匠), 철공(鐵工)이라고도 불렸다.

192 두석장(豆錫匠): 목제품을 비롯한 각종 가구에 금속장식을 만드는 장인이다.

193 철망장(鐵網匠): 철망을 다루는 장인이다. 철망은 부시(罽罍: 새가 앉지 못하게 처마 밑을 싸서 치는 철망) 등을 만드는 데 많이 쓰였다.

194 부시철(罽罍鐵): 전각의 처마 밑에 세들이 등지를 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철망을 말한다.

○이상 상정 품삯 2전 2푼에 8푼을 더하였다.]

담군[擔軍] [목석[木石]을 메고 옮김[擔運] ○상정 품삯 4푼]

원달고군¹⁹⁵ [수철달고환[水鐵撻古丸]으로 터를 다짐[築基]]

송도군[松都軍], 광주군[廣州軍] [송도군[松都軍]과 함께 모두 모군[募軍]으로 은구[隱溝]를 뚫음. 품삯 3전에 1전을 더 하였다.]

지정군[地定軍], 부토군[負土軍] [이상 상정 품삯 3전]

모군[募軍] [상정가[詳定價] 2전 5푼]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03냥 5전이다. [유학 이우영[李雨榮]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8200냥이다. [황주 유학 박형근[朴亨根] 5000냥 ○마포 전 중군 조협[趙俠] 대박석[大礮石] 100장, 중박석[中礮石] 50장]

자원군은 92동에서 4817명이다. [수원 유학 조존항[趙存恒]은 25명이 29일간 부역하는 비용을 대었다. ○서강 김형섭[金亨燮]은 150명이 3일간 부역하는 비용을 대었다. ○영천 유학 윤태민[尹泰民]은 돈 100냥을 원납하고 아홉 형제가 3일간 부역하고 또한 70명이 3일간 부역하는 비용을 대었다.]

19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이번 경복궁[景福宮] 건축 공사야말로 막중하고 막대하므로 팔도의 백성 모두가 자식처럼 달려와 부역하고 있으니, 장수[匠手]들은 더더욱 기꺼이 달려와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공장[工匠]들을 모조리 올려 보내라고 관문을 띄운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단지 몇 명만 올려 보내면서 책임을 메우려는 것 같으니 기강의 현재 상태가 정말 한심합니다. 잘 조치하지 못한 팔도의 감사 및 사도[四都]의 유수[留守]들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는 한편, 도내에 살고 있는

195 원달고군[圓撻古軍]: 달고환[撻古丸]으로 건물 터를 다지는 일꾼이다.

공장들을 낱알이 찾아내 붙잡은 뒤 이달 그믐까지 모조리 도감에 올려보내도록 팔도 및 사도에 엄히 신칙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이번 영건이 얼마나 큰 공역인가. 그런데 외도外道에서 거행하는 것이 이렇듯 소홀하기만 하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인가. 다시 더 엄히 신칙하여 기한 내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 관문을 띄웠는데도 혹 거행을 지체하는 일이 있는 경우 해도該道의 수신守臣을 영건도감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논죄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30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84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1647냥 5전 6푼이다.〔합경 감사 김유연金有淵 5000냥, 정부인 이씨李氏

2000냥 ○남병사 허습許燾 1000냥 ○문경 수령 이국령李國寧은 돈 200냥과 3치 길이 정〔三寸釘〕 1000개〕

자원군은 108동에서 5220명이다.

20일

맑음

사알司謁에게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였다.

“경복궁을 일단 중건하면 내농포¹⁹⁶ 남채전藍菜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토지 가격 및 경계를 정하는 일을 호조와 한성부에 분부하라.”

○신무문神武門 뒤 보토補土하는 곳에 여인들이 탄 가마가 산 쪽으로 늘어 서서 주렴을 걷고 노상에 앉아 역부들 가운데 서로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이목에 거리길 뿐만 아니라 공역에도 방해가 되기에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모두 쫓아내 버렸다.
각색 공장은 153명이다.

¹⁹⁶ 내농포(內農圃): 조선시대 환관들이 궁중용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밭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도성 안에서는 농사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내농포는 궁중납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채소재배가 허용된 것이다.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되었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69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1511냥 5전이다.〔전라 병사 신익申楨 1000냥 ○영광 수령 이현익李玄翼 1000냥 ○철산 수령 류기대柳冀大 1000냥 ○영암 수령 이규안李奎顔 1000냥 ○전 오위장 문희영文義英 2차 500냥 ○강진 수령 조재승趙載升 1000냥 ○선산 수령 김병우金炳愚 1000냥〕

자원군은 108동에서 5606명이다.〔영남 영천 양반 이병훈李炳勳은 조역전助役錢 250냥을 내고 또 50명이 3일간 부역하는 비용을 대었다. ○황조인¹⁹⁷의 여러 성씨의 친족들 중에서 100명을 내어 3일간 부역하였는데 영건소에서 5냥을 내려주었다. ○내의녀內醫女가 각기 1명을 내어 도합 30명이 3일간 부역하였다.〕

회동會洞의 연화대蓮花臺, 반촌泮村의 선녀무仙女舞, 전동典洞의 사호기四皓基는 대개 잡희雜戲 중에 가장 이름난 것들이다. 연화대는 활짝 핀 한 송이 연꽃이 수십 개의 비단 고깔 위에 떠 있고 꽃 안에 채색 옷을 입고 춤추는 아이 하나가 벌과 나비처럼 날개짓하는데 춤추는 소매로 바람을 일으키고 연잎이 말렸다가 펴지니 진짚 나라 사람의 이른바 ‘한 송이 연꽃 가운데 한 명의 선자仙子’라는 것이 이것이다.

선녀무는 널빤지의 네 모퉁이에 붉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 밖을 붉은 칸막이로 감싸는데 기둥머리는 오색 비단으로 장식하고 가공架空으로 거미줄처럼 만들어 위는 황사黃紗를 덮어 햇볕을 가리고 황사 아래 붉은 칸막이 안에 홍살문[紅箭門]을 세우고 나서 문門楣에는 법고法鼓 하나를 매단다. 8개의 선녀가 얼굴을 단장하고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고 좌우로 늘어 서서 쌍으로 노래를 부르고 쌍으로 춤을 추는 가운데 화상和尚 하나가 북채를 들고 북을 친다. 북을 치면서 춤을 추고 춤을 추면서 북을 치는데 이것이 이른바 ‘구운몽九雲夢의 팔선녀와 성진性眞’이다.

사호기는 상산商山의 일면一面을 베껴 낸 것으로 기이한 화초花草가 은근하게 서로 비추고 고괴古槐와 장송長松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괴석怪石에서 서늘하고 그윽한 운율과 거문

¹⁹⁷ 황조인(皇朝人): 조선시대 두 차례의 병란과 명의 멸망, 청의 건국 등의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조선에 유입된 한족(漢族), 즉 명나라 유민을 가리킨다. 이들 황조인은 향화의 예를 쓰지 않고 특별히 신포(身布)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황조인장적(皇朝人帳籍)을 만들어 우대하도록 했다.

고 타는 소리가 나오고 숨겨진 화로에서는 모락모락 향이 타고 차 끓이는 향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왔는지 한 가닥 피리 소리에 학을 탄 청의동자靑衣童子가 있다. 이면裏面에는 바둑판 하나를 설치하고 두 노인이 마주 앉아 바둑알을 놓는다. 노인 한 명은 도끼 자루에 기대어 옆에서 관람하고 노인 한 명은 머리를 숙이고 잠을 잔다. 네 노인의 수미鬚眉와 의관衣冠이 진짜 사호¹⁹⁸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워서 상산이 또 평지에 있는 줄 알 것이다. 이런 신선, 승려, 노인, 여인이라 부르는 자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10여 세 남자아이 중에 희극을 잘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세 희극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모여들어 구경하던 도인都人과 사녀士女들이 어깨가 서로 스치고 발길이 서로 섞이게 된다. 이것이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의 잡희雜戲지만 모두 상고할 근거가 있는데다가 노고를 잊고 공역을 기겁게 여기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백성들은 질병의 고통이 없고 국가에 는 부유한 다스림이 있어서 이런 태평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21일

맑음

서흥瑞興 화장치華長峙에 있는 나무를 차인差人을 보내 베어냈다. 병조에서 금지하여 공역을 중지하라는 조치까지 있었으나, 다시 관문을 보내 제척¹⁹⁹하였다.

변와장燔瓦匠을 올려보내도록 평안 감영에 관문을 보냈다.

각색 공장은 17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2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731냥이다.〔전 수사 김옥근金沃根 3000냥 ○무장 수령 조영화趙永和 1000냥

○태인 수령 김연근金延根 1000냥 ○동래 수령 강노姜澍 1000냥〕

¹⁹⁸ 사호(四皓): 상산사호(商山四皓), 즉 진나라 말기에 폭정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던 네 명의 노인을 말한다.

¹⁹⁹ 제척(提飭): 이끌어 주거나 깨우쳐 줌, 또는 문제를 제기하여 경계하고 타이르는 것이다.

자원군은 128동 7194명이고 복마卜馬는 30필이다. 남부南部 둔지리屯芝里 반존위²⁰⁰ 이응화李應和가 동군洞軍 200명을 데리고 마을의 말 30필을 몰아 연못의 진흙을 밖으로 실어 나르니, 편리함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복마의 공역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2일

흐림

광주廣州 대야동大也洞 사오현沙吳峴, 용인龍仁 원치천장기院峙川場基, 양주楊州 동면東面 직곡直谷 등지에 대, 중연목大中椽木을 값을 주고 베어내고자 목상木商 최원달崔完達에게 비용을 주어 내려보냈다.

각색 공장은 19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13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261냥이다.[울산 수령 정현석鄭顯奭 1000냥 ○순안 수령 이승경李承敬 1000

냥 ○함안 양반 안정국安貞國 1만 냥]

자원군은 144동에서 8896명이고 복마는 50필이며 소는 2척隻이다.

23일

큰비가 밤에 3푼 내리고 낮에는 장맛비가 2치 3푼 내림

연못을 준설하는 일과 보토하는 일, 터를 닦는 일은 비로 인해 정지하고 가가假家 안에서 치목治木과 치석治石 공역만 하였다.

각색 공장은 2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1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834냥 6전이다.

²⁰⁰ 반존위(班尊位): 존위는 조선시대 말단 행정 단위인 이동(里洞)의 행정 책임자를 말한다. 이웃 간에 싸우거나 법 밖에 금령을 범하는 등의 금지시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각 통수가 낱날이 살펴 중임(中任)에게 보고하고 중임은 존위(尊位)에게 보고하여, 작은 일이면 중임이 꾸짖고 큰일이면 존위가 다스리도록 하였다. 반존위는 존위를 맡은 양반을 의미한다.

자원군은 1동에서 24명이다.

24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맑음

평안 감영에 보내는 관문

본 영營의 외성外城은 기사箕子의 옛 도성으로 사대부가 거주하는 곳이다. 잡역雜役을 예전부터 면제해 준 것은 단지 영부營府를 돌봐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조정에서 우대하여 주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고 의義를 추구하는 정성이 마땅히 남보다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옛 궁궐의 중건을 돌아보면, 이는 국가의 막중하고 막대한 공역이다. 중외의 신민들이 어느 누가 기뻐서 경축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조상의 유업을 이으려는²⁰¹ 계책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 외성 안에 관직을 역임한 집안이 없지 않고 또한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많은데 이름은 원납이지만 모두 책임을 때우는 데 그치고 있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어찌 위아래가 서로 도와주는 의리가 있다고 하겠는가. 그 성명이 누구인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상세히 알고 있다. 지금 만약 사리에 근거하여 납부를 책임지우면[責納] 아마도 억지로 징수하는 것이 될 것이고 편안한 뜻으로 영수領受하면 도리어 졸렬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만 애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백성들도 관망하고 효빈²⁰²하여 도리어 의로운 마음으로 하려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외성의 원납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다시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또한 별도로 엄하게 처리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먼저 이러한 뜻으로 일일이 효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34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70냥이다.[전 정언 이규형李奎亨 600냥 선납]

201 궁구궁당(尙構肯堂): 집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자식이 이를 계승함을 말한다.

202 효빈(效嗔): 주관 없이 남을 흉내 내는 것을 이른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408냥 8전이다.

자원군은 105동에서 5067명이고 말은 65필이며 소는 1척이다.

25일

맑음

경회루지慶會樓池를 준설한 진흙에서 옥석玉石를 발견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하늘이 낳은 성스러운 군주가 옛 법전을 세우고 닦네
화군火君을 □ 위로하고자 관악산 머리에 우물을 파고
동악東嶽의 요상한 기운을 석구石狗가 짊어 누르니
삼각三角의 봉황이 춤을 추고 국조國祚는 영원하리라
참으로 바치는 사람은 옥과 같이 현명할 것이라.]

天生聖主建修舊殿
火君□慰掘井冠頭
東嶽妖氣石狗吠壓
三角鳳舞國祚長遠
眞是上獻人玉可賢]

각색 공장은 37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23냥이다.[유학 이종국李鍾國 800냥 선납]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7925냥 9전이다.[순창 수령 이승락李承洛 1000냥 ○안악 수령 박제인朴齊寅

2000냥 ○공주 판관 민치서閔致序 1000냥 ○함흥 양반 김순봉金順鳳 1만 냥]

자원군은 149동에서 3366명이고 말은 118필이다.

대신과 정부 당상이 차대에 입시했을 때 영의정 조(두순斗淳)가 계를 올려 아뢰었다.

“대역사大役事의 공역을 시작한 뒤로 방민坊民과 기민畿民은 물론이거니와 바다를 오가는 조졸漕卒과 도성 근처의 승도僧徒들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며 혹시라도 남에게 뒤질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

는 다름이 아닙니다. 3백 년을 내려온 옛 터전을 다시금 일구는 일이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용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의연금을 내어 보조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에서 강제로 징수하거나 억지로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의를 표시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니, 옛날 곡식을 납부하는 자에 대해 관직을 보상해 주었던 정사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근거할 점이 있기에 우려러 진달합니다.”

대왕대비전이 답하였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전교하였다.

“이와 같은 백성의 마음에 어떻게 성의를 표시해야 하겠는가. 조정에서 우리 성상聖上을 보좌하며 이끌고 우리 적자赤子를 온전히 보호하여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이 모두가 조정의 책임이다. 각별히 성의를 표시하여 신뢰를 잃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역赴役한 방민坊民들에게 가자加資하여 성의를 표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전에 정부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막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부역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가상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있다하는데도, 이들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가상하게 여길 만한 사람을 가려 대원군에게 의정議定한 다음 편리한 대로 성의를 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괄도 및 성 내외의 부역민赴役民의 삼소임三所任으로 자급을 받은 자는 7166명이다.]

조두순이 또 계를 올려 아뢰었다.

“법궁法宮의 공역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 역사 중의 큰 것이며 곧 일 중의 큰

것입니다. 민력(民力)을 소중하게 여기고 토목 공사는 신중히 해야 하니, 『춘추(春秋)』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오늘날 궁궐을 영건하는 일은 성상(聖上) 스스로에게 큰 책임이 있으니 항상 독실한 자세로 전당(殿堂)은 엄숙하게만 할 뿐 사치스럽게는 하지 않도록 하고, 담장은 완전하게 할 뿐 험란하게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따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처럼 하며 선왕의 규모와 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전하께서 입고 타고 드시는 것들로부터 아래로는 조정의 긴급하지 않은 비용에 이르기까지 절제하고 덜어내어 한 푼을 절약하면 한 푼의 이익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며, <공역에> 자식처럼 달려오는 백성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낙읍(洛邑)을 영건할 때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그 임금에게 간절히 바랐던 것은 백성과 화합하고 영원한 천명을 기원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이 공역을 낙읍의 영건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시기나 공력을 가지고 말한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과 화합하고 영원한 천명을 기원하는 일은 애초에 오늘이나 옛날이나 다르지 않고, 절용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은 비록 옛 나라라도 유신(維新)하는 큰 근본입니다. 행운을 기원하고 축원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삼가 원하옵건대 늘 성상께서는 유념해 주소서.” 국왕이 말씀하셨다.

“진달한 말이 절실하여 매우 좋다. 마땅히 명심하겠다.”

조두순이 또 계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의 영건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의정부도 새로 중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조의 자리는 바로 국초(國初)에 삼군부²⁰³였습니다. <삼군부가> 의정부와 마주했

²⁰³ 삼군부(三軍府): 조선 초기 군사업무를 통일하여 관할하던 관청으로, 건국 초기에 설치된 의흥삼군부의 준말이다. 1400년(정종2) 왕실의 종친이나 훈신들의 사병을 폐지하여 모두 삼군부에 속하게 함으로써 의흥삼군부는 사실상 군사의 실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1457년(세조3) 중앙 군제가 확립되면서 삼군이라는 편성은 없어지고 오위진무소로 개칭되었다. 이후 삼군부는 대원군이 병인양요 이후 본격화한 군비 강화와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직접 장악하고 주도하기 위해 1868년(고종 5) 3월에 복설되었다.

던 것은 한 나라의 정령政令이 나오는 바가 문사文事와 무비武備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위五衛의 옛 제도를 갑자기 복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훈련도감의 신영新營, 남영南營과 마병소馬兵所 및 오영五營이 주사晝仕하는 곳 등을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합설合設하여 삼군부라고 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옮겨 설치하고, 한성부는 훈련도감의 신영 자리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육부六部가 대궐의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일체 옛 규례를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사各司의 입직入直하는 방房들을 다소간 변통하는 일은 편리함을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진달합니다.”

대왕대비전이 답하였다.

“그대로 하라.”

○경회루慶會樓 석주石柱 1개를 삼청동三清洞에서 떼어내어 묶어서 끌어왔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휘하의 자원한 병사 300명을 데리고 1일 반 동안 끌어서 궁 안으로 가져왔다. 석주는 길이 16자 5치, 아랫너비 3자, 윗너비 2자 4치이다. 이것은 아직 다듬지 않은 것이므로 옛 기둥보다(퇴주²⁰⁴는 길이 15자 5치, 아랫너비 2자 8치, 윗너비 2자 2치이며 어간 원주御間圓柱는 길이 12자 5치이다.) 약간 여유가 있다. 누樓는 모두 35칸으로 기둥이 48개인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영에서 각각 16개를 담당하여 떼서 가져왔다.

각색 공장은 47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43냥 5전이다.(유학 이경운李庚運 500냥 선납)

호조에서 받은 돈은 6867냥 7전 6푼이다.(전주 관관 조용재趙容在 2000냥)

자원군은 65동에서 8936명이고 말은 85필이며 소는 20척이다.

204 퇴주(退柱): 건물의 중심부를 둘러싼 부분인 퇴칸(退間)에 세운 기둥이다.

장령掌令 신재관愼在寬(영남 안의 사람)이 상소를 올려 첫머리에는 성학聖學에 힘쓰는 일, 검약儉約을 숭상하는 일, 재용財用을 숭상하는 일에 대해 진술하고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다.

“삼가 지난달 그믐 사알司謁에게 구전口傳으로 한 하교를 보건대 ‘백성들이 쫓겨 나와 지척咫尺인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돌고 있으니 정말 놀라기 그지없다. 부역하고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역소役所는 역소이고 쫓겨나는 쫓겨나다. 더구나 음악까지도 중지시키고 있는 이런 때에, 민정民情이 어찌 이처럼 무엄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해당 동의 두민頭民과 삼소임三所任을 내병조內兵曹에 잡아들여 엄히 단속시킨 뒤 방송放送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나라의 명운命運이 유신維新되어 옛 궁궐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로는 열성조列聖朝께서 미처 하시지 못하던 뜻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경卿, 사士, 민民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길일을 잡아서 영건을 시작하자 서민庶民이 그 일에 참여하려고 달려온 것이 영대靈臺 공사에 〈백성들이〉 자식들처럼 왔던 것에 비길 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뒷사람을 사모하여 떠받드는 정성과 〈부역을〉 즐겁고 기뻐하는 뜻이 몹시 가상하지만, 하교한 뒤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가무歌舞하거나 붉고 푸른 옷을 입는 것은 상복을 입어야 할 시기에 천만 부당합니다. 더구나 금강산金剛山의 모상模像이나 팔선녀八仙女의 유희 같은 것이 부역赴役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공사의 감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북을 치는 것이나 재목을 들어 올릴 때 영차를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습속이니 그런 것은 혹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귀중한 재화를 아끼지 않고 기괴한 기교로 거리를 가득 메우게 하여 풍속을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일이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물건이 많이 모이면 혼란스러워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투는 것은 이치와 형세가 그러한 것이어서 왕왕 구타하고 싸우는 폐단이 발생하는데, 듣고 보니 놀랍기만 합니다. 가령 이와 같은 무리들을 하는 대로 방임하여 법이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왕대비東朝께 여쭙어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펼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식처럼 달려와서 공사에 참여하는 뜻을 권장하시고 한편으로는 법과

명령을 무시하는 죄를 징계하소서.”

답하였다.

“진달한 말이 절실하니 마땅히 명심하겠다. 그리고 말미에 덧붙인 일로 말하면, 이런 시기에 이런 습속이 행해지다니 정말 부당하기 그지없기에 이미 엄히 단속하여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모르겠다만 요즘에도 길거리에서 예전처럼 유희를 벌이고 있단 말인가. 규헌糾憲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아래에서 충분히 금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소를 진달하는 일까지 한단 말인가.”

각색 공장은 43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74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854냥 5전이다.〔강서 수령 박제근朴齊近 1000냥 ○강계 수령 정주응鄭周應 1000

냥, 부인 □씨 200냥 ○전 현감 정재기鄭在箕 1000냥〕

자원군은 161동에서 9890명이다.

28일

맑음

소령원昭寧園에서 베어낸 나무 20개 중에 송목松木 16개, 회목檜木 4개를 기호畿湖의 16개 사찰의 승도僧徒 872명이 끌어서 운반하였다. 그중 먼저 끌어온 송목 1개는 길이 29자에 끝부분의 원지름 2자 2치이고, 회목 1개는 길이 45자에 끝지름이 2자 8치이다.

○이때 당상과 낭청의 처소가 갖추어졌다. 당상堂上은 처음대로 모두 사진仕進하고 도청都廳과 각방各房의 낭청, 감조관監造官은 각 1원이 이날부터 돌아가며 묘시부터 유시까지 사진하였다.

○각방 처소의 도제조 및 제조방 20칸, 상수궁上守宮 수청隨廳 4칸, 도청, 낭청, 감조관 17칸, 내시방 2칸, 별간역방別看役房 8칸, 계사방計士房 4칸 반, 구료관방救療官房 4칸 반, 패장방牌將房 38칸 반, 서리, 고지기 방 65칸 반이다. 모두 경회루지 남쪽 제방에 있는데 초가草家로 엮어 만들었다.

각색 공장은 51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7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002냥이다.

자원군은 137동에서 7520명이다.

29일

맑음

각색 공장은 56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663냥이다.[개령 수령 이병일李炳一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2812냥이다.[강화 전 중군 조상준曹尙俊 2000냥 ○순

천 수령 황중현黃鍾顯 2000냥, 숙인淑人 □씨 200냥 ○홍양 수령 여은섭呂殷燮 1000냥 ○

은를 민인 5718냥 ○전 오위장 유임柳恹 1만 냥 ○무안 수령 서원보徐元輔 800냥, 경내境

內 민인 2540냥 ○토산 양반 이택규李澤奎 1000냥, 경내 민인 1302냥 ○대구 전 참지 한은주韓殷周 2000냥]

자원군 132동에서 6561명이고[제주 선인船人 30명이 3일간 부역하였다. ○서강 정인검鄭仁儉은 70명이 3일간 부역하는 비용을 대었다.] 말은 171필이다.

본 도감에서 초기로 아뢰었다.

“5월 한 달 동안 호조에서 받은 사람들의 원납전은 32만 761냥 3전 4푼이고 종친부에서 받은 선파인璿派人의 원납전은 3만 7156냥입니다. 별도로 2건²⁰⁵의 책자로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5월 한 달 동안 자원군은 도합 13만 2543명이고, 말은 1464필이며, 소는 23척, 각색 공장은 도합 4762명이다.

205 『승정원일기』에는 ‘4건’으로 되어 있다.

을축년^{1865, 고종2} 윤5월

1일
맑음

의정부의 초기에 따라 으레 당하 3품관을 보내어 삼각산, 목격산, 한강에서 1차 기우제를 지냈다.

○원지苑池의 남측에 수전水田의 형태가 있었다. 앞서 고양高陽 용두리龍頭里 백성 150명이 자원하여 연못의 준설에 부역할 때 아울러 정비하여 5배미²⁰⁶의 논으로 만들어놓고 돌아갔는데 씨 3말을 뿌릴 만하였다.

이때 그들 중 8명이 삽과 모를 가지고 와서 경회루지慶會樓池에서 퍼낸 흙으로 퇴비를 주고 원지의 저수儲水로 물을 대어 4일 만에 모두 심었다.

각색 공장은 73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917냥이다.[삭주 수령 이창한李昌漢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412냥이다.[양구 민인 4744냥 ○태안 민인 910냥]

자원군은 115동에서 6114명이고 말은 190필이다.

²⁰⁶ 배미[夜味]: 농지의 단위 중 하나이다. '마지기'가 종자량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면, '배미'는 구획량을 기준으로 나눈다. 주로 사다리꼴의 다락논 면적을 나타낼 때 주로 쓰였다고 한다. '夜味'는 이두식 표기이다.

경향京鄕 부역인의 삼소임三所任에 대한 상가賞加로 연이어 성명成命이 있었다. 그런데 부평富平의 역부役夫는 단지 이소임二所任뿐인데도 자급을 받기를 탐하여 해당 동의 반존위班尊位 송택영宋宅永을 삼소임이라고 이름 붙이고 함께 보고하여 자급을 받았다. 송택영은 하임下任과 같은 자급에 들어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자급을 반납하였다.

각색 공장은 81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79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790냥 4전이다.〔당진 진사 김숙金淑 2000냥 ○장화 경내 2980냥 ○문화 민인 7000냥〕

자원군은 121동에서 5821명이고 말은 190필이다.

○장동壯洞 군인 300명의 백자희百子戲가 있었다. 붉은 난간 2판 위로 나이 6~7세, 키는 3척이 되는 동자들이 오색의 반의를 입고 머리를 모아 열을 지어 앉아 있다. 어떤 동자는 매화 화분 사이에서 연을 날리거나 잠자리를 잡고 어떤 동자는 파초잎 가장자리에서 대나무를 타거나 풀로 싸움을 한다. 〈동자들이〉 마치 물고기 한 무리가 부평초와 부들 밑으로 헤엄치는 듯하더니, 교태전 터에 이르러 한마당 유희를 펼치고 3장(章)의 노래를 부르며 손을 들고 우러러 축하한다. 그 가시는 다음과 같다.

〔어기여자〕 태평연월에 여러 아동이 격양擊壤하며 내 노래에 화응하는구나. 노래 부르는 사람이 흥이 나니 멈출 수 없네. 자연스레 탄성이 나네.

〔어희호〕 아, 옛 갱장²⁰⁷을 사모하는 세상을 만나 억조億兆가 평안하고 즐거운 노래도 많다.

〔1장〕

207 갱장(羹牆): 어진 이를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傳)」에 “순(舜)이 요(堯)를 사모하여, 앉아 있을 적에는 요 임금을 담에 뵈는 듯하고, 밥 먹을 적에는 요 임금을 국에서 뵈는 듯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아자] 면면히 성군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청령靑靈이 화재를 입었지만 다시 쌓아 큰 운수를 드리웠네. 저 주나라 문왕이 영대豊臺와 영소豊沼를 경영한 것을 따라 시작하는 날부터 서민들이 자식처럼 달려와 일을 하니 얼마 되지 않아 완성되네.²⁰⁸

[의여나] 백성들이 자라처럼 손뻑 치고²⁰⁹ 참새처럼 뛰며²¹⁰ 기뻐하니 주나라 문왕과 비교해봐도 누가 더 많을꼬.

[2장]

[이야자자] 아름다운 징조가 태평스러운 세상 만나 귀서²¹¹와 봉황의 전서篆書가 서로 교합하니 이는 경복궁의 옛 궁궐은 무강한 터이고 황제의 명은 새로워진다는 도참圖讖의 부적이로세.

[호사허] 태평성대의 노래가 끝나더라도 아홉 가지 축복²¹²으로 우리 성군 만수무강하소서.

[3장]

[於起汝茲] 泰平煙月 諸童兒和爾 擊壤聽我歌 歌者興也 不能強爲闕 自然發於咨嗟 詠歎哦

[於戲乎] 粵昔羹牆慕遇世 億兆康樂謠歌多〔一章〕

[於起我茲] 緬憶軒皇青靈災更築歷勝鴻運垂 適彼周王臺沼經始日庶民子來不日成之

[猗歟那] 百姓鰲抃雀躍歡 較諸周氏孰多爲〔二章〕

[利我者茲] 休徵會應升平世龜書鳳篆字相交 迺荷景福宮 舊闕無疆基帝命維新圖讖之符

[呼邪] 泰平樂歌之將終九如聖世萬壽呼〔三章〕

208 주나라 문왕 …… 완성되네: 주나라 문왕이 대(臺)와 소(沼)를 만들 때 백성들이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도우려 하듯 달려와 일해서 하루도 되지 않아 완성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209 자라처럼 손뻑치고: 매우 기뻐하며 손뻑을 친다는 말이다.

210 참새처럼 뛰니: 몹시 기뻐서 참새처럼 날뛰다는 말이다.

211 귀서(龜書):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근거가 된 낙서(洛書)를 말한다. 하나라 우왕 때 낙수(洛水)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거북 등에 새겨진 글씨가 낙서이다.

212 아홉 가지 축복: 아홉가지 임금을 축복하는 말이다.

3일

맑음

방외^{坊外} 목수와 석수 중에 일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광화문^{光化門}의 홍예 주춧돌^{虹霓礎} 2괴를 수레로 들어왔다. 하나당 가우²¹³는 25마리이다. 훈련도감은 옥천암^{玉泉菴}에서 떠오기 시작했다.

각색 공장은 84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956냥 5전이다.[유학 이관식^{李寬植} 그동안 도합 1만 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4435냥이다.[영유 민인 1만 4828냥 ○홍주 출신 김영건^{金永璣} 1000냥 ○군위

유학 유민전^{柳玟填} 2000냥 ○창원 민인 3020냥 ○배천 민인 1만 242냥]

자원군은 136동에서 5920명이고, 말은 199필이며, 소는 20척이다.

4일

맑음

재신^{宰臣}을 보내어 용산강^{龍山江} 저자도²¹⁴에서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연일 가뭄과 더위가 매우 심하여 역부가 병이 날까 염려되기에 소주^{燒酒}를 먹였다.

○문소전^{文昭殿} 뒷 담장 밖은 곧 삼청동^{三清洞} 가장자리여서 큰 빗물이 이르게 되면 거세게 흐르는 데다 궁궐 담장길이 좁기 때문에 배수를 위해 도랑변의 초가^{草家} 21호^戶 도합 140칸 반에 대해 매 칸마다 5냥씩, 도합 702냥 5전을 내어 주고 이날부터 모두 철거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1차로 부역을 한 것도 너무 가상한데 2차나 3차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심지어 가자^{加資}받은 사람이 사은하며 부역하기도 하고 창기^{娼妓}들이 사람을 사서 부역하기도 했다. 모두 즐거이 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의리로 볼 때 남녀의

213 가우(駕牛): 짐수레, 가마 등을 끌면서 짐을 운반하던 소이다.

214 저자도(楮子島): 현재의 삼성동 동쪽의 한강에 있던 섬이다. 닻나무가 많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두머리 기생[首妓]인 연연燕燕 등도 은자恩資를 입었으니, 이것은 실로 고급에 드문 성대한 일이다. 복식服飾과 기호旗號의 경우에 힘써 각축을 벌였는데 심지어는 ‘모소임 사은기某所任謝恩旗’, ‘모동 재삼차기某洞再三次旗’, ‘남부 묵동 등 삼처의 성주 만세등기南部墨洞等三處之聖主萬歲燈旗’, ‘구발소의 태평등기舊撥所之太平燈旗’ 등 종종 신기한 볼거리도 있었다.

○광화문 홍예 주춧돌[虹霓礎]을 또 옥천암玉泉菴에서 수송하여 왔는데 혜경교惠慶橋에 이르러 다리가 함몰되면서 주춧돌이 떨어졌다. 2명이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한 명도 죽지 않았으니 또한 다행이다. 이후로는 목석이 지나는 다리는 모두 널빤지를 깔고 흙을 쌓아서 튼튼하게 만들었다.

각색 공장은 72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955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854냥 4전이다.

자원군은 148동에서 5784명이고 말은 229필이다.(평양 사람 이용식李容植 부자가 3일간 부역하였다.)

5월 맑음

문소전文昭殿 뒤에서 도랑을 뚫다가 옛 수도水道를 발견하였다.

○석역石役이 한창 바쁜데 여러 도道에 지정한 철鐵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총융청에 이문移文하여 도로 갱기로 하고 정철正鐵을 있는 대로 우선 돌려췄다.

강원도에 보내는 관문

대량大樑과 고주高柱 등의 나무를 미처 구하지 못한 터에 방금 듣기에 도내 삼척부三陟府 울릉도鬱陵島 안에 들보로 쓰기에 적당한 나무가 많다고 한다. 해당 군에 알려져 지체하지 말

고 베어내도록 하되 이 도島의 목물木物을 베어내는 등의 절차는 홍양²¹⁵ 3도島의 민인이
이 일에 능숙하므로 이미 전라 감영에 관문을 보냈다. 베어내고 수송하는 일을 서로 미루지
말고 힘을 합쳐 거행토록 하라.

각색 공장은 76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57냥이다.[진사 이섭하李燧夏 그동안 도합 5000냥 ○유학 이중영李重榮 그동
안 도합 2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3078냥 5전 2푼이다.[경상 우병사 이경준李敬俊 1000냥 ○대구 전 동지 서
한기徐漢琦 2000냥 ○대구 전 통정 서규현徐奎賢 2000냥 ○나주 양반 김계황金啓璜 1000냥 ○풍천 양반 노한
희盧漢熙 5000냥 ○청풍 호군 유재근柳在根 3000냥 ○무안 양반 장용환張龍煥 1000냥 ○김해 수령 허전許傳
1000냥 ○전 경북장景福將 단기완段基完 1000냥]

자원군은 145동에서 5069명이고 말은 199필이며 소는 12척이다.

6일

미우微雨, 미시부터
인정까지
수심은 1푼

경회루지慶會樓池의 진흙을 준설하는 공역이 5월 5일에 시작하여 이날
준공하였다. 자원군 7만 5320명을 썼다. 모든 연못의 준설과 보토에는
영건소에서 매입하여 지급한 삼태기가 8600냥이고, 역부가 스스로 마
련한 것도 이보다 적지 않다.

각색 공장은 88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38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943냥 6전이다.[울진 민인 1300냥 ○경상 감영 하리 서필수徐弼修 2000냥
○경주 민인 1만 1291냥 6전]

²¹⁵ 홍양(興陽): 전라남도 고흥(高興)의 옛 이름이다.

자원군은 127동에서 4525명이고 말은 80필이다.

7월

비, 음진(淫塵)

3차 기우제를 남단²¹⁶과 우사단²¹⁷에서 지냈다. 재신(宰臣)을 보냈다.

○경회루지의 두 섬을 석축하는 공역이 시작되었다. 서금천(西禁川)의 제방을 쌓던[築堤] 석수들을 옮겨서 썼다.[금천(禁川)의 석축(石築) 공역은 중지하였다.]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방금 듣기에 도내 서원현(西原縣) 운교(雲橋), 신천(新川) 등지에 적당한 재목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배어내기 위해 별도로 차인을 정하여 내려보낸다.

각색 공장은 81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0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978냥 5전이다.[과주 민인 박건섭(朴健燮) 외목²¹⁸ 50태(駄) ○예천 수령 임승수(林勝洙) 1000냥 ○봉산 민인 1만 310냥]

자원군은 108동에서 3033명이다.

8월

맑음

후록(後麓)을 보토하는 공역이 끝났다. 5월 5일부터 오늘까지 자원군 7만 63명과 말 2599필을 썼다.

216 남단(南壇): 기우제, 기설제(祈雪祭) 등을 지냈던 제단이다. 남산의 남서쪽, 지금의 후암동 지역에 있었다.

217 우사단(霧祀壇): 기우제를 지냈던 제단이다. 서울의 동쪽 교외에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218 외목(隈木): 설외(세로로 세운 외), 놀외(가로로 놓는 외) 등 외벽기에 사용되는 목재이다. 즉 벽체의 바탕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다.

공충 수사에 보내는 관문

안민도安民島에 지정한 재목을 실어 운반한 선인船人에게 한 명당 상으로 1냥을 지급하고
배어낸 그루 수는 책자로 만들어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83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87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6751냥 2전이다.(은를 민인 1750냥 ○하동 전 오위장 양주오梁柱五 1000냥, 처妻 50냥)

자원군은 98동에서 2608명이고 말은 32필이다.

9월

맑음

동문 밖 송계교松溪橋를 허물고 석재를 각 역소役所에서 사용하였다.

강화江華 및 교동喬桐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殿堂의 포진²¹⁹에 들일 별문석²²⁰ 각 2000장, 백문석²²¹ 각 500
장은 반드시 정교하고 치밀하게 직조하여 올려보내도록 하고, 가격은
본 도감에서 실제 수량으로 구획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88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37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4만 5207냥 1전 8푼이다.(평양 이청吏廳 1만 7500냥 ○재령 수령 이직현李稷鉉 1000냥과 정철正鐵 2000근, 경내 민인 1만 2050냥 ○통천 양반 석우정石禹鼎 1000냥 ○양산 양반 천치관千致寬 2차 3300냥 ○삼동 민인 3400냥 ○은진 전 중군 김현규金鉉奎 5000냥)

자원군은 82동에서 1892명이고, 말은 32필이다.

219 포진(鋪陳):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 또는 그 자리와 물건을 말한다.

220 별문석(別紋席): 꽃무늬를 색다르고 화려하게 꾸며서 짠 돛자리이다.

221 백문석(白紋席): 흰 꽃무늬를 놓아 짠 돛자리이다.

10일

맑음

4차 기우제를 지냈다. 북교北郊에는 재신을 보내고 사직社稷에는 중신重臣을 보냈다.

○전교하였다.

“중관中官 강세길姜世吉, 백지연白之筵은 수고를 많이 했으니 모두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강세길은 안산安山 월곶리月串里에 거주하는데 역군役軍을 동솔董率하여 비를 무릅쓰고 연못을 준설하기를 선창先唱하였다. 백지연은 장동壯洞에 거주하며 5차 부역을 하였는데, 한 번은 300명의 주식酒食을 대어 소비한 것이 매우 많았다.]

각색 공장은 89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747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087냥 7전이다.[연안 수령 한응필韓應弼 1000냥, 경내 민인 1만 2600냥]

자원군은 97동에서 2367명이다.

11일

맑음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목수와 석수에게 각각 국 한 사발과 술 한 그릇씩을 호궤稿饋하였다. 그날은 온 성이 취하고 배불러 기뻐하며 손뼉 치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했다.

정철正鐵 2만 근을 함경 감영에 지정하였다.

○강원 감영 및 수원水原 경내의 와장²²²을 올려보내도록 후록하고 관문을 보냈다.

각색 공장은 924명이다.

222 와장(瓦匠): 기와장이, 즉 기와를 굽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973냥이다.[유학 이재하李載夏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038냥 5전 6푼이다.[남평 수령 김정진金靖鎭 1000냥 ○임실 수령 서증보徐

曾輔 1000냥, 숙인淑人 □씨 200냥 ○거제 민인 1113냥 ○수안 민인 5500냥]

자원군은 88동에서 2365명이다.

12일

맑음

경회루 옛 석주石柱 48개는 3개만 남고 모두 옆어져 있었다. 대부분 부러졌고 훈독熏毒이 깊이 스며들어서 완전한 것 중에서 계체階砌로 쓸 만한 것을 골랐다.

○건춘문建春門과 영추문迎秋門의 목석木石 공역이 함께 시작되었다.

○영추문의 홍예 주춧돌[虹霓礎]은 어영청이 영풍정映楓亭에서 떠오기

시작하였다.

○삼영三營에서 각각 50냥씩 해당 부석소浮石所의 석수에게 내리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은 90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00냥이다.[유학 이면주李冕周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7527냥 1전이다.[고성 유학 정복현鄭復鉉 1000냥 ○신지도 만호 박윤형朴允亨

2000냥]

자원군은 93동에서 2275명이다.

13일

맑음

5차 기우제를 종묘에서 지냈다. 중신重臣을 보냈다.

○소령원昭寧園에서 베어낸 송목松木과 회목檜木 20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하여 이날 운반을 마쳤다. 파주 목사 유협柳峽, 고양 수령 윤수연尹守淵이 감독하며 거느리고 왔다.

각색 공장은 936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36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220냥 2전이다.[고부 양반 단성환^{段成煥} 2차 6000냥 ○고부 출신 단병설^{段丙說} 2차 4000냥 ○강령 수령 조병직^{趙秉植} 300냥, 경내 민인 3550냥 ○숙천 양반 김찬수^{金璨洙} 1000냥]

자원군은 67동에서 1502명이다.

14일

맑음

6차 기우제를 삼각산, 목격산, 한강에서 지냈다. 아경²²³과 각신²²⁴을 보냈다.

○안민도^{安民島}에서 베어낸 누주목^{樓柱木} 2000개를 배로 강가 나루까지 보내서 수레에 싣고 들어왔다.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적당한 재목이 서흥^{瑞興} 화장치^{華長峙}에 많다고 해서 먼저 해당 읍에 관문을 보내 물어보았다. 사람을 보내어 간품^{看品}해 보니 과연 소문과 같았으므로 베어내기 위해 다시 본부에 관문을 보내었는데 애초에 영문^{營門}에서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능침^{陵寢}의 화소^{火巢} 안도 오히려 베어내서 쓰는데 하물며 사양산^{私養山}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해당 읍에 알려져서 지체하지 않도록 하라.

전라 감영과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에 들일 재목은 크기가 커야 사용하기 적합하므로 봉산^{封山}의 재목이나 제도^{諸島}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들어 쓸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고주^{高柱}와 대량^{大樑} 등은 들이기에 가능

223 아경(亞卿): 조선시대 정경(正卿)인 판서(判書)에 버금가는 벼슬이란 뜻으로, 6조의 참판과 한성부의 좌윤·우윤 등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다.

224 각신(閣臣): 조선시대 규장각에 소속된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등의 관원을 말한다.

한 그루 수와 척량尺量을 후록하여 관문을 보내니 이대로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이번 영건은 그만둘 수 없는 공역이고 또한 시급하므로 도착하는 즉시 베어내 육지에서 속속 흘려보내어 늦가을을 기다렸다가 즉시 영건에 사용해야 한다. 목품木品과 척량尺量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 각 해당 차원差員에 대해 무겁게 죄상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다, 막중한 대역大役이로 인해 지체된다면 말이 되겠는가. 각별 독려하도록 하라.

금오도禽鰲島, 거제巨濟의 각 체대목體大木

3개 길이(60자) 끝지름(3자 5치), 2개 길이(45자) 지름(4자)

3개 길이(45자) 지름(3자 5치), 5개 길이(40자) 지름(2자 3치)

8개 길이(36자) 지름(3자 5치), 5개 길이(33자) 지름(2자 5치)

5개 길이(25자) 지름(2자 2치), 6개 길이(33자) 지름(1자 9치)

50개 길이(30자) 지름(1자 9치), 5개 길이(30자) 지름(1자 7치)

10개 길이(29자) 지름(1자 9치), 5개 길이(25자) 지름(3자)

40개 길이(25자) 지름(1자 8치), 15개 길이(24자) 지름(1자 5치)

35개 길이(28자) 지름(2자 5치), 70개 길이(22자) 지름(2자)

140개 길이(22자) 지름(1자 7치), 45개 길이(25자) 지름(1자 8치)

15개 길이(17자) 지름(1자 7치), 60개 길이(17자) 지름(2자 2치)

각색 공장은 95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7958냥 2전이다.(안악 민인 2만 냥 ○황주 양반 윤태중 5000냥 ○회양 민인 1300냥)

자원군은 33동에서 1073명이다.

15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의 대량^{大樑}과 고주^{高柱} 등의 나무를 삼척^{三陟} 울릉도^{鬱陵島}에 있는 것을 베어내 바치도록 관문을 보냈다. 방금 들으니 그 섬이 큰 바다 동쪽 1천여 리 밖에 위치하여 섬에 들어가 베어내고 옮기고 섬에서 내보내는 일이 모두 불편하고 폐단이 많다고 한다. 이 섬에서 베어내라는 관문은 특별히 거두어들인다. 대저 막중한 대역^{大役}에 반드시 적합한 양주^{樑柱}를 얻고 난 연후에 낭패하는 근심이 없게 되니 도내의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에 있는 것 중에 길이가 45자 이상인 것과 끝지름이 3, 4자 이상인 것을 영교^{營校}를 나누어 보내어 깊은 절벽 외진 골짜기라도 널리 끝까지 찾아내 3, 4백 그루를 얻을 수 있다면 그대로 베어내고 별도로 차원을 정하여 속속 운반하여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98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2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956냥이다. [곽산 민인 1013냥 ○장련 민인 4800냥 ○강서 전 주서 김선주^{金善柱} 1만 냥 ○홍원 전 첨사 김상락^{金尙洛} 1만 냥]

자원군은 52동에서 1270명이다. [흡동 이순민^{李順民}은 50명이 3일간 부역할 비용을 대었다.]

16일

맑음

금위영에서 담당하는 누주석²²⁵ 제2괴도 삼청동에서 끌어 왔는데,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표하군^{標下軍}을 통솔하여 운반을 감독하였다.

각색 공장은 104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77냥이다. [유학 이문선^{李文善} 1000냥]

225 누주석(樓柱石): 누각의 장초석(長礎石)으로 여겨진다. 일례로 『화성성역의궤』에 보이는 주석(柱石)은 초석(礎石: 주춧돌)보다 먼 크기, 너비, 높이 등이 크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469냥이다.(호남 각읍 영주인營主人 등 3000냥)

자원군은 59동에서 1899명이다.(면천 양반 이우신李祐信이 100명을 맡아 10일간 부역할 비용을 대었다.)

17일

맑음

7차 기우제를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중신을 보냈다.

○신무문神武門의 목석의 공역을 시작하였다.

○강녕전, 연생전,²²⁶ 경성전²²⁷의 터를 닦고 또 목석의 공역을 시작하였다.

○동릉東陵 안에서 베어낸 나무를 끌어 운반한 백성 1823명에게 한 명당 1전씩 도합 182냥 3전을 상으로 지급하였다. 양주 목사 임한수林翰洙가 감독하여 거느려서 끌어 왔다.

각색 공장은 101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8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6875냥 6전이다.(문천 수령 정익영鄭翼永 300냥, 경내 민인 5254냥)

자원군은 59동 1460명이다.

18일

맑음

건춘문建春門과 영추문迎秋門의 문 터[門址]는 꺾을 비운 이후 성벽과 이어 돌을 쌓아 두었다. 이날 건춘문 터에 쌓아 둔 것을 허물고 목책을 밖에 둘러 동서로 문짝을 설치하였다. 삼청동에서 돌을 운반하는 길이 조금 가까워졌다.

○옛 광화삼문光化三門을 모두 철거하고 밖에 목책을 둘러 앞뒤로 문짝

²²⁶ 연생전(延生殿): 1395년(태조4) 경복궁 창건 때 강녕전 동쪽의 소침(小寢: 작은 침전)으로 지어졌다.

²²⁷ 경성전(慶成殿): 1395년(태조4) 경복궁 창건 때 강녕전 서쪽의 소침으로 지어졌다.

을 설치하였다. 빗장[關]은 옛 문의 서쪽 49자쯤에 있는데 철거하고 난 재료를 가지고 문 하나를 임시로 설치하여 공장工匠과 목석木石이 드나들도록 하였다.

○광화문 앞의 민가 중 어로御路에 불필요한 것은 모두 철거하였다. 대개 어로에 집을 짓는 것은 금법禁法이므로 비용을 지급하는 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색 공장은 110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53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3624냥 7전이다.[대구 정이건鄭履健 1만 냥 ○강동 민인 4320냥 ○단천 수령 서광복徐光復 1000냥 ○황주 양반 원경귀元景龜 2차 900냥 ○태천 민인 4000냥] 광화문 밖에 거주하는 최치석崔致錫이 살던 집 18칸을 원납하였다.

자원군은 111동에서 1021명이다.

19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포천抱川 수원산水源山은 그 현에 거주하는 고성固城 이씨李氏의 세전世傳 금양산禁養山인데, 수목이 무성하고 뾰뾰하여 매탄²²⁸하는 데 쓰고자 한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즉시 포천현에 알려져서 매탄할 때 방해하는 폐단이 있으면 본 관本官에서 엄히 금단하도록 하고, 숲이 나오는 대로 차례로 본 도감에 실어다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13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97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74냥 6전이다.[봉상시 공인奉常寺貢人 등 2차 1만 냥]

228 매탄(埋炭): 구운 숯 혹은 숯을 굽는 일이다.

자원군은 79동 929명이다.

20일

맑음

8차 기우제를 남단南壇 과 우사단霽祀壇에서 지냈다. 중신을 보냈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기계機械에 들어가는 각종 목물木物 수가 매우 많으나 경성의 송전松田은 거의 헐벗어서 구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인천 다소면多所面 방곡음실方谷音室에 있는 사양私養 송전松田에 적합한 재목이 많다고 하니 대중소를 막론하고 일체 해당 차인이 보고하는 대로 즉시 베어내 신속히 운송하여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22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4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4485냥 5전이다.[통영 민인 4694냥 ○원주 민인 1044냥 5전 ○능주 민인 2752냥 ○퇴기退妓 향옥香玉 500냥 ○무안 전 총장장 문주현文周顯 2000냥 ○영남 좌조창左漕倉 조선漕船 14척, 사공 등 초둔²²⁹ 140냥]

자원군은 54동에서 948명이다.

21일

맑음

경회루지慶會樓池의 두 섬의 축석築石이 4겹[疊]으로 갖추어졌다. 높이는 각각 5자이고 남북의 길이는 각각 15자이며 동서 너비는 각각 20자이다. 위에 금사초金莎草를 입혔다. 석수 728명이 14일간 공역하여 마쳤다.

229 초둔(草屯):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것이다. 뜰이라고도 부른다.

각색 공장은 123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19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858냥 7전이다.

자원군은 52동에서 785명이다.

창원昌原 조선漕船 14척과 조졸漕卒 154명이 3일간 부역하고 14개의 선기船旗를 남기기를
원하기에 근정전 월대 위 법성기法聖旗 옆에 꽂아두었다.

22일

맑다가
밤에 쇄우瀟雨

9차 별기우제를 종묘에서 지냈다. 대신을 보내어 섭행하였는데 향축香
祝은 국왕이 친히 전하였다.

강원 감영 및 예조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쓰이는 대량大樑과 고주高柱가 영월寧越 장릉莊陵 구역 내에
적합한 것이 많다고 한다. 별도로 패장을 정하여 내려보내니, 해당 부에 알려 민정民丁을 많
이 뽑아 신속히 베어낸 후 끌어 운반하도록 하라.

수원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쓰이는 체대 목물體大木物로 본부의 상귀면上龜面 김씨 양반가의 사양산私養山에
있는 송목松木을 베어내러 별도로 패장을 정하여 내려보낸다.

각색 공장은 126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6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8218냥 2전이다.〔함중 이민 등 5500냥〕

자원군은 53동에서 697명이다.

23일

낮에 맑다가 밤에 비.
인정부터 이튿날
사시까지 수심은
4치 1푼

대내大內에서 제호탕,²³⁰ 원미,²³¹ 참외[眞苺], 유월도,²³² 자두[紫桃]와 찬
합饌盒을 제당상諸堂上, 각방 낭청各房郎廳, 감조관監造官 및 간역看役에서
아래로 공장처工匠處에까지 반사頒賜하였다. 대원위 역시 참외를 간역
부터 공장 등에게까지 보내고 사람을 시켜 위로하였다.

○경회루의 서쪽 첨계簷階의 석축石築을 시작하였다. 누樓의 옛 주석柱
石은 모두 면을 다듬어서 사면四面의 첨계에 사용하였다.

각색 공장은 130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2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993냥이다.

자원군은 54동에서 854명이다.

24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갸

예조의 초기로 인하여 기우제는 잠시 날씨를 관망하다가 거행하기로
했다.

각색 공장은 127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15냥이다.[진사 이주하李疇夏 1000냥 선납]

호조에서 받은 돈은 7954냥 8전이다.[개천 수령 조응하趙應夏 1000냥 ○자산 이민吏民 2500냥 ○영원
수령 유세환俞世煥 500냥, 경내 민인 1999냥]

²³⁰ 제호탕(醃鰯湯): 오매육(烏梅肉),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 초과(草果) 등의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꿀에 버무려 끓였다
가 냉수에 타서 먹는 음료수이다.

²³¹ 원미(元米): 곡물을 굵게 갈아서 쪄 죽이다. 19세기 말의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소주원미(燒酒元米)', '장탕원미(醬湯
元米)'란 음식이 기록되어 있다.

²³² 유월도(六月桃): 복숭아의 한 종류이다.

자원군은 1동에서 17명이다.

25일

맑음

황해 감염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목석^{木石}을 수운^{輸運}하기 위해 도내에 있는 단구거^{單驅車} 100량^輛을 올려보내도록 이미 관문을 보냈는데, 방금 들으니 지금 농번기를 맞아 폐단이 많다고 한다. 백성과 고을을 상황을 고려하여 100량 중에서 70량은 지금 일단 그만두고 30량은 신속히 조발^{調發}하여 기필코 빠른 시일 내로 서울에 도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33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28냥이다.[진사 이정기^{李鼎基} 9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4537냥 9전이다.[홍덕 민인 1120냥 ○금성 민인 1023냥 ○홍양 이민 8285

냥 ○나주 민인 정묵현^{鄭默鉉} 1200냥]

자원군은 41동에서 412명이다.

26일

맑음

광화문 서편 종각^{鐘閣} 좌우의 인가^{人家}를 철거하는데, 각^閣의 옛 주춧돌 6괴가 모두 드러났다. 모두 면을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신무문의 홍예 초석을 삼청동에서 떠 왔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운반해 온 거부^{車夫} 등에게 20냥을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133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2687냥 5전이다.

자원군은 38동에서 226명이다.

27일

맑음

이날은 초복이다. 훈련도감에서 7개의 술을 벌려 놓고 소 4마리를 잡아서 패장과 여러 공장 및 조역²³³ 등에게 각각 밥 한 사발과 고깃국 한 그릇씩 2700여 그릇을 호케하였다.

각색 공장은 142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7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1014냥 8전이다.〔함흥 전 참봉 박영주朴永冑 1만 냥〕

자원군은 43동에서 289명이다.

28일

맑음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들이는 철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철正鐵을 사오기 위해 별도로 차인을 정하여 거창, 문경, 영천 등지로 내려보내니 폐단을 일체 차인이 보고하는 대로 금단하고 사상私商의 잠재潛探도 엄금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0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40냥이다.〔밀양 수령 이상억李象億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131냥 3전이다.〔김천 민인 8897냥 ○장원서 공인 등 1000냥〕

자원군은 50동에서 573명이다. 서흥瑞興 중부中部에 거주하는 홍씨洪氏 과부가 200냥을 원납하고 모군募軍 22명을 데리고 와서 3일간 공역을 감독하고 돌아갔다.

233 조역(助役): 장인을 도와 공사를 진행하는 잡역직이다.

29일

맑음

새로 만든 기와를 이날부터 계속 수송하여 와서 후원지 남쪽에 쌓아 두었다.

각색 공장은 137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7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1546냥 9전 5푼이다.〔중화 민인 1만 2865냥 ○서흥

경내 1만 672냥 7전 5푼 ○신계 민인 7685냥〕

자원군은 41동에서 545명이다.〔기호畿湖 36개 관아에서 거모도장²³⁴ 80명이 3일 동안 부역하였다.〕

30일

맑음

전교하였다.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직제학 이승보李承輔를 영건도감 제조로 추가 차임하고, 검교대교 정범조鄭範朝, 좌승지 송희정宋熙正을 부제조로 추가 차임하라.”

각색 공장은 139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61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만 1469냥 9전 5푼이다.〔해주 민인 2만 6367냥 1전 5푼 ○선천 민인 1만 4520냥 ○평해 민인 2000냥 ○사도시 공인 등 2차 1000냥 ○옥천 민인 1200냥 ○사재감 공인 1000냥 ○전생서 공인 등 3000냥〕

자원군은 39동 447명이다.

본 도감에서 초기로 아뢰었다.

“윤5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낸 원납전願納錢이 49만 9781냥 2전 4푼이고, 종친부에서

234 거모도장(去毛屠匠): 거모장(去毛匠)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거모장은 소 또는 돼지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였다.

받은 선파인璿派人의 원납전이 4만 6441냥 5전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윤5월 한 달 동안 자원군은 2284동 도합 6만 2711명이고 복마는 1151필이며 소는 32척이다. 각색 공장은 3만 1751명이다.

경복궁영건일기

2

을축년^{1865, 고종2} 6월

1일

비

각 전당의 퇴량¹ 산지^{散支} 및 회룡통^{回籠桶}에 들어갈 총가목^{銃家木} 각 100개를 우선 오영^{五營}과 군기시^{軍器寺}에 지정하였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대량^{大樑}과 고주^{高柱}는 광릉² 구역 내에 적합한 것이 많다고 하니 별도로 패장을 정해서 내려보낸다.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대량과 고주는 도내 문경현^{聞慶縣}에 적합한 것이 많다고 하니 별도로 패장을 정해서 내려보낸다.

1 퇴량(退樑): 한쪽을 기둥 상부에 결구하고 다른 쪽을 고주에 끼우거나 고주 상부에서 결구한 보이다. 뒷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각종 영건 관련 의궤에서 충량(衝樑: 한쪽을 기둥 상부에 결구하고 다른 쪽을 대들보 상부에 결구한 보)을 퇴량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2 광릉(光陵): 세조(世祖)와 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의 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다.

각색 공장各色工匠은 1375명이고, 담모군³은 5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5740냥 7전이다.(비인 전 오위장 이정만李鼎萬 4000냥 ○출신 이정李潯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2533냥 8전이다.(양덕 민인 1605냥)

자원군은 21동에서 221명이다.

2일

비. 어제 묘사부터
오늘 유시까지
수심은 2치 8푼

기거장岐鉅匠 및 석수 등 7명이 병 때문에 내려갔다. 전별금으로 각각 2냥씩 보내주었다.

각색 공장은 1299명이고, 담모군은 5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05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2327냥 6전이다.(강서 민인 1만 1440냥)

자원군은 9동에서 196명이다.

3일

맑음

대량大樑과 고주高柱 등의 나무가 온릉⁴ 구역 내에 적합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고 이어 별도로 패장을 정하여 내려보냈다.

각색 공장은 1408명이고, 담모군은 305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610냥 3전이다.

3 담모군(擔募軍): 담군(擔軍)과 모군(募軍)을 말한다. 담군은 주로 돌을 짊어지거나 나르는 일을 하는 역부이다. 노동의 강도가 높아 일반 모군에 비해 높은 품삯을 받았다. 그리고 모군은 주로 단순한 잡역을 하는 인부이다. 도감에서는 작업 종류, 작업장 위치, 품삯 등을 미리 알려준 후에 일꾼을 모집하여 사역하였다.

4 온릉(溫陵): 경기도 양주에 있는 중종 비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3817냥이다.〔풍저창豐儲倉 공인貢人 2차 1000냥 ○장흥 이민吏民 1만 1356냥
○김화 이민 1036냥〕
자원군은 10동에서 218명이다.

4월 맑음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가물던 끝에 비가 한번 쏟아지긴 했으나 요즘 음습함이 자못 심하다.
이런 때에 영건하는 공역을 사세에 몰려 정지할 수는 없다 해도 공장工
匠과 부역하는 백성들이 병이 나기 쉬우니 당상 선전관堂上宣傳官을 보
내어 위문하고 오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56명이고, 담모군은 31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5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만 8148냥 7전이다.〔평양 30방坊 민인 3만 4002냥 ○홍원 출신 박종석朴宗錫
1500냥 ○전주 전 현감 정언술鄭彦述 2만 냥 선납〕
자원군은 9동에서 188명이다.

5월 맑음

강녕전康寧殿의 터를 다지기 위해 수철水鐵을 주조하여 달고환⁵ 3
좌坐를 만들었는데 무게가 각각 150근斤이었고, 마줄麻絛로 그 구멍을
여러 겹 꿰었다. 환丸마다 40~50명의 역부를 동원하였다. 영차[呼邪]하

5 달고환(撻古丸): 달고 혹은 달구(撻古)는 건물 터를 평평하게 고르는 기구이다. 『화성성역의궤』에는 ‘돌달고[石杵]’, ‘목달고[木杵]’라는 기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돌이나 나무통의 중간에 동아줄을 여러 가닥 매어 놓은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각 동아줄을 잡아 땅을 다졌다. 『경복궁영건일기』를 보면, 경복궁 터를 다질 때는 수철을 주조하여 달고를 만들어 효율을 증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150근 무게의 둥근 달고[撻古丸] 3개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는 소리로 절구를 찼으니 그 공력이 나무나 돌로 만든 공이[築杵]보다 갑절이 되었다.

○이방二房 야장소冶匠所 2칸이 화재를 입어 즉시 수리하였다.

각색 공장은 1452명이고, 담모군은 4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6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7031냥 9전이다.[전라 좌수영 이민 1295냥 ○송화 이민 8200냥]

자원군은 19동에서 708명이다.

6월

아침에 맑다가
저물녘에 흐림

대원위 분부로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어 각 능소陵所에서 나무를 베고 끝 일꾼으로 농민을 동원하지 말도록 신칙하였다. 이달은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이기 때문이다.

○해주海州의 단구거單驅車 70량輶은 소와 거부車夫를 갖추어 올려보내도록 분부하였는데, 거계⁶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은 1357명이고, 담모군은 4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7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302냥 5전이다.

자원군은 25동에서 1169명이다.

○영남嶺南 우조창右漕倉의 조졸漕卒 119명이 3일간 부역하고 초둔草屯 119부浮와 주기舟旗 19개를 원납하였다.

6 거계(車契): 소가 메는 달구지를 공물(貢物)로 바치기 위해 조직된 계를 말한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계를 만들어 국역을 바치게 하였고, 한성부에 소속시켜서 한거(漢車)라고 이름하였다.

7일

맑다가 밤에
최우驟雨. 인정부터
4경까지 수심은 3푼

이날은 중복이다. 대원위가 700냥의 돈을 내어 훈련도감에서 소 4마리를 잡아서 패장 및 공장 등에게 각각 밥 한 사발과 고깃국 한 그릇씩을 호케稿饋 하도록 하였다.

전정殿庭의 안팎에 깔 박석磚石 2만 닢[길이와 너비 각각 3자, 두께 2치]을 우선 강화江華에 지정하였다.

각 전당殿堂을 덮는 데 사용되는 유둔⁷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므로 300부浮를 사영四營에 지정하였다.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대원위 분부 중에 ‘이번 경복궁을 영건할 때 제반 물종物種을 각도에 지정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에게서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도 함께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듣자니 도내 배천군白川郡에서 철을 산다는 핑계로 농기구를 빼앗고서 혈값을 내주었다고 한다. 비록 원납전으로 말하더라도 중간에서 착복하고는 한푼도 와서 내지 않아 원망하는 소리가 떠들썩하니 이것은 해당 색리色吏들이 관에 속여서 보고하고 그 해악이 백성들에게 미치더라도 거리까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흘러들어온 말이라 비록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는 백성들을 엮어매고 원망을 사는 일이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말을 만들어 해당 군에 관문을 보냄과 동시에 빼앗은 농기구는 일일이 다시 내주고 거두어들인 원납전은 밤을 새서라도 올려보내도록 하라. 이른바 농간을 부린 이배吏輩들은 감영에서 법률에 비추어 엄형에 처하여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아끼고 농사를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본 도는 해당 군을 신칙하여 농기구를 내주도록 하고 이미 녹여버린 농기구에 대해서는 연안 부사 한응필韓應弼을 시켜 근斤마다 2전씩 계산하여 해당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7 유둔(油屯): 기름을 먹은 두꺼운 종이로 여러 장을 이어 붙여서 사용한다. 비를 막거나 바닥에 까는 등 습기를 방지하는 데 쓰였다.

각색 공장은 1507명이고, 담모군은 4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341냥 8전이다.(연일 이민 1164냥)

자원군은 37동에서 1267명이다.

8일

맑음

영추문迎秋門 옛 터의 석축石築을 허물고 목책을 돌렸다.

○해주海州의 단구거單驅車 거부車夫 1명이 사망하여 20냥을 출급하여 묻어주도록 하였다.

○함흥 석수 8명이 자원하여 한 달을 기한으로 부역하고자 하였다. 그

정성이 가상하지만 머나먼 북녘 땅의 사람이 양식을 계속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가 한두 달 만에 준공할 수 있는 공역이 아니므로 석수의 품삯을 일체 지급하고 광화문에서 부역하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은 1476명이고, 담모군은 41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232냥이다.(출신 이명기李明基 3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7837냥이다.(박천 이민 5179냥 ○홍원 이민 7660냥 ○유학 박병후朴秉厚

5000냥 ○유학 강주영姜周瑛 3000냥 ○강릉 유학 김연웅金演應 2000냥 ○낙안 전 영장 최득수崔得秀 3000냥)

자원군은 21동에서 823명이다.

9일

아침에 맑다가
오후에 취우驟雨

옛 신문문을 철거하고 밖으로 목책을 둘렀다. 밤에 개기 고사開基告祀를 지냈다.[동, 서, 남문에서도 이 고사를 지냈다.]

각색 공장은 1424명이고, 담모군은 43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09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551냥 3전 2푼이다.[곡성 민인 2503냥 ○남평 민인 2027냥]

자원군은 23동에서 948명이다.

10일

맑음

백관의 참알⁸을 의정부에서 행하였는데 이때 의정부의 대청大廳이 완성되었다. 그 왼쪽에는 정부 당상政府堂上의 대청이, 그 오른쪽에는 참찬參贊과 찬성贊成의 대청 및 사인舍人 이하 제청諸廳이 함께 모두 새로 위졌으니 제도制度가 엄격하게 정돈되고 단청丹青이 선명하였다. 유월과 선달마다 으레 참알參謁을 하는데 삼공은 주벽에 위치하고, 유사당

상有司堂上 및 찬성과 참찬은 동서 주벽에서 백관의 참알례를 받는다. 또한 차대次對 하루 전에 으레 좌기坐起하여 시임제상과 제당상諸堂上이 차대할 때 논의할 일들을 회의한다. 이것은 예전 융성할 때의 규례인데 찬연하게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석수를 올려보내는 일로 그들의 성명을 후록하여 황해 감영, 공충 감영, 전라 감영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각색 공장은 1520명이고, 담모군은 40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1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8645냥 3전이다.[옥천 민인 6320냥 ○안변 전 현감 김한웅金漢雄 4700냥 선

8 참알(參謁): 관직에 임명된 중하급 관원들이 상급 관청을 방문하여 인사하는 의식으로 당참(堂參)이라고도 한다.

납 ○보성 군수 이규서李奎書 1000냥 ○태천 민인 2000냥 ○예빈시 공인 등 2차 1000냥 ○여주 이민 1513냥
자원군은 22동에서 916명이다.

11일

맑음

대원위가 말하였다.

“여러 공장工匠과 군인 중에서도 담군擔軍의 일이 더욱 힘이 든다. 훈련
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삼영三營에서 각각 포 3동同을 내어 모두 392명
에게 각각 상으로 1필씩 주어 그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라.”(강녕전 담군
50명, 경회루 석축소石築所 49명, 치목소治木所 51명, 치석소治石所 34명, 광화문 105명,

건춘문 24명, 영추문 26명, 신무문 27명, 종친부 사령 26명은 1개월간 담군으로 부역했으므로 그 가운데 포함시
켰다.)

각색 공장은 1474명이고, 담모군은 52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3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6724냥이다.(홍원 전 만호 최주한崔周翰 1000냥 ○홍원 전 영승 도필중都必中
2000냥 ○평산 이민 1만 5600냥 ○황해 병사 이원희李元熙 2차 2000냥 ○창성昌城 이민 3050냥)

자원군은 25동에서 632명이다.

12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종 목석木石을 수운輸運하는 일은 매우 크니 수레를 넉넉한 수량으로
만든 연후에야 때에 맞춰 거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양 신원新院의 여
석현礪石峴과 인천의 죽림竹林에 있는 진목眞木 각각 50개를 베어내서
가져오기 위해 차인差人을 정하여 내려보낸다.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크기가 큰 누주樓柱 등의 목물木物을 도내의 인제, 춘천 등지에서 값을 주고 베어오도록 이미 관문을 보냈는데 인제현의 용대산龍臺山 한계동寒溪洞에 적합한 것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신속히 베어내는 일을 허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86명이고, 담포군은 55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12냥이다.[수문장 이희진李喜晉 1000냥 선납]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800냥 6전이다.[장흥고 공인 2차 1000냥 ○공주 진사 오휘상吳徽相 1000냥

○단천 민인 1만 5600냥 ○하동 유학 김백권金百權 2차 300냥 ○하동 이민 2285냥]

자원군은 33동에서 833명이다.

13일

오후에 세우瀟雨가
내리다가 밤에
큰 장마비[大霖]

신무문 홍예 주춧돌[虹霓礎]을 가져온 것이 이때 12괴가 되었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월봉月俸을 내어 거부車夫들에게 큰 괴[塊]는 20냥, 작은 괴는 10냥씩을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1514명이고, 담포군은 5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17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7534냥 4전 5푼이다.[김제 전 오위장 김순택金淳澤 2000냥 ○흥주 민인

1014냥 ○용담 이민 2284냥 3전 ○용강 이민 1만 78냥 1전 5푼]

자원군은 36동에서 1064명이다.

14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늦게 갠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번주홍⁹ 3000근을 채취하여 내도록 호조에서 이미 관문을 보냈다. 방금 들으니 호조에서 거두는 문화¹⁰의 별수미¹¹ 중에서 번주홍의 값으로 1200냥을 제하고 받을 것이라고 한다. 〈번주홍 구입비로 환산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물종¹²이 이미 영건에 사용할 것이므로 값을 도감에서 마련해 지급하는 것이 일의 이치상 당연하다. 본 도감의 박석¹³ 값에서 남은 조목¹⁴ 가운데 900냥을 한도로 덜어내어 매 근마다 3전씩 내려 가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할 것이니 이후 호조에 상납하는 것은 이전의 수량대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각 건물의〉 수장¹⁵에 들어가는 각종의 목물¹⁶이 매우 시급하므로 도내 인제¹⁷ 지역에서 값을 주고 베어오도록 전에 관문을 보냈다. 그런데 인제현¹⁸ 한계동¹⁹, 승승동²⁰, 우목동²¹의 3곳에 적합한 나무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전에 보낸 차인 박완귀²²에게 또 베어내서 가져오라는 뜻으로 이미 전령을 내려 신칙하였다. 이처럼 또 관문을 보내니 즉시 베어내 밤을 새서라도 운반해 오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42명이고, 담포군은 5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06냥 5전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186냥 5전이다.

자원군은 28동에서 927명이다.

9 번주홍(番朱紅): 단청에 사용하는 진홍색의 도료(塗料)이다. 주로 종묘의 신탭(神櫓)과 같은 궁원(宮院)에 사용되었다.

10 별수미(別收米): 조선 후기 황해도에서 정해진 결세 이외에 추가로 징수한 쌀을 말한다.

11 수장(修粧): 목공사에 있어서 마루놓기, 출입구, 창둘레, 천장, 벽, 바닥 등을 붙이는 마무리 부분의 공사를 말한다. 즉,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구조체에 붙여 대는 것의 총칭이다.

15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본 도감 부제조 송희정¹²이 현재 직명이 없으니 해조에서 구전口傳으로 군직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윤희한다. 지금부터는 도감을 설치할 때 당상과 낭청이 실직實職이 없으면 구전으로 직명을 붙여 주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라.”

○광화문의 문지門址가 낮아 전각의 터를 개척開濬할 때 모아둔 흙으로 보토補土하여 터를 닦았더니 본래의 터보다 4자 7치쯤 더 높아졌다.

○광화문의 선단석¹³(이것은 어간문御間門 동서 홍예 주춧돌의 아래에 두는 것으로 다른 문은 합석合石을 사용하였는데 유독 여기에서는 전석全石을 사용하였다.)을 영풍정映楓亭에서 떼어왔다. 혼련도감의 자원 부역군 725명이 〈선단석을〉 끌고 왔는데 길이 12자, 너비 4자, 높이 3자였다.

각색 공장은 1603명이고, 담모군은 57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14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553냥이다.[증산 이민 3007냥 ○금구 전적典籍 장태수張泰秀 1000냥 ○홍원전 참봉 박인희朴寅羲 5000냥 선납]

자원군은 16동에서 575명이다.

12 송희정(宋熙正): 1863년(고종 즉위) 사헌부 지평을 지내고, 1864년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그 해 6월 효문전(孝文殿) 작헌례 때 대축(大祝)으로 참여하였으며, 9월에는 승정원 우부승지로 있으면서 우례의 재이에 대해 왕에게 진면(陳勉)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865년에는 좌승지에 오르고 영건도감 부제조에 차하(差下)되었다. 6월 15일 영건도감의 건의에 따라 직명이 없는 송희정을 부호군에 단부하였다. 이후 송희정은 경복궁 영건 시 만춘전(萬春殿)의 서사관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성균관 대사성, 이조 참의가 되었다.

13 선단석(緡端石): 선단석(扇單石)을 말한다. 선단석은 홍예문(虹霓門)의 위부분이 무지개처럼 반원형으로 생긴 문(門)을 구성하는 홍예석 하부를 받치는 방향의 대형 석재이다.

16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을 영건할 길한 일시日時를 일관日官(이병홍李秉洪)에게 고르게 하였더니, 정초定礎는 이번 6월 20일 신시, 입주立柱는 오는 10월 9일 인시, 상량上樑은 10월 11일 자시가 각각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시에 거행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1459명이고, 담모군은 5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53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6110냥이다.〔금산 전 중군 편기진片沂珍 3000냥 ○금산 민인 6865냥 ○장진 민인 2695냥 ○함흥 전 참봉 박영주朴永胄 1만 냥 선납〕

자원군은 31동에서 1015명이다.

17일

맑음

이날은 말복이다. 어영청에서 공장은 한 명당 2전 7푼씩, 담모군擔募軍은 한 명당 2전씩, 제당상諸堂上의 조예皂隸는 한 명당 1전씩, 도합 720냥으로 견호케하였다.〔2전 7푼은 영문營門에서 대호궐大驕館했던 전례대로 한 것이다.〕

○문소전文昭殿 후록後麓 아래 새로 만든 도랑은 성저城底부터 삼청동의 큰 도랑에 이르는데 길이가 585자이다. 양쪽 제방의 석축은 광주光州 유학 이정원李廷遠이 전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였고 공역이 끝나자 그대로 짧은 비[短碑]를 세우고 돌아갔다. 이해 7월 큰비가 내렸을 때 축조한 제방이 얇고 좁아서 모래가 흘러 막혔다. 이정원이 고쳐서 축조하려고 하였으나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대신 3000냥을 원납하였다. 그 석수 장순철張順哲이 두둑하게 보수를 받고는 제방을 축조하는 일에 태만하였기에 징벌하였다.

각색 공장은 1582명이고, 담모군은 59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45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684냥이다.

자원군은 46동에서 1626명이다.

18일

맑다가 밤에 비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듣건대 관서關西 은산현殷山縣의 백성들이 능력껏 영건소에 원납하고
자 한창 모으고 있는데 전 장령 김정헌金鼎獻이 위아래로 큰소리를 치
고 다니면서 반드시 막아내려고 하였던 합니다. 향신鄉紳으로서 이렇게

막대한 공역을 만났으니 의당 앞장서서 흥기시키고 권면하여 뒤질까
애써야 할 텐데, 도리어 의로운 뜻으로 힘을 바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켜 뜻을 펴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보통 상식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죄상을 해부該府에서
잡아다 국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이 사람은 곧 조적朝籍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무리이니, 그가 만약 재산이 있다면 다른 사
람보다 갑절은 더 의로운 마음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않고 도리어
한 고을을 조종하여 막았으니,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어찌 더욱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김
정헌을 의금부로 잡아 와서 한 차례 엄히 형신한 후 먼 곳으로 정배하라. 이로 인하여 또 신
척할 것이 있다. 이번의 대역사는 곧 3백 년간 미처 하지 못했던 일로서 오늘날 반드시 중
건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는가. 저 사방의
신민 된 자들이 의를 향하여 힘을 쏟기에 겨를이 없을 지경일 것이다. 그 보조한 바의 다과
에 따라 벼슬과 상을 실시하는 것은 곧 예전에 행했던 규례이니 어찌 조정에서 포상하는
은전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근래 각도에서 납부하는 것을 보면 일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자로 만든 것이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으니, 먼저 뜻을 보이기
는 어렵다. 이에 간절히 근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궤不軌한 무리가 흥기하여 권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방해하고 나섰다. 이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벼슬아치

의 후예가 도리어 수치스럽게 여기고 여항의 부자들이 끝내 관망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잘못을 창도하면 못사람들의 마음은 저지당하기 쉬운 법인 것이다. 이와 같다면 팔도의 백성들이 어찌 권선징악의 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팔도와 사도四都에 관문으로 신칙하라.”

[잡아 와서 엄형을 한차례 하고 진주 땅으로 유배시켰다.]

○광화문의 선단석^{綫端石} 제2괴^塊를 훈련도감이 또 영풍정^{映楓亭}에서 끌어왔다. 종루^{鐘樓} 앞에 이르러 끌어오는 틀^[標械]이 망가져서 담군^{擔軍} 107명을 시켜 산륜¹⁴을 이어 깔아 문 앞까지 끌어왔다.[길이, 너비, 두께는 제1괴에 이미 나와 있다.]

대원위 분부로 영건소의 예졸^{曳卒} 720명, 담군 107명에게 한 명당 1전씩 도합 82냥 7전을 상으로 주었다. 그들을 영솔^{領率}한 석수와 거부^{車夫} 각 10명과 선장^{船匠} 2명에게는 호조를 시켜 각각 1필의 무명을 상으로 주었다.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도 상으로 20냥을 석수와 담군에게 주었으며, 72냥을 예졸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1572명이고, 담모군은 50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3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5019냥이다.[수원 유학 최덕수^{崔德修} 1000냥 ○제천 진사 신평령^{申彭齡} 1000냥]

자원군은 51동에서 1634명이다.

14 산륜(散輪):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밑에 까는 바퀴 역할을 하는 둥근 통나무이다. 산륜을 가지런히 깔아놓아 이것이 구르면 서 나무판 위에 실은 물건을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19일

비

평안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의 대량^{大樑}과 고주^{高柱} 등의 나무를 아직 구하지 못하여 몹시 걱정하던 차에 지금 막 들어보니 도내 강계^{江界} 적유령^{狄踰嶺} 및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에 크기가 큰 송목^{松木}, 회목^{檜木}, 백자목^{栢子木}(잣나무) 등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관문을 보내니 별도로 일을 주관할 영교^{營校}를 두 읍에 나누어 보내서 길이 50자, 끝지름 3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각각 30개를 한도로 베어낸 후에 수변^{水邊}으로 끌어 운반하고 배에 실어 밤을 새서라도 올려보내도록 하라.

9월 □일의 본 도(평안도)의 회이^{回移}

묘향산은 본래 적합한 나무가 없고 적유령은 비록 적합한 나무가 있지만 산길이 험하고 포구까지 나오는 데 300여 리이므로 베어낼 수 없습니다.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공주^{公州} 대정리^{大靖里}에 거주하는 와장^{瓦匠} 정희손^{鄭喜孫}이 평소 뛰어나다고 한다. 해당 읍에 알려져서 신속히 배속시키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02명이고, 담포군은 5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0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958냥이다.

자원군은 9곳^[處]에서 683명이다.

20일

비, 18일 인정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은 4치 9푼

이날은 교태전,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의 정초일(定礎日)이다.〔강녕전의 동쪽 온돌을 연생전이라고 하고, 서쪽 온돌을 경성전이라고 하며 정청(正廳)을 강녕전이라고 한다. 전호(殿號)는 세 개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殿)이니 바로 대조전(大朝殿)이다. 옛 제도에서는 강녕전이 동서의 온돌보다 조금 높았는데 지금의 제도에서는 높고 낮은 구별이 없도록 하였다.〕신시에 패장을 시켜 사전(四殿)에 고사를 지내게 하였

다. 사전의 위에 각각 차일(遮日, 모란병풍〔牧丹屏〕, 고족상¹⁵을 설치하고 각각 소 한 마리, 떡 세 시루, 과일 세 종류, 술 한 통을 올렸다. 각각 돈 100꾸러미, 대미(大米(쌀))와 소미(小米(좁쌀)) 각각 2섬, 배와 무명 각각 10필을 진설하고 단헌¹⁶으로 마쳤다. 교태전 정청의 초석(礎石) 4좌 중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모두 흙으로 메워 정하였다.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은 당시 아직 터를 완전히 다지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초석(礎石) 12좌를 정하고 고사를 지냈다. 사용된 물품들은 해당 석수방(石手房)에 주었는데 대개 정초는 석수의 일이기 때문이다.〔이하의 정초는 모두 이를 따랐다.〕이날 당상과 낭청이 일제히 모여 참관하였다.

○축성(築城)도 이날 신시였다. 삼영(三營)에서 각각 자표(字標)를 정하였다. 광화문부터 동쪽으로 건춘문(建春門)까지는 금위영이 맡고, 서쪽으로 영추문(迎秋門)까지는 어영청이 맡으며 신무문(神武門)에서 동쪽으로 건춘문까지와 서쪽으로 영추문까지는 훈련도감에서 맡았다. 훈련도감은 성(城)의 건방(乾方)에서 고사를 지냈고 금위영은 손방(巽方)에서 고사를 지냈으며 어영청은 곤방¹⁷에서 고사를 지냈다. 각각 돼지〔豕〕 한 마리를 썼다. 석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의 공역을 더 확장하지 않고 옛 성석(城石) 10여 괴를 해체하여 미리 복마(卜馬)로 성터 안으로 석재를 옮겨 두도록 하였다.〔한 태(駄)당 2괴를 실었고, 태 당 값은 5전이었다.〕

본 도감에서 초기로 올린 별단은 다음과 같다.

15 고족상(高足床): 각종 의례를 베풀 때 쓰였던 다리가 높은 상이다.

16 단헌(單獻): 제사를 지낼 때 세 번 올릴 술잔을 한 번만 올리는 일을 말한다.

17 곤방(坤方): 팔괘(八卦)의 여덟 방위 중 남서쪽 방향이다. 정남과 정서의 사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45도 각도 안의 방위이다.

강녕전康寧殿 상량문¹⁸의 제술관¹⁹은 영중추부사 정(원용元容), 서사관²⁰은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이고, 교태전交泰殿 상량문의 제술관은 봉조하 김(흥근興根), 서사관은 영평군永平君 이고, 연생전延生殿 상량문의 제술관은 영돈녕부사 김(좌근左根), 서사관은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이고, 경성전慶成殿 상량문의 제술관은 판돈녕부사 이(경재景在), 서사관은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이고, 광화문光化門 상량문의 제술관은 판중추부사 이(유원裕元), 서사관은 대호군 신석희申錫禧이고, 건춘문建春門 상량문의 제술관은 봉조하 윤정현尹定鉉, 서사관은 대호군 서헌순徐憲淳이고,²¹ 신무문神武門 상량문의 제술관은 수원 유수 조득림趙得林, 서사관은 대호군 이원명李源命이고, 영추문迎秋門 상량문의 제술관은 대호군 강시영姜時永, 서사관은 대호군 조연창趙然昌이다.

각색 공장은 1573명이고, 담포군은 5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61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2만 7085냥 2전이다.(고부 민인 8570냥 ○용천 민인 1만 5910냥 ○한량 박명수朴命洙 1145냥)

자원군은 33동에서 862명이다.

18 상량문(上梁文): 상량을 할 때 건물을 축조하게 된 배경, 공사에 참여한 인물들, 건설 이후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글 등을 써서 남긴 기록이다. 『경복궁영건일기』에는 근정전, 교태전, 강녕전, 사정전, 선원전, 연생전, 경성전, 함원전, 천추전, 만춘전, 수정전, 천한전, 경근당, 인지당, 자미당, 자선당, 경회루, 광화문, 영추문, 건춘문, 신무문, 근정문, 흥례문 등의 상량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량문은 장허나 도리 등에 흠을 파고 그 안에 밀봉하여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정전, 근정문 등의 상량문 실물이 2001년 중수 공사 때 발견되기도 했다.

19 제술관(製述官): 상량문 등의 문장을 짓기 위해 선발된 관리이다.

20 서사관(書寫官): 현판 등 각종 글씨의 서사를 위해 선발된 관리이다.

21 『승정원일기』 고종 2년 6월 20일 기사에는 건춘문 상량문의 서사관인 서헌순의 직임이 상호군(上護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복궁영건일기』에는 대호군으로 쓰여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 2년 6월 17일 기사에 서헌순이 병조에서 무관(武官)을 골라서 뽑는 병비(兵批)의 관원 현황에 상호군에 단부(單付)된 것을 보면 『경복궁영건일기』의 기록이 오류인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마우微雨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난번에 지정한 박석_{磚石}의 길이와 너비는 참작하여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이에 따라 떠내면 폐단이 많아져서 힘써 거행한다고 해도 규격에 맞게 채취할 길이 없다고 한다. 지난번 견본에서 길이와 너비 각각 4자로 5000냥으로 하였으나 3500냥은 지금 보내는 견본과 같이 길이 4자, 너비 2자 6치 7푼으로 떠내도록 하고, 나머지 1500냥은 전각에 사용될 것으로 매 칸마다 길이, 너비가 각각 10자이므로 이 너비로는 들어서 배설할 수 없다. 칸수를 참작하여 길이와 너비를 모두 3자 4치씩 되도록 떠내어 매 칸마다 9냥씩 배용_{排用}하는 것이 일의 진행상 매우 편리하고 마땅하다. 이대로 거행하도록 하라.

전각에 깔 별문석_{別紋席}과 백문석_{白紋席}은 이전에 강화_{江華}에 지정하였으나 서울에서 가져다 쓸 방법이 있으므로 다시 관문을 보내어 철회하였다.

각색 공장은 1559명이고, 담모군은 5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2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6397냥이다.[옥구 이민 2863냥 4전 ○순천 이민 1만 1543냥 ○경상 우병영 이민 1110냥 6전]

자원군은 25동에서 835명이다.

22일

새우麗雨

보사제_{報謝祭}를 종묘에서 지냈다.[지난달 22일 9차 별기우제_{別祈雨祭}가 즉시 영험을 보았기 때문이다.]

각색 공장은 1568명이고, 담모군은 5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1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5959냥이다.[회령 수령 이용희_{李容熙} 1000냥 ○상원 이민 7759냥 ○덕원 전 참봉 남이숙_{南履夙} 5000냥 ○고양 이민 등 200냥 ○상주 장한_{匠漢} 송일태_{宋一泰} 1000냥]

자원군은 39동에서 888명이다.[남문 안, 이현梨峴, 종가鍾街 3곳의 포청 동한捕廳童漢 중에 1차로 부역할 때 자급을 받은 3명이 동한 70명을 영솔하고 무동舞童과 대나무를 찬 광대[帶竹倡優]와 함께 2차로 부역하였다.]

23일

비 개동부터 유사까지
수심은 4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남중우南鍾友가 홍산 현감으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광흥창 수[廣興守] 민덕호閔德鎬를 차하하겠습니다. 감조관監造官 조학재趙鶴在가 호조 좌랑으로 옮겨 제수되고 지금 이미 승륙²²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사옹원 봉사 강영수姜穎秀를 차하하겠습니다. 감조관 이

경로李景魯가 의금부 도사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직무가 서로 방해되니 해조에서 구전 정사口傳政事를 하여 한가로운 관사와 서로 바쁘도록 하겠습니다.[제용 봉사濟用奉事 윤선좌尹善佐와 서로 바쁘었다.] 감조관 심병규沈炳奎가 희릉 직장禧陵直長으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종친부 직장宗親府直長 이원진李源進을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문소전文昭殿 후록後麓의 새로 만든 도랑[新渠] 위의 보토補土 한 곳의 석축을 지난달 17일에 시작하여 이날 모두 끝냈다. 석수 333명을 썼다.

각색 공장은 1543명이고, 담모군은 5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0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759냥 6전이다.

자원군은 32동 607명이다.

22 승륙(陞六):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에 오른 것을 말한다.

팔도八道, 사도四都에 보내는 관문

이번 경복궁 중건은 300년 동안 미처 겨를이 없던 일이자 막중하고 막대한 공역이다. 지금의 국세國勢와 민정民情을 고려하면 갑자기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오직 우리 어린 국왕이 즉위하여 하늘의 상서로움이 이어지고 선조先朝의 뜻

을 계술繼述하니 은殷 나라가 박亳 땅으로 천도하고, 주나라가 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한 것과 비교하면 그 의義가 마찬가지이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한 번의 노고가 없으면 오래 편안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한 때의 작은 노력으로 만세의 큰 터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무릇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된 자는 누구인들 정성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서 자식이 아버지의 일에 달려 나오는 것 같지 않음이 있겠는가. 위에서는 조력을 구하고 아래서는 재산을 털어내 도우니 또한 일의 형세와 도리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 내리신 칙교勅敎 이후 마땅히 마음을 움직여 즐겁게 따르기에다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근래 지방 고을을 보니 소위 원납하는 자가 갈수록 더 없어져서 도무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으니 이 무엇 때문인가. 듣자니 사대부 집안에서는 수치라고 일컫고 부유한 백성들은 다만 인색한 것만 알아 의로움을 향해 힘을 쓰는 자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아! 저 선대로부터 임금의 녹을 먹은 고관의 후손들과 자신을 위해 임금의 땅을 갈아먹은 여향의 부호들 가운데 백성을 쉬게 하고 길러주는 임금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또한 이미 많을 터인데 지금 이와 같은 큰 사업에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 어찌 백성과 나라가 서로 돕는 뜻이겠는가.

비록 각 읍에 흠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아무개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또한 이미 자세히 보고받아 알고 있으니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하여 철저하게 징치懲治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법을 시행한다면 그 따르지 않은 자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제로 문책하고 징벌을 실시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내어 제척提飭하니, 즉시 문구를 작성하여 도내 각 읍에서 행회行會하도록 하고 진문眞文과 언문諺文으로 베껴 방방곡곡에 효유曉諭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실로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만약 모두 우물쭈물하면서 의연금을 내어 이 공사에 보탬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저버리

고 왕명을 태만히 한 죄는 이미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중 설혹 아주 적게라도 이미 납부한 자라도 재차 삼차 형편에 따라 마련하여 내더라도 안 될 것은 없다. 이와 같이 자세히 효유한 후에도 또한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별도로 엄하게 처벌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대소의 민인들은 모두 알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대원위 분부를 받들어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행회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듣지 못해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82명이고, 담모군은 5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5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166냥이다.〔강화 민인 3000냥〕

자원군은 30동에서 517명이다.

25일

비. 어제 개동부터
이날 신시까지
수심은 1치 3푼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상주尙州에 거주하는 송일태宋一泰가 돈 1000냥을 원납하였다. 그는 일개 장한匠漢으로 원납한 액수가 이처럼 과다하니 매우 가상하다. 달리 시상할 것이 없어 지금부터 천역賤役을 면제해 준 뒤 일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대원위도 이조를 시켜 체가帖加하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은 1630명이고, 담모군은 59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만 1278냥 2전이다.〔곤양 진사 조기용趙基鏞 1000냥 ○강진 민인 5800냥 ○담양 이민 3410냥 ○과천 민인 유천만劉千萬 수청목水靑木 400개〕

자원군은 9동에서 514명이다.

26일

비

가뭄 끝에 연이어 큰비가 내려 사람이 다치고 덥고 습하여 병이 많이 생겼다. 지방 장색(匠色) 중에 병이 들었다고 보고하는 자는 모두 노자를 주고 내보내 주었다.

각색 공장은 1607명이고, 담모군은 59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461냥이다. [김제 수령 이건하(李乾夏) 1000냥]

호조에서 받은 돈은 2753냥이다. [중화 수령 한용선(韓用善) 1000냥]

자원군은 16동에서 342명이다.

27일

비. 어제 묘사부터
이날 밤 5경까지
수심은 1치 5푼

원주(原州) 주천(酒泉) 민 안학인(安學仁)이 도토리(橡實), 말화밀(末和蜜) 세 항아리, 지과(紙裹) 세 봉을 가져와서 영건소에 납부하였다. 대개 설사 치료제로 쓰이는 좋은 약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더운 시기에 공역을 하여 대부분 설사증에 걸렸는데, 어리석은 산골짜기 백성이 이런 깊은 생각을 하여 정성껏 와서 냈다. 비록 귀한 물건은 아니지만 그 정성이 가상하였다.

각색 공장은 1613명이고, 담모군은 595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753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1218냥이다. [한량 김항식(金恒植) 2차 500냥]

자원군은 25동에서 774명이다. [문경 수령 이국녕(李國寧)이 머무르길 원하여 백성 40명을 3일간 부역시키고 내려갔다.]²³

23 문경 수령 ... 내려갔다: 이국녕은 1865년(고종3) 3월 문경 현감에 제수되었지만 신병으로 인해 부임을 미루다가 같은 해 6월 27일 의정부에서 부임지로 떠나도록 조치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년 3월 14일; 6월 27일)

28일

비. 미시부터 3경까지
수심은 6푼

대원위가 공장처(工匠處)에 소주(燒酒) 및 안주(肴脯)를 내렸다. 모두 목수 945명, 석수 536명, 야장 120명이다. 영솔 패장(領率牌將)을 시켜 각기 소속된 자들에게 나누어 마시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위에 보인다.) 담모군은 60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46냥이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1299냥 7전이다.〔출신 이승검(李承儉) 2차 2만 6000냥 ○의주 장봉록(張鳳祿) 3000냥 ○전주 등 6읍 지소(紙所)의 민인 등의 도중(都中)이 각장(24) 100장을 냈다.〕

자원군은 41동에서 1213명이다.

29일

비. 진시부터 이튿날
개동까지 수심은
1치 4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한교원(韓敎源)이 탈이 있으니 그 대신에 종친부 주부 이덕초(李惠初)를 차하하고, 감조관 이원진(李源進)을 종묘서 직장(執掌)으로 옮겨 제수하였으니 그 대신 사옹원 직장 이석응(李錫應)을 차하함이 어떻겠습니까?”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금위영에서 공장(各張)과 담모군에게 견호(券)하였는데, 17일 어영청에서 호(券)한 것과 같았다.

○우역(牛疫)이 있었다. 거우(車牛)가 서서 폐사하기도 하였다.

각색 공장은 1628명이고, 담모군은 71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15냥이다.

24 각장(各張): 의궤에 기록된 도배지의 종류를 나누어보면 백지류(白紙類), 주지류(注紙類), 유지류(油紙類), 유둔류(油菴類), 각장류(各張類), 장지류(壯紙類), 장지류(狀紙類), 능화지류(菱花紙類), 염색, 전지류(染色, 箋紙類), 휴지류(休紙類), 낙폭지류(落幅紙類), 기타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각장은 주로 공문서나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온돌바닥을 도배하는 데에도 쓰였다.

호조에서 받은 돈은 3만 2241냥 5전이다.[전주 전 현감 정언술鄭彦述 그동안 도합 2만 7000냥 ○만경 이민 및 고군산 민인 등 1915냥 5전 ○개령 민인 2720냥 ○가산 이민 3740냥 ○전 오위장 조윤현趙胤顯 3차 1만 5000냥]

자원군은 76동에서 1817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6월 한 달 동안 본 도감에서 받은(처음에는 호조에서 받았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본 도감에서 받았다.) 각처의 원납전은 41만 1263냥 7전 1푼이고, 종친부 선파인璿派人의 원납전은 2만 7650냥<부전지>8096냥</부전지>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6월 달 각색 공장은 도합 4만 3912명이고, 담모군은 1만 3480명<부전지>4070명</부전지>이다.[담모군은 역기役記 중에 기록하지 않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자원군은 도합 797동에서 2만 4012명이다.

을축년^{1865, 고종2} 7월

1일

비 개동부터 인장까지
수심은 6푼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략을 올려 아뢰었다.

“공장들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1633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은 879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돈 207냥 2전 5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위에 보인다), 담모군(위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6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8201냥 2전이다. [장성 민인 3255냥 ○장성 전 참봉 김경휴^{金京休} 1000냥

○의주 김호^{金鎬} 3000냥 ○의주 김득한^{金得翰} 3000냥, 이천경^{李天擎} 3000냥 ○곡산 민인 3570냥]

자원군은 84동에서 1827명이다. [북청 민인 조종석^{趙鍾錫}은 1개월 기한으로 홀로 부역하였다.]

2일

아침에 맑다가,
늦게 비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종 목물을 운반하는 일이 급하여 단구거單驅車를 올려보내서 사역하게 하라는 관문을 보냈다. 지금 농사일이 한창이라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모두 도로 내려보내니, 오는 9월 그믐 안으로 2차 관문을 기다리지 말고 도감에 배속하도록 하라.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 이하 여러 곳의 단확²⁵에 사용되는 뇌록²⁶ 500말, 정분²⁷ 300말을 우선 지정한다.

사도四都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단확丹腹에 사용되는 아교²⁸를 역소役所에서 삶아서 뽑아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피牛皮는 정한 수대로 서울에서 사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00장을 참작하여 지정한다.

각색 공장은 1593명이고, 담모군은 87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52냥이다.〔남원 출신 노광윤盧光潤 3000냥 ○동복 이민 2057냥 ○장기 민인 1100냥 ○금산 전 중군 편기진片沂珍 2차 2000냥 ○광주光州 유학 정달관程達寬 1000냥〕

자원군은 79동에서 1827명이다.

25 단확(丹腹): 단청(丹青) 또는 단청에 쓰이는 붉은 안료를 말한다.

26 뇌록(磊碌): 초록빛을 띠는 단청 안료로, 주로 바탕 가칠을 하는 데 쓰였다. 대개 경상도 장기면 뇌성산에서 채취하였다.

27 정분(丁紛): 하얀색을 띠는 단청 안료 중 하나이다. 백토(白土), 백악(白堊)이라고도 한다.

28 아교(阿膠): 동물의 가죽, 내장, 뼈 등을 원료로 한 접착제이다. 단청에 아교를 발라 목재의 균열 및 얼룩을 방지하였다.

3일

비, 어제 미시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 1치 3푼

예조에 보내는 관문

기계에 쓸 나무로 의릉²⁹ 화소^{火巢} 안의 송목^{松木}으로 베어내기 위해 패
장을 정하여 내려보낸다.

각색 공장은 1608명이고, 담모군은 81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214냥이다.〔부안 유학 이문영李文榮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618냥 1전이다.〔첨지 문화연文義淵 2차 1000냥〕

자원군은 57동에서 1323명이다.

4일

비, 묘사부터 인장까지
수심은 5푼

경기, 수원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목물 6600개를 베어 남양^{南陽} 백로동^{白鷺洞}에 두었는
데 지금 막 끌어 운반하려 한다. 그런데 남양 한 읍으로는 기한에 맞추
기가 만무하니 인천, 안산 부근의 읍의 민정^{民丁}을 조발^{調發}하여 힘을
합쳐 끌어 운반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625명이고, 담모군은 791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342냥 5전이다.〔이문영李文榮 2차 2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744냥이다.〔삼화 이민 6160냥〕

자원군은 67동에서 1725명이다.

29 의릉(懿陵): 경종(景宗)과 계비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의 능이다.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에 있다.

5일

마우微雨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시 각종 목물을 덮을 때 사용되는 초둔草苫의 개수가 매우 많은데 약간 사들이는 것으로는 배정하여 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서 오기 위해 별도로 차인을 정하여 도내 은진, 온양, 예산, 덕산, 태안 등지로 보낸다. 만약 무뢰한 잡배들이 중간에 조종하는 폐단이 있다면 일체 엄금하여 잘못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628명이고, 담모군은 79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84냥이다.〔의영고 주부 이조황李祖潢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044냥 3전이다.〔영흥 박제훈朴齊燾 3000냥 ○안동 부사과 유기영柳驥榮 1000냥 ○통진 민인 2402냥 3전〕

자원군은 91동에서 2561명이다.〔부평 양반 김진현金眞鉉의 종중宗中에서 8명이 5일을 기한으로 부역하였다. 역기役旗의 면에 ‘충신공 팔대손忠臣公八代孫’이라고 썼다〕

6일

맑음

흙경각³⁰ 옛터의 일영대日影臺를 철거하고 나온 석재를 모두 면을 다듬어서 경회루지慶會樓池의 석축에 옮겨 사용하였다.

○『경복궁구지』를 보면 흙경각은 강녕전 서쪽에 있었는데, 세종 갑인년(1434, 세종16)에 창건하기 시작하여 무오년(1438, 세종20)에 완공하였다.

김돈金墩의 기문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왕帝王이 정책을 베풀어 모든 사무가 완성되게 한 것을 상고해 보면, 반드시 먼저 역일曆日을 밝혀 백성에게 일할 때를 알려 주었고, 그때를 알려 주는 요결은 실로 하늘과 기후를

30 흙경각(欽敬閣): 1438년(세종20)에 장영실로 하여금 옥루(玉漏), 앙부일구(仰釜日晷) 등을 설치했던 건물이다. 경회루 동남쪽에 있었다.

살피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형³¹과 의표^{儀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험^{考驗}의 방법이 매우 정밀하여 하나의 기물이나 하나의 형상만으로는 바른 길을 취할 수 없어 우리 주상전 하께서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모든 의상^{儀象}을 제정하였다. 이를테면 대소의 간의,³² 혼의,³³ 혼상,³⁴ 양부일구,³⁵ 일성정시의,³⁶ 규표,³⁷ 금루³⁸ 등의 기구가 모두 지극히 정교하여, 예전의 것보다 월등히 나은데도 오히려 제도가 미진함을 염려하셨다. 또 여러 기구가 모두 후원^{後苑}에 마련되어 수시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드디어 천추전³⁹ 서쪽 뜰에 한 간의 작은 누각을 짓고, 종이를 발라서 산을 만들되 높이를 7자쯤으로 하여 그 누각 가운데 두었다. 또한 안에다 옥루기륜^{玉漏機輪}을 설치하여 물로 부딪치게 하며, 금으로 해를 만들되 크기가 탄환만 하게 하고, 오색구름이 그 해를 둘러서 산허리를 지나가되 하루 한 바퀴를 돌아, 낮에는 산 너머에 보이고 밤에는 산 속으로 사라지며, 비스듬한 형세로 천행^{天行}에 준하여 원근과 출입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각각 절기^{節氣}에 따라 하늘의 해와 더불어 합하게 하였다.

- 31 기형(機衡):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기계를 말한다. 기(機)는 하늘은 공처럼 둥글다고 생각하고 그 표면에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양을 본뜬 천구의(天球儀)를 뜻하며, 형(衡)은 천구의를 통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관(管)을 의미한다.
- 32 간의(簡儀): 혼천의를 간략하게 만든 천문기기를 말한다. 원(元)의 관수경(郭守敬)이 처음 개발한 것으로, 행성과 별의 위치, 시간의 측정, 고도와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천체관측기기이다. 조선에서는 1434년(세종16) 청동으로 간의를 제작하여 서운관의 관원들이 매일 밤 천체관측을 수행하였다.
- 33 혼의(渾儀): 혼천의(渾天儀), 혼의기(渾儀器), 선기옥형(璇璣玉衡)이라고도 한다. 혼천의는 아침, 저녁 및 밤중의 남중성(南中星), 천체의 적도좌표, 황도경도 및 지평좌표를 관측하고 일월성신의 운행을 추적하는 데 쓰였다. 조선에서는 1432년(세종14) 예문관 제학 정인지(鄭麟趾), 대제학 정초(鄭招) 등이 왕명을 받아 고전을 조사하고, 중추원사 이천(李薦), 호군 장영실(蔣英實) 등이 1433년 6월에 최초로 제작하였다.
- 34 혼상(渾象): 오늘날의 천구의(天球儀) 또는 천체의(天體儀)라고 불리는 천구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 때에 경회루지(慶會樓池) 북쪽에 지름 2m 크기의 혼상이 만들어진 것이 첫 기록으로 남아 있다.
- 35 양부일구(仰釜日晷): 가마솥에 우러르는 태양의 그림자란 의미로, 해시계를 말한다.
- 36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천문시계를 말하며, 해와 별들이 북극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회전한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1437년(세종19)에 처음 제작되었으며, 이때 세종이 일성정시의의 구조와 원리를 직접 연구하여 제작에 공헌하였다.
- 37 규표(圭表): 천문 관측 기계의 하나로, 방위, 절기, 시각을 측정하는 관측기기이다.
- 38 금루(禁漏): 궁중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물시계를 말한다.
- 39 천추전(千秋殿): 1395년(태조4) 경복궁 창건 때 사정전의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

해 아래는 옥녀玉女 네 사람이 있어, 손에 금방울을 들고 구름을 타고 사방으로 갈라서서, 인寅, 묘卯, 진辰시의 초정初正이 되면 동쪽에 있는 자가 매양 방울을 흔들고, 사巳, 오午, 미未시의 초정이 되면 남쪽에 있는 자가 방울을 흔드는데, 서와 북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아래 사신四神이 있어 각기 맡은 방위에 서서 모두 산을 면대하였다. 인시寅時가 되면 청룡靑龍이 북으로 향하며, 묘시가 되면 동으로 향하고, 진시가 되면 남으로 향하며, 사시가 되면 다시 서로 향하고, 주작朱雀이 다시 동으로 향하며, 차례로 향하는 방위는 앞에 보인 바와 같고, 다른 것도 다 이와 같다. 산의 남쪽 기슭에 높은 대臺가 있고, 사신⁴⁰ 한 사람이 붉은 공복公服을 갖추어 산을 등지고 서 있으며, 무사武士 세 사람이 있어 모두 철갑투구를 갖추되, 하나는 종을 치는 방망이를 들고 서쪽을 향하여 동쪽에 서고, 하나는 북채를 들고 동쪽을 향하여 서쪽에 서되 북쪽에 가까이 하고, 하나는 징채를 들고 역시 동쪽을 향하여 서쪽에 서되 남쪽을 가까이 하였다. 매양 때가 되면 사신司辰이 종인鍾人을 돌아보며, 종인도 역시 사신司辰을 돌아보며 이에 종을 치고, 경更마다 고인鼓人은 북을 치고, 점點마다 정인鉦人이 징을 치는데, 그 서로 돌아보는 것은 똑같으며, 경更, 점點에 북과 징을 치는 번수는 모두 일정한 법과 같이 한다.

또 그 아래 바닥에 12신神이 각기 자기 맡은 방위에 엎드려 있으면, 12신의 뒤에 각기 구멍이 있으나 항상 닫혀 있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쥐 뒤에 있는 구멍이 저절로 열리어, 옥녀玉女가 시패時牌를 들고 나오고 쥐는 앞에서 일어나며, 자시가 다 지나면 옥녀가 도로 들어가고 그 구멍도 닫히고 쥐도 도로 엎드린다. 축시丑時가 되면 소의 뒤에 있는 구멍이 저절로 열리고, 옥녀가 역시 나오고 소도 역시 일어나며 12시마다 시간이 되면 다 그렇다. 오위⁴¹의 앞에 또 대臺가 있고, 대 위에 의기欽器가 있으며, 그릇의 북쪽에서 관인官人이 금병金瓶을 들고 물을 쏟는데, 누수漏水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언제나 끊어지지 않게 하여 비어 있으면 비스듬하고, 중간쯤 물이 올라오면 반듯하며, 가득 차면 엎어지는 것을 모두 옛 법과 같이 하

40 사신(司辰): 조선시대 관상감 관원 중 하나로 천문 관측의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 12년 관제를 다시 정비할 때 사신(司辰)은 참봉(參奉)으로 개칭되었다.

41 오위(午位): 오시(午時)에 해당하는 위치를 말한다.

였다. 또 산의 동쪽에는 봄 석 달의 경치를 만들고, 남쪽에는 여름 석 달의 경치를 만들며, 가을과 겨울도 역시 그렇게 만들었다. 빈풍도⁴²에 의거하여 나무를 새겨 인물, 금수, 초목의 형상을 만들어 그 절후에 맞춰서 안배해 놓으니, 7월편의 전경全景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다. 누각의 이름을 함경欽敬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요전堯典의 ‘하늘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백성에게 일할 때를 가르쳐 준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무릇 당우唐虞 시대부터 측후測候의 기구가 역대마다 각각 제작되었고, 당송唐宋 이래로 그 법이 차츰 갖추어졌다. 이를테면 당의 황도黃道, 유의游儀, 수운水運, 혼천渾天과, 송의 부루浮漏, 표영表影, 혼천의상渾天儀象, 원조元朝의 앙의仰儀, 간의簡儀까지도 다 정묘하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대개는 각기 한 가지 궤도만을 이루었을 뿐이요, 겸비하지는 못했으며, 운용의 기구機具도 대부분 사람의 힘을 빌렸던 것인데, 지금은 천일天日의 도수度數와 구루晷漏의 각수刻數와 4신神, 12신神, 고인鼓人, 종인鍾人, 사신司辰, 옥녀玉女 등의 온갖 기관이 차례로 함께 움직이되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여, 마치 귀신이 시키는 것과 같아서 보는 자를 놀라게 하나 그 이유를 해득할 수 없으며, 위로 천행天行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제작의 규모가 절묘하다고 이를 만하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비스듬한 그릇에 쏟아 넣어 천도天道의 차고 비는 이치를 관찰하며, 산의 사방에 빈풍颶風을 진열하여 민생이 수고롭게 농사짓는 것을 보여 주니, 이것은 전대에 없던 아름다운 행사이다. 그래서 항상 좌우에 가까이하여 매양 성려聖慮를 깨우치며, 또한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마저 깃들었으니, 어찌 다만 성탕成湯의 목욕하는 반盤이나, 주무왕周武王의 지계문에 새긴 명銘에 비할 따름이라.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순히 하며 공경하는 뜻이 극진함과 동시에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인후한 덕은 마땅히 주나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짝하여 무궁토록 전할 것이다.

각閣이 낙성되자 신에게 명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므로, 삼가 대강을 적어서 절하고 머

42 빈풍도(颶風圖): 빈풍은 중국 빈(周) 나라 사람들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로,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들은 병풍으로 만들어 좌우에 설치하여 항상 보고 반성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

리를 조아리며 올린다.”(흙경각의 새 형태는 측후기測候器와 일영대日影臺를 설치하지 않고 단지 옛 이름만 그대로 쓴다.)

각색 공장은 1620명이고, 담모군은 87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7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9645냥 8전 2푼이다.(정읍 민인 1620냥, 3000냥 2차 ○김포 민인 1309

냥 ○순안 이민 8254냥 ○무장 이민 4141냥)

자원군은 89동에서 2366명이다.

7월

맑음

문경 및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조령鳥嶺에서 베어낸 고주高柱와 대량大樑 13그루를 밤을 새서라도 끌어다 포구로 내오고 갈평葛坪에 있는 판목板木 일체는 내려간 패장이 열리는 대로 해당 차인과 함께 날날이 숫자를 확인하고 인수하여 8월 그믐 안으로 경강에 도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90명이고, 담모군은 8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6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4420냥 3전이다.(파주 자곡면紫谷面 거민 등 돈 10냥, 고삭⁴³ 700파把 ○

거창 이진악李鎭岳 2500냥 선납 ○장연 민인 8363냥)

자원군은 102동에서 2324명이다.

43 고삭(藁索): 짚을 꼬아서 만든 새끼줄이다.

8월

비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 소 2척(隻)을 내어주어 한거부(漢車夫)에게 호궐하였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신무문 역소의 공장과 담모군 등에게 돈 100냥을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1617명이고, 담모군은 87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73냥이다. [전 군수 이봉구(李鳳九) 2차 2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9169냥이다. [청도 민인 2105냥 ○청도에 거주하는 동몽 이황선(李鑠善) 1000냥 ○청도 유학 박시묵(朴時默) 1000냥, 전 거주서 천일성(千駟成) 1000냥, 전 지평 최학승(崔鶴昇) 2000냥 ○회령 민인 3100냥 ○횡성 민인 및 이청(吏廳) 1435냥 ○정주 민인 5000냥 ○함흥 전 참봉 박영주(朴永冑) 1만 냥]

자원군은 113동에서 2717명이다. [호서 덕산 유학 맹흠두(孟欽斗)가 가정(家丁) 10명을 데리고 10일간 부역하였다.]

9월

비, 어제 미시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은 5푼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경회루지(慶會樓池) 역소의 패장, 공장, 담군 및 사환(使喚), 기수(旗手) 등에게 그동안 모두 4차례 20냥을 내려 주었다. 또한 강녕전 역소의 공장에게 20냥을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606명이고, 담모군은 88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460냥이다. [강계 민인 5100냥]

자원군은 5동에서 61명이다.

10일

비, 어제 개동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은 2자 1푼

강물이 불어 넘쳐 각처에서 배로 옮겨 강가 나루에 쌓아 둔 재목이 거의 다 표류되어서 잃어버렸다. 삼영문三營門을 시켜 찾게 하고 또 강 연안의 여러 읍에 관문을 보내어 찾아내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은 1533명이고, 담모군은 61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29냥이다.

자원군은 75동에서 1587명이다.

11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늦게 갠. 어제 개동
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은 5푼

공충, 경기, 황해, 강화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목물木物이 이번 홍수로 거의 다 떠내려가서 근심이 매우 크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강 연안의 각 읍에 알려 낱낱이 찾아내도록 하라. 목물을 찾아오는 사람은 당연히 본 도감에서 별도로 상을 주겠다.

각색 공장은 1525명이고, 담모군은 79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45냥이다.

자원군은 39동 798명이다.

12일

맑음

광화 어간문^{光化御間門} 선단석^{綰端石} 2개는 처마와 섬돌 아래에 있던 것인데, 선인^{船人} 20명으로 녹로⁴⁴를 설치하여 홍예^{虹霓} 시작 부분에 매달아 놓았다. 이는 700명이 끌어온 돌이었다. 비록 담모군 100여 명이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녹로를 설치한 공이 10에 8, 9가 된다. 이는 선공^{船工}이 돛을 매드는 방법인데 솜씨가 정교하여 취할 만한 점이 있었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패장 10인에게 각각 1냥, 석수 37명, 담군 105명, 선인 20명, 목수 5명, 사환과 기수 6명에게 각각 5전, 모군 34명에게 각각 1전을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1504명이고, 담모군은 8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746냥 8전이다.^[만리현^{萬里峴} 김인득^{金仁得} 1만 냥 ○제주목 양현수^{梁憲洙} 2000냥]

자원군은 15동에서 218명이다.

13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각종 기와와 벽돌을 굽는 데 들어가는 토목⁴⁵이 이번 홍수로 대부분이 떠내려가서 들여 쓸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므로 사서 베어 오기 위해 별도로 차인을 정하여 내려보낸다. 도내 낭천^{狼川}, 양구^{楊口} 등지에서는 도착하는 즉시 베어내는 일을 허가하여 밤을 새서라도 운반하여 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86명이고, 담모군은 882명이다.

44 녹로(轆轤): 도르래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던 기구이다.

45 토목(吐木): 기와와 벽돌을 굽는 데 쓰는 땔나무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2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582냥이다.〔각방 서리, 고지기 등 2차 8160냥〕

자원군은 20동에서 525명이다.

14일

맑음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 광화문 역소의 석수 128명에게 돈 100냥을,
담군 120명에게 50냥을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501명이고, 담모군은 87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601냥 7전이다.〔삼척 민인 1153냥 ○직산 민인 3200냥〕

자원군은 26동에서 544명이다.

15일

비

경기 감영, 황해 감영, 강화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떠내려 간 목물(木物)을 낚알이 붙잡아서 운반해 바치는데, 잡아서 바치는 사람은 본 도감에서 별도로 상을 주겠다고 이미 관문을 보냈다. 지금 보니 사용할 일이 매우 시급한데도 여전히 한 개도 와서 바치지 않고 있다. 일이 매우 근심스러워 이렇게 다시 관문을 보내니 강 연안의 각 읍에 각별히 신칙하여 밤을 새서라도 거행토록 하라. 붙잡아서 바친 체목(體木) 한 개당 상전을 1냥씩으로 하되, 각 해당하는 읍에서 각 아문에 상납하는 돈이든 원납전이든 가리지 말고 알맞게 헤아려 시상한 뒤 붙잡아서 바친 사람의 성명 및 돈 액수를 책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28명이고, 담모군은 87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20냥이다.[음성 민인 1000냥 ○영평 북면北面 소회산리小回山里 거민 등이 생
갈 1000사리]

자원군은 38동에서 752명이다.

16일

비. 어제 사시부터
이날 미시까지
수심은 4치 3푼

간의대簡儀臺의 돌을 허물어 건춘문建春門 터에 옮겨 쌓았다.

○간의대는 신무문神武門 오른쪽 기슭[右麓] 담장 안에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燃藜別集]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종 임자년(1432, 세종14)에 대제학 정인지鄭麟趾,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간의대簡儀臺를 짓게 하고,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천⁴⁶, 호군護軍 장영실蔣永

實에게 맡겨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먼저 목간의木簡儀를 만들고, 드디어 구리를 녹여 모
든 의상儀象을 만들었다. 첫째는 대소간의大小簡儀, 둘째는 혼의渾儀, 혼상渾象, 셋째는 현주
천평정남 양부일구懸珠天平定南仰釜日晷, 넷째는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다섯째는 자격루自擊
漏인데 무오년에 준공되었다. 돌을 쌓아서 대를 만들었는데 높이는 31자, 길이는 47자, 너
비는 32자로 하여 석란石欄으로 둘렀다. 꼭대기에는 간의를 두고, 간의 남쪽에는 정방안⁴⁷
을 두었다. 대의 서쪽에 동표⁴⁸를 세웠는데 높이가 5배⁴⁹ 8자의 열⁴⁹에다 푸른 돌을 깎아 규⁵⁰
를 만들고, 규면圭面에 장[丈], 자[尺], 치[寸], 분[分]을 새기어 경부景符를 써서 일중영日中影을
취하고 이기二氣의 영盈, 축縮을 추측하였다. 대간의는 『원사元史』에 실린 괘수경⁵¹의 법에

46 이천(李藏): 『연려실기술』 별집에는 이천(李藏)으로 되어 있으나 『경복궁영건일기』에는 이장(李藏)으로 되어 있다.

47 정방안(正方案): 방위를 지정하는 표이다.

48 동표(銅表): 청동으로 만든 규표(圭表: 방위, 절기, 시각을 측정하는 천문관측기기)이다.

49 열(臬): 지상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인 표(表)를 말한다. 표의 그림자를 측정해 방향, 절기와 1년의 길이, 시간 등을 결정하
는데 사용되었다.

50 규(圭): 표의 아래 끝에 붙여서 수평으로 북쪽을 향해 누인 자(尺)를 말한다.

51 괘수경(郭守敬): 원나라 때 허형(許衡), 왕순(王恂)과 함께 수시력(授時曆)을 편찬하였다. 그는 간의(簡儀), 후극의(候極
儀), 혼천상(渾天象), 영롱의(玲瓏儀), 양의(仰儀), 입운의(立運儀), 증리의(證理儀), 경부(景符), 규계(闕几), 일월식의(日月

의거하였다. 소간의는 정련한 동[精銅]으로 부趺를 만들며 수거⁵²로써 빙 둘러서 자오子午를 맞추고 지평地平을 정한다. 적도환赤道環의 면面에 주천도⁵³ 365도 4분도의 1을 나누어서 동서로 운전하여 칠정 중외관 입숙도분七政中外官入宿度分을 측정하고, 백각환⁵⁴은 적도환赤道環 안에 있는데, 면面에 12시 백각百刻을 나누어 낮이면 해 그림자로 알고, 밤이면 중성中星으로 헤아린다. 사유환四游環은 규형⁵⁵을 받아서 동서로 운전하고 남북으로 낮추었다 높였다 하여 규측窺測하기를 기다리며, 이에 기둥을 세워서 세 환環을 관통하게 하여 기울이면 사유四游가 북극을 표준하고 적도는 하늘의 중심을 표준하며, 곧게 서면 사유가 입운立運이 되고, 백각이 음위陰緯가 된다.”

정초가 소간의에 명銘을 지었다.

“천도가 한정이 없으므로 기구도 역시 간편함을 숭상한다. 옛날 간의는 층층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지금 이 기계는 가지고 다닐 만하다. 그 사용법은 간의와 같으니 대개 간편한 중에도 또 간편한 것이다.”

각색 공장은 1420명이고, 담포군은 87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7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44냥이다. [장수 민인 정철正鐵 104근 ○홍천 민인 2160냥 ○낭천 유학 정집鄭湫 1000냥 ○금구 민인 4236냥 ○옥천 민인 1387냥]

자원군은 28동에서 431명이다.

食儀), 성구정시의(星晷定時儀), 정방안(正方案) 등 13종의 관측 기계를 제작하여 5년에 걸쳐서 역법의 기본이 되는 관측하고 나서 역법을 완성하였다.

52 수거(水渠): 간의(簡儀) 바닥 가장자리에 판 물홈을 말한다.

53 주천도(周天度): 태양의 적도상 일행(日行)을 일도(一度)로 하여 항성년(恒星年)의 날수를 도수로 나타낸 값이다. 곧 365도 25분 7초이다.

54 백각환(百刻環): 1일 중의 시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을 새긴 둥근 태를 말한다. 조선 초기에는 1일을 12시간 1백각으로 했으나 서양력인 시헌력(時憲曆)이 도입된 이후에는 96각으로 했다.

55 규형(窺衡): 1466년(세조12) 구리로 제작한 토지의 원근과 높낮이를 측량하는 데 사용한 기구이다.

17일

하림

광화문 선단석 제3괴를 또 영풍정映楓亭에서 끌어왔다.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 예졸曳卒 973명과 담군 25명에게 450냥을 상으로 주었다.

○삼청동 신천新川 위 석축하는 곳에 또 박석碑石을 깔았다. 이달 2일부터 시작하여 이때 준공하였다. 석수 99명을 썼다.

각색 공장은 1497명이고, 담모군은 79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88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106냥이다.〔충주 민인 9656냥〕

자원군은 27동에서 362명이다.

18일

하리다가 밤에 비

팔도八道, 사도四都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경외京外의 민인들이 앞다투어 즐거이 부역에 온 것이 가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 들으니 팔역八域의 백성들이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하여 부역하려 한다고 한다. 이 가을 추수기에 모두가 〈역민이〉 되고자 하여 농사일을 망치게 되면 백성을 위한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지금부터는 자원하여 부역하는 백성은 일체 금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일에 힘쓰라는 뜻을 각 읍에 엄히 신칙하여 진문眞文과 언문諺文으로 옮겨 써서 방방곡곡에 효유曉諭하게 하여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몰라서 올라오는 폐단이 없도록 삼현령三懸鈴으로 알리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90명이고, 담모군은 8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14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845냥이다.〔이태민李泰敏 2차 5000냥〕

자원군은 34동에서 734명이다.

19일

마우微雨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삼가 전교를 받들어 남채전藍菜田〔훈련원 29판坂 5묘畝, 통정동桶井洞 15묘 2구句, 척량소지尺量所只 11판 2묘 10구, 거장기車場基 7판 1묘, 대청 뒤〔大廳後〕 14판, 이정동耳井洞 1묘, 하도감 앞〔下都監前〕 9판, 영번동永番洞 6판, 남정동藍井洞 9판, 어청교 밑〔於靑橋下〕 36판 9구, 고정동高井洞 14판, 수근동水芹洞 29판 3구, 창전 앞〔昌廛前〕 44

판, 일경정전합一鏡亭前合 7판, 주교 행랑 뒤〔舟橋行廊後〕 14판 2구, 대장방동臺匠房洞 26판, 어의동於義洞 1판, 남문 밖 석교계石橋契 15판, 매지동梅枝洞 7판, 청과계靑坡契 주교舟橋근처 1판, 약전계藥田契 전립동戰笠洞 8판, 동문 밖 19판 5묘, 마장리馬場里 8판 8묘〕 값 1만 3837냥 3전 5푼을 도감에서 각 해당 전주錢主들에게 분급한 뒤에 별단에 써서 들이되, 그중에서 돈을 받아가지 않은 곳은 별단 속에 주를 달아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지난 5월 20일 궁내宮內 남채전藍菜田을 이장移定하도록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가 있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운현궁전雲峴宮田 73판 및 9구, 흥인군궁전興寅君宮田 3묘 및 3판, 승지 조성하전〔趙承旨成夏田〕 6묘 및 4판, 금위영전禁衛營田 5묘, 이상은 값을 받아가지 않았다.〕

○어영대장 허계許槩가 영추문 및 신무문 역소 공장 등에게 각각 돈 50냥을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468명이고, 담모군은 81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8냥 3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885냥 9전이다.〔안동 민인 2242냥 5전 ○금산 전 중군 편기진片沂珍 2차 7000냥 ○옥천 민인 김상기金相基 2차 1000냥 ○전 오위장 이희익李義益 2차 1만 냥〕

자원군은 40동에서 824명이다.

○기내畿內 청룡사靑龍寺 승려 천일千一이 지난 5월 15일부터 자원하여 준공하는 때를 기한으로 부역하였는데 물 한 통을 지고 표주박 하나를 들고 많은 역부들이 무더운 여름에 목말라하는 때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다. 세속에서 이른바 급수공덕자汲水功德者라고 하였다.

20일

맑음

광화 어간문(光化御間門) 선단석(綬端石) 제4괴를 또 영풍정에서 끌어왔다.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 예졸(曳卒) 및 담군 등에게 돈 103냥 7전을 상으로 주었다. 8일째가 되어 또 녹로(輓轡)로 두 괴(塊)를 위에 매달았다. 그 동안 도합 네 괴를 홍예선(虹霓扇) 안팎의 아래에 안치하였다. 안은 길이 10자, 밖은 12자이다. 대원위가 담군 116명, 석수 36명, 선인(船人) 20명에게 각각 1전을 상으로 주었다. 훈련대장도 여러 공장 및 담모군 등에게 각각 2전을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1476명이고, 담군, 모군은 8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2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4906냥이다.〔경상 감영 아전 서갑증(徐甲增) 1000냥 ○강릉 전 감역 김연대(金演大) 1000냥 ○영동 민인 1200냥 ○운봉 민인 1319냥 ○전 주부 정헌교(鄭憲敎) 2차 8000냥 ○안산 황화(黃穰) 고삭(藁索) 7400파(把)〕

자원군은 45동에서 979명이다.

21일

미시 이후 비

예조에 보내는 이문

광릉(光陵) 구역 내에서 베어낸 고주(高柱)와 대량(大樑)을 끌어 운반할 때 사용되는 통거(桶車) 20좌(坐)를 지금 막 제작하는데 들어갈 재목은 본 능 구역 내에서 베어내 사용하라는 뜻을 본 능에 알려서 거행하도록 할 것.

각색 공장은 1457명이고, 담모군은 87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404냥 5전이다.〔감목관 이시철(李時喆) 1000냥 ○북병사 이남식(李南軾)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559냥 2전이다.〔회덕 민인 2025냥 ○제주 민인 2000냥 선납〕

자원군은 32동에서 484명이다.

22일

비, 어제 미시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은 1치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이덕초李惠初를 감찰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직무가 서로 방해
되니 해조에서 구전정사口傳政事를 하여 한가로운 관사와 서로 바꾸도
록 하겠습니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평시서 주부 김봉호金鳳鎬와 서로 바꾸었다.)

○고양高陽 사포면民巳浦面民 최순록崔順祿을 홍수 때 떠내려간 대량大樑을 건져서 낸 공으
로 가자加資하였다.

각색 공장은 1432명이고, 담모군은 7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3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3623냥이다.(함흥 유학 조경렴趙景濂 1만 냥 ○단성 민인 2000냥 ○함흥
전 오위장 김문로金文輅 1만 냥)

자원군은 23동에서 384명이다.

23일

맑음

이때 각 전당 역소의 치목治木, 치석治石, 야로治爐 및 잡물고雜物庫, 애
막,⁵⁶ 전고錢庫의 가가假家들이 도합 350여 칸이었고, 광화문 가가들은
도합 361칸, 건춘문 도합 59칸, 영추문 도합 70칸, 신무문 도합 29칸으
로 모두 합하면 834칸이었다.

각색 공장은 1454명이고, 담모군은 87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9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595냥이다.(해남 양반 천응학千應鶴 정철正鐵 265근 ○전 오위장 홍봉

56 애막(艾幕): 쑥대로 엮어 지은 막집이다. 장인, 담모군 등의 임시 거처로 쓰이기도 했다.

현洪鳳顯 2차 5000냥 ○김응태金應泰 2차 5000냥 ○면천 민인 1000냥 선납)

자원군은 27동에서 589명이다.

24일

맑음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돈 50냥을 출급하여 삼청동 부석소浮石所의 석수들에게 건호케하였다.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사용되는 정철⁵⁷의 수가 매우 많아 약간 지정한 철로는 계속 해서 쓸 수 없으므로 별도로 차인을 정하여 재령載寧 지역으로 내려 보내어 설점設店하여 채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문을 보내니 해당 군에 엄히 신칙하여 설점할 때 별도로 교졸校卒을 정해 차인과 함께 살펴서 점검하게 하라. 송전松田은 역대방驛大坊 송가宋哥 등의 양목처養木處에 있으니 즉시 베어내는 일을 허가하라. 야장冶匠 및 탄장炭匠 무리들 역시 데려다가 넘겨주고 들어가는 돈은 임의의 서울 상납분에서 우선 획급劃給한 뒤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88명이고, 담모군은 86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241냥이다.[유학 이숙李洙이 5000냥 중에 1000냥을 선납하였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62냥이다.[성천 민인 1만 4400냥 ○북병영 영속營屬 및 각 진장鎭將 1260냥 ○태인 유학 김종순金鍾淳 1000냥 선납]

자원군은 24동에서 394명이다.

57 정철(正鐵): 『영건일감』에는 정철과 강철(強鐵)로 기록되어 있다.

25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과 담군담군과 모군모군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계를 넉넉하게 분급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과 담군, 모군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계를 넉넉하게 분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공장 1519명에게 한 명당 돈 2전씩, 담군과 모군 938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도합 397냥 6전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과 담모군(초기에 이미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48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5731냥이다. [순화 전 오위장 김응옥金應玉 1500냥 ○무주 진사 유도柳燾

3000냥 선납 ○산릉 시릉인侍陵人 최광윤崔廣潤 고삭藁索 1만 7000파把 ○양양 민인 1010냥 ○진주 유학 신대

년申大年 1000냥, 이인석李仁奭 2차 2000냥 ○함열 민인 2200냥 ○이준수李俊壽 5차 3000냥]

자원군은 23동에서 419명이다.

26일

맑음

경상 감영 및 봉화현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고주와 대량이 봉화현에 적합한 재목이 많으므로 베어내기 위해 별도로 패장을 정하여 내려보내니 베어내 포구로 내보내어 8월 안으로 경강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

봉산鳳山에 보내는 관문

본 군郡 둔산동頓山洞 거민 박학심朴學心은 식주인⁵⁸으로 경복궁 밖에 와서 밥을 파는 일을

58 식주인(食主人): 밥을 파는 집의 주인을 말한다.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본 도감에서 사역하는 석수 무리 10여 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밥을 사먹다가 식대를 계산해 주기 위해 돈 81냥 1전을 이미 박가 놈에게 맡겼다. 이놈이 갑자기 음식점을 철거하고 도주하였고 맡겨둔 돈은 피치 못하게 줄지에 잃어버렸으니 어찌 이런 근거 없고 불측한 놈이 있단 말인가. 이를 그대로 묻어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렇게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박가 놈을 끝까지 찾아서 잡아 가둔 뒤에 잃어버린 돈을 기한 안에 징수하고 장교를 정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함경 감영에 보내는 관문

경복궁 안 칠송정七松亭의 연지蓮池를 개축改築하는 공역은 함흥에 거주하는 출신 정용겸鄭龍謙이 자원해서 담당하여 거행하였는데 물력物力을 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지금 막 환표換標를 작성하여 내려보내니 특별히 독려하고 신칙하여 빠짐없이 받아 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60명이고, 담모군은 87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4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890냥이다.[전주 유학 황희연黃羲淵 1만 냥 ○숙친 수령 임희주林希周 1000냥]

자원군은 14동에서 168명이다.

27일

맑음

경기 감영 및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생갈生葛이 부족할 단서가 있으므로 각각 5000근을 참작하여 다시 지정하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생산하는 읍에 알려 8월 안으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경상 감영 및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난번에 지정한 숙마熟麻로는 배용排用 할 길이 없으므로 각각 7000근을 참작하여 다시 지

정한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생산하는 읍에 알려 9월 안으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북영北營에도 6000근을 다시 지정하였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효릉孝陵 구역 내에서 송목松木 1개를 이미 베어냈으니 온릉溫陵의 나무를 날라 올 때 같이
운반하여 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69명이고, 담모군은 9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0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822냥 9전이다.(목천 민인 3000냥 ○삼가 진사 유치백俞致百 1000냥 ○

진주 유학 유철환俞喆煥 2000냥 ○가선 김정구金鼎九 2000냥)

자원군은 12동에서 257명⁵⁹이다.

28일

흐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평시서 영 홍종문洪鍾聞을 본 도감 별간역으로 차하하였습니다. 직무
가 서로 방해되니 해조에서 한가로운 관사와 서로 바꾸게 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인의引儀와 서로 바꾸었다.)

○간의대簡儀臺를 석축하는 도중에 금동金童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길이는 3치였다. 입혀놓
은 금이 거의 벗겨져서 금칠을 다시 하고 나무를 깎아 연화부좌蓮花趺座를 만들어서 덕산德
山 보덕사報德寺로 옮겨 두었다.

59 명: 『경복궁영건일기』에는 ‘兩’으로 되어 있다.

각색 공장은 1473명이고, 담포군은 92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3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4748냥이다. [태천 민인 3000냥 ○이원 거주 현감 윤동민 尹東敏 2만 냥]

자원군은 14동에서 405명이다.

29일

비, 묘시부터 4경까지
수심은 2치 1푼

가평군에 보내는 관문

경내境內의 기거장岐鉅匠을 널리 찾아내서 장교를 정하여 연장鍊裝을 갖추어 배속시키도록 하라.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홍주洪州, 원산, 군산群山, 성당城堂, 서내瑞內 대성리大城里의 솜씨가 좋은 선장船匠을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일일이 배속시키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12명이고, 담포군은 92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8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2619냥 5전 3푼이다. [나주목 관내의 육지와 섬에 사는 민인 1만 5612냥 5전 3푼 ○영암 민인 1만 4525냥 ○문의 민인 2100냥]

자원군은 12동에서 282명이다.

30일

맑음

교태전의 부계浮階가 완성되었다. 담군이 긴 들보 6개를 젊어지고 올랐다. 대원위가 목수 등에게 20냥을, 담군 등에게 23냥 8전을 상으로 주었다.

○청와靑瓦를 구워내도록 한 일을 거두고 와장瓦匠 8명을 방송放送하였다. 대개 청와는 일반적으로 굽는 기와가 아니라서 그 법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분원점分院店에 사기沙器를 만드는 흙으로 청와를 조성하게 하였더니, 1개 만드는 데 소비되는 비용이 8냥에 달했다. 다시 흙기와[土瓦]를 만들어 청화青花를 바르고 구워냈더니 물색物色이 혼합되어 온전하게 모양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다시 구워진 기와의 표면에 붕사硼沙를 바르고 황단黃丹을 두 번째로 바르고 미호米糊를 세 번째로 바른 뒤 파란波蘭을 더해서 구워내었더니 색과 모양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예전 것만 못했다. <와장> 8명이 스스로 잘 만들 수 있다기에 시험해 보았지만, 또 해내지 못했으므로 곧바로 방송하였다.

각색 공장은 1523명이고, 담모군은 91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9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6669냥이다.〔전의 민인 1260냥 ○혜민서 전 주부 이준모李俊謨 2000냥

○옥천 김상기金相基 3차 1000냥 ○교하 민인 함석칠咸錫七 고삭 3000파把 ○안산 민인 3225냥 ○진천 민인

3500냥 ○동막민東幕民 문희발文喜發 장목長木 20개〕

자원군은 10동에서 202명이다.

○밀양密陽 조선漕船 15척 조졸漕卒 150명이 3일간 부역하고 배마다 초둔草芻 10건件씩 원납하였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7월 한 달 동안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4만 9605냥 7전 5푼이고, 종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2만 271냥 8전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으로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7월 한 달 동안 각색 공장은 도합 4만 5835명이고, 담모군은 도합 2만 7193명이다.

자원군은 1265동에서 2만 8069명이다.

을축년^{1865, 고종2} 8월

1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 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들에 대한 견호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공장 1507명에게 한명 당 돈 1전씩, 담모군 973명에게 한명 당 돈 5푼씩, 도합 돈 199냥 3전 5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신무문^{神武門}은 나무로 홍예^{虹霓}의 틀을 만들어 문가에 안착시킨 후 홍예석을 배치하여 쌓았다.〔각 문의 홍예를 쌓는 방식은 모두 이와 같다〕

대원위가 30냥 2전을 공장 130명에게 각 1전씩, 담모군 76명에게 각 5푼씩 행하^{行下}하였다.

각색 공장과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7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2274냥이다.〔내침의^{內鍼醫} 홍윤석^{洪允奭} 2000냥 2차 ○의령 민인 3395냥

○공주 감영 및 진장 각청 1620냥 ○김해 출신 김노익^{金魯益} 2000냥 ○평양부, 이천, 평천 등 방^坊의 민인 7210

냥 ○단천 민인 1770냥 ○이원 출신 유흥룡^{劉興龍} 1500냥〕

장단 민인 등 고삭^{藁索} 27만 7470파^把 ○파주 출신 김계범^{金啓範} 형제 고삭 6만과

자원군은 11동에서 334명이다.

2일

금천金川에 보내는 관문

관서關西에 지정한 정철正鐵 2만 근을 배에 실어 올라오는 길에 금천의 어떤 포구에서 배를 억류하고 풀어주지 않으면서 선가船價 및 분세⁶⁰를 토색한다고 한다. 배가 지날 갈 때 혹 선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분세는 이 무슨 명색인가. 이는 상인이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고 국역國役に 쓰는 것인데 이른바 분세는 어느 곳에 쓰려는 것인가. 하물며 각 포구에서 명분 없이 수세하는 일을 일체 금단한 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니었는데도,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 것인가. 위의 정철은 본 부(금천)에서 신속히 수령해서 상납하고, 이른바 어떤 포구의 경감⁶¹과 포감浦監 명색名色은 칼을 썬우고 장리將吏를 정해 형조로 올려보낸 후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03명이고, 담모군은 9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41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2297냥 2전이다.〔재령 진사 박상묵朴尙默 1만 냥 2차 ○운산 민인 3818냥

○구성 민인 2610냥 ○통진 민인 624냥 2전 ○숙천 이민 1만 3795냥〕

자원군은 16동에서 610명이다.

60 분세(分稅): 물건 값에 따라 세율(稅率)을 정해서 받던 잡세(雜稅)의 일종이다.

61 경감(京監): 조선시대 군자감(軍資監)에 속해 있던 3감(三監) 가운데 하나이다. 뒤에 경감과 분감은 폐지되고 강감(江監)만을 두어 관청과 군사들에게 지급할 미두(米豆)를 저장하였다.

후원답^{後苑畓}의 벼가 소나무 그늘 때문에 제대로 익지 않았다. 고양^{高陽} 용두리^{龍頭里} 민인 10명이 3일을 부역하여 수확한 후 15말을 타량하여 대내^{大內}에 바쳤다.

경기 감영 및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에 쓸 생갈^{生葛}을 두 번째로 지정할 때 가령 돈으로 대신 낼 읍은 생갈 1동^同마다 2냥씩 상납하도록 이미 관문을 냈었는데, 최근 처음 지정해서 상납된 것이 품질이 매우 나빠 하나도 들어 쓸 방도가 없다. 이에 다시 관문을 내니 도착하는 즉시 처음에 상납하지 않은 읍과 2차 분정한 각 읍에 알려 모두 돈으로 대신 올려보내도록 하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쓰려고 전에 만들었던 수레로는 배용^{排用}할 길이 없다. 따라서 50량에 한해 신속히 추가로 만들어야 기간에 맞추어 거행할 수 있다. 인천 죽림^{竹林} 소재 진목^{眞木} 100개를 다시금 베기 위해 차인을 정해 내려보내도록 하라.

전라 감영 및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 읍의 석수는 지금 이미 본 도감에서 부역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해당 읍에서 또 다시 균역을 부과하고 있다. 한 몸에 두 역을 부담하고 있으니 역올함을 호소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각 읍에 알려 〈영건 관련〉 역을 부과하는 시기에는 균역을 면하게 하여 전심으로 공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495명이고, 담모군은 95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3768냥 3전이다.(단천 민인 2만 냥 2차 ○송라역^{松羅驛} 이민 1000냥 ○영흥 민인 1만 냥 ○예산 진사 장윤식^{張胤植} 1000냥 ○안변 세청사^{世淸社} 민인 1031냥)

사역원 전 정^正 정재흔^{鄭在昕} 백자판^{柏子板} 300넛, 출신 맹희경^{孟喜慶} 반주홍^{潘朱紅} 300근, 한

동 지사 정유증鄭有曾 백자판 200냥

자원군은 19동에서 1128명이다.

○종친부 사령 80명이 3차로 10일간 부역하여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30냥을 내렸다.

4일

비. 개동에서 신사까지
수심은 1치 6푼

어젯밤 축시에 광화문의 동쪽 석수 애막艾幕 12칸에서 불이 나 광화문 터 가가假家 28칸까지 번졌다. 갈고 닦은 홍예석 14괴塊가 그을리고 벗겨져서 떨어져 나갔고, 선단석綰端石은 모두 석면이 까맣게 그을려 모두 다시 쪼았다. 수직장졸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벌을 내렸다.

각색 공장은 1509명이고, 담모군은 80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925냥이다.(안협 민인 1000냥 ○안변 신리사新里社 민인 1500냥, 방화사訪花社 민인 735냥 ○기장 이민 670냥)

자원군은 13동에서 1021명이다.

5일

비. 묘사에서 신사까지
수심은 7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온릉溫陵 구역 내에서 베어낸 송목松木과 회목檜木 92개 중 송목 3개는 불어난 물에 떠내려 가 간 곳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찾아보았더니 고양 경내에서 3개의 나무를 모두 찾았다. 그중 하나는 양단으로 쪼개졌고 쪼개진 한쪽은 또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

므로 별도로 사람을 파견해 낱낱이 조사하니 쪼개진 한쪽이 신원리新院里 최손이崔孫伊의 집 앞에 있었는데, 흙구덩이 안에 묻어 놓고는 소나무 가지로 가려왔다고 한다. 막중하게 쓸 재목을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낼 수 있단 말인가. 최가 놈의 행위는 너무나도 무엄하므로 그대로 두고 문책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영문營門에서 해당 군에 관문을 보내 최가

놈을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도록 하라.

개성부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석회石灰가 매우 양이 많아 약간 지정한 정도로는 계속 쓸 수 없다. 그리하여 옛 풍덕豐德 거풍리巨豊里에서 자취煮取하기 위해 차인을 정해 내려보내니, 그가 전심으로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사상들이 몰래 팔거나 독점하는 폐단을 일체 엄히 금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75명이고, 담모군은 74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8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3376냥이다.[재령 진사 김규화金奎煥 1만 냥 2차 ○이원 전 오위장 전제 목全在默 1만 냥 선납 ○북청 민인 1만 2000냥]

자원군은 10동에서 690명이다.

6일
맑음

교태전交泰殿에 연목을 모두 배치했다. 정청正廳 위 대량大樑이 들어갈 가운데 자리에는 개판⁶²을 만들지 않고 상량을 갖추었다.

각색 공장은 1420명이고, 담모군은 9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3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만 8236냥이다.[삭주 민인 4000냥 ○담양 민인 2660냥 ○양산 유학 천치관千致寬 3100냥 ○포삼별장包蔘別將 김여현金汝鉉 5만 5000냥 선납 ○진주 유학 성석주成奭柱 2000냥 ○양양 민인 3800냥 내 최재형崔在亨 1700냥, 최윤두崔允斗 1000냥 ○경산 민인 3307냥 ○영흥 민인 김준용金駿鏞 2000냥]

62 개판(蓋板): 서까래[椽]와 부연(附椽: 서까래 위에 덧대어 처마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짧은 서까래) 사이에 끼는 판재이다.

자원군은 16동에서 890명이다.[압구정 狎鷗亭 노인기 盧仁起가 6차로 5일 부역했다.]

7일

맑다가 신시 후에
새우 瀟雨

평안도에 지정한 백자판 栢子板 7냥, 추단판 楸段板 10냥을 희천 熙川에서 배
에 실어서 올라왔다.

각색 공장은 1505명이고, 담모군은 78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6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368냥이다.[전 오위장 김영헌 金永憲 1000냥 2차

○진잠 민인 2530냥 ○영산 민인 3510냥 ○영산 전 승지 신지정 辛志鼎 1500냥 ○성주 유학 정재하 鄭在廈 1000냥]
자원군은 21동에서 1545명이다.[삼척 민인 김기원 金琦原이 200냥을 원납하고, 13명이 3일을 부역할 비
용을 부담하였다. ○내의녀 內醫女 경옥 瓊玉이 2차로 50명이 3일간 부역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사은 부역 謝恩赴
役이다.]

8일

맑음

광화문에 녹로 轆轤를 설치하여 부계주 浮階柱를 세웠다. 고주 高柱는 26개
로 높이는 60자이고 단주 短柱는 16개이다. 2층의 부계로 만들었는데,
상층은 매우 높아서 내려다보면 어지러웠다. 이에 죽난 竹欄을 만들고
포장 布帳으로 감쌌다.

각색 공장은 1533명이고, 담모군은 79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3130냥 5전 5푼이다.[전주 진사 김우찬 金宇贊 1만 냥 ○상주 유학 한상
리 韓庠履 1000냥 선납 ○춘천 민인 7170냥 ○천안 민인 3000냥 ○임피 민인 1497냥 5전 5푼 ○용인 유학 이호
정 李鎬貞 1000냥 선납 ○길주 마평명 馬彭命 종중 宗中 전 4730냥 ○창원 민인 3000냥]

자원군은 26동에서 1847명이다.

○정동 貞洞 군인 500명이 오방 五方을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어 오방으로 나누어 역을 하는

것은 또한 하나의 장관이다. 본동 거주 호조 좌랑 임면수(林冕洙)가 그 비용을 담당했다.

9일

맑음

춘천부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쓰기 위해 전 부사가 재임시에 대량(大樑) 3개, 누주(樓柱) 1000개를 베어다가 본 부 기린면(麒麟面)에 쌓아 두었고 벽련목⁶³ 600개, 대량 1개를 베어다 본 부의 북산(北山) 밖에 두었는데, 이번 홍수에 모두 표류되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홍수로 비록 크게 물이 불었어도 어찌 전부가 표류할 리가 있는가. 진실로 표류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표착한 곳이 있을 텐데 어찌 수색해서 가지고 올 방법이 없겠는가. 이는 막중하게 사용되는 것이니 본 <춘천>부에서 교졸(校卒)을 다수 파견해 강가 위아래로 널리 철저히 수색을 가해 기필코 숫자에 맞추어 찾아내서 사촌리(沙村里)에 정박시키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58명이고, 담모군은 855명이다.

중천부에서 받은 돈은 10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6586냥이다. [보은 민인 2095냥 ○상주 유학 한상리(韓庠履) 2000냥 2차 ○

신창 민인 1500냥 ○회인 진사 김경희(金敬熙) 1만 냥]

양주 거주 민인 서흥순(徐興順), 차영록(車永祿), 김한영(金漢永) 등 생갈(生葛) 3375사리(沙里)

자원군은 22동에서 1847명이다. [훈련도감, 어영청, 충융청의 군졸이 2차 부역했다.]

63 벽련목(劈鍊木): 통나무를 네모 모양으로 대강 다듬은 것을 이른다.

10일

흐렸다가 밤에 비

신문문에서 금위영이 외홍예外虹霓를 담당하여 이날 완성되었고, 어영청에서 내홍예內虹霓를 담당하여 11일에 완성되었다. 내홍예의 높이는 16자 5치, 너비는 15자이며, 외홍예의 높이는 15자 5치, 너비 13자이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 어영대장 허계許槩가 함께 47냥을 공장, 담모군 등에게 내려 주었다. 건춘문建春門 역소에서는 금위대장이 또 23냥 7전을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619명이고, 담모군은 83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9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88냥 8전 8푼이다.〔경주 민인 6210냥 ○한상리韓庠履 1000냥 3차 ○안변전 현감 김한웅金漢雄 5300냥 2차 ○정주 민인 등 5000냥 2차〕

자원군은 35동에서 1978명이다.

○입전立塹 시민 200명이 3일 부역해서 삼청동으로부터 건춘문 선단석綬端石을 끌고 왔다. 금위대장 이경하가 매일 10냥씩 내려주었다.

11일

맑음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석회 5000석을 전에 이미 지정했었다. 요사이 삼영三營에 쓰는 석회가 긴급했기 때문에 지정한 석회를 올려보내는 것은 일단 정지시켰다. 지금 삼영의 석회는 거의 다 자취煮取하여 납부하였고, 본 도감의 석회는 지금 수요가 매우 시급하니 전의 관문에 따라 밤을 새서라도 자취하여 계속 납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25명이고, 담모군은 74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05냥이다.〔용진 민인 5170냥 ○법성 이민 2393냥 ○전라 좌우도 재인才人

등 1000냥 2차 ○용인 전 부령部令 남건정南建正 500냥 선납)

자원군은 26동에서 1618명이다.

12일

맑음

각색 공장은 1583명이고, 담포군은 82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6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419냥 5전이다.(초산 이민 2200냥 선납 ○이천 민인 4070냥 선납)

자원군은 39동에서 2234명이다.

13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목물木物이 극히 많다. 양근楊根 북면北面 떠사천脉沙川 이씨 양반가 사양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자 별도로 목수를 정해 내려보내니, 베어낸 후에 포구로 끌고 가서 사촌리沙村里에 들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35명이고, 담포군은 838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77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169냥 9전이다.(과천 이민 4479냥 9전)

자원군은 29동에서 1601명이다.(와장瓦匠 70명이 9일 부역하여 교태전의 기와를 덮고 준공을 고했다.)

14일

맑음

경상 감영 및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道內 사천泗川에 사는 김상원金象元, 거창居昌 김수원金秀源, 송석준宋錫俊, 진주晉州 나정운羅丁雲, 김만양金萬養, 김제득金制得, 하동河東 박봉학朴鳳學, 광양光陽 김봉운金鳳雲, 합천陝川 박엿출朴滌出, 곤양昆陽 김한득金漢得은 모두 석수로서 도감에서 부역하고 있다. 그런데 소속 읍에서

다시 군역을 책임 지웠으니 가히 일신에 두 역을 지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당연하다. 때문에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각 읍에 알려 부역하는 동안은 군역을 면제시켜 전심으로 부역할 수 있도록 하라. 성주星州 석수 김치대金致大는 본디 신역이 없는 데 생각지 못하게 외종조 명의의 일족에게 아무 이득없이 침탈당하였다고 한다. 이 사람은 막중한 국역을 거행하는 장색匠色이므로 이렇듯 무익한 침탈에 대해서는 전례에 구애되지 말고 면제시켜야 하니, 특별히 침탈하지 말라는 뜻을 해당 목(성주목)에 알리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98명이고, 담모군은 85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362냥 6전 8푼이다.[덕원 유학 윤용섭尹鏞燮 1000냥 ○윤택신尹宅莘 2000냥 ○창원 이인吏人 8901냥 4전 8푼 ○길주 민인 2000냥 선납 ○서산 한량 김인조金麟祚 고삭藥索 7000파]

자원군은 22동에서 1595명이다.[변천 유학 이호신李祐信이 100명을 재차로 내어 10일간 부역했다.]

15일

맑음

각색 공장은 1595명이고, 담모군은 85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955냥이다.[강화 한량 장시윤張時潤 1000냥 ○언양 이민 4820냥 ○덕천 민인 5400냥 ○강화 민인 2차 부역 대신 돈 1000냥 ○태인 현감 서상옥徐相鈺 2000냥]

자원군은 13동에서 821명이다.[어영청 군졸 186명이 2차 부역했고, 삼영 군졸은 초哨 별로 번을 나누어 부역했다.]

16일

맑음

천추전千秋殿 터를 흙경각欽敬閣 옛터에 조금 가까운 곳으로 잡았다. 행각行閣 제도를 편리하게 취하기 위해서이다.

각색 공장은 1549명이고, 담모군은 82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6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4985냥 2전이다.[임실 민인 1만 1935냥 1전, 각청各廳 서리 220냥 ○덕원 유학 이행직李行直 2000냥 ○전 참봉 한영기韓永琦 2000냥 ○전 중군 안의형安義亨 2000냥 ○평강 이민 4307냥 3전]

자원군은 21동에서 1106명이다.

17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적성현積城縣에 거주하는 경씨慶氏 양반이 오래된 사양산私養山의 수목이 울창하여 매탄埋炭으로 원납하고자 하므로 지금 관문을 보내니 그 매탄을 순차적으로 수납하라는 뜻을 해당 읍에 알리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569명이고, 담모군은 94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8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497냥이다.[산청 민인 5200냥 ○덕원 전 오위장 김기준金器俊 2700냥]

자원군은 28동에서 1416명이다.

18일

맑음

각색 공장은 1564명이고, 담모군은 92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5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247냥이다.〔함안 민인 1201냥 ○덕원 유학 김문

신金文信 1500냥 ○순천 민인 926냥 ○벽동 이민 5000냥 ○능주목 민인 1500냥〕

자원군은 34동에서 1865명이다.

19일

맑다가 밤에 취우驟
雨, 수심은 6푼

교태전交泰殿에 개와蓋瓦를 끝냈다. 교태전의 지붕마루 위는 무량와⁶⁴

로 덮었다.〔교태전과 강녕전康寧殿만 이러한 기와를 썼다.〕 사각 고릉연觚稜椽(추

녀)⁶⁵ 끝에는 모두 철토수⁶⁶를 씌웠다.〔용의 머리를 본따서 임일壬日에 주조하

니 무게는 60근이다.〕 교태전에서 흥례문興禮門 및 사문四門, 경회루慶會樓,

수정전⁶⁷은 철토수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와토수瓦吐首를 썼다.

각색 공장은 1611명이고, 담모군은 88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5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2178냥이다.〔거창 이민 8768냥, 낭천 진사 김창규金昌奎 1000냥 ○무주 진

사 유도柳燾 1만 2000냥 2차〕

자원군은 24동에서 1230명이다.

64 무량와(無樑瓦): 용마루를 올리지 않는 건물에서 지붕 꼭대기에 덮는 곡면을 이룬 기와이다. 곡와(曲瓦)라고도 한다.

65 고릉연(觚稜椽): 고릉(觚稜)은 기물의 가장자리나 모서리를 뜻하며, 여기서는 토수를 끼우는 추녀목을 가리킨다.

66 철토수(鐵吐首): 철로 만든 토수이다. 토수는 사래 끝이나 처마 모서리에 돌출된 서까래인 추녀 끝에 끼워져 사용되는 용 머리 혹은 귀면형의 기와이다.

67 수정전(修政殿): 근정전 서쪽의 편전이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수정전의 남동쪽에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20일

맑음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 때 각종 목석을 운반하기 위해 도내의 단구거單驅車 30량을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올려보내는 일은 전에 이미 서목書目을 제송⁶⁸했다. 그런데 지금 공역이 매우 시급하므로 60량에 한해 9월 초 열흘 전까지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639명이고, 담포군은 89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9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6114냥 5전이다.〔정평 민인 1만 1355냥 ○한상리韓庠履 1000냥 4차 ○포천 민인 1453냥 5전〕

자원군은 37동에서 1906명이다.

21일

맑다가 묘시에 서리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들어갈 목물木物은 매우 많아 남포藍浦 비인庇仁의 이씨 양반 사양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오고자 별도로 패장을 정해서 내려보내니 베어낸 후 포구로 끌고 와서 사촌리沙村里에 납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630명이고, 담포군은 91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1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640냥이다.〔구례 민인 2220냥 ○김제 유학 유낙용劉洛龍 1000냥〕

자원군은 18동에서 659명이다.

68 제송(題送): 상급 관아에서 어떤 취지나 지령을 공문서에 적어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22일

맑음

만춘전萬春殿의 터를 닦았다.

○교태전 행각의 터를 닦았다.

○서궐西闕 전각 중 승정전崇政殿, 회상전會祥殿 및 정심합正心閣, 사현합思賢閣, 흥정당興政堂을 남겼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철거해 왔다. 목재는 대부분 썩었으나 그 중 좋은 것을 취하여 나인간⁶⁹ 및 각사를 건조할

때 섞어 썼다. 이날부터 전정殿庭에 깎 박석磚石 및 계체석階砌石을 뽑아다가 우선 광화문 역소에서 사용했다.

각색 공장은 1640명이고, 담모군은 92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096냥이다.[유학 이양학李養鶴 3000냥 ○이경무李景茂 3000냥 ○진사 이병춘李秉春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47냥이다.

자원군은 21동에서 785명이다.

23일

맑음

선혜청에 보내는 이문

본 도감에서 쓰고자 본청 무명 20동同을 가져다가 썼다. 값으로 전 2000냥을 보낸다.

각색 공장은 1609명이고, 담모군은 88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815냥 7전 5푼이다.[함경 감영 토관 등 1000냥 ○통영 각청의 각 진장 및 민인 7314냥 7전 5푼 ○옥천 진 학관 김동구金東耆 900냥 2차 ○옥천 진 현감 김억연金億淵 1000냥 2차 ○

69 나인간(內人間):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들, 즉 나인들의 공간이다.

은산 이민 9285냥]

자원군은 20동에서 1040명이다.

24일

맑음

신문문 문루에 정초定礎하였다. 어영대장 허계許槩,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각 30냥을 공장 등에게 행하하였다.

각색 공장은 1712명이고, 담모군은 108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866냥이다.[진도 민인 8756냥]

자원군은 17동에서 488명이다.

25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각종 목물木物의 수가 매우 많은데 얼마 되지 않는 지정과 사서 오는 목물로는 배분해서 쓸 길이 없다. 강릉 저장포儲將浦, 팔송정八松亭 등의 사양산에 적합한 재목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별도로 담당할 사람을 내려보낸다.

각색 공장은 1707명이고, 담모군은 137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28냥이다.[신녕 민인 1000냥 ○영천 민인 3600냥, 전 오위장 최석조崔錫祚 5000냥 선납]

자원군 20동에서 773명이다.

26일

맑음

각색 공장은 1753명이고, 담포군은 1087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2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66냥이다.(남해 민인 6000냥 ○창평 민인 3891냥)

자원군은 33곳에서 1411명이다.

27일

맑음

영추문迎秋門 홍예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영대장 허계許槩가 20냥을 담포군 등에게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734명이고, 담포군은 113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7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423냥 4전이다.(덕산 민인 6000냥 ○전주 전 현감 정언술鄭彦述 1만 3000냥 3차)

자원군은 22동에서 699명이다.

28일

맑음

남양부南陽府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대량목大樑木을 안면도安眠島에서 베어내 운반해 오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달 10일 밤 대풍이 불어 <대량목을> 실은 선척이 좌초되어 대량목 여덟 그루가 본 부 이작도伊作島에 떠내려왔다. 본 부에서는 사촌리沙村里로 운반하여 제때 쓸 수 있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15명이고, 담포군 1151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4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770냥이다.(경주 민인 5000냥 ○당진 이민 2850냥 ○덕원 유학 김진백金辰

伯 1600냥]

자원군은 15곳에서 482명이다.

29일

맑음

각색 공장은 1753명이고, 담포군은 12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5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481냥이다.〔곤양昆陽 이민吏民 3000냥〕

자원군은 12동에서 317명이다.

30일

맑음

교태전 동서 박공朴宮은 벽석壁石으로 무늬를 내서 완성했다. 한 가운데에는 각기 일태극一太極을, 동쪽에는 ‘만수萬壽’ 서쪽에는 ‘무강無疆’을 모두 전자篆字로 하였다. 니장泥匠의 눈썰미가 또한 매우 훌륭했다.

각색 공장은 1771명이고, 담포군은 120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1732냥이다.〔안주 민인 2만 냥 선납 ○풍천 수령 이기조李基祖 600냥 2차〕

자원군은 23동에서 717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53만 3652냥 8전 8푼, 종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만 9131냥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8월 동안 각색 공장은 도합 4만 8016명이고, 담포군은 2만 8159명이다.

〈부전지〉 자원군은 613동〈/부전지〉에서 도합 3만 4653명이다.

을축년^{1865, 고종2} 9월

1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라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공장 1824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 1335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돈 249냥 5푼을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76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990냥이다.(경상 감영 하리^{下吏} 서갑증^{徐甲增} 1000냥 ○회천 이민 3070

냥 ○청풍 민인 3000냥 ○영천 민인 2000냥)

자원군은 15동에서 447명이다.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목재를 다듬는 데 쓸 숫돌이 매우 많다. 그러나 군기시에 있는 것이 대부분 품질이 좋지 않으므로, 무르고 부드러운 숫돌 20괴를 별도로 지정한다. 품질이 좋은 것으로 잘 골라서 이달 그믐 내로 상납 하라는 뜻을 생산되는 고을에 알리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45명이고, 담모군은 124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64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215냥 2전이다. [김해 민인 5005냥 ○영흥 김진규金晉奎 3000냥 ○함평 민인 1946냥 ○상주 민인 3000냥]

시릉인侍陵人 양원성楊元成 고삭藁索 7000파把, 정원일鄭元一 3만 2800파, 이귀손李貴孫 1만 1000파

자원군은 30동에서 2072명이다.

○백목전白木廬 시민市民이 600명을 내어 동대문 안에 있던 대종大鐘을 자원하여 썰매로 옮겨와 당일 광화문 앞에 이르렀다. [원래 몸체는 용두龍頭를 아울러서 높이 8자 6치, 너비 5자 5치, 두께 9치 5푼이다.] 그 새긴 것을 살펴보니, 세조조世祖朝에 흥천사興天寺에서 주조한 것이다. 세속에서 전하길, 지금 동학東學의 터는 바로 흥천사의 옛터인데, 흥천사가 옮겨 지금의 신흥사가 되었고, 종은 이에 따라 버려져 방치되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신흥사의 승도僧徒 천여 명이 끌고 가려 했으나, 종이 굳게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아 옮길 수가 없었다. 대원위가 광화문 서쪽에 있던 옛 종이 이미 부서져서 이 종을 옮겨 광화문 문루에 달고자 하였다. 이때 이르러 시민들이 겨우 600명의 인력으로 끌어 오는데도 자못 쉽게 하였으니,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불가佛家の 기구이므로 오는 11월 8일 신흥사의 승려가 종에 공재⁷⁰하기로 했다.]

70 공재(供齋): 공양(供養)하는 재를 말한다.

종명鐘銘

[병서並序, 가정대부嘉靖大夫 이조 판서 신 한계희⁷¹가 교지를 받들어 삼가 짓다. 선교랑 수 이조 좌랑⁷² 예문관 봉교 겸 승문원 부교리 신 정난종鄭蘭宗이 교지를 받들어 삼가 쓰다.]

공손히 우리 승천체도열문영무⁷³ 전하께서 탄생하시며 천명을 크게 받아 등극하시고 천하의 운을 여시니 강역이 편안하고 비바람이 때에 맞아 화평하였다. 이에 한가하게 살아가고 맑고 화목하여 삼가 공손하고 조용히 도를 생각하여 지극한 성인의 덕이 밝고 상서로웠다. 이에 <세조> 7년 신사년(1461) 여름 5월 임자일에 회암사檜巖寺에서 석가여래釋迦如來의 사리舍利가 분신分身하여 상서로운 빛과 기운이 하늘에 피어오르고 기이한 향이 크게 일어나 산골짜기에 가득했다. 효령대군孝寧大君(보補)께서 절에 계시다가 <사리> 25매枚를 올렸다. 임금과 자성왕비⁷⁴께서 내전에서 예를 올렸더니 또 분신하였고, 함원전含元殿에 안치하였더니 또 분신하였다. 지난 병진년(1436, 세종18)에 또 얻어서 왕비께 올렸고, 내전에서 예를 올렸더니 또 분신하였다. 정사년(1437, 세종19)에 임금께서 친히 가타⁷⁵의 관현管絃을 탔고, 왕비와 함께 함원전에 공양하자 또 분신하였다. 이를 전후로 하여 얻은 분신 사리가 모두 102매였고, 또한 회암사에서 사람들이 각자 가져간 것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어 사면하시고 큰 서원誓願을 빌며 친히 능엄경楞嚴經을 번역하시고 종친, 의정부, 육조, 대성臺省,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조종祖宗 및 일체의 영혼을 위해 여래상如來像

71 한계희(韓繼禧): 개국공신이자 영의정을 지낸 한상경(韓尙敬)의 손자이고 감사를 역임한 한혜(韓惠)의 아들이다. 세조를 도와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한명회와는 6촌지간이다. 144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정자(正字)에 선임된 뒤 수찬(修撰)을 지냈다. 1455년(세조1) 세조의 명에 따라 덕종(德宗), 예종에게 경학(經學)을 가르쳤다. 이후 병조 참의, 좌승지, 이조참판을 역임한 뒤 1465년 이조 판서에 올랐다. 예종대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처벌하여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어 서평군(西平君)에 봉해졌다.

72 수 이조 좌랑(守吏曹佐郎): 『경복궁영건일기』의 원문에는 ‘寺吏曹佐郎’로 되어 있는데, ‘守吏曹佐郎’의 오류이다.

73 승천체도열문영무(承天體道烈文英武): 세조(世祖)의 존호이다. 1457년(세조3)에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국왕에게 올린 것이다.

74 자성왕비(慈聖王妃): 세조 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고, 1457년(세조3)에 자성왕비(慈聖王妃)의 존호를 받았다. 그리고 손자인 성종이 13살의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다.

75 가타(伽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고 불교 교리를 적은 노래 글귀를 이른다.

1구軀를 만들고, 중궁, 세자를 위해 1구를 만들었다. 또 꿈에 관음觀音, 지장地藏의 두 보살이 서로 응대하는 기이한 꿈을 꾸고는 두 상像을 조성하였는데, 이미 완성이 되자 각기 그 안에 사리를 봉안하고 선종禪宗 흥천사興天寺 사리각舍利閣에 봉안하였다. 임금께서 왕비와 함께 보좌寶座에 예배하여 향을 피워 공양하였다. 이후 홍종鴻鐘을 주조하여 육시⁷⁶를 경계하고 초야의 인재를 인도하고자 이 연기⁷⁷를 새겨 끝없이 밝게 보여주라고 하셨다. 명문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성신聖神께서 일찍이 불기佛記를 받아	惟我聖神夙受佛記
손으로 금륜金輪을 잡고 하늘을 계승하여 다스리셨고	手執金輪繼天出治
엄숙하고 공손하시며 조심스러우시고 짧은 잠을 잘 틈도 없었도다	嚴恭寅畏不違假寐
신神과 사람이 협화協和하여 신령스러운 복이 나란히 이르렀고	神人協和靈貺駢至
대각 ⁷⁸ 을 우리르고 연류 ⁷⁹ 를 널리 포섭하여	仰惟大覺廣攝緣類
사리가 분신하는 드문 일을 보여주었도다	設利分身現希有事
세상의 이목耳目을 크게 놀라게 하는 빛줄기가 천지를 밝게 비추니	驚動耳目晃曜天地
신령스럽고 상서로움이 진동하니 장구한 세월 속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靈瑞震動曠劫罕比

- 76 육시(六時): 하루를 여섯 등분하였다는 뜻으로, 신조(晨朝: 아침), 일중(日中: 한낮), 일몰(日沒: 해질 녘), 초야(初夜: 초저녁), 중야(中夜: 한밤중), 후야(後夜: 한밤중에서 아침까지의 동안) 등으로 구분된다.
- 77연기(緣起): 불교 교리의 인연(因緣)의 이치이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변화하는 것이나, 그 변화는 일정한 움직임 을 가진다고 한다. 이 움직임의 법칙을 연기라고 일컫는다.
- 78대각(大覺): 부처가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깨달음에 이른 부처를 일컫기도 한다.
- 79연류(緣類): 세종이 언해(諺解)한 『능엄경』에 ‘삼연부단(三緣不斷)’이란 말이 있다. 즉 전생, 이승, 저승의 사이에 한결같이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해서 인연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이른다.

천심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홍서⁸⁰를 정성스레 발원하여
 빼어난 불상을 조성하고 뜻깊은 경전을 설명하였도다
 우리 열조^{烈祖}를 복되게 하고 중생에까지 미치게 하여
 종도^{宗圖}가 영원히 굳건하여 억만세에 이르게 되었다

天心悅豫弘誓發誠
 像設晬容演了義經
 福我烈祖延及舍靈
 宗圖永固彌億萬齡

저 불도^{佛道}는 너그럽고 광대하여 널리 유체⁸¹를 선발하고
 저 성스러운 불상은 크나큰 자비로 널리 구제하셨도다
 쇠를 불려 종을 주조해서 모든 이들은 깨우치게 하였고
 고통을 그치게 하고 혼탁함을 경계하여 영원히 미래까지 이어지리라

惟佛道弘普拔幽滯
 惟聖體佛大悲曠濟
 冶金鑄鐘開覺一切
 息苦警昏窮未來際

천순^{天順} 6년 임오년(1462, 세조8) 10월 일

감주^{監鑄}

도제조

효령대군^{孝寧大君} 신 보^補

임영대군^{臨瀛大君} 신 구^廖

영응대군^{永膺大君} 신 염^琰

제조

정헌대부 호조 판서 창녕군^{昌寧君} 신 조석문^{曹錫文}

정헌대부 중추원 사 신 김개^{金概}

가정대부 중추원 부사 경기 도관찰출척사 신 김종순^{金從舜}

가정대부 중추원 부사 오성군^{箕城君} 신 유자환^{柳子煥}

가선대부 병조 참판 신 김국광^{金國光}

부제조

80 홍서(弘誓):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세운 큰 서원(誓願)을 이른다.

81 유체(幽滯): 불교에서 아직 인도 하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한 상태 또는 존재를 말한다.

승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신 홍응 洪應

가선대부 행동판내시부사 신 신운 申雲

낭청

절충장군 행충좌위대호군 신 김석제 金石梯

봉정대부 행호조 정랑 신 우해 禹垓

3일

맑음

각색 공장은 1764명이고, 담모군은 12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047냥 5전이다.[시흥 민인 3219냥 5전 ○공충 수영

이민 1130냥 ○보령 민인 1108냥 ○합천 유학 윤진규 尹晉逵 3000냥]

자원군은 38동에서 1831명이다.

4일

맑음

전라 감사(조재응 趙在應)가 장계하였다.

“좌수영 左水營 및 가리포진 加里浦鎭에서 풍락송⁸² 그루 수를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전교하였다.

“영건도감에 주어라.”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좌수영에 소속된 각 진 鎭과 가리포에서 관할하는 각 처 봉산 封山의 송목 松木 중 풍락

82 풍락송(風落松): 바람에 꺾이고 쓰러진 소나무이다. 소나무의 용도는 다양하여 말라죽거나 바람에 쓰러진 것이라도 합부로 작별할 수 없었다. 『세종실록』 세종 21년 2월 6일) 조선시대 풍락송은 군기(軍器) 수리, 축성, 소금 굽기[煮鹽]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매매하여 진흥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송이 모두 5만 9457그루나 된다는 장계에 대해 ‘영건도감에 보내라’는 관부가 있었다. 판부한 내용을 받들어 봉심奉審을 시행하고자 별도로 일을 맡아 처리할 영교營校 몇 사람을 각 진에 나누어 보내고, 대중소를 논하지 말고 길이가 곧고 몸체가 큰 것을 선척에 실어서 신속히 빨리 올려보내도록 하라. 그 나머지 잡다하여 쓰지 못하는 나무와 몸체가 큰 나무에서 잘라낸 것들은 모두 시가대로 적당히 팔아서 그 돈은 〈나무를〉 끌어 옮기는 품삯과 배로 옮기는 비용에 가져다 쓰도록 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이 얼마인지와 수송해 바치는 그루수를 모두 일일이 책자로 만들어 매우 상세하게 보고하여 증빙으로 삼도록 하고, 털끝만큼 도 소홀히 하다가 중간에 잃어버려 유명무실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49명이고, 담모군은 122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2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949냥이다.[철원 민인 1500냥 ○진위 민인 1140냥 ○개천 민인 1만 1723냥 ○장성 유학 김경찬金京粦 백지白紙 100권 ○정읍 진사 안명수安命壽 2000냥 ○장단 김일천金日天 1차 5치 못 130개 ○축룡계인柵籠契人 등 축골⁸³ 30태駄]

자원군은 42동에서 2060명이다.

5월 맑음

강녕전康寧殿 대보大樑(대들보) 8개를 담군擔軍이 메고 부계浮階로 올라갔다. 그 가운데 광릉光陵의 나무 2개는 하나의 뿌리에 두 개의 줄기가 아울러 나왔는데, 곧으면서도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아껴서 형제송兄弟松이라고 일렀다. 이때 이르러 모두 들어와서 보裾로 썼다. 대원위가 공장과 담군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60냥을 행하行下하였다.

83 축골(柵骨): 꺾질 벗긴 싸릿대를 말한다.

○광화문에서는 석역石役이 늦어져 초하루부터 격일로 야간작업을 하였다.

각색 공장은 1731명이고, 담모군은 125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65냥이다.

자원군은 31동에서 1358명이다.

6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각 전당 영건의 길한 일시를 일관日官에게 명해 가려 뽑도록 하였더니, 함원전, 인지당⁸⁴의 정초定礎는 오는 10월 9일 신시申時, 입주立柱는 같은 달 24일 묘시卯時, 상량上樑은 오는 11월 16일 자시子時, 천추전千秋殿의 정초는 오는 10월 22일 묘시, 입주는 오는 11월 7일 묘시, 상량은

오는 12월 9일, 만춘전萬春殿의 정초는 오는 12월 24일 묘시, 입주는 오는 병인년(1866, 고종 3) 정월 12일 묘시, 상량은 병인년 2월 2일 인시寅時가 모두 길하다고 하니, 이 일시에 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1680명이고, 담모군은 122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7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940냥 7전 6푼이다.[대호군 박유성朴迪性 1000냥 ○남양 민인 1100냥

○남원 민인 9965냥 ○음죽 민인 1101냥 6전 6푼 ○덕원 유학 고승호高承昊 2000냥 ○영흥 손진호孫晉浩 1000

냥 ○수원 출신 진규창陳奎昌 1000냥 ○순창 민인 9225냥]

84 인지당(麟趾堂): 세종대에 건설되었고, 이후 세자의 거처로 자주 활용되었다.

자원군은 31동에서 1370명이다.

7일

비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 각 전당을 영건할 때 상량문 제술관과 서사관에 대해 별단別單을 써서 들입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함원전 상량문의 제술관은 김병기金炳冀, 서사관은 민치구閔致久,

인지당 상량문의 제술관은 김병국金炳國, 서사관은 이의익李宜翼,

천추당 상량문의 제술관은 홍재철洪在喆, 서사관은 박제소朴齊韶,

만춘전 상량문의 제술관은 이돈영李敦榮, 서사관은 신관호申觀浩이다.

가가假家 밖의 공역은 비로 인해 정지되었으며 자원군도 없었다.

각색 공장은 1556명이고, 담모군은 93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0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695냥 7전이다.〔전라 우수영 각 진장 및 민인 2073냥 3전〕

자원군은 2명이다.

8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늦게 갠. 어제 개동
부터 이날 개동까지
수심은 3치 2푼

신무문 개와蓋瓦와 강녕전康寧殿은 날씨가 추워서 공역을 중지하였다.

각색 공장은 1571명이고, 담모군은 86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0냥이다.

자원군은 2명이다.

9일
맑음

대왕대비전에서 사알司謁에게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였다.

“이번 13일에 영건도감에 음식을 내려줄 것이니, 도제조 이하는 와서 모이도록 하라.”

○인지당麟趾堂의 터를 다졌다.

각색 공장은 1683명이고, 담모군은 114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8냥 4전이다.[김제 민인 2800냥 ○경성 민인 6000냥 ○전 오위장 마행
일馬行逸 1000냥]

자원군은 23동에서 1261명이다.

10일
맑음

대왕대비전이 하교하였다.

“법궁의 전각 공사가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전鄭道傳이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송축頌祝한 문구를 생각해 보니 천 년에 한 번 있을만한 성대한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옛 감회에 젖게 된다. 또 국사國師 무학無

學이 당시에 수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사國史와 야승野乘에 자주 보이

는데, 내 뜻을 표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다.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에게는 특별히 훈작을 회복 시키고 시호를 내리도록 하라. 그 시손祀孫은 해조該曹에 명하여 이름을 물어 건원릉⁸⁵ 참봉 자리를 만들어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라.”

○지난달 20일(임자)에 철룡鐵龍을 주조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고, 주조할 화로를 설치하였다. 같은 달 30일(임술)에 철룡의 몸 반쪽을 주조하였다.[흙으로 주조할 모양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전체를 주조하였으나 실패하였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날(임신) 또 몸 반쪽을 주조하여 전에

85 건원릉(健元陵): 태조 이성계의 능이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있다.

주조한 것을 합쳐서 용 전체를 완성하였다. 용의 배는 비어 있고, 좌우에 각기 ‘대청大清 동치同治 4년 을축, 임오, 임술에 시작하여, 9월 10일 임신에 합체하였다.’라고 음각하고 주조해서 한 쌍을 만들었다.

정묘년 7월 12일 축시에 경회루지慶會樓池 임방王方의 석축石築 아래 천혈泉穴 구멍 주위에 돌로 함函을 만들어 한 쌍을 잠기도록 했다. 머리는 남쪽으로, 꼬리는 북쪽으로 향하게 했다. 패장牌將 지복록池福祿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도록 하였다. 떡과 과일 각 1그릇, 현주玄酒 1통을 진설하고, 고사문告祀文을 선독宣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구름은 용을 따르나니 이렇게 감응하는 까닭은 기류氣類이고 천일天一이 생겨나고 감육坎六이 왕성하면서 그 적당한 위치를 얻는 것⁸⁶은 이수理數입니다. 쓰기에 적당한 것은 본래 오행이 상극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양陽을 응축하여 임壬의 물의 정수로 만들고자 쌍룡을 철화鐵花로 주조합니다.

귀신은 필시 그 실물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라겠지만 하늘은 감응하여 그 조화를 빼앗는 것을 허락하고 의젓한 머리의 뿔은 높고 힘준하여 길이가 삼백 겹이나 되도록 하소서. 이에 무궁하게 변화하여 상서로움을 부르고 재앙을 막아내소서. 물을 쓰니 불이 줄어들고 감坎이 기氣를 받아 이離가 소멸하게 하소서. 형혹⁸⁷의 궤도에서 괴이한 빛을 없애고 순허⁸⁸에서 해악을 쓸어버리소서. 백겁百劫의 시간에서 화마[回祿]로 인하지만 도리어 천리千里에서 참덕[德眞]을 맞이하소서. 제왕의 신령이 함께 하는 바에 의지하고 하늘의 공工을 되돌려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물의 기운을 머금었다가 항상 내뿜어 영원토록 궁궐을 보호하소서.”
〔별간역 김재수金在湫가 지었다〕

각색 공장은 1720명이고, 담모군은 115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03냥이다.

86 천일(天一) … 것: 오행이 순환하여 건과 감이 각기 방위에 맞게 된다는 말이다.

87 형혹(熒惑): 화성. 재앙이나 변란의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므로 형혹이라고 부른다.

88 순허(鵠墟): 28수 중에 주조(朱鳥) 7수에 속하는 별이다. 순화(鵠火), 순미(鵠尾), 순수(鵠首)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만 5954냥이다.(연천 유학 조정호趙敬鎬 벽련목榜鍊木 80개 ○청안 민인 1740
 냥 ○의주 민인 9만 3300냥)
 자원군은 35동에서 1944명이다.

11일

아침에 맑다가
 오후에 비

안산安山에 보내는 관문

기계에 들어가는 목물木物을 경내에 시는 조팔풍趙八豐, 유량柳良이 사
 양산私養山에 있는 송목松木을 베어내 원납하였다. 만약 폐단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일절 금지하고 빨리 거행하여 며칠 내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라.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추단판楸楸板을 도내 인제 지역에서 사들여 강변으로 옮겨 두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모
 두 표류하여 지금은 한 닢도 남은 것이 없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다시 베어오고자 차인差
 人을 정해서 값을 지급해 내려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추단판 각 1000닢, 추단楸楸과 두리
 목豆里木 각 500개를 신속히 베어내 반드시 얼음이 얼기 전까지 경강京江에 도착시키고, 물
 에 띄워 내려보낼 때는 각별히 호송하라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등산 첨사登山僉使 박중근朴重根은 본 도감의 패장牌將으로서 지금 간역看役해야 해서 부임
 할 수 없다. 영교營校를 가장⁸⁹으로 정해서 보내지 말고 해당 진鎭의 수교首校로서 대신 살
 피게 하라는 뜻을 알려 시행하도록 하라.

89 가장(假將): 장수(將帥)의 결원이 있을 때, 정식 임명으로 보충하기 전까지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한
 임시 장수를 말한다.

각색 공장은 1789명이고, 담모군은 124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1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658냥이다.〔인천 민인 3358냥 6전 ○영흥 양기하梁基河 1000냥, 노종주魯宗周 2000냥〕

자원군은 36동에서 1940명이다.

12일

맑음

평안 감영과 개성부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의 단확丹腹, 도배塗褙에 들어가는 가저모家猪毛 각 100근을 헤아려 지정하니, 도착하는 즉시 재빠르게 모은 후, 오는 10월 20일 전까지 수량을 맞춰서 올려보내 제때 들여 쓸 수 있도록 하라.

안산군安山郡에 보내는 관문

이름을 모르는 남가南哥라는 성을 가진 놈이 영건에 쓸 목물木物이라고 거짓으로 칭하여 그 고을의 류씨柳氏 양반 가문의 산에서 거리낌 없이 베어 내고는 토색질을 하고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소행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통악하다. 관에서 장교를 정하여 본 도감으로 잡아 올려보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라.

○함원전 터를 닦았다.

각색 공장은 1685명이고, 담모군은 133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75냥이다.〔유학 이시규李時圭 시전지⁹⁰ 5뭇〕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207냥이다.〔동막東幕 출신 최우형崔禹亨 1만 냥 ○경상 감영 군교 김달권金達權 2000냥 ○대구 하리 정노윤鄭魯潤 1000냥 2차 ○고창 민인 907냥 ○부령 민인 1100냥〕

90 시전지(詩箋紙): 시, 편지 등을 쓰는 종이다.

자원군은 37동에서 1545명이다.

13일

비 사시부터 유시까지
수심은 4푼

도제조 이하가 모두 와서 기다렸다. 사찬^{賜饌}할 때 제철 음식을 빠짐없이 갖춰 내려 주었다. 도제조는 교자상^{交子床} 각 1좌^坐, 부제조는 나대반^{羅大盤} 각 1좌, 도청 낭청 감조관은 3곳으로 나뉘 교자상 3좌이다. 별간역, 계사 이하 패장, 원역, 공장 등은 차등 있게 하였다.

○담모군에게 돈 29냥 4전 4푼(담군 732명, 모군 740명, 각 2푼), 자원군에게 48냥(975명, 각 5푼)을 본 도감에서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745명이고, 담모군은(위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19냥이다.(유학 이인필^{李仁泌} 종중^{宗中} 3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07냥이다.(장수 민인 1836냥)

자원군은 27동에서 975명이다.

14일

맑음

경기, 황해, 강원, 공충도에 보내는 관문

듣자니 본 도감의 목재 운반으로 각 포구의 선척이 모두 징집되었기 때문에 연강^{沿江} 상하에서 추수한 곡식과 겨울을 보낼 땔나무의 수로 왕래가 거의 끊겼다고 한다. 이는 필시 관령^{管領}들이 핑계를 대며 토색질 해서 그러한 것이다. 땔나무와 식량은 날마다 쓰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인데, 점점 얼음이 얼어 <수운이> 막히는 시기가 되어 만에 하나라도 <식량과 땔감이> 부족해져서 계속 대지 못하게 되는 근심이라도 생긴다면 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관문이 도착하는 대로 재빨리 연강 상하의 각 포구에 엄하게 신척하도록 하고, 무릇 선척의 왕래와 관계되는 것은 감히 핑계를 대며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게 하며, 계속 유통시킨 후에 상황을 빠르게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82명이고, 담포군은 136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15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1냥이다.

자원군은 16동에서 586명이다.

15일

뇌우雷雨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경복궁 영건 공사가 매우 방대하니 수성 찰방輸城察訪 문희열文義說, 남양 감목관 김동혁金東赫을 별간역으로 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1703명이고, 담포군은 139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80냥이다.

자원군은 13동에서 444명이다.

16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
저녁 늦게 갠. 15일
진시부터 오늘 개동
까지 수심은 1치 3분

술시戌時에 광화문 문루에 정초定礎하였는데, 먼저 고사를 지냈다. 패장 김진성金振聲을 헌관獻官으로 삼았고, 제물은 소 1마리, 돼지 3마리, 떡 3시루, 3색 과일, 대미大米(쌀)와 소미小米(좁쌀) 각 5섬, 배와 무명 각 10필, 돈 100냥이다. 기타 절차는 다른 전당과 차이가 없었다. 이날 당상과 낭청이 모두 참석하였다.

각색 공장은 1508명이고, 담포군은 130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1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690냥이다.〔용인 유학 이준李埈 1000냥 2차 ○개천 수령 조용하趙應夏 정철正

鐵 1000근)

자원군은 14동에서 613명이다.

17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각 전당과 각 문의 현판 서사관書寫官을 별단으로 써서 들입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교태전交泰殿 현판 서사관 조석원曹錫元

강녕전康寧殿 현판 서사관 이재면李載冕

연생전延生殿 현판 서사관 이재원李載元

경성전慶成殿 현판 서사관 조성하趙成夏

함원전含元殿 현판 서사관 조영하趙寧夏

인지당麟趾堂 현판 서사관 이주철李周喆

천추전千秋殿 현판 서사관 정범조鄭範朝

만춘전萬春殿 현판 서사관 송희정宋熙正

광화문光化門 현판 서사관 임태영任泰瑛

건춘문建春門 현판 서사관 이경하李景夏

영추문迎秋門 현판 서사관 허계許槩

신무문神武門 현판 서사관 이현직李顯稷

○훈련도감에서 이달 8일부터 신무문의 좌우에서 성역城役을 시작하였다. 이날 광화문에서 동서 양쪽의 십자각⁹¹까지를 개수하였다. 각閣과 성城은 훈련도감에서 맡았고, 서십자각에서부터 신무문까지는 어영청에서 담당하였으며, 동십자각에서부터 신무문까지 금위영에

91 십자각(十字閣): 경복궁 정문 광화문의 동서 양쪽에 있던 동십자각, 서십자각이다. 현재는 동십자각만 남아있다.

서 맡았다. 이날 금위영에서는 훈련도감의 축조를 따라 공역을 시작했고, 어영청에서는 오는 19일에 시작하며, 훈련도감에서는 오는 10월 21일에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옛 성을 허물었고 이후 <성터> 바깥쪽에 목책을 둘렀다. 성을 허무는 일도 또한 큰 공역이었다.

각색 공장은 1710명이고, 담모군은 144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60냥이다.[유학 이관희李觀喜 15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746냥이다.[청하 이민 1746냥 ○청파 유학 이유상李裕相 큰 박석 100장]

자원군은 14동에서 543명이다.

18일

맑음

이조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봉화백 정도전의 훈작을 회복하고 시호를 내려주며 해조에서 그 봉사손의 이름을 몰어 건원릉 참봉 자리를 만들어 의망하여 들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조吏曹에서 알아보니 봉사손은 없고 지손支孫만 있다고 합니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기다린 후에 거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1740명이고, 담모군은 137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7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860냥이다.[단양 민인 2000냥 ○한산 민인 1474냥 ○사천 민인 4036냥 ○금성 민인 2000냥 2차]

자원군은 10동에서 291명이다.

19일

맑음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봉화현奉化縣에서 베어낸 재목 16그루 중 45자 이상인 나무 4그루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옮기도록 하고, 그 나머지 12그루는 길이 험하므로 특별히 취소하라고 이미 제하題下하였다. 지금 영건 재목은 홍수를 겪고 표류한 뒤라 여러 가지 항목에 구해서 쓰기가 참으로 어렵다. 또한 이미 베어낸 목재는 버려둘 수도 없으니,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내 취소했던 12그루는 중간을 잘라 판板으로 만들어 강변까지 끌어 옮겨 수납하고, 자르고 남은 변판邊板은 함께 실어 보낼 필요는 없으니 그 현에서 편의대로 처리하도록 하라.

가평군, 포천현에 보내는 관문

영건할 때 목재를 다듬는 연장을 버르는 데 들어가는 백탄⁹²을 가평군 수리현修理峴, 포천현 북기지리北機池里에서 값을 주고 사도록 했다. 만일 한가하고 잡된 무리가 궤방을 놓는 폐단을 일으키면 장교를 정해 엄히 신칙하게 하고 전심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근정전 대량大樑과 고주高柱로 쓸 목재 3개를 이미 강릉 땅에 베어 두었는데, 몸체가 클 뿐 아니라 고갯길이 구불구불하고 험준하여 옮기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저 이 나무가 올라온 후에야 법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다. 운반할 때에는 본 도감에서 목수와 담군을 내려보내 담당하여 실어오게 하고, 도로는 해당 부府에서 민정民丁을 다수 징발하여 무너져 내리고 경사지고 굽은 곳을 즉시 정비하도록 하라. 대령大嶺 길은 반드시 평탄하게 만들어 담군이 운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강릉부江陵府에 별도로 알려 시행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59명이고, 담모군은 1457명이다.

92 백탄(白炭): 화력이 가장 센 질 좋은 참숯이다. 흰 재의 가루로 덮여있어 하얀 색을 띤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20냥이다.
자원군은 49동에서 1830명이다.

20일

맑음

전교하였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 경북궁 역소의 공장^{工匠}에 대해 영건도감에서 건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건호케하라고 명하셔서 공장 1935명에게 한 명당 돈 1전, 담포군 1386명에게 한 명당 돈 5푼, 도합 돈 200냥 1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방외^{坊外} 공장에게 모두 청색 면^綿으로 된 두루마기 1령^領씩, 도합 600령을 만들어 지급하였고, 내년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반납하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 담포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771냥 5전이다.(간성 민인 1300냥 ○울봉역^{栗峰驛} 이민 1004냥 5전)

자원군은 15동에서 796명이다.

21일

맑음

경상, 전라, 공충,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대량 송목^{大樑松木} 2그루는 강원도 삼척부^{三陟府}에서 베어내 이미 끌어들여 바닷가에 두었다. 그러나 이번 목재의 수운^{水運} 길은 바닷가에서 동해를 경유하고 남해를 거쳐서 서해에 도달한 후 조강^{祖江}에 이를 것이다. 지금 대역^{大役}이 매우 바쁜 상황인데, 여러 항목에 반드시 들어갈 목

석木石은 구비되었으나, 없는 것은 단지 대량, 고주高柱 등에 쓰이는 체대목體大木뿐이니 그 필요성이 한시가 급하다. 이에 삼현령三懸鈴으로 관문을 보내니 모름지기 막중하고 막대하며 긴급하게 사용한다는 뜻을 헤아려 즉시 각 경내 연안의 각 고을에 별도로 관문을 보내 엄히 신칙하라. 그리고 교졸校卒을 다수 징발하며 매우 견고한 선척을 골라잡도록 하라. <이 후 목재가> 지나는 각 고을과 진보鎭堡에서는 차례로 운반하여 반드시 얼음이 열기 전까지 경강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44명이고, 담모군은 136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5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41냥이다.〔연산 민인 3000냥 ○전효눌全孝訥 1000냥 2차 ○남평 민인 1276냥 2차 ○제주 민인 2500냥 2차 ○임천 수령 윤영보尹榮輔 1000냥〕

자원군은 22동에서 1116명이다.

22일

맑음

예조에서 상량의上樑儀를 칙정牒呈하였다.

장막은 계상階上에 설치한다. 상량문안上樑文案을 장막 안쪽에 설치하고 남향으로 한다. 향로, 향합香盒, 병축竝燭은 모두 그 앞에 설치한다.〔모두 안案을 둔다.〕 영건도감 도제조 이하의 위位를 장막의 남쪽 뜰 중앙에 설치되 위치를 달리하여 겹줄로 두며 북향한다. 찬의贊儀와 인의引儀의

위位는 계하階下에 설치하되 서향한다. 그날 상량할 때 인의가 도제조 이하를 인도한다. 모두 무양흑단령無揚黑團領을 하고 위位로 나간다. 찬의가 ‘사배四拜’라고 창하면 도제조 이하는 모두 사배한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면 도제조 이하는 모두 무릎을 꿇는다. 사향司香 2인이 향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은 후 세 번 상향上香한 후 물러난다. 독문관讀文官이 안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다. 집사가 무릎을 꿇은 후 상량문을 취해서 <독문관을> 마주하고 <상량문을> 편다. 독문관이 선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간다. 찬의가 ‘부복, 흥, 사배, 흥, 평신俯伏興四拜興平身’이라고 창하면 도제조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사배하였다가 일어나

평신한다. 인의가 상량문을 가지고 올라가 상량에 둔다. 인의가 도제조 이하를 이끌고 나간다.

○이조에서 첩정하였다. 신무문 상량할 때 각 차비관은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독상량문관讀上樑文官은 전한典翰 이명응李明應, 사향관司香官(2명)은 예조 좌랑 김홍식金鴻植, 봉상시 주부 이응려李應呂, 집사執事(2명)는 광흥령廣興令 김우근金友根, 제용감 봉사 정대림丁大林〔이후 상량할 때 독문관 및 집사는 으레 본 도감의 도청, 낭청, 감조관을 차출하였다〕

진시辰時에 신무문에 상량하였다. 이에 앞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돼지 1마리를 사용하였고, 이어서 홍예문虹霓門 월대月臺 위에 신위를 설치하였으며, 백목白木 10필, 백미白米 3섬, 돈 50냥을 진설하였다. 제물은 소 1마리, 떡, 과일, 탕 각 3색을 썼다. 헌관獻官은 총융사 이현직李顯稷으로 단헌單獻이었다. 그 외의 절차는 모두 첩문의 의식과 같았다. 이때 문이 이미 완성되었다. 종량⁹³의 아래에 미리 들보 하나를 갖춰놓고, 그 뒤를 뚫어서 상량문을 넣어둘 곳으로 만들었다. 이때 들보를 들어 상량문을 넣고 다시 위로 올렸다.〔각 문과 여러 전당 모두가 그러하였다.〕 상량문은 무늬 없는 붉은 공단 1필에 묵墨으로 가로쓰기를 하였다. 상량하기를 마치자 진설했던 물품은 목수방木手房에 주었다. 상량은 목수의 일이기 때문이다.〔이후 상량이 모두 이와 같았다.〕 이날 당상과 낭청이 모두 참석하였다.

신무문 상량문

삼가 엎드려 아뢰니 드디어 명당을 열어 앉아서 다스리게 되었도다. 크게 터를 닦아 황도의 제도⁹⁴를 열었으니 북두칠성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비견되도다. 신추⁹⁵가 현무玄武의 방향을 누르고 조화롭게 돌아서 새로이 중창하니 아름답도다, 한漢 나라의 고옹⁹⁶이 짝을 가지

93 종량(宗樑): 보[樑]의 종류 중 하나로, 건물의 최상부에 위치한다. 종량 상부에는 대공(臺工)을 얹어 종도리를 지지한다. 종보로도 불린다.

94 황도(黃圖)의 제도: 황제가 있는 도성의 구문(九門), 전각(殿閣) 등의 제도를 말한다.

95 신추(神樞): 점치는 데 쓰이는 중요한 물건을 말한다.

96 고옹(皐應): 고문(皐門)과 응문(應門)을 말한다. 『시경』 「대아」의 내용으로, 고문은 왕의 성문이고 응문은 왕의 정문이다.

고 있었음이어. 아! 경복궁을 창건하시니 실로 우리 개국 초기의 정아正衙였으며 천지가 상도上都(수도)에 화응하여 모이니, 낙읍洛邑과 남도南途, 북비北鄙가 정해졌도다. 전각殿閣의 모양새는 중화의 것과 비견되니 「고공기」⁹⁷를 살펴 뒤에는 시장, 앞에는 조정을 두어 밝고 흐뭇한 성세였도다. 항상 동산에 기린과 봉황이 노닐도록 하여 밝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으니 아직도 궁궐 연못에 기룡⁹⁸이 모였다는 말이 전해지도다. 그 다음으로 집에 손님을 맞이할 사문四門을 열고 우뚝 기자箕子의 구주九疇를 일으켜 그대로 밟아나갔도다. 밖으로 사독⁹⁹의 전법典法에 예禮를 다하였고 왼쪽으로 현비¹⁰⁰를 만들었도다. 위로 북두칠성七星의 궤도에 응하였고 오른쪽으로 황도黃道를 돌았도다. 청춘의 관면¹⁰¹이 따라 들어가니 조, 근, 회, 동¹⁰²이라 하였으며 구천九天이 창합(闔闔: 궁궐문)을 상대하여 열리니 서에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열렸도다. 다만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아직도 휘혁¹⁰³의 규범을 만들지 못하였으니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 담장만 바라보는 것이¹⁰⁴ 어찌 선왕이 바라보는 것에 비견될 것이며 궁구¹⁰⁵를 생각하니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도다.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는 신성神聖이 서로 계승하는 정통을 이으시며 하늘과 사람이 함께 하는 명철한 명에 응하시도다. 보무¹⁰⁶가 더욱 빛나서 장악의 궐문¹⁰⁷을 융성하게 기르고

97 「고공기(考工記)」: 중국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기술서이다. 『주례(周禮)』의 마지막 편인 「동관(冬官)」에 속해 있다.

98 기룡(夔龍): 기룡은 용의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어진 신하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궁궐에 어진 신하들이 모인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였다. 기는 순(舜) 임금 시대에 악관(樂官)이었고 용은 간관(諫官)이었다고 한다.

99 사독(四瀆):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4개의 강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다.

100 현비(玄扉): 저승과 통하는 문을 말한다.

101 청춘(青春)의 관면(冠冕): 푸른 봄날의 벼슬아치를 말한다.

102 조(朝), 근(覲), 회(會), 동(同): 제후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왕을 뵈는 행위를 말한다.

103 휘혁(暉革): 집을 화려하고 날아갈 듯 빛나는 말이다.

104 그리워하는 … 것이: 순(舜) 임금이 요(堯) 임금을 그리워한 나머지 자리에 앉으면 담장에 요 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밥을 먹을 때는 요 임금의 얼굴이 국그릇 속에 비쳤다고 한다. (『후한서』 권63 「이고전」)

105 궁구(肯構): 궁구궁당(肯構肯堂)의 준말로 선대의 유업을 잘 계승하여 집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106 보무(寶婺): 여자의 별을 말한다. 원문은 '寶婺'인데 『용호한록(龍湖閒錄)』에는 '寶婺'로 되어 있다. 문맥상 '寶婺'로 번역하였다.

107 장악(長樂)의 궐문: 왕후의 거처. 한나라 때 태후의 거처인 장락궁(長樂宮)을 말한다.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드려 상관尙冠의 처소를 축원하도다. 정당政堂을 건립하면서 종묘¹⁰⁸를 수선하고 변경¹⁰⁹의 여러 관사를 중수重修하도다. 경사卿士에게 물으면서 서민들과 도모하니 기방¹¹⁰의 풍수가 증명되도다. 도가 흡족하고 정사를 잘하여 나라는 오래되었지만 명은 새로워짐을 볼 수 있고 땅은 이롭고 사람들은 화합하니 아무도 어려울 때 사치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도다. 이에 영대靈臺의 공역을 시작할 날짜를 택일하니 초구¹¹¹가 나라의 도읍지가 되었던 상서로움으로 흔쾌히 윤택하시도다. 화려한 마룻대에 새겨진 무늬는 난새의 날개처럼 구부러 봉새처럼 들어올렸고 서까래의 그림과 기둥의 채색은 황홀한 옥처럼 주련이 되도다. 이남¹¹²이 교화될 수 있었던 터와 임금이 평소 머물던 곳의 상완과 하점¹¹³은 삼대三代의 문물로 설명할 수 있도다. 법전法殿의 왼쪽 섬돌과 오른쪽 월대, 북으로 금문金門(대궐 문)을 바라보면 엄정한 모습이고 위로 금성禁城(궁궐)을 근거하면 엄숙한 곳이로다. 황종黃鍾의 정률¹¹⁴은 신령함에 부합하니 바르고 맑음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륙의 응음¹¹⁵은 무武를 본 따르니 엄중함으로부터 나오는도다. 계단의 무지개는 달을 마시니 화악¹¹⁶을 짊어져서 높게 하고 기와의 비늘은 구름에 이어지니 광화光化를 바라보며 산등성이를 마주하도다. 물 호랑이[水虎]를 시켜 경계하니 자맥¹¹⁷에는 저녁 종소리 울리고 금

108 종묘(宗廟): 원문은 '宗府'인데 『용호한록』에는 '宗廟'로 되어 있다. 문맥상 '宗廟'로 번역하였다.

109 변경(汴京): 송(宋) 나라의 마지막 수도인데 여기서는 조선의 수도를 의미한다.

110 기방(冀方): 중국의 기주 지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111 초구(楚邱): 춘추시대 제환공이 제후들을 이끌고 성을 쌓은 곳으로 여기서는 나라의 기반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112 이남(二南): 『시경』의 편명인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말하는데 문왕의 교화와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113 상완(上簷)과 하점(下簷): 주춧돌 또는 건물의 제도를 의미한다.

114 황종(黃鍾)의 정률(定律): 황종(黃鍾)은 12울의 첫 번째 음이다. 황종의 정률이란 음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뜻한다.

115 현륙(玄陸)과 응음(凝陰): 현륙(玄陸)은 검은 땅이라는 말인데 지역으로는 북쪽 지방을 뜻하고, 계절로는 겨울을 뜻한다. 응음(凝陰)은 음기가 모여 있음을 뜻한다.

116 화악(華嶽): 일반적으로 화산(華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서울의 진산(鎭山)을 비유한 말이다.

117 자맥(紫陌): 왕도(王都)를 의미한다.

물고기[金魚]를 방생하여 궁궐을 활짝 여니 경루¹¹⁸에는 새벽 빛소리가 있도다. 주행¹¹⁹을 따라 함께 이 길로 나오고 송宋 태조가 궐문을 여는 듯이 하여 바로 내 마음과 같이 하는도다. 궁궐 안의 동산에는 예쁜 빛깔의 꽃들이 서로 빛나 옥소리처럼 어우러지고 북쪽 산기슭에 아름다운 구름이 머무니 난여鸞輿(임금이 타는 가마)가 때 맞추어 돌아오도다. 사방 창문과 아홉 기둥의 터를 닦으니 일가一家의 기상氣像이요, 오극 삼조¹²⁰의 도로를 펼치니 사방팔방이 조정의 길이로다. 새벽이슬 떠내며 선기옥형¹²¹ 관리하니 동령¹²²이 바로 오늘이고 부시眾兇를 꺾매어 무늬 있는 창문을 지탱하니 북두칠성이 하늘에서 운행하도다. 성덕신공聖德神功께서 왕위에 오르심은 천명이며 문왕의 계책과 무왕의 용맹함을 가졌으니 모두 다 억만 년의 경사를 칭송하도다. 공손히 임금의 만수를 축원하는 글을 진술하여 육위六偉(상량문)의 기원을 드립니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상서로운 아침햇살 나라를 교화하여 새벽을 붉게 물들고

祥曦化國曉舒紅

양기가 넓게 퍼져 봄바람이 불어오며

陽和布澤春嘯苗

온갖 물질이 소생하여 발육하네

萬品昭蘇發育中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자미당 가까이 다섯 빛깔 구름이 가지런하고

紫薇堂近五雲齊

118 경루(瓊樓): 옥으로 만든 누대로 궁궐을 의미한다.

119 주행(周行): 주나라 조정의 반열이라는 뜻으로 조관(朝官)을 말한다.

120 오극 삼조(五劇三條): 복잡한 시가(市街)를 말한다.

121 선기옥형(璿璣玉衡): 혼천의 중 하나. 여기서는 천문관측기구를 말한다.

122 동령(冬令): 겨울에 나라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내리는 영을 말한다.

빛나는 보배에 황색 금금자로 편액을 쓰니
완전히 올해의 큰 과거의 시제일세

煌煌寶扁黃金字
宛是當年大筆題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따뜻한 바람 전각에 상서로운 빛 머금고
조정에는 패옥과 슬갑의 신하들이 신선을 호위하며
축하하는 소리 드높아 만세 삼창이로세

拋樑南
薰風殿角瑞光含
朝天芾珮陪仙仗
賀語齊騰萬歲三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문 앞 연로는 푸른 줄처럼 곧고
별처럼 벌여 놓은 4백 고을에
온갖 만상 모두 모여드네

拋樑北
門前輦路青繩直
星羅四百域中州
萬象芸芸咸會極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엄숙한 높은 하늘, 풍경을 드리우고
봉황과 용이 춤추고 날아와 떠받드니
울창한 아름다운 기운 조화롭게 뒤섞이네

拋樑上
穆穆皇穹垂景貺
鳳舞龍翔拱紫宸
鬱蔥佳氣元和釀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상서로운 구름과 비, 기자의 봉지에 있고
평안한 거리 남녀노소할 것 없이 노래 부르며
모두 임금님 궁궐로 들어가네

拋樑下
祥雲瑞雨箕封野
康衢老少遍歌謠
摠入吾王大庇厦

바라옵건대 상량한 뒤에 아름다운 옥들이 번갈아서 북두성을 운행하고 온갖 영령을 도움
을 받아 건곤(乾坤)이 개벽하는 방법으로 오직 군자만이 출입하도록 하고 풍우(風雨)와 음양(陰
陽)의 조화로 만세토록 태평하게 하소서.

[화성 유수 조득림趙得林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찬하다. 대호군 이원명李源命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쓰다. 을축 (1865, 고종 2) 9월 22일 진시]

○광화문 누각 상층은 담군이 메고 올라 간 도리목道里木으로 만들었다. 대원위가 담군 등 (180명)에게 돈 10냥을 내려주었고, 또 한 명당 백목白木 각 1필씩을 상으로 지급하였다.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도 이 수량대로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1973명이고, 담모군은 14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4185냥이다.〔의령 수령 서유영徐有英 1000냥 ○성주 유학 여동행呂東行 2000냥 ○선산 민인 2만 4713냥 ○강계 이민 6392냥〕

자원군은 16동에서 907명이다.

23일

맑음

전교하였다.

“영건 공사가 한창인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다. 공장과 담군들이 날마다 부역하고 추운 곳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고 걱정스럽다. 선혜청에 있는 무명을 실수實數대로 각 1필씩 지급할 것을 분부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과 담군에게 실제 숫자대로 선혜청에 있는 무명 1필을 제급題給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각색 공장과 담군 총 3150명에게 한 명당 무명 1필씩 도합 63동을 선혜청에 있는 것으로 옮겨와서 제급하였습니다. 나머지 무명 2동은 도감에 그대로 두었는데, 한거부漢車夫와 각 영거부營車夫의 노고는 공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부는 모두 545명으로, 한 명당 무명 1필 대신 돈 3냥씩 도합 1635냥을 본 도감에서 후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18냥 2전을 건춘문建春門 담군 등에게 내려주었다.(182명에게 한 명당 1전씩이다.)

각색 공장은 1915명이고, 담모군은 153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82냥 5전이다.(유학 이기방李基邦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7269냥이다.(성주 민인 1925냥 ○영천 민인 3000냥 ○함창 민인 2000냥,

선남 ○광주光州 민인 1만 5734냥 ○홍해 민인 1900냥 ○평산 민인 2000냥, 선남)

자원군은 13동에서 565명¹²³이다.

24일

맑음

황해 감영 및 재령군載寧郡에 보내는 관문

지난번에 사양산의 송추松楸 중 매탄埋炭 할 만한 것이 있어서 즉시 값을 주고 구입하여 매탄한 후 취철吹鐵 할 일로 관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 지금 듣자니 장수산長壽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대청현大廳峴의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의 도산都山 및 갈리산葛里山의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의 도산都山의 송추가 매탄하여 취철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재령군에 관문으로 엄히 신칙하여 관에서 사서 어영청 취철감관吹鐵監官 태덕주太德周에게 주도록 해서 조속히 철을 제련할 수 있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920명이고, 담모군은 151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7295냥 2전이다.(의흥 이민 9000냥 ○정읍 유학 박민호朴敏鎬 1000냥 ○

문경 민인 3900냥 ○연풍 민인 1000냥 ○회인 민인 1405냥)

¹²³ 명: 『경북공영건일기』에는 ‘兩’으로 되어 있다.

자원군은 27동에서 1018명이다.

25일

맑음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목물^{木物}을 순천, 강진, 홍양 등 세 고을에서 베어내기로 했다. 순천, 강진 두 고을의 그루 수는 이미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냈는데, 홍양은 아직도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곡절인가? 책자로 만든 것이 없으니 그루 수를 어떻게 증빙해서 받아들이겠는가. 즉시 해당 현에 알려 그루 수와 길이, 원지름을 매우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118명이고, 담포군은 161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12냥이다.〔선천 수령 이방현^{李邦鉉}〕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227냥이다.〔옥과 민인 1850냥 ○영양 교원^{校院} 및 백성 3366냥 ○임천 이민 6200냥 ○신녕 민인 1000냥〕

자원군은 16동에서 670명이다.

26일

맑음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목물을 통영^{統營}에 분정^{分定}하였고, 분정한 그루의 수량, 길이, 원지름을 책자로 만들어 먼저 보고해 왔다. 그중에서 몸체가 작고 길이가 짧은 나무는 먼 곳에서 베어와도 수고롭기만 하고 쓸모는 없기 때문에, 책자 내용 중에서 길이가 짧고 몸체가 작은 것은 베어내지 말라는 뜻으로 타점^{打點}하였다. 그래서 책자로 만든 것을 도로 내려 보내면서 다시 고쳐서 올려보내도록 하였는데, 아직도 고쳐 보내지 않아서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이 수가 없다.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해당 군영에 알려서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55명이고, 담모군은 163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307냥 4전이다.〔괴산 이민 1만 30냥 3전 ○장단 민인 1257냥 1전〕

자원군은 18동에서 626명이다.

27일

맑음

재상 가문 이하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잡석雜石을 원납하려는 자가 많게는 100여 태駄에 이르고, 적게는 1태, 1짐이었다.

○외성外城의 각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잡석1괴塊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였다.

각색 공장은 2040명이고, 담모군은 163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만 6811냥이다.〔안의 민인 1만 200냥 ○초계 민인 4010냥 ○영춘 민인 893냥 ○칠원 민인 700냥 ○이원 장현張鉉 1000냥 ○중화부 대소민인 3만 냥〕

자원군은 25동에서 748명이고, 복마卜馬는 40필이다.

28일

맑음

양주목楊州牧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광릉光陵 화소火巢 안에서 베어낸 송목松木, 회목檜木 54그루 중 6그루는 이미 운반하여 들어왔고, 그중 가장 큰 10개는 수레로 운반하고 있다. 그 나머지 38개와 온릉溫陵 송목, 회목 90개는 모두 본 목牧에서 이번 달 말일 내로 전부 다 운반해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80명이고, 담모군은 163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05냥이다.〔강계 출신 이문궁李聞兢 1288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852냥 6전 4푼이다.(광주廣州 강재철姜在吉 초삭草索 2태 ○여주 민인 3579
냥 2전 9푼)

자원군은 25동에서 1179명이고, 복마는 40필이다.

29일

맑음

항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쓰이는 강철強鐵을 사고자 패장을 정해서 재령군載寧郡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어영청 무철買鐵 패장이라고 칭하는 자가 자취煮取 한 철과 이미 베어낸 송전松田을 거리낌없이 빼앗고는 <도감에서 보낸 패장이> 철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들으니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놀랍다. 어영청의 구입이 비록 사사로운 용도는 아니지만, 도감에서 쓰는 바는 막중하고 긴급한 수요이다. 따라서 그가 어떻게 감히 멋대로 빼앗을 수 있는가? 이른바 어영청 무철 패장을 영문營門으로 잡아들이고 이미 빼앗은 철과 장색의 송전을 모두 추급해서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66명이고, 담포군은 145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674냥 5전이다.(덕원 유학 이기정李基定 1500냥)

금천 수령 조진호趙縉鎬 석회石灰 1000석, 화원畫員 박기준朴基駿 진분眞粉 100근, 양근 유학 이태서李泰緒 소연小椽 200개

자원군은 22동에서 1180명이다. 복마는 140필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9월 한 달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40만 2570냥이고, 종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만 8486냥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9월 한 달 각색 공장은 모두 5만 2690명이고, 담포군은 3만 9265명이다.
자원군은 660동에서 2만 9919명이고, 북마는 220필이다.

경복궁영건일기

3

을축년¹⁸⁶⁵, 고종2 10월

1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략을 올려 아뢰었다.

“공장 2156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擔募軍} 1571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돈 294냥 3전 5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

“의정부를 증건하는 공역이 지금 끝났다고 한다. 지금 풍악을 금지^[遏密]하고 있어 선은^{宣醢}은 할 수 없지만, 이달 10일에 음식을 내릴 것이다. 시원임대신, 여러 당상 및 낭청은 의정부로 와서 모이라.”

전교하였다.

“의정부가 이번에 다시 증건되었다. 국가의 체모가 이에 따라 더욱 존엄해졌으니 참으로 천만 다행한 일이다. 음식을 내리는 날 세 재상에게는 옥배^{玉杯}와 은병^{銀瓶} 각각 한 벌씩을, 좌우찬성, 좌우참찬, 사인^{舍人}, 검상^{檢詳}에게는 옥배 각각 한 벌씩을 특별히 하사하겠다. 도승지가 가지고 가서 길이 보배로 삼으라고 전유^{傳諭}하고 나서 존문^{存問}하고 오도록 하라.”

전교하였다.

“의정부에 음식을 내리는 날 봉조하^{奉朝賀} 김(흥근^{興根})도 함께 와서 모이라.”

경상 감사(이삼현^{李參鉉})이 장계하였다.

“거제 부사^{巨濟府使} 박해귀^{朴海龜}와 사천 현감^{泗川縣監} 이보헌^{李普憲}의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임한 3년 동안 실적이 두드러졌고, 또 영건하는 재목을 운반해 오는 공역도 있으니, 1년간 그대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실적이 가상할 뿐만 아니라 목재를 운송할 때 맞이하고 보내는 일도 염려스러우니, 특별히 1년간 그대로 맡도록 하라.”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만 2313냥 8전 4푼이다. [서천 민인 3270냥 ○영광 민인 3만 3595냥 대가여

전^馱價餘錢 698냥 ○진주 진사 최운^{崔濔} 3000냥 2차]

자원군은 19동^洞에서 1162명이고, 복마^{卜馬}는 124필이다.

2일

맑음

강화 유수(이인기^{李寅慶})가 장계하였다.

“장봉 만호^{長峯萬戶} 윤창업^{尹昌業}이 경복궁 영건에 쓸 대량주^{大樑柱} 목재가 요수^{漕水}로 떠내려가는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들어 일일이 건져서 운반했으며, 재산을 털어내 바치기를 원하니 그 장려하는 도리를 해조^{該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전교하였다.

“듣고 보니 매우 가상하다. 내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가자^{加資} 하라. 아울러 자급에 구애받지 말고 1년간 그대로 맡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86명이고, 담포군은 15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608냥이다.(부안 민인 6473냥 ○풍기 민인 1890냥)

자원군은 24동에서 1175명이고, 말은 126필이다.

3월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서 물건을 나르는 수레를 만드는 데 들어갈 진목眞木을 값을 주고 베어오기 위해 차인差人을 정해 부내府內 서호동西湖洞에 사는 양반 오씨吳氏의 사양산私養山으로 내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벌목을 허락 해서 차인이 신속하게 실어다가 바칠 수 있도록 할 일.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목물木物은 수가 매우 많으므로 두리목豆里木 2500개, 벽련목劈鍊木 1500개, 대연大椽 1000개, 수장목修粧木 80늪을 값을 주고 베어내기 위해 별도로 차인을 정해 도내道內 금성현金城縣 성동城洞의 수관水串 지역에 있는 사양산으로 내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읍邑에 알려 신속히 거행하고, 제반의 폐단은 이전의 관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128명이고, 담포군은 158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390냥이다.(목천 민인 임만수林萬修 1자 못 250개 ○초산 이민 1110냥 2차)

자원군은 15동에서 1011명이다. ○봉원사奉元寺 등의 승도僧徒 110명이 각각 잡석 1짐을 가지고 와서 광화문에서 3일간 공사하였다. 복마卜馬는 128필이다.

4일

맑음

각색 공장은 2131명이며, 담포군은 160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2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916냥 2전이다.〔춘천 유학 송문진宋文晉 1000냥 ○원

주 민인 4209냥 ○금정역金井驛 이민 1070명〕

자원군은 30동에서 2612명이며, 복마는 125필이다.

5일

맑음

이달 12일의 구일제¹는 통방외²로 실시하였으며, 시험지는 대호지³를 사용하고, 의정부에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였다.

○전교하였다.

“이번 동가^{動駕}시 나무와 돌을 실어 나르는 거마^{車馬}와 공사에 모집되었거나 부역하는 민인들의 왕래를 금지하지 말도록 분부하라.”

각색 공장은 2127명이며, 담포군은 1384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304냥 2전이다.〔강진 진사 김숙^{金瑬} 1000냥 2차〕

자원군은 32동에서 2739명이며, 복마는 124필이다.

- 1 구일제(九日製): 성균관에서 음력 9월 9일 거제 유생(居齋儒生)과 지방의 유생에게 행한 제술(製述) 시험을 말한다. 구일제에 합격하면 문과(文科)의 전시(殿試)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 또는 상을 주기도 하였다.
- 2 통방외(通方外): 조선시대 관학(館學)의 유생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특별과거를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한 제도를 말한다.
- 3 대호지(大好紙): 과거시험지[試紙]로 사용된 대표적인 종이로, 품질이 좋지 않고 폭이 넓고 긴 종이를 말한다. 대호지는 소호지(小好紙)와 함께 지방에서 중앙에 바치던 공물 중 하나였으며, 세폐 물품에도 포함되었다. 대호지의 무게는 3근 14냥으로 소호지보다 약 1.7배 정도 무거우며, 가격은 대호지가 2전, 소호지는 1전 1푼 1리였다. 조선 후기 과거 시험지로 지나치게 두껍고 좋은 종이를 사용하는 폐단이 생기자 1700년(숙종26)에 숙종은 답안이 훌륭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종이를 사용한 자는 합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각도에 시험지 견본을 보내어 이에 따라 과거시험지를 제조하도록 명하였다.

6일

맑음

각색 공장은 1963명이며, 담모군은 1498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94냥 3전 8푼이다.〔익산 민인 4972냥 2전 ○대

구 하리 김귀윤金貴潤 2000냥 선납 ○양양 출신 김현규金顯奎 500냥 2차 ○고성 이민

1110냥 ○신녕 민인 1000냥, 출신 이동식李東植 1000냥 2차〕

자원군은 32동에서 3700명이며, 복마는 128필이다.

7일

맑았다가
밤에 비

훈련도감에서 상고相考하는 일

영건에 쓰기 위해 〈전에〉 빌려 온 정철正鐵 1만 근을 갚고자 이송移送하니 상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위영에서 상고하는 일

영건도감에서 쓸 목면 1동同에 대해 본 영에 있는 것으로 이송하니 때에 맞추어 가져다 쓰도록 하십시오.

공충 감영과 수영水營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에 쓸 각종 목물木物을 올려보낼 때, 목물을 싣는 선척은 각 읍안邑案에 기재된 지토선⁴을 배정하고 양료糧料를 지급하여 운송하는 것이 이전부터의 법례이다. 이번에는 당초에 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읍안에 기재된 배로 실어 보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선척을 다수 붙잡았을 때 뇌물을 받고 놓아 보내기도 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은 자는 한 푼의 품삯도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실어 나르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원망이 치솟았다. 연

4 지토선(地土船): 지방에서 활동하던 토착민 소유의 배이다. 토선(土船)으로도 불렸고,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이름을 따거나 형태에 따라 제각각의 이름이 있었다. 애초 소형 선박이어서 근거리 운항을 하며 어로 활동에 참여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대형 선박을 활용한 상선, 운송선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강沿江 상하 각 읍의 포구를 왕래하는 상선商船은 대부분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만 하여 배가 한 척도 없이 끊겨 버렸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로 인해 막히고 끊겼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는 뿔감과 양식 또한 실어오는 것이 없으니 이 어찌 매우 한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폐단을 일으킨 놈들을 마땅히 일일이 적발하여 무거운 쪽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명령을 내리기 이전의 일로 간주하여 지금 잠시 보류해두되, 차후로는 어떤 나무든 따지지 말고 반드시 배를 빌리는 값을 치르고 폐단 없이 운반하여 납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별도로 신칙한 후에도 여전히 폐해가 있다면 해당 수령은 단연코 마땅히 초기草記를 올려 논감論勘할 것이고 죄를 범한 놈도 마땅히 갑절로 법률을 시행할 것이니, 예사로이 여기지 말고 명심해서 거행하라는 뜻을 각 해당 읍에 별도로 엄히 신칙한 다음 상황을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103명이며, 담모군은 153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8475냥 5전이다.(제주 민인 2000냥 ○하동 이민 6773냥 ○김화 민인 1565냥 2차 ○영덕 민인 2620냥 ○영덕 유학 김재명金在明 1000냥, 신희석申義錫 1000냥, 유재운劉載潤 5000냥 ○비안 민인 6720냥 ○명천 민인 3600냥 선납 ○나주목 김우현金佑鉉 2000냥 ○이천伊川 민인 2215냥 2차 ○용인 민인 1897냥 5전 ○비인 향중鄉中 1000냥)

자원군은 24동에서 1412명이며, 복마는 125필이다.

8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갠, 어제 오경부터 오늘 개동까지 수심이 5푼

간의대簡儀臺 동쪽에 땅을 파다 동표銅表 하나를 얻었는데, 안쪽 면은 유회⁵로 채워져 있었다. 근거할 만한 문자가 없어 부순 후 그 쇠를 사용하였다.

5 유회(油灰): 건물의 계단, 섬돌, 월대 등의 석재 사이에 채워놓은 접착제이다. 왕릉의 석조물을 접합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생석회에 들기름과 종이여물을 섞어서 만들었다.

각색 공장은 2031명이며, 담포군은 131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8343냥 3전이다.〔함경 도내 승려 1388냥 ○북청 민인 1만 2000냥 2차 ○

삼수 민인 1000냥 ○상주 민인 2000냥 ○이원 민인 1755냥〕

자원군은 15동에서 1045명이다.

9일

맑음

전교하였다.

“의정부에서 거행하는 구일제九日製에 친림하고 환궁할 때 응당 경복궁에 들를 것이니, 시원임대신, 봉조하 김흥근金興根, 영진도감 당상은 와서 대기하도록 하라.”

○의정부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구일제에 친림하여 시취試取할 때에 의정부에 시장試場을 설치하게 되면 너무 협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예조의 시소試所로 옮겨 설치하고 승지가 어제御題를 받들고 나가 현포懸布하도록 사관소⁶에 분부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함원전含元殿에 정초定礎하였다.

○교태전,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에 입주立柱하였다. 모두 이날 인시寅時이며, 전우殿宇는 예정된 기일보다 먼저 완성되었다. 어간⁷의 기둥 밑은 본디 편목片木(작은 나무토막)으로 4면을 버티게 하다가 이때 빼내는 것으로 입주의 의례를 삼았다.〔이후 각 전당殿堂이 기일보다 먼저 완성된 경우 입주 일시에 대해 거의 대부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6 사관소(四館所): 조선시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 등 사관(四館)의 관원이 모여 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직소를 말한다.

7 어간(御間): 궁궐을 비롯한 건물의 큰 방 한복판에 있는 칸이다.

각색 공장은 2012명이며, 담포군은 160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893냥 8전이다.〔제천 민인 4233냥 8전〕

자원군은 16동에서 735명이며, 복마는 84필이다.

10일

흐림

각색 공장은 2048명이고, 담포군은 147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2921냥 7전이다.〔이천利川 민인 3028냥 2차 ○동

래 이민 3196냥 ○김해 거민 김노익金魯益 8000냥 2차 ○면천 민인 6127냥 9전 ○의성

민인 1만 240냥 ○진천 민인 등 1500냥〕

자원군은 17동에서 2107명이고, 복마는 85필이다.

11일

맑음

자시子時에 교태전,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에 상량上樑하였다. 상량 시
절차 및 희생, 술, 떡, 과일 등의 수는 신무문의 상량 때 한 것과 같았다. 진
설한 것은 배와 무명 각 10필, 대미大米와 소미小米 각 2섬, 돈 100냥
이며, 강녕전만 200냥을 사용했다. 상량문은 또한 붉은 공단孔緞에 묵
서墨書이다. 순은으로 된 돈을 주조하는데, 육각으로 만들고 각마다 내

외면內外面에 수水자를 새긴다. 무릇 6푼이다.〔한 푼은 1냥중이며, 6 또한 물의 수이다. 모두 火火를 다
스리기 때문이다.〕〈상량문과 은전은〉 대청 안에서 들보를 빼서 일체로 들보 안에 들여 넣었으
나, 교태전만은 상량하는 곳에 아직 기와를 덮지 않았으므로 교태전 척량脊梁(등마루) 위에
상량문을 바쳤다.

교태전의 헌관獻官은 호조 판서 이돈영李敦榮이며, 독상량문관讀上樑文官은 교리 임면호任
冕鎬이다. 사향관司香官은 교서관 판교 장덕량張德良, 승문원 판교 김지유金之有이며, 집사執
事는 호조 정량 임면수林冕洙, 상의원 직장 임경준任慶準이다.

강녕전의 헌관은 동녕위 東寧尉 김현근 金賢根, 독상량문관은 사인 舍人 이명응 李明應, 사향관은 예조 좌랑 조창교 趙昌敎, 김병수 金秉洙, 집시는 공조 정랑 김헌진 金獻鎭, 돈녕부 참봉 홍순금 洪淳肯이다.

연생전의 헌관은 남녕위 南寧尉 윤의선 尹宜善, 독상량문관은 부사과 이창호 李昌鎬, 사향관은 병조 좌랑 유용함 柳龍鎭, 현필제 玄弼濟, 집시는 사옹원 봉사 강영수 姜穎秀, 의금부 도사 이만시 李晩著이다.

경성전의 헌관은 판중추부사 김병국 金炳國, 독상량문관은 별검춘추 홍원식 洪遠植, 사향관은 봉상시 첨정 김관효 金觀孝, 교서관 교리 한공렬 韓兢烈, 집시는 군자감 직장 정직용 鄭稷容, 내자시 봉사 이준영 李俊永이다.

○이날 도제조 이하가 일제히 나가 나누어서 참여했다.

교태전 상량문

엿드려 생각건대 옛 나라의 새로운 명에서 큰 대업을 이어받아 웅장한 집이 성대히 완성되었도다. 심원한 역사 歷史의 제왕들이 음양이 왕래하는 가운데 요역 徭役 한 일들은 아름다운 편액 扁額⁸에 거둬 빛나도다. 명예를 돌아보고 의를 생각하며 바름에 거하며 준귀함에 짝했도다. 이에 새로운 대읍 大邑이 두루 통함을 상고하여 이에 내정당 內正堂 교태전을 세우도다. 옛날 우리나라는 그동안 창업수통 創業垂統의 공을 옆에 안으로 성비 聖妃가 있어 재성보상 財成輔相의 도리를 도왔도다. 도읍을 정함에 금척⁹이 만억 萬億 아름다움의 기반이 되었고, 「주남」 「소남」의 교화¹⁰는 황색 치마 黃裳에 근원하여 육오 六五의 길함에 자리하였도다. 이런 까닭에 여기에 거처하니 이것이 바로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다.’는 것이도다. 후성¹¹

8 편액(扁額): 널빤지, 종이, 비단 등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건물의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이다. 일반적으로 현판(懸板)으로 통칭된다. 가로로 걸기 때문에 횡액(橫額)이라고도 한다.

9 금척(金尺): 금으로 만든 자로 이것을 얻는 사람은 제왕이 된다고 한다.

10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교화: 「주남」과 「소남」은 『시경』의 편명으로 여기서는 문왕의 교화를 뜻한다.

11 후성(後星): 후성은 서자(庶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왕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에 “심성 중에 큰 별은 천왕에 해당하고, 그 앞의 별은 태자에 해당하고, 뒤의 별은 서자에 해당한다.[心大星

의 별자리는 구진¹²의 자리로 두르고 야경^{夜警}을 엄하게 하는 부서로 호위하였도다. 중곤^{中壺}(왕비)의 보좌^{寶座}로는 당나라에 함장전¹³, 한나라에 장추궁¹⁴이 있었도다. 체세^{體勢}는 매우 엄격하여 노침¹⁵과 연침¹⁶에 널리 이어졌고, 단예^{端倪}(일의 시작과 끝)는 흰히 트여 응문^{應門}(궁궐의 정문)과 치문^{雉門}(궁궐의 남문)을 활짝 열어놓았도다.

생각건대, 고명^{高明}한 거처에 흥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운이 있었도다. 무성한 공업은 강토를 넓혀 다행히 대려¹⁷를 다시 펼치게 되었고 큰 기틀을 마련하여 이미 부지런히 담을 쌓았지만 화개전¹⁸의 증건은 여전히 더디었도다. 이는 절로 신명이 도와준 것이라 수리하는 데 때가 있음을 알겠다.

공경히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효로 한 나라를 일으키고 삼대^{三代}를 본받아 다스리셨도다. 구족^{九族}을 친하게 대하고 백성을 공평하게 하니 교화가 집안에서 시작되었고, 공적을 넓히고 백공^{百工}을 엄격하게 다스리니 가르침이 구역^{區域}에 합치하였도다. 크게 계승하고 크게 드러내어 매번 요임금의 모습이 담장에 나타나는¹⁹ 마음이 절실하였고 검소하고 근면하여 궁실을 낮게 짓는 덕²⁰에 항상 힘쓰셨도다.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떨어진 것을 들어주는 정사를 길이 생각하니 이는 실로 뜻을 이어 옛 일을 밝히는 일이다. 이것이 등극하신 처음에 주상전하의 영복을 의논한 까닭이다. 순환의 운회^{運會}(운수와 기회)가 거듭 이르러 하

天王也 其前星 太子也 後星 庶子也”라고 하였다.

12 구진(鉤陳): 북극성에 가까운 별을 말하며 후궁(後宮)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3 함장전(含章殿): 진(晉) 나라 이후로 궁궐의 내전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14 장추궁(長秋宮): 후한 때 황후가 기거하던 궁으로 황후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15 노침(路寢): 황제나 제후가 정사를 보던 곳이다.

16 연침(燕寢): 황제나 제후가 평상시에 거처하는 곳이다.

17 대려(大呂): 12월의 두 번째 음을 뜻하기도 하고 주(周) 나라 종묘에 설치했던 큰 종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종묘, 즉 국가의 사직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였다.

18 화개전(華蓋殿): 중국 명나라에 만들었던 전각 중 하나로 청나라 때 중극전(中極殿)으로 개칭하였다.

19 요임금의 ... 나타나는: 순임금이 요임금을 그리워하여 담장에서도 그 모습이 보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20 궁실을 낮게 짓는 덕: 원문의 '비궁(卑宮)'은 검소한 궁궐을 뜻하는 말인데 하(夏) 나라 우(禹) 임금이 검소하여 궁실을 낮게 지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늘의 아름다움이 배풀어지고, 토土에 합하는 세덕歲德이 마침 부합하여 땅은 축회²¹에 이루어졌도다.

전형典型은 아직 남아 있어 열네 성인聖人이 전한 기틀을 쫓아 묻고 상의하니 의견이 모두 같아 삼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을 경영할 수 있었다. 사방의 법도가 바르게 되자 조처가 마땅했고, 온갖 답이 동시에 일어나 북소리도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집 짓는 일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도다. 이에 대내에 먼저 실室을 쌓는데 정성定星(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으로 다시 별을 헤아렸도다. 후토后土(땅의 신)가 주명朱明(여름)의 때를 여니 꽃무늬 창에 수초무늬 대들보요, 무녀성²² 별빛이 자미원²³의 차수次數에 이어지니 유적²⁴과 국의²⁵였도다. 이에 윤환²⁶의 수식이 새롭고 아름다워졌으며, 규모는 옛 것을 회복했도다. 선왕을 따라 과하지 않게 공역을 마치기를 도모하니, 오늘날까지 법식은 아름다워 우리 후손을 열고 도왔도다. 그 제도는 좌우로 통달하고 수놓은 두공料拱에 구름이 걸렸도다. 이 의의는 안은 양이고 밖은 음으로 하고 서까래는 햇빛에 빛나게 하는도다. 훌륭하구나! 하나의 이치가 교감함이며. 밝힐 수 있구나! 두 기운이 크게 통함이며. 지극한 부드러움과 방정한 덕은 곧면에 짝하여 가르침을 펴고, 복되고 크게 길함은 복과 종과 어울려 아름다운 덕을 펼쳤도다. 넓이와 법도를 징험할만하니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유래한 근본이도다. 저 영鄕 땅 장인의 기술을 거두고 이 백성들의 기쁨을 듣도다.

21 축회(丑會): 천지가 한 번 순환하는 것을 일원(一元)이라고 하고 일원은 12지지에 따라 12회(會)로 나뉜다. 1회는 1만 800년으로 12회는 모두 12만 9600년이 된다. 자회(子會)에는 하늘이 열리고 축회에는 땅이 열리며 인회(寅會)에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 마지막 술회(戌會)가 되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한다.([『황국경세서(皇極經世書)』])

22 무녀성(婺女星): 28수 가운데 하나의 별자리로 직녀성(織女星) 남쪽에 있는 여수(女宿)의 별칭으로 여신(女神)을 뜻한다. 흔히 귀부인을 찬양하는 용어로 쓰인다.

23 자미원(紫微垣): 큰곰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170개의 별자리로 천제(天帝)가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

24 유적(楡狄): 푸른 바탕에 오색의 수평을 수놓은 왕후의 제복으로 육복(六服)의 하나이다.

25 국의(鞠衣): 왕후가 선잠제(先蠶祭)를 지낼 때 입는 누르스름한 뽕잎 색의 예복을 말한다.

26 윤환(輪奐): 원문에는 '輪奐'로 되어 있는데 『용호한록』에는 '輪奐'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輪奐'으로 번역하였다. 윤환은 건물이 낙성된 것을 축하할 때 쓰는 표현으로 건물의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는 말이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누에 치는 집은 깊고 깊으며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붉게 타오르니

館深深瑞旭紅

좋은 해는 금근화 밖에서 돌고

選日金根花外轉

채상대 가에는 동북풍이 불도다.

採桑臺畔有條風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옥 같은 푸른 물 금당에 비 내려 진흙을 씻으니

玉漱金塘雨洗泥

서왕모의 천도복숭아 세 번 열매를 맺고

王母瑤桃三結子

연수는 응당 하늘과 가지런할 것이로다.

屋簷應得與天齊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선방의 상서로운 풀은 남자에게 마땅하니

宣房瑞草是宜男

여관의 동필은 가송을 드날리고

女官彤筆騰歌頌

「관저」시와 「갈담」시를 지을 줄 알도다.

解撰關雎與葛覃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현무는 창창하고 구름은 오색이니

玄武蒼蒼雲五色

아침나절 비는 무성하고

膚寸崇朝雨沛然

만물을 낳고 집안과 나라에 미치도다.

資生萬物家而國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철룡鐵龍이 날아올라 하늘 궁전 드넓으니

鐵龍翱翔天闕曠

아래로 광명을 이루어 땅의 도가 행해지고

下濟光明地道行

귀한 글씨 황금방을 우러러 보는도다.

仰看寶字黃金榜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櫟下

널리 포용하는 지극한 덕 큰 복에 응하니

舍弘至德應純嘏

아름다운 선성의 부드러운 가르침 어진 풍기를 부채질하고

穆宣柔教扇仁風

세상 천만의 집들을 크게 보호하도다.

大庇人間千萬厦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고명하고 박후하며 유구하나 손상되지 않고 상서로운 조화와 길한 경사가 한꺼번에 밀려오기를. 비조의 업을 잇는 것 같이하여 터를 다지고 집을 짓고, 부부의 근원에서 단서를 만들어 집에 마땅하고 실에 마땅하기를. 기둥과 처마의 제도 더욱 장대하여 제비와 참새들도 낙성을 축하하며, 갈대와 대자리의 잠자리 편안하여 아들 태몽 맞아 떨어지기를. 그리하여 번창하고 타오르고 길이 장수하게 하여 백 대를 이어 자손이 뻗어가고, 군자가 거쳐하고 오르고 편안히 여기는 곳으로 오복의 황극을 펼치기를.

강녕전 상량문

엮드려 생각건대, 원덕(元德)(근본이 되는 덕)을 체득하여 그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생겨나니 억조(億兆) 백성들이 받들길 원했고, 큰 기틀을 다져 밝고 길하라고 명하시니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오복(五福)이 강녕(康寧)하셨도다. 못 기대에 부응하니 윤환(輪奐)이 공효를 드러내고 선조의 뜻을 서술하여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대업을 이었도다. 대개 도움이 정해진 후로부터 정아(正衙)와 어의(御廡)(임금이 치는 병풍)의 거처가 있었도다. 북쪽은 산 남쪽은 강이 위치하여 대궐과 멀지 않았고 앞에는 조정 뒤에는 시장이 있어 도움을 융성하게 했도다. 요임금의 모궁(茅宮)(띠로 지붕을 이은 집)과 우임금의 비실(卑室)(불품없는 궁실)을 상고하면 문채의 화려함으로 아름다움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또한 순임금의 훈전(薰殿)과 주나라의 명당(明堂)의 제도가 되니 곧 의상과 회동의 예의²⁷를 숭상한 것이로다. 움직임에 배움을 행하고 고요함에 순히 받드니 양의(兩儀)(천지)가 덮고 길러주는 도였으며, 아침에는 듣고 방문하며 저녁에는 편안

27 의상(衣裳)과 회동(會同)의 예의(禮儀): 의상은 문무 백관의 옷이고 회동은 제후나 백관들이 임금을 알현하는 것이다. 즉 문무 백관이 예의를 갖추는 격식을 말한다.

히 쉬니 또한 육기(六氣, 음양에 따른 여섯 기운)가 계절에 따라 조절한 방도였도다. 사정전(思政殿) 안과 교태전(交泰殿) 앞에 합전(合殿)을 세우고, 중헌(重軒)을 여니 연생전(延生殿)이 왼쪽이고 경성전(慶成殿)이 오른쪽이도다. 기수(奇數)와 우수(偶數)로 부연하니 사상(四象)과 팔괘(八卦)가 모양을 이루고, 음과 양으로 자리를 정하니 삼광(三光, 해, 달, 별)과 오요²⁸가 차례를 따랐도다. 먼류관(을)에 매달린 구슬을 늘어뜨리고 갈포와 비단을 밝혀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고, 종륙(種陸, 을)을 올리고 견사(蒹絲, 누에고치와 명주실)를 바쳐 우리 종묘를 함께 받들었도다. 남국(南國)이 교화되자 시경의 시인들은 금종(琴鍾)을 노래했고, 신하들이 규잠(規箴, 잘못을 바로 잡음)하니 여사(女史)가 비녀와 귀고리를 찬미했도다. 신령이 부축하고 보호하더라도 기수(氣數)에 흥폐가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삼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미처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선왕의 관광²⁹과 비교하겠는가? 천재일우의 기회가 이르니 마치 조물주가 돕는 것 같도다.

공경히 생각건대, 주상전하계선(上聖)의 순수한 자태를 받아 역대 선조들의 태평의 전통을 이었도다. 구축과 화목하자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였고 목민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공적(功績)이 참으로 다스려졌도다. 한(漢) 나라의 상관(尙冠)이 효경(孝經)을 읽자 나라 전체에 효(孝)가 흥기하였고 송(宋) 나라의 원우³⁰ 때 인정(仁政)을 행하자 임금이 된 자가 인(仁)에 머물렀다. 이에 바른 자리에서 체(體)에 거하는 기틀을 돌이켜보고 길함을 얻고 인재를 헤아리는 거사를 강구했도다. 기(氣)와 형(形)이 화하고 천지가 화하니 친하여 응하지 않는 것이 없도다. 규(圭)로 측량하고 정성(定星)을 헤아려 방위를 잡는 것이 부합하자 거북으로 점쳐서 따르고 시초로 점쳐서 따르고 경사(卿士)가 따르니 이를 대동(大同)이라 했도다. 담장을 쌓는 일이 법도를 따라 천심을 누리니 하늘이 돌아보고 도와 순순히 밝은 명을 받들었도다. 백성의 힘을 쓰니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와 흡족하며 기쁜 낮으로 고했도다. 화개전(華蓋殿)의 터를 넓히는 데 옥대(玉帶)의 옛 계획을 따랐도다. 사공(司空)을 부르고 사도(司徒)를 불러 공역을 시작하되 서두르지 말라고 하자, 진흙을 바르고 진사(辰砂)를 바르며 그 이론 공을 고하는도다. 꽃

28 오요(五曜): 오성(五星).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한다.

29 선왕의 관광: 백성들을 살핀다는 뜻이다.

30 원우(元祐): 송나라 철종(哲宗, 1086 ~ 1094년 4월)의 연호이다.

무늬 창 옥 편액에 찬란하게 무지개는 서리고 별은 펼쳐지며, 아로새긴 창살과 수놓은 두
공에 봉새는 높이 치솟고 난새는 날아오르도다. 봉지鳳池에 현자들 모이니 경루慶樓를 일으
켜 바람과 구름이 모이고, 높고 푸른 산에 축가가 울려 퍼지니 법전을 열어 해와 달이 비추
도다. 계수나무 전각이 자미원紫微垣에 접하자 별들이 일제히 빛나고, 난초 핀 섬돌이 은하
수 물결을 쏟아내니 선영이 더욱 무성하도다. 여섯 궁이 동관彤管을 기록하여 아름다운 언
행을 칭송하고 백공이 금간金簡(금과옥조와 같은 책)을 엮어 빛나는 공적을 드날리도다. 용덕龍
德이 곤의 상에 어울리니 크게 길하고 황색 치마[黃裳]이며, 「인지麟趾」 편이 「관저關雎」 편에
응하니 주불朱弗이 찬란하도다. 교화가 규방[閨壺]에서 시작하여 격물치지수신제가치국평
천하를 이루고, 은택이 천지에 두루 미치니 박후하고 고명하며 유구하도다. 대덕大德은 반
드시 지위를 얻고 녹을 얻고 이름을 얻고 수를 얻어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징조는 알맞
게 비 내리고, 알맞게 햇빛 비추고, 알맞게 따뜻하고, 알맞게 시원하여 나라가 편안하고 고
요하도다. 이에 축원하는 말을 펼쳐 기쁨의 노래를 돕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두성에 북두자루 돌아 해는 붉게 오르니

斗轉蒼杓瑞旭紅

경사스러운 해는 영롱하게 보배병풍에 임하고

慶日珠琬臨寶扃

산의 호통소리는 오색구름 속에 있도다.

山呼聲在五雲中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인봉仁峰의 수려한 색 주렴 밑으로 드니

仁峰秀色入簾低

사신史臣이 글을 올려 세 번 상서로움에 오르고

史臣書進三登瑞

멀리 바라보니 오곡은 풍성하고 저녁 구름 사방 들에 가지런하도다.

一望黃雲四野齊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천 년에 한 번 맺는 천도가 상서로운 이슬을 머금으니
 건관 蒨館의 베들 무늬는 수축 자를 새기고
 용 문장과 꿩 장식으로 경함을 올리도다.

千歲瑤桃瑞露含
 蒨館機紋裁壽縷
 龍章翟飾進瓊函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만물이 생성하여 성덕을 간직하니
 역서와 청대는 길함을 점치고
 사중가곡 四重歌曲은 천하에 울려 퍼지도다.

拋樑北
 品彙生成涵聖德
 璿曆青臺占吉祥
 四重歌曲騰區域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푸른 하늘이 큰 복을 두루 내리는 것을 보니
 좋은 비와 온화한 바람에 계절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태평성대의 기상이 있어 신묘한 공이 막힘없도다.

拋樑上
 眷顧蒼穹周景貺
 惠雨和風歲序成
 昇平有象神功暢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궁궐 밖 청구의 들에서
 한강에 교화가 유행하여
 백성들 자식처럼 와서 큰 집을 완성함을 알겠도다.

拋樑下
 紫宸階外青邱野
 要知江漢化流行
 民庶子來成大廈

바라옵건대 상량한 후에 덕 있는 기틀을 복돋워 성인의 당에 오르고 의로움의 집을 넓혀
 인의 집을 편안하게 하소서. 온갖 법도 바르게 되어 송 태조의 중문 重門이 내 마음과 같으
 며, 팔방이 밝게 빛나 문왕의 영대를 백성들과 함께 즐기시길. 백성들을 화합시키는 것이
 긴 명을 기원하는 근본이니 밝음을 향해 나가 다스리길. 덕을 닦음이 다복을 구하는 근원이
 니 하늘 굳센 운행을 체득하길. 자리는 안팎을 이루어 항상 본보기가 되고 항상 밝으며, 경
 사는 자손에 미쳐 창성하고 장수하기를.

연생전 상량문

삼가 아뢰입니다. 나도蘿圖(강토)를 자리 삼아 하늘을 따르니 상서로움은 붉은 병풍에 엉기고
이끼를 무성히 하여 해를 맞이하니 자리는 푸른 복두 자리를 가리키도다. 만년 억년 태평
의 기틀을 크게 열고 열두 조정이 미처 이루지 못한 법전을 크게 들었도다. 대개 듣자니, 옛
날 성인이 궁실을 지을 때 하늘이 음양을 다스리는 것을 법으로 삼았도다. 『공양전公羊傳』에
서궁西宮과 중궁中宮이 있어 삼극三極을 표준으로 삼았고 『예기禮記』에는 노침路寢과 소침小
寢으로 나누어 육의³¹를 다스렸도다. 붉은 색 점철하는 가운데 흰색 성하니 모두 떠오르는
햇살에 널리 통하였고, 금과 옥으로 장식한 섬돌들 위로 자추³²를 본받지 않는 것이 없도
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조정은 건곤을 포괄하여 금척金尺의 꿈에 부합하였고 하수河水와
낙수落水를 돌아보아 토규³³에서 성스러운 지혜를 창안하였도다. 형세를 인용하자면 한수
와 화산³⁴이니 신기³⁵는 이씨 성이라고 점지點指를 받았고, 방위를 변별하자면 주작과 현무
이니 층층으로 지어진 궁궐은 부상³⁶의 유허遺墟를 눌렀도다. 중문重門이 흰히 열려 탁 트인
것이 송나라 태조의 심법心法과 같았고, 아홉 개의 길이 모두 통하니 엄연히 주나라 궁궐이
있도다. 대내大內의 깊고 엄숙한 곳에 펼쳐내니 연생전延生殿의 웅대함이 있었도다. 왕후의
후궁과 섬돌은 서쪽으로 강녕전康寧殿에 이었고 견관蒹館과 후궁은 북쪽으로 교태전에 연결
되었도다. 「관저關雉」와 「인지麟趾」가 풍화風化의 근원이 되니 성스러운 왕비가 이곳에서 집
안을 다스렸고, 화려한 궁궐 생활이 도심과 하나 되니 또한 지극히 존엄한 분의 재위가 여
기에 있었도다. 사시운행의 첫머리에 자리하여 만물이 발생하는 인을 취하였도다. 화려하

31 육의(六儀): 제사(祭祀), 빈객(賓客), 조정(朝廷), 상기(喪紀), 군력(軍旅), 거마(車馬)를 말한다.

32자추(紫娥): 원문은 '薊陬'로 되어 있는데 '薊陬'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薊'은 28수 가운데 서방백호칠수(西方白虎七宿)의 하나인 자수(紫宿)에 딸린 별자리, 즉 자성(紫星)을 말한다.

33토규(土圭): 중국 고대의 옥기(玉器)로서, 해의 그림자를 측량하던 기구를 말한다.

34한수(漢水)와 화산(華山): 한수는 한강을 의미하고 화산은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을 의미한다.

35신기(神器):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는 옥새와 같은 보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왕위 또는 제위를 의미한다.

36부상(搏桑): 부상(扶桑)과 같은 말로, 동해 속에 있다는 상상의 신목(神木) 이름이다. 해가 뜰 때는 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서 올라온다고 한다.

게 수리된 방에 쌓인 기운은 동쪽의 맑은 기운 맞이하듯 주렴의 밝고 밝은 기운은 아침 햇살의 상서로운 빛을 취했도다. 아름다운 징조에 부합하니 처음 양陽이 나와 장남이 되었고,³⁷ 큰 공을 펼치니 묘문卯門(동문)이 만물을 내었도다. 아, 용과 뱀의 요상한 기운이 필방畢方(새 모양의 불 귀신) 새의 재앙을 부채질한 후, 옥서까래 옥장식에 우뚝 솟아오른 노영광전³⁸은 더이상 없고, 천문만호千門萬戶는 한漢 나라 건장궁建章宮(한나라 장안의 황궁)의 증건을 볼 것을 생각했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도가 있는 사람의 증손曾孫으로 역수曆數가 끝이 없고 주형옥두³⁹의 관상으로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 났으며 금간벽문金簡碧文(문장 솜씨가 뛰어남)을 지녀 총명함과 예지는 심금을 울릴 정도였도다.⁴⁰ 증자와 민자건⁴¹의 행실을 몸소 행하여 태모太母를 섬겨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지 시원한지를 살폈고, 요순을 배워 조종의 예악형정禮樂刑政을 본받았도다. 비록 위대한 우임금의 근검한 덕을 지녀 경계하여 절실하게 궁궐을 낮게 하고자 하였지만 선왕께서 중흥하신 공을 돌아보고 궁궐의 낙성에 뜻을 두었도다. 이에 난새 수레로 터를 자주 살피니 거북점이 길일과 진실로 합하였도다. 창덕궁과 경희궁에서 제도를 취하니 그런대로 갖추어지고 아름다워졌으며, 익종翼宗과 헌종憲宗으로부터 뜻과 일을 추모하여 잘 잇고 잘 계승하였도다. 오직 천하의 넓은 집을 크게 지음이 이로워,⁴² 이에 상제가 돌아보고 우리 조정에 온전히 책임을 맡겼도다. 칠정⁴³으로 경영하고 궁궐 사

37 처음 … 되었고: 원문은 ‘震索成男’인데, ‘震索’은 장남, 동궁, 태자 등을 뜻하는 말이다. 『주역』에서 진괘(震卦)는 장남(長男)인데, 곤(坤)이 건(乾)에서 양효(陽爻)를 하나 빌려오면 진괘가 된다.

38 노영광전(魯靈光殿): 한(漢)나라 노공왕(魯恭王)이 건립한 영광전(靈光殿)을 말한다. 한나라 왕연수(王延壽)는 「노영광전부(魯靈光殿賦)」 서문에서 영광전이 여러 차례나 전란을 겪었으나 완전하게 보존되었다고 하였다.

39 주형옥두(珠衡玉斗): 주형은 눈두덩이 구슬을 꿰어 놓은 것처럼 생긴 골상(骨相)을 말하는데 옛날에 관상가들이 성현(聖賢)의 상으로 여겼다. 옥두는 옥으로 만든 국자를 말하는데 귀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40 도가 … 울릴 정도였다: 이 부분의 원문은 ‘有道曾孫無疆大曆 珠衡玉斗 挺天質於崑崙 金簡碧文 運宸襟於聰睿’인데 『용호한록』에는 ‘有道曾孫珠衡玉斗 挺天質於崑崙 無疆大曆金簡翠文 運宸襟於聰睿’으로 되어 있다.

41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 공자의 제자 가운데 효행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42 크게 지음이 이로워: 원문은 ‘利用爲大作’인데 『주역』 「익괘(益卦) 초구(初九)」의 효사(爻辭)에 나오는 말이다.

43 칠정(七政):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 오성(五星)과 해, 달의 운행, 즉 달력을 말한다.

방모통이를 날개 삼아 먼저 일으켰도다. 궁정의 초석은 여와⁴⁴가 돌로 하늘의 틈을 메운 뒤의 일을 기록하였고, 궁중 개울물과 맑은 샘은 태사^{太姒}가 행채^{荇菜}를 캐던 장소와 비슷하도다. 천지의 규구^{規矩}는 옛일을 그대로 드러내었으나 뛰어난 솜씨는 새로운 경지를 다 투듯 드러내었도다. 백성들의 마음은 즐거워 큰 거리로 나와 모두 춤추었고, 하늘의 뜻은 형통하여 오곡에 은택을 내렸도다. 용의 머리를 높이 일으켜 푸른 하늘과 나란히 하고 치문⁴⁵을 높이 세워 청양^{靑陽}을 받들었도다. 후대에 토목을 더함이 없게 했으며, 깎고 새기는 일 없이 다스림이 집안과 나라에 미쳤도다. 또 이로써 처소를 다스려 자고 일어나는 것을 편안히 하였도다. 호야곡⁴⁶에 답하여 삼가 축원을 올리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삼원의 아름다운 기운 무성하니

三元佳氣鬱蔥

선도복숭아의 춘색^{春色} 끝이 없고

無限仙桃春色

붉은 구름 한 점 그 가운데 있도다.

紅雲一朵當中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곤륜과 낭원⁴⁷ 서로 가지런하니

崑崙閭苑相齊

만고 인왕산은 색이 빼어나고

萬古仁王秀色

구름과 높은 옥 편액에 늘 묵도다.

雲霞常宿玉題

44 여와(女媧): 복희의 딸, 혹은 누이라고 하며 처음으로 생황(笙簧)을 만들었다고 한다.(『사략(史略)』 권1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

45 치문(鷗鳴): 전각이나 문루 등 전통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엮는 기와를 말한다.

46 호야곡(呼邪曲): 호야는 현대어의 '으쌔으쌔'와 비슷한 말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일할 때 호흡을 맞추는 소리를 말한다.

47 낭원(閬苑): 곤륜산(崑崙山)의 꼭대기에 있는 신선이 산다는 곳을 말한다.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밝은 다스림이 삼왕의 경지에 오르니

嚮明治化登三

「작소鵲巢」와 「교목樛木」 시 다투어 읊조리고

鵲巢樛木播詠

강과 한수 사이에 널리 퍼지도다.

江漢之間廣覃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부아산⁴⁸負兒山 붉은 용마루와 처마 위로 솟아오르니

負兒上屹丹極

하늘의 원기 모이고 성스럽고

惟天元氣所鍾

신령한 자손 천이고 억이도다.

聖子神孫千億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밤 마나 잠성이 밝게 빛나니

夜夜蠶星晶亮

아침 발에 가득 세 잠 자고

朝來滿箔三眠

현담⁴⁸과 궁궁의관을 짜도다.

織得玄統宮樣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천리의 황운이 들에 퍼지니

千里黃雲彌野

종륙⁴⁸種陸은 먼저 풍년을 알리고

種陸先報有年

자성⁴⁸樂盛은 이 신령한 복을 받도다.

樂盛受茲神暇

바라옵건대 상량한 후에 봉록은 더욱 번성하고 무지개 용마루는 더욱 융성하길, 새와 쥐가 떠나고 비바람도 잠잠해져 침실을 팔방에 넓히며, 금슬이 짝하고 종과 복이 조화로워 자손을 백 대에 면면히 이어지시길. 어찌 금고리와 붉은뿔의 명예에 도록을 펼치고 역사만 돌아

48 현담(玄統): 관(冠)에 다는 귀막이 옥(玉)을 매다는 끈을 말한다.

보겠는가? 면류관 앞에 구슬을 늘어뜨리고 옆으로 솜뭉치를 매단 교화에 눈과 귀도 새롭게 씻기를. 해와 달과 함께 곧고 밝으며 태산의 반석과 함께 유구하시길 바랍니다.

영돈녕부사 신 김좌근⁴⁹金左根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짓다.⁴⁹

경성전 상량문

아뢰입니다. 『주역』 「대장大壯」 괘는 동우棟宇의 융성함을 취하여 북궐(北闕: 황제의 궁궐)을 세우되 옛 제도를 이었고, 『시경詩經』 「사간斯干」 편은 실가室家의 경사를 칭송하여 서쪽 편실을 열고 공이 이루어졌음을 알렸도다. 제도는 주나라 명당의 구연⁵⁰이요, 때는 한漢 나라 장락궁長樂宮의 10월이도다. 듣자니, 왕자는 나라를 세움에 궁실을 만들어 경사를 높이고 성인은 집안을 계승함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 대업을 보전하도다. 옛날 우리 태조의 초년에 한양 도성에 기틀을 처음 다지고, 일월, 성신, 풍우, 음양의 조화를 참고하고 헤아려 종묘, 사직, 궁부, 조정과 시장의 자리를 바로잡았도다. 천심이 돌아보고 집터를 내려주니 아름답음은 끝이 없어 세세대대를 전했으며, 왕의 교화가 침실에서 근본하니⁵¹ 여기에 집을 지어 좌우에 두었도다. 이 경성내전慶成內殿을 돌아보니 강녕전康寧殿 서쪽에 있도다. 천상성天床星이 자미원紫微垣에 이어져 후성後星이 밝음을 드리웠고, 곤원坤元이 황상黃裳의 길함을 바로잡아 왕후가 다스림을 주관했도다. 아름다운 집을 높이 세워 임금의 배필이 되고, 문채나는 문미를 빛나게 하여 명성과 의리를 돌아보고 생각했도다. 양의兩儀와 사상四象, 팔괘八卦의 반열에 거처하니 상태유희⁵²의 방위고, 일세一歲 오행 육기의 껍짐을 따르니 또한 가을 기운이 천하에 고를 때도다.

49 영돈녕부사 … 짓다: 원본의 이 부분에 부전지로 “이하 자시(子時)까지 쓰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부전지로 가린 내용은 ‘동녕위 김현근 삼가 전교를 받들어 쓰다. 동치 4년 10월 11일 자시[東寧尉 金賢根奉 教謹書 同治四年十月十一日 子時]’이다.

50 주(周) 나라 명당(明堂)의 구연(九筵): 『주례』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 장인(匠人)」에 “주나라의 명당은 길이 9척의 연(筵)이 동서로 9개이고 남북으로 7개이다.”라고 하였고 그 주에 “연(筵)은 대나무로 짠 자리인데, 길이가 9척이다.”라고 하였다.

51 왕의 … 근본하니: 『중용장구』에 나오는 “군자의 도는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52 상태유희(商兌有喜): 기뻐함을 헤아려 기쁨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하늘을 받들어 경사를 길이 하니 백대百代에 자손이 번창하고, 집안에서 가르침을 이루니 만물이 길러졌도다. 이에 말마다 마디마다 구중궁궐의 엄숙함과 맑음이 깊어졌고, 끊임없이 자자손손 온갖 신령의 보살핌이 무성해졌도다. 기수氣數의 막힘과 통합이 번갈아 운행하고 이치의 성함과 쇠함이 때를 따르니 나라의 대업이 흥기하는 것도 당연히 억년 만년에 꺾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뜻은 기다리라는 것이어서 어느새 삼백 년 동안이나 겨를이 없어 미처 다 이루지 못하였도다. 훌륭한 우리 주상전하께선 처음에 맑고 밝아서 온갖 제도가 모두 닦여졌고, 상원갑자上元甲子에서 세력을 계승하니 때는 우리와 태평을 같이하고, 홍무 임신⁵³의 성대한 공업을 쫓으니 기틀은 백성의 맑은 국왕이 되셨도다. 효자가 잘 잇고 잘 계승하여 옛 법도를 따르면 하늘이 명하여 명철하고 장수하게 하니 지금 막 천명을 받았음을 알겠도다. 그리하여 경복궁의 남은 터를 대사공에 명해 중수하게 하고, 옥대玉帶의 남긴 계획 충분히 징험할 만하니 선왕의 궁전에 비할 수 있도다. 화개전華蓋殿의 초석이 남아 있으니 후대에 더할 필요 없도다. 이에 훌륭한 계획은 조정의 반포를 받들었고 여러 신하의 의견도 선비들의 행렬과 같았도다. 분부가 내려지자 동서남쪽에서 오고, 영실성⁵⁴이 밤하늘 한가운데 뜨니 모년 모월 모일에 건립되었도다. 공수반과 공수工倕가 승목을 쓰듯⁵⁵ 사람들은 각자 힘을 다했고, 형주荊州에 가래나무가 있고, 예주豫州에 녹나무 있듯이⁵⁶ 땅은 보물을 아끼지 않았도다. 일을 시작하자 모든 담장이 모두 완성되었고 연침燕寢을 칠하자 일시에 모두 새로워졌도다. 교태전交泰殿으로부터 차례로 외관을 바꾼 후 정원은 반듯하고 기둥은 높고 곧았으며, 연생전延生殿과 동서로 대치하니 다지는 소리 탕탕하여 큰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도다. 뜻을 같이하니 일은 반이나 공은 배이고, 천지가 제자

53 홍무 임신(洪武壬申):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1392년을 말한다.

54 영실성(營室星): 28수 가운데 하나로 건축을 주관하는 별이다.

55 공수반(公輸般)과 … 쓰듯: 가장 뛰어난 장인의 솜씨를 가리킨다. 공수반은 노반(魯班)이라고도 하는데 춘추 시대의 장인이다. 공수(工倕)는 요(堯) 임금 때의 장인이다. 모두 이름난 장인(匠人)으로 원형(圓形)을 그리는 제구인 규(規), 방형(方形)을 그리는 자인 구(矩), 수평(水平)을 재는 기계인 준(準), 막줄인 승(繩)을 남겼다고 전한다.(『묵자(墨子)』 「공수(公輸)」, 『장자(莊子)』 「거협(胥箴)」)

56 형주(荊州)에 … 있듯이: 가래나무[梓]와 녹나무[楠]는 좋은 재목을 의미한다.

리를 잡으니 백성은 즐겁다 하고 선비는 적당한 때라 하도다. 집안과 나라 다스리니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교화 일어나고, 종묘사직을 계승하니 온갖 복의 근원이 되었도다. 화려하고 웅장한 누각으로 큰 기틀을 이었고 「종우」와 「인지」⁵⁷로 후대에 복록을 남겼도다. 선은 행하고 반드시 남음이 있으니 해와 달, 산, 언덕, 시내와 같을 것이고, 종조리(終條理)로 집대성하는 것 같으니 지육(地六), 지칠(地七), 지팔(地八), 지구(地九), 지십⁵⁸일 것이로다. 인으로 쌓고 덕으로 다지니 반드시 장수, 봉록, 지위, 명을 얻을 것이고, 문을 여는 것을 건이라 하고 문을 닫는 것을 곤이라 하니 고명함과 박후함에 짝할 것이로다. 후비의 궁전과 계단이 어찌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바탕만 되겠는가? 무성한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단단한 반석의 견고함을 길이 다질 것이로다. 삼가 축원을 올리며 긴 들보를 드는 것을 돕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희미한 아침 햇살 주렴을 뚫고 들어와 붉으니

瞳矚瑞旭透簾紅

음의 공은 숨어서 양과 조화롭게 두루 퍼지고

陰功潛與陽和遍

일만 정의 봄 경치는 온통 일색이로다.

萬井煙花一色同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황금빛 하늘색과 기운이 아득히 엄숙하게 하니

金天氣色肅端倪

만물을 자생하나 아무런 자취 없는 가운데

資生物神無跡

찬란하게 빛나는 액자의 글자를 보도다.

看取煌煌額字題

57 종우(蟲羽)와 인지(麟趾): 모두 『시경』의 편명으로 훌륭한 후사와 많은 자손을 의미한다.

58 지육(地六) … 지십(地十):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따르면 천(天)의 수(數)는 1, 3, 5, 7, 9로 이를 기수(奇數)라고 하고 지(地)의 수는 2, 4, 6, 8, 10으로 우수(偶數)라고 하는데 기수와 우수는 각각 1과 2, 3과 4, 5와 6, 7과 8, 9와 10이 서로 유(類)가 되어 서로 맞고,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이 모두 서로 합한다고 한다.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노인성⁵⁹ 드러나 상서로운 빛을 머금으니

老人星見瑞光含

궁궐의 베들은 장년루^{長年樓}를 지어내고

宮機織出長年樓

채색 곤면은 갓 만들어져 「갈담」 편을 읊조리도다.

綵袞新成誦葛覃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백악산 가파른 바위에 구름은 오색으로 빛나고

白岳巉巖雲五色

종소리 멎치니 맑은 기운 미려하고

鍾得扶輿淑氣米

나라의 기틀 천년 억년에 더욱 공고히 하도다.

邦基增鞏於千億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해와 달이 둘로 빛나 사람들 모두 우러르니

儼明兩曜人皆仰

그윽하고 한가한 덕 또한 무엇으로 나타났나.

幽閑淑德亦何形

감로와 상서로운 구름이 큰 은혜를 드리웠도다.

甘露卿雲垂景貺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천하를 보호함에 지금 넓은 집을 필요하니

大庇如今須廣廈

온 나라를 통틀어 사백의 고을에 별처럼 퍼지고

匝域星羅四百州

수많은 백성이 모두 생성의 교화 입었도다.

林蕙均被生成化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경사를 돈독히 하여 복록이 나란히 이르고 그 이론 일을 살피 윤환輪
奩이 늘 빛나시길. 수壽, 부富, 강康으로 홍범구주의 오복을 거두시고, 편안하고 잠자며 꿈
꾸어 태몽에 많은 자손 낳는 상서로움 여시길, 삼십육궁에 모두 봄이 되어⁶⁰ 이로부터 길한

59 노인성(老人星):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남극성(南極星)을 말한다.

60 삼십육궁(三十六宮) … 되어: 중국 한나라 때 있었던 서른여섯 개의 궁전으로 여기서는 궁궐 전체를 의미한다.

경사가 모임이며 1만 8천년에 길이 가을 되어 공을 이루는 아름다움 길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대광보국승록대부 행판돈녕부사 신 이경재李景在가 전교를 만들어 짓다.

상보국승록대부 판의금부사 남녕위 신 윤의선尹宜善이 전교를 만들어 쓰다.

동치同治 4년(1866, 고종 2) 10월 11일 자시子時

광화문 현판〔서사관書寫官은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현판은〉 목질墨質에 금자金字이다.〔편동片銅으로 글자를 만들고 십품금⁶¹ 4냥종을 발랐다. 은장銀匠 김경록金景祿, 최태형崔泰亨, 김우삼金友三 등이 원납했다.〕

술시戌時에 광화문에 상량했다. 그 절차는 위에 보인다. 진설한 것은 배와 무명 각 10필, 대미 6섬, 소미 1섬, 전 150냥이다. 헌관獻官은 훈련대장 임태영, 독상량문관은 부수찬 홍궁주洪兢周, 사향관司香官은 형조 좌랑 오인태吳仁泰, 성균관 직장 이병연李秉淵, 집사執事는 한성부 서윤 홍재원洪在元, 와서 별제 이상순李象恂이다.

광화문 상량문

아웁니다. 실을 짓고 당을 만듦에 큰 기틀을 다져 길이 도모하니, 우뚝 문을 높이 세우고 교회를 펼쳐 밝히려 하도다. 때에 궁문이 처음 열림에 방향은 제거帝車가 남쪽을 가리키도다. 이 정전의 조화를 듣는 곳을 돌아보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처음부터 시작하였도다. 높은 산을 뒤로하고 강을 바라보며 국도와 교외를 경영하였도다. 왕업이 중황中黃의 집을 정하니 궁전은 자리를 바로잡고 방위를 변별하였도다. 신거宸居(임금의 거처)가 상자上紫의 지역에 가까이 있으니⁶² 문미의 편액은 명성과 의리에 부합하였도다. 우 임금의 근검과 요 임금의 사려로 봄에 나고 가을에 성숙하듯이 성덕을 펼쳤으며, 복희의 태평함과 기자의 편안함으로 해가 떠오르고 달이 차는 것처럼 큰 복록을 맞이하였도다. 병풍은 양陽의 지위에 가깝고 금으로 장식한 문은 정남쪽을 열었도다. 별자리는 북극성의 상서로운 조짐을 드러내어 태

61 십품금(十品金): 불려서 순도를 가장 좋게 만든 금이다. 엽자금(葉子金)이라고도 한다.

62 신거가 ... 있으니: 북극성이 자미원 근처에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평의 상이 있고, 선록璿錄은 정오의 운을 조짐으로 드러내어 문명의 다스림을 내었도다. 전대의 승광전承光殿과 선광전宣光殿은 사방이 함께 우러렀고, 양궐의 돈화문敦化門과 흥화문興化門은 백료가 반드시 나아갔도다. 중고시대부터 다시 수리할 겨를이 없었는데, 본 조정에서 선조의 뜻을 이을 것을 생각했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잠저潛邸에 알려져 태운泰運이 나라를 일으켰도다. 부친의 계획을 계승한 것이 처음에 있어 밝고 길하라고 명하였고, 태모의 가르침을 받들어 법도를 따르니 잘못함도 없고 잊지도 않았도다. 인효仁孝하고 영명英明한 성품이 일찍이 훌륭한 명성을 드러내어 팔방에서 모두 칭송하였고 정교와 정책이 늘 성대한 전장典章 제도에 맞아 온갖 제도가 새로워졌도다. 옥대玉帶의 오랜 계획을 살피고 화개전華蓋殿의 중건을 경영했도다. 이에 임금의 자리 미리 정해지고, 조정의 의논도 모두 같았도다. 왕실과 나라가 모두 아름다우니, 위에서 원하고 아래에 원하였으며, 조야에서 서로 경축하여 순일하고 위대하다고 모두 말했도다. 백성들의 농사짓는 때를 빼앗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대부분 자식이 부친의 일에 달려가는 것 같았도다. 공사公私에 저축한 것이 예년보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리와 인화가 오늘을 기다린 것 같았도다. 사도司徒는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기록을 살피고 태사는 정성⁶³을 점쳤도다. 크고 작은 북소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⁶⁴ 노나무에 단청을 칠하고 담에 흙을 발랐도다. 마룻대와 추녀 끝은 길함에 합치하고 천지를 본떴으며 음양을 경위로 삼았도다. 초석 하나 계단 하나 옛 법도를 바꾸지 않고 선조를 본받는데 정밀한 뜻을 맡겼으며, 사치하지도 않고 비루하지 않게 모두 중도에 맞아 후손에게 덕행을 남겨주는데 원대한 계획을 드리웠도다. 윤환輪奐은 새로운 경지를 드러내었으나 문턱과 문설주는 옛 제도를 따랐도다. 한漢 나라 건장궁建章宮의 천문만호千門萬戶가 어찌 외관의 아름다움과 장엄한 거처를 취했겠는가? 주周 나라 명당明堂의 우개좌비右個左扉는 오

63 정성(定星): 28수의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별이다. 10월이 되면 초저녁에 이 별이 북쪽에 나타나는 데 이때 농한기여서 집을 지을 수 있다 하여 일명 영실성(營室星)이라고도 한다.

64 크고 ... 지경이었고: 『시경』 「대아」에 나오는 말로 백성들이 궁궐의 공역을 즐겁게 여기니 공역을 북돋는 북소리를 그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직 법을 드리워 명령을 펼치기 위함이었도다. 푸른 기와 비늘처럼 반짝이며 신무문神武門을
 등지고 엄정하며 조각한 처마 날개처럼 가지런하며 관악산을 대하고 높이 솟았도다. 편액
 에 옛 당호를 내거니 은고리는 거둬 새롭고, 궁궐에 아름다운 기운을 보호하니 금열쇠는 더
 욱 견고하도다. 휘감는 것이 채색 무지개가 달을 마시는 형상이고 구불구불한 것이 붉은 용
 이 해를 떠받드는 모양이도다. 옥패의 조정 의식에 두 사립문을 여는데 편안하면서 위위가
 있고, 푸른 색 노끈 임금 다니는 길에는 두 바퀴 자국 단정하게 하여 평평하도다. 오대烏臺
 (사헌부)에 바람이 이니 성상소城上所의 옛터 같고 황각黃閣(의정부)이 가까우니 의연히 문하
 성門下省의 남은 법도이도다. 탁 트인 것이 꼭 내 마음 같아 흰히 뚫려 궁실과 멀지 않도다.
 혼인閼人(궁전 문지기)이 경계를 담당하니 고각高閣의 물시계 소리 깊고, 합리閤吏가 여러 신
 하들 이끌고 오니 한양의 새벽빛 푸르스름하도다. 주조朱鳥에 임하여 해 그림자 바로 하고
 금작金爵을 높이 올려 하늘 위로 오르도다. 사방에 밝고 뛰어난 인재 드러내는 공을 입으니
 일가一家의 기상이요, 성인의 가르침을 만방에 미루어 신묘함을 이루니 팔방을 뜯과 거리
 로 삼았도다. 감히 강물이 모여드는 복을 칭송하여 노을이 일어나듯 기쁜 일을 돕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낙산봉우리의 아침 해 새 궁을 비추니

駱峰初日照新宮

무성한 숲이 둘러싸서 모든 생명을 머금어

林蔥匝域含生類

절로 우리 왕의 위대한 교화에 있도다.

自在吾王大化中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찬란히 빛나는 규벽奎壁은 금빛 편액을 비추니

煌煌奎壁耀金題

수문 줄의 편안한 보고를 기쁜 마음으로 듣고

喜聽門卒平安報

안현鞍峴의 봉화 불빛 밤마다 낮게 드리우도다.

鞍峴烽火夜夜低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한수漢水가 둘러 푸른빛 쪽풀 같으니

漢水環之碧似藍

군국郡國의 주거舟車 모두 이곳에 모이며

郡國舟車都會地

은혜로운 물결 넘쳐 멀리까지 칭송하도다.

恩波洋溢頌遐覃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모악母嶽은 하늘까지 닿아 북극성을 바라보니

母嶽參天瞻駿極

북두자루 당겨 잔으로 삼아 저 당에 오르코

援斗爲卮躋彼堂

성인은 천년 억년에 축원을 올리도다.

聖人請祝於千億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천심 대하고 칭송하여 큰 복을 맞이하니

對越天心迓景貺

신하들 물러나 식사하는 것이 늘 더디고

筵臣退食每遲遲

해 기울어도 다스리는 방도를 찾는데 열심이도다.

日昃猶勤治道訪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백성들을 크게 보호하고 넓은 집에 거처하니

大庇群生居廣廈

정전正殿에 임할 때마다 격양가 들려오고

臨殿時聞擊壤聲

황운黃雲은 곳곳의 들과 밭에 가득하도다.

黃雲處處滿田野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일월의 광화光華가 사사로이 비춤 없고 우로雨露의 화육化育이 고루 적시기를. 건곤이 열고 닫을 때 집집마다 화락을 펼치시고 인의가 관건關鍵과 자물쇠 되어 자자손손 큰 상서로움을 들이시길. 빼어난 큰 기틀 새워 태산의 반석에 두며, 태평한 만세를 열고 태평성대의 춘대에 오르시길.

관부사 신 이유원李裕源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짓다.

대호군 신 신석희申錫禧가 전교를 받들어 삼가 쓰다.

동치 4년 10월 11일 술시

각색 공장은 2045명이고, 담포군은 157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6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4226냥이다.〔경주 진사 최만희崔晩喜 2000냥 2차 ○전주 전 동지同知 백동
한白東翰 9000냥 선납 ○금산 민인 등 2170냥〕

자원군은 92동에서 3879명이고, 복마는 84필이다.

12일

맑음

대가大駕가 의정부에 이르렀다.

○전교하였다.

“경복궁을 둘러볼 때 한성부 관윤(신관호申觀浩)은 와서 기다려라.”

○구일제九日製의 명관⁶⁵ 판부사判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선제⁶⁶를 단부單

賦로 예조의 장내에 내걸었다. 〈선제는〉 “정전을 중건하는데〔經始正衙〕,

백성들이 자진하여 나와 일했네〔庶民子來〕. 축수의 보배로운 술잔 올리니〔壽進寶酌〕, 화산이
상서로움을 바쳐 온다네〔華山呈瑞〕. 의정부 청사 중건 마무리되니〔重建政府〕, 구일제에 친림하
여 선비를 뽑네〔親臨試士〕.”이다.

이해 4월 석경루石瓊樓 누직樓直 박경회朴慶會가 누 옆에 우물을 파다가 구리그릇 1좌坐를
얻었다. 구리그릇의 덮개에 돌아가며 쓴 시詩가 있었다. 물 안에 있었으나 자획字畫을 분별
할 수 있었다. 구리그릇 안에는 나작⁶⁷ 한 개가 있어서 대원위에게 바쳤고 대원위가 그대로
대전에 바쳤다. 5월 4일 권강勸講 입시할 때 국왕이 책을 덮고 내시에게 내보이라고 명하고

65 명관(命官): 조선시대 알성시(講聖試), 증광시(增廣試) 등 특별한 과거를 보는 경우 국왕이 친림(親臨)하여 임명한 시험관을 말한다.

66 선제(璇題): 국왕이 직접 낸 문제나 제목이다.

67 나작(螺酌): 술잔의 한 종류이다.

그대로 전교하였다.

“이것은 석경루石瓊樓 밑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보니 기쁜 마음이 그지없다. 효성을 바쳐야 하는 도리로 볼 때 이 기쁨을 모르게 할 수 없으므로, 내각 제학(김학성金學性)과 오늘 입시한 강관講官[예조 판서 박규수朴珪壽, 동부승지 김동욱金東郁], 홍문관(교리 임효직任孝直, 가주서 고경준高景俊, 겸춘추 안익풍安益豐, 별검춘추 조강하趙康夏) 이하의 관원들은 명銘을 지어 바치도록 하라.”

김동욱이 꿇어앉아 그릇을 받은 다음 뚜껑을 열어 보니 그 속에 나작螺酌 1좌가 들어있었고, 뚜껑 안에는 돌아가며 쓴 시詩가 있었는데, “화산華山의 도사道士가 소매 속에 간직한 보배를 동방의 국태공國太公에게 바치며 축수祝壽하노라. 청우⁶⁸가 열 번 돌아 백사절白巳節 맞음에 개봉開封하는 사람은 옥천옹玉泉翁이라.(옥천옹은 박경회朴慶會의 별호別號이다.)”이며, 중앙에 ‘수진보작壽進寶酌’ 네 글자가 있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그 그릇을 받들어 감상하였다.

박규수가 아뢰었다.

“일이 우연하지가 않으니, 삼가 물러가서 내각 제학과 함께 명銘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뜻을 살펴보면, 대원군에게 바쳐 축수하면서 태공太公에 비유한 듯한데, 대원군은 바로 전하의 사친私親이십니다. 또 당唐과 송宋 나라 사람들의 말에 국가의 존속尊屬을 국태공이라 하는데, 지금 이 시어詩語는 아마도 국태공에게 바치며 축수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알司謁에게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였다.

“수진보작을 찾아 바친 사람에게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해조該曹에서 이름을 물어본 뒤 오위장五衛將을 구전으로 가설 단부加設單付하여 들이도록 하라.”

○병조에서 구전으로 정사하여 박경회朴慶會를 오위장에 가설 단부하였다.

○수진보작기壽進寶酌記(도승지 김세호金世鎬가 지었다.) 및 연설筵說과 제학提學, 강관講官 이하 옥당玉堂이 지은 명銘은 모두 인출印出하여 성첩成帖한 후, 시원임대신, 각신閣臣 및 여러 종정景宗正卿, 승지와 사관, 옥당 및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의 수신守臣에게 각 1첩씩을 반포하였다.

68 청우(靑牛): 도교에서 신선들이 타고 다닌다는 소를 말하는데 신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이 법궁의 상수궁^{上守宮}에서 둘러보며 전교하였다.

“영건도감 도제조 이하를 입시하게 하고, 한성부 판윤도 함께 입시하도록 하라.”

국왕이 편여^{便輿}를 타고 교태전에서 강녕전을 두루 보고 광화문에 이르러 부계^{浮階} 위에 올라갔다. 이후 수궁으로 돌아가 시권^{試卷}을 들이라 명을 내리고 100인을 뽑으셨다. 부^賦에서 삼하⁶⁹한 진사 서상준^{徐相駿}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고, 유학 김종한^{金宗漢} 등 4인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하고, 차상^{次上}한 유학 민종묵^{閔鍾默} 등 15인은 모두 2분⁷⁰을 주고, 유학 이택신^{李宅信} 등 15인은 1분^{一分}을 주고, 이민수^{李民秀} 등 65인은 『규장전운』⁷¹ 각 1건을 내려주었다.
○전교하였다.

“지난번에 봉화백⁷²의 사손^{祀孫}을 초사^{初仕}에 의망해 들이는 일로 성명^{成命}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궁궐을 찾아오니 정전^{正殿}이 차례로 중건되어 지금의 감홍은 더욱 남다르다. 사손을 세우는 절차는 예조에서 당해 종파^{宗派} 문장^{門長}을 불러들여 속히 바로잡을 수 있게 하라.”

○전교하였다.

“호군^{護軍} 유후조^{柳厚祚}를 지돈녕^{知敦寧}으로 제수하라.”

○전교하였다.

“담도군과 공장^{工匠}에게 본 도감으로 하여금 견호궐을 넉넉히 분급하게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의 견호궐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공장 2283명에게 한 명당 돈 2

69 삼하(三下): 과거(科擧)의 시권(試券)에 매기던 등급 가운데의 하나이다. 등급은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로 나뉘어져 있었다.

70 2분(二分): 조선시대 문과 삼장(三場)의 분수(分數: 점수)를 의미한다. 조선 태종대 예조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삼장의 분수법을 규정하였는데, 초장(初場)에서 대통(大通)을 3분(分) 5리(里), 통(通)을 2분, 약통(略通)을 1분, 조통(粗通)을 5리(里)로 하였다. 『태종실록』 태종 17년 윤5월 14일 참조.)

71 『규장전운(奎章全韻)』: 조선 후기 이덕무 등이 2권 1책으로 편찬한 한자 운서(韻書)이다. 조선의 한자음과 중국의 한자음을 함께 표시한 운서로, 1796년(정조20)에 간행하였다.

72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을 말한다. 1396년(태조5) 정도전을 봉화백으로 봉하였다.

전씩, 담모군 1562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도합 돈 612냥 8전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전교하였다.

“식일式日에 대령한 패장牌將에게 각 군영에서는 무명 2필과 씨를 제거한 목화 2근씩을 지급하게 하라.”(38인)

○전교하였다.

“부역하는 방민坊民은 관윤이 위문하게 하고, 각처 공장은 본 도감의 도청이 분담하여 위문하고 오게 하라.”

○전교하였다.

“어가를 뒤따랐던 군병에게는 각 군영에 명하여 건호케하도록 하라.”

○손시巽時에 출궁하여 신시申時에 환궁하였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8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1278냥이다.(덕원 민인들이 냈다.)

자원군은 21동에서 9987명이다. 올 때 거의 모두 잡석雜石 1짐을 가지고 이르렀다.

13일

맑음

이날 의정부가 전문箋文을 올렸다.〔10일 사찬賜饌이 있었고, 12일 의정부에 친림하였으므로 이 같은 사전謝箋이 있었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난번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의 시량선⁷³을 붙잡아 두지 말라는 일로 행

73 시량선(柴糧船): 땔나무와 식량을 운반하는 배이다.

회行會 한 바가 있었다. 지금 들으니 연강에서 일부러 트집을 잡는 일이 다시 예전과 같다고 한다. 지금 얼음으로 막히는 때가 임박하였는데 서울 안팎으로 겨울을 지낼 물자가 만약 운반이 막힌다면 끝내 말하기 어려운 근심에 이를 것이니, 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히 관문으로 도내道內 연강 상하 여러 곳에 신칙하여 일부러 트집을 잡는 폐해를 일절 금단하고 왕래하는 데 장애가 없게 한 후 상황을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라.

인천부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쓸 재목을 बे기 위해 차인差人을 정해 본부 경내의 음실陰室, 방곡坊谷, 구미九味, 후음後陰 여러 곳의 사양산 일대로 내려보낸다는 내용을 전에 이미 관문으로 보냈다. 관문이 도착한 이튿날 백성을 움직이는 것은 폐단이 많다고 핑계를 대면서, 어떤 난류⁷⁴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며 사사로이 베어내다 팔았다고 하니 듣고서 매우 놀랐다. 농간을 부린 놈은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이 명령이 있기 이전의 일이므로 불문에 붙인다. 그러나 이미 베어낸 나무들은 모두 관아에 귀속시키기 위해 별도로 일을 맡아 처리할 사람과 목수를 정해 다시 내려보내니 각종 목물 중 쓸 만한 것은 그루의 수를 상세히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라. 나머지 가지와 잎사귀, 쓰지 못하는 나무는 제반 부비⁷⁵로 쓰기 위해 모두 지급하니, 다시 번거롭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광주부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연장을 제련하는 데 들어가는 백탄白炭은 본 부 상변천上樊川 이호연李浩淵의 사양산에서 사서 가져가려 하니, 즉시 벌목을 허락해 전념하여 거행케 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61명이고, 담모군은 139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68냥이다.

74 난류(亂類): 질서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함부로 하는 무리를 이른다.

75 부비(浮費):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돈을 말한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2004냥 5전이다.〔현풍 민인 5000냥 ○부안 진사 박도진朴燾進 2000냥 선
 납 ○전 첨지 박돈행朴敦行 1000냥 2차 ○북청 민인 1만 1000냥 ○이명규李命揆 7000냥 2차 ○유곡幽谷 소속
 역민驛民 1900냥 ○교하 민인 1113냥 ○연기 민인 1046냥 5전〕
 자원군은 104동에서 4765명이며, 복마는 80필이다.

14일

맑음

각색 공장은 2054명이며, 담포군은 139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8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650냥이다.〔비인 이민吏民 2040냥 ○지례 민인 1950냥〕

자원군은 60동에서 1만 766명이며, 복마는 88필이다.

15일

맑음

각색 공장은 1976명이며, 담포군은 134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890냥이다.〔철원 민인 1050냥 ○이인항李寅恒 5000냥
 2차〕

자원군은 22동에서 1084명이며, 복마는 88필이다.

16일

미우微雨가 내리다
 가 저물녘 갸

각색 공장은 1920명이며, 담포군은 134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3618냥 5전이다.〔원주 출신 함의정咸義正 1000냥
 2차 ○황운환黃雲煥 2000냥 ○영흥 민인 2만 547냥 5전〕

자원군은 14동에서 561명이며, 말은 85필이다.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감영 소속의 결성포結城浦, 애곶포艾串浦는 한 고을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는 지역이어서 각 아문의 진상進上 및 많은 수운의 공역을 본 포浦에서 거행하였다. 그런데 배를 붙잡으라는 명령이 있을 때마다 이른바 포의 감고監考들이 관령官令을 빙자하여 뱃사람들을 침학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지자 각 처處의 상선商船들이 모두 들어오지 않아, 포구 하나가 거의 패잔敗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예전부터 있어 온 폐해인데 여기에 더하여 지금 막중한 국역으로 인해 박석磚石을 운반하는 일이 너무나도 크니, 쇠잔한 포구의 뱃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일의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어찌 가없지 않겠는가. 마침 해당 포구의 백성 우양범禹陽範이 선주인⁷⁶들과 계획하고, 배 세 척을 사서 영건소營建所에 원납하여 본 포에서 공역에 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아문의 차역⁷⁷은 그들이 스스로 담당하여 거행케 하고, 박석을 운반하는 공역은 뱃사람에게 거행케 한다면 봉공奉公과 차역이 각기 구별되니 뱃사람은 다시 역이 중첩되는 염려가 없을 것이고, 포구는 배를 붙잡는 폐단이 영영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主人은 곧 선주船主로서 선주와 주인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한다면 나라의 공역을 실행하는 데에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번에 배를 사서 원납하는 계획은 한편으로는 포구의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뱃사람의 역을 줄이는 것이 되며, 한편으로는 장사꾼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폐단을 없애는 세 가지 큰 정사이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마땅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원위의 분부에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어라.’ 하였다. 이에 관원을 차정하고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포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해 엄히 신칙해 하루빨리 시행토록 하라. 앞의 배 세 척은 본부로 이속시켜 제반 차역을 영구히 담당케 하라는 뜻으로 규식規式을 정하고,

76 주인(主人): 조선 후기 독립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특정 업무의 담당자를 말한다. 세곡(稅穀)의 봉납(奉納)을 관장하는 창주인(倉主人), 세곡주인, 식주인(食主人), 선주인(船主人) 등이 있었다.

77 차역(差役): 등급에 따라 역부(役夫)를 징집하여 역역(力役)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박석은 뱃사람에게 거행하게 하여 혹 역이 중첩되어 원망하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하라. 실
어 보낼 때에 해당 주인은 착실히 살펴서 바치러 오는 데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되 관문
이 도착하는 일시와 거행하는 형세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80명이며, 담모군은 1333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012냥이다.[황해 병사 이종승李鍾承 3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4221냥 4전이다.[태인 민인 1만 3522냥 4전 ○영동 민인 3000냥 ○명천
민인 1000냥 ○육상궁⁷⁸장무掌務 이정우李鼎禹 3000냥 ○김두환金斗煥 3000냥]

자원군은 19동에서 763명이다.

18일

맑음

각색 공장은 1960명이며, 담모군은 134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8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만 260냥이다.[남원 출신 노광윤盧光潤 500냥 2차 ○
광주 유학 이정원李廷遠 3000냥 ○태인 진사 김상홍金相洪 3만 냥 2차 ○임치정任致禎
5000냥 4차 ○저포전苧布廬 시민市民 이인항李寅恒 500냥 2차]

자원군은 15동에서 597명이다.

19일

맑음

팔도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각 도에서 부역赴役 할 민인을 올려보내지 말 것을 전에 여
러 차례 번거롭게 관문으로 신척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자원하여 부역하는 자가 한결같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에 또 관

78 육상궁(毓祥宮):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청와대 경내 서쪽 끝의 칠
궁 안에 있다.

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각 해당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농사를 그만 두어 때를 잃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이 같이 신칙한 후에도 만약 다시 예전의 버릇을 좇아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올라오는 폐단이 있으면 단연코 위령난민지율(違令亂民之律)을 시행할 것이니, 예사로이 여기지 말고 유념하여 거행해서 이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영⁷⁹에 보내는 관문

도내 원산(元山)에 사는 남이숙(南履夙)에게 있는 구리(銅) 3만여 근은 경인(京人)이 〈그에게〉 맡겼다가 본 도감의 역소로 들여와 원납하려던 것이다. 이미 차인(差人) 김지현(金祉鉉)을 위임하여 보내서 그에게 받아 오도록 하였는데, 근 20일이 되도록 오히려 소식이 없으니 일이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럽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그 숫자대로 해당 차인에게 내주어 편의에 따라 구획할 일을 남가(南哥)에게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고,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970명이며, 담포군은 136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815냥이다. [정산 민인 1000냥 ○전 도사 강기환(姜琦煥) 3000냥 3차 ○전 수문장 박중수(朴重秀) 1000냥 2차 ○밀양 민인 등 7000냥]

자원군은 26동에서 818명이다.

○북한산성의 승도(僧徒) 30명이 각각 잡석 1짐을 가지고 총섭(總攝)의 통솔 하에 왔다.

○남문(南門) 안 태평동(太平洞) 군인 70명이 13일간 부역하였다. 남문에서 거두어들인 잡석을 자원해서 운반해 와 수궁(守宮) 앞에 쌓았다. 무릇 각 문에서 돌을 거두어들일 때 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쌓아 놓은 것은 한 부분에서 쓸 수 있을 만하다.

79 북영(北營): 함경도는 국경지대로서 다른 도와 달리 병사(兵士)의 군영이 2군데 설치되었다. 본문의 북영은 함경도 북쪽에 설치된 북병영이 아니라 남병영으로 보인다.

20일

맑음

각색 공장은 1960명이며, 담모군은 136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1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713냥 4전이다.[절충 임준성 林峻成 1000냥 2차

○저포전 시민 이순영 李舜榮 1000냥 2차 ○하규성 河奎星 정철 正鐵 200근, 하계성 河啓星

500근 ○평산 수령 홍신규 洪愼圭 2000냥 ○황해 감사 홍순목 洪淳穆 3000냥 2차 ○이열

오 李烈五 1000냥 2차 ○입전 立廉 시민 김재범 金在範 500냥 2차]

자원군은 22동에서 658명이다.

21일

맑음

각색 공장은 2036명이며, 담모군은 13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905냥이다.[홍산 민인 3000냥 ○박일환 朴一煥

500냥 2차 ○절충 유승현 劉升鉉 2000냥 ○충용청 교련관 김익상 金益相 2000냥 2차 ○

한량 주희완 朱熙完 1000냥 2차 ○출신 송덕립 宋德立 1000냥 2차 ○전 동지 한만형 韓萬

衡 500냥 2차]

자원군은 18동에서 1600명이다.

22일

맑음

묘시 卯時에 천추전에 정초 定礎 하였다. 고사 告祀 때 진설한 것은 돈 50냥,

백목 白木 10필, 백미 白米 2섬이며, 나머지는 다른 전殿과 같다.

○영추문 현판이 완성되었다. 백질 白質에 묵서 墨書이다.

각색 공장은 2127명이며, 담모군은 163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8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3501냥 4전이다.

[수원 유수 조득림 趙得林 2000냥 ○전 첨정 함봉석 咸鳳錫 500냥 2차 ○길주 최항률 崔恒律 2000냥 선납 ○전 오

위장 홍취원洪就源 문중문門中 550냥 2차 ○전 침지 강복현姜宓鉉 1000냥 2차 ○박대영朴大永 500냥 2차 ○전 동지 이동근李東根 1000냥 2차 ○위원 민인 3183냥 2전 ○내수사 별제 김영묵金英默 3000냥 2차, 고부 유학 박성근朴成根 정철正鐵 2000근 선납]

자원군은 17동에서 650명이다.

23일

맑음

신무문의 지붕을 완성하였다. 외홍예外虹霓는 금위영이 쌓았으며, 내홍예內虹霓는 어영청이 쌓았다. 문루門樓는 어영청이 세웠고, 보계는 금위영이 동쪽을 쌓았고, 어영청이 서쪽을 쌓았다. 지세地勢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동서 모두 월대月臺를 만들고 석란石欄을 세운 뒤 그대로 보계를 쌓았다. 모두 15층이다.

[동남문東南門의 보계步階는 21층이며, 서문西門은 23층이다.] 이날 현판을 달았는데 묵질墨質에 백서白書이다.[서사관은 충용사 이현직李顯稷이다.]

각색 공장은 2179명이며, 담모군은 17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9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930냥 8전이다.

[옥천 민인 3000냥 ○상주 민인 1060냥 ○이운상李雲祥 500냥 2차]

자원군은 18동에서 3662명이다.

○사촌리沙村里는 3일간 예목군曳木軍 3072명을 냈다.

○삼등三登의 유학幼學 장천경張天擎이 50명을 내어 10일간 부역하였다.

24일

맑음

묘시卯時에 함원전, 인지당麟趾堂에 입주立柱하였다.[전당殿堂이 이미 모두 완성되어 다만 기둥 밑을 지지하는 편목을 제거하였다.]

각색 공장은 2169명이며, 담모군은 17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229냥 3전이다.[김응두金應斗 500냥 2차 ○음성 민인 1000냥 ○명례궁明禮宮

소차지⁸⁰ 남맹갑南孟甲 500냥 2차]

자원군은 17동에서 497명이다.

25일

맑음

자미당⁸¹의 터를 닦았으며, 창덕궁 자경당⁸²의 재목을 옮겨 <자미당>을 지었다.

각색 공장은 2238명이며, 담모군 193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6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937냥이다.[각감⁸³ 박민호朴敏浩 500냥 2차 ○대흥 민인 3000냥 ○어의

궁 장무掌務 양성한梁成漢 3000냥 ○홍원 전 참봉 박인희朴寅羲 5000냥 2차]

자원군은 19동에서 553명이다.

80 소차지(小次知): 궁가(宮家)의 사무를 맡아보던 실무자 중 하나이다.

81 자미당(紫薇堂): 경복궁 교태전 동쪽에 있었던 소침(小寢)이다. 조선 전기에 교태전을 중심으로 함원전과 대칭을 이루어 건설되었다. 경복궁 중건시에는 자미당과 인지당이 교태전과 자경전 사이에 남북으로 배치되었다.

82 자경당(慈慶堂): 1777년(정조1)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창덕궁에 지었다.

83 각감(閣監): 조선 정조 때 설치된 규장각의 잡직(雜職) 2명을 두어 역대 국왕이 지은 글이나 임금의 글씨, 초상화, 고명(顧命) 등을 봉안한 곳을 지키도록 하였다. 일종의 군직(軍職)으로 대체로 중인(中人)이 임용되었다.

26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자경당을 자미당으로 이건_{移建}할 때 각 향의 길한 일시를 일관_{日官}에게 골라서 택하게 하니 자경당 철거는 이번 10월 29일 신시, 자미당 정초_{定礎}는 오는 11월⁸⁴ 22일 오시_{午時}, 입주_{立柱}는 오는 12월 3일 축시_{丑時}, 상량_{上樑}은 12월 15일 축시가 모두 길하다고 하여 이 일시에 거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초기_{草記} 내용 중 자미당의 미_微자는 미_微자로 고쳐 부표_{付標}하였다.

○사문_{四門}의 수문장청_{守門將廳}이 모두 공역을 시작하였다.

각색 공장은 2195명이며, 담포군은 202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9냥이다. 이연호_{李然浩} 백지_{白紙} 200권.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7303냥이다.〔전 첨정 박도원_{朴道源} 500냥 2차 ○부여 민인 3000냥 ○김용구_{金龍九}, 김봉구_{金鳳九} 각 500냥 2차 ○윤효식_{尹孝植} 500냥 2차 ○여주 민인 7538냥 2차 ○승정원 서리 등 500냥 2차 ○지례 민인 1200냥 2차〕

자원군은 20동에서 553명이다.

27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자미당의 상량문 제술관, 서사관, 현판 서사관의 별단_{別單}을 써서 들입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84 『승정원일기』 고종 2년 10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자미당의 정초(定礎)는 11월 22일 오시로 되어 있는데, 『경복궁영건일기』에는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정초, 입주, 상량의 시기로 판단했을 때 이는 오류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의 기사에 의거하여 11월로 번역하였다.

자미당 상량문 제술관은 윤치희尹致義, 서사관은 이승보李承輔, 현판 서사관은 김세균金世均이다.

각색 공장은 2193명이며, 담모군은 202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40냥이다.[이홍섭李鴻燮이 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745냥 5전 5푼이다.[용궁 민인 2451냥 ○경주 민인 7941냥 7전 5푼]

자원군은 17동에서 497명이다.

28일

맑음

진춘문, 영추문의 문루, 좌우 월문月門의 지붕이 완성되었다. 동·서·북 삼문三門의 월문은 모두 벽석壁石으로 축성하였고, 오직 광화문 문루와 동서 십자각만은 돌 두 덩이를 합해서 만들었다. 문판門板과 문선⁸⁵ 곧 월문들은 모두 나무로 하였다. 광화문 월문은 길이 6자 5치, 너비 4자 2치이며, 십자각은 길이 6자 2치, 너비 4자이다.

경기 감영, 전라 감영, 개성부에 보내는 관문

전라도 가리포진加里浦鎭 구역 내에 있는 완도莞島에 지정한 주량목柱樑木 8그루를 실은 배 3척이 풍파로 부서져 각 고을의 포구浦口에 떠내려와 표착했다. 실어 보낸 나무의 수, 건져 둔 고을 이름, 선주船主의 성명을 이에 후록하여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각 읍에서는 튼튼한 배를 붙잡아다 즉시 신속하게 수납하여 배가 물에 얼어붙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후록後錄

홍양興陽의 선주船主 김서인金西仁이 실어 온 나무

85 문선(門扇): 문짝을 지탱하도록 문 양쪽에 세운 기둥이다.

1그루는 길이 40자, 끝지름 1자 9치이며, 통진부通津府 마근포麻近浦에 건져 두었다.

1그루는 길이 28자, 끝지름 1자 7치이며, 교하군交河郡 신오리新五里에 건져 두었다.

1그루는 길이 20자, 끝지름 1자 8치이며, 개성부開城府 해암포蟹岩浦에 건져 두었다.

진도珍島의 선주 문사원文士元이 실어 온 나무

1그루는 길이 22자, 끝지름 1자 7치이다.

1그루는 길이 17자, 끝지름 2자이며, 남양부南陽府 엿벌포熬漚浦에 건져 두었다.

제주濟州의 선주 고정순高貞巡이 실어 온 나무

2그루는 각각 길이 17자, 끝지름 2자이며, 옥구현沃溝縣 요죽포撓竹浦에 건져 두었다.

각색 공장은 2289명이며, 담모군은 225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955냥이다.[절충 박만영朴萬英 500냥 2차 ○출신 이동식李東植 2000냥 ○길주

신득만申得萬 1000냥 ○길주 심득하沈得河 1000냥]

자원군은 27동에서 892명이다.

29일

맑음

예조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지난번 봉화백(정도전)의 사손祀孫을 세우는 절차는 예조에서 해당 종파宗派의 문장門長을 불러서 속히 바로잡도록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서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선 문장이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 명백하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장이 누구

인지 알 수 없어 사손을 결정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다시 지방에 있는 여러 종파가 올라와서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2299명이며, 담모군은 225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1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920냥 2전 6푼이다. [금구 전 참봉 장한진張漢軫 1000냥 2차 ○박해명朴海明 1300냥 2차 ○내수사 별제 지흥수池興洙 2000냥 2차 ○의정부 서리 등 500냥 2차 ○서흥 민인 3725냥]
자원군은 17동에서 2701명이다.

○양주楊州 20면^面 가운데 세 면의 민정民丁이 순흥順興에서 오는 나무 3개를 끌었으며, 17면의 민정은 광릉光陵에서 벤 대량목大樑木 13개를 끌었는데, 양주 수령 임한수林翰洙가 인솔해 왔다. 본 도감에서 나무를 끌고 온 민정들에게 100냥을 행하⁸⁶하였다.

30일

맑음

영암 군수 이규안李奎顔은 공적이 많아 가장 두드러지고 칭송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녹봉을 털어 재목을 운송한 것이 적지 않아 특별히 가자加資 하고 영장 이력營將履歷을 허용하였다.

각색 공장은 2420명이며, 담포군은 223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93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188냥이다. [성현省峴 민인 1000냥 ○결성 민인 1000냥 ○진주 유학 성석주成奭柱 3000냥 2차 ○옹리瓮里 김연풍金連豐 500냥 3차 ○안동 김기황金基璜 500냥 선납]
자원군은 15동에서 747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10월 한 달 동안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48만 4452냥 6전 3푼이며, 종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만 840냥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86 행하(行下): 조선시대 경사가 있을 때 주인이 하인에게 물건이나 금품을 내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0월 한 달 각색 공장은 6만 3046명이며, 담포군은 4만 7667명이다.
자원군은 763동에서 도합 6만 2551명이다.

을축년¹⁸⁶⁵, 고종2 11 월

1일

미설^{微雪}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2645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 2818명에게 한 명당 5푼씩, 도합 돈 405냥 4전을 나누

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석수^{石手} 한 명이 매번 못을 다듬어 뾰족하게 만들 때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꿔서 몰래 주머니나 전대에 넣다가 이때 적발되었다. 엄히 곤^梃 15대를 치고 복을 지워 조리를 돌렸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7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550냥이다.(경주 민인 6170냥 ○혜민서 전 직장 최규순^{崔圭珣} 1000냥 2차 ○상주목 민인 800냥 ○강진 민인 4340냥 ○선혜청 고지기 등 1000냥 2차)

자원군은 13동에서 792명이다.

동서 십자각東西十字閣의 터를 닦았다.[길이, 너비 모두 30자이다.]

○교태전 대청의 송각崇閣(반자), 단청 공역을 마쳤다. 붉은 색을 바탕으로 하고 당청⁸⁷으로 ‘희희’자를 쌍으로 썼다. 이후 모든 전각의 송각의 글자는 혹은 같게 하거나 혹은 다르게 하였다. 강녕전은 당수복唐壽福으로, 함원전은 화판花板으로, 인지당은 ‘아亞’자로 천추전千秋殿은 ‘수壽’자 전자篆字로 하였다. 만춘전은 □□로, 자미당은 쌍희雙禧로 하였다. 자경당(금錦자 전자篆字로, 청연루淸讌樓는 쌍희雙喜이다), 흥복전⁸⁸은 육화六花, 사정전 또한 육화로 하였다. 근정전(쌍봉雙鳳으로, 퇴는 육화이다), 흥경각은 쌍희雙喜, 상희당은 육화, 양덕당은 팔연八蓮, 자선당⁸⁹도 또 팔연, 만녕전,⁹⁰ 만화당,⁹¹ 수정전은 백수백복百壽百福, 경회루는 초룡草龍, 청연루의 별전, 만경전의 별전은 모두 육화이다.

각색 공장은 2457명이며, 담모군은 240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4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1508냥이다.[남원 민인 2490냥 ○명천 유학 한종윤韓宗潤 3000냥, 김기옥金基玉 1500냥 ○전라 좌수영 민인 1638냥 ○함평 민인 1450냥 ○여산 수령 민의용閔義鏞 500냥, 민인 3000냥 ○춘천 유학 송문진宋文晉 1000냥 2차 ○경상 좌병사 김기석金箕錫 2000냥 ○부안 민인 300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417명이며, 복마卜馬는 20필이다.

87 당청(唐靑): 중국에서 나는 푸른 안료이다.

88 흥복전(興福殿): 경복궁 중건 시에 아미산(峨嵋山) 북쪽에 지은 침전이다.

89 자선당(資善堂): 1427년(세종9)에 세자인 문종(文宗)의 처소로 건립되었다. 세자와 세자빈이 함께 거처하는 동궁(東宮)이었기 때문에, 동궁전(東宮殿)으로도 불렸다.

90 만녕전(萬寧殿): 『경복궁영건일기』에는 ‘萬寧殿’으로 쓰고 나서 ‘寧’ 글자 위에 작은 동그라미 먹칠로 지워두었다. ‘慶’자로 고치지는 않았지만, ‘만경전(萬慶殿)’의 오기로 보인다. 만경전은 경복궁 중건 시에 지은 건물이다. 개항 이후에는 각 국 공사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쓰였다.

91 만화당(萬和堂): 경복궁 중건시에 지은 건물이다. 이후 1897년(고종34)에는 경운궁(慶運宮)에 옮겨 건립하였다.

3일

맑음

어영청이 누주석樓柱石 1괴塊를 동소문東小門 밖에서 떠서 대차大車에 실어 가우駕牛 45척으로 운반하였다. 이날부터 차부車夫 1명당 1전錢씩 행하行下하였다. 무릇 각 군영이 운반하는 누주석은 이때부터 모두 수레로 실어 운반하였다. 비록 가파른 언덕, 좁은 길을 내려갈 때가 있었지만 가우의 반은 순順방향으로, 반은 역逆방향으로 하여 급하게 내려오는 근심을 없애 운반이 매우 편하게 되었다.

○훈련도감 수레의 원수元數는 40량輛이나 10량을 더 만들었고, 금위영와 어영청 수레의 원수는 각각 30량이나 각각 10량을 더 만들었으며, 한성부 수레의 원수는 20량이나 34량을 더 만들었다.

각색 공장은 2504명이며, 담모군은 224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357냥 9푼이다.[보성 민인 1만 2150냥 ○양주 유학 남락원南樂元 1000냥 ○영해 민인 1400냥 ○상주 민인 2000냥 ○남포 민인 2000냥 9푼]

자원군은 17동에서 341명이다.

4일

맑음

사문四門의 양판,⁹² 단청이 모두 완성되었다. 광화문 어간문御間門의 양판에는 쌍봉雙鳳을 그리고, 서협문西挾門은 낙귀부서洛龜負書, 동협문東挾門은 하마부도河馬負圖, 건춘문은 쌍룡雙龍, 신무문은 쌍구雙龜, 영추문은 쌍린雙麟을 그렸다.⁹³

92 양판(仰板): 홍예개판을 가리킨다. 안팎의 홍예문 사이 천장의 나무 널판이다. 여기에 상징적인 채색화를 그려넣었다.

93 광화문...그렸다: 경복궁의 사대문에 그려진 서수(瑞獸)들은 현재 단청 그림으로 남아 있다. 광화문의 쌍룡, 낙귀부서, 하마부도 등은 2010년에 완성한 것으로, 1968년에 그려진 것을 모사하여 복원하였다.(문화재청, 2011, 『경복궁 광화문권역 중건보고서』)

○훈련도감 대장 임태영(任泰瑛)이 16냥 1전 5푼을 광화문 역소(役所)의 패장, 공장, 담모군 등에게 내려 주고, 7냥 1전을 십자각(十字閣) 역소에 내려 주었다.

각색 공장은 2492명이며, 담모군은 240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471냥이다.(금천 역민(驛民) 2022냥)

자원군은 18동에서 546명이며, 복마(卜馬)는 20필이다.

5월
맑음

이날은 동지이다.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2693명에게 한 명당 1전씩, 담모군 2731명에게 한 명당 5푼, 도합 돈 405냥 8전 5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 담모군은 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1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6430냥이다.(금군 최경운(崔景雲) 연목(緣木) 100개 ○삭녕 민인 3075냥 ○철산 민인 2만 2120냥)

자원군은 16동에서 595명이다.

야직^{夜直}하는 당상과 낭청 및 패장, 서리에게 이날부터 10일 밤까지 계속 음식을 내려 주었다.

예조에 보내는 이문

이번 영건 때 담기⁹⁴에 쓸 회목^{檜木}은 효창묘⁹⁵ 의소묘⁹⁶에 있는 것을 100개를 베어 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막중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지체 없이 베어낼 수 있도록 본 묘에 알리도록 할 것.

김포군^{金浦郡}에 보내는 관문

이번 큰 비로 영건의 목물^{木物}이 모두 떠내려갔으므로 별도로 정성득^{鄭聖得}을 차정^{差定}하여 그를 내려보내 찾아오도록 하였다. 지금 대부분 살살이 찾아 운반해 왔으나 그 가운데 몸체가 큰 나무 3개는 행주^{杏洲} 강변에서 잃어버렸는데 본 군 운양리^{雲陽里}에 사는 백성이 쪼개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해당 패장이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니 해당 동^洞에서 허전장령⁹⁷이라는 핑계를 대며 관아에 소장을 내 그를 잡아 구류^{拘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막중한 목물을 그들이 이미 어렵게 여기지 않고 훔쳐서 은닉해 놓고는 알리지 않았고, 지금 드러난 후에는 동임^{洞任}을 부추겨서 관인^{官人}을 잡아 가두고는 작당해서 위협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니 어찌 이같이 무엄한 민습^{民習}이 있단 말인가. 이놈은 결코 예사로이 둘 수 없으니 본 군에서 별도로 장라^{將羅}를 정하여 이놈과 운양리 동민^{洞民}을 함께

94 담기(擔機): 짐을 운반하는 들것이다. 두 사람이 들고 나를 수 있도록 나무 손잡이 두 개를 놓은 다음에 질긴 줄을 엮고 그 사이도 적당한 간격으로 엮어서 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95 효창묘(孝昌墓): 정조의 원자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이다. 당시는 경기 고양군(지금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효창공원 내)에 있었고, 1870년(고종7)에 효창원(孝昌園)으로 승격하였다. 1944년에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경내로 이장하였다.

96 의소묘(懿昭墓): 사도세자의 큰아들로 왕세손에 책봉되었으나 3세로 세상을 떠난 의소세자(懿昭世子)의 묘이다. 1871년(고종8)에 의령원(懿寧園)으로 승격되었다.

97 허전장령(虛傳將令): 장수나 윗사람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한 것을 말한다.

즉시 본 도감에 잡아 올려 특별히 징계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구류된 해당 패장에 대해서는 동민들을 엄히 신칙하여 즉시 풀어주도록 하라.

경기 감영 및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도감에서 쓸 각종 목물은 이미 통영統營에서 지정하여 그중에서 14그루는 먼저 도착할 예정이며 나머지 200여 그루는 이번 달 안으로 마땅히 경강京江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나 목물을 실은 배가 모두 해당 도道의 조운선漕運船이므로 지금 만약 다시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내년 봄 조운에 반드시 낭패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형세 상 지토선地土船과 지나가는 선척을 빌려서 목물을 분배해 싣고 신속하게 경강으로 운반하도록 하라. 임대한 배를 붙잡을 때 관官에서 힘을 쓰지 않으면 거행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연강沿江 각 읍에 신칙하여 배를 붙잡는 것과 실어 운반하는 등의 절차는 별도로 교리校吏를 정해 함께 거행하여 잠시라도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거듭 명확하게 알리고 거행한 상황은 날날하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인제현麟蹄縣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에 쓸 목물에 대해 값을 지급해서 베어내기 위해 차인을 정해서 본 현의 포곡浦谷 등지로 내려보내서 그가 신속하게 베어오도록 하였다. 지금 들으니 가리장加里匠들이 몸체가 큰 목물을 거리낌 없이 독점하고 모두 베어버렸다고 한다. 막중하게 사용할 것을 이유 없이 베어내서 낭패하게 되었다고 하니, 어찌 이같이 무엄한 습속이 있단 말인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추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관에서 별도로 교리를 정해서 이른바 가리장이라는 놈들을 하나같이 모두 내쫓아 다시는 포곡 근처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오로지 목물을 사들이는 데에 힘을 쓰도록 하라. 거행한 상황은 즉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505명이며, 담포군은 239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73냥 5전이다.(유학 이병형李秉馨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4616냥 6전이다.(가평 유학 신복여申福汝 1000냥 ○수원 유학 최덕수崔德

修 1000냥 ○포천 유학 정해중鄭海重 형제 백탄白炭 30석 ○함흥 민인 2만 1100냥)

자원군은 15동에서 550명이다.

7월

맑음

본 도감 낭청 10원員 내 5원(임면수林冕洙, 김헌진金獻鎭, 홍배후洪配厚, 홍재원洪在元, 정유수鄭楡秀), 감조관監造官 9원 내 5원(임경준任慶準, 정직용鄭稷容, 이석응李錫應, 이준영李俊永, 이만시李晩著)을 부묘⁹⁸(철종哲宗을 태묘太廟에 부묘하였다.) 및 존숭尊崇(삼전三殿의 존호를 올렸다. 대왕대비전은 순화純化, 왕대비전은 홍성弘聖, 대비전은 휘성徽聖이다.) 도감소都監所로 옮겨 차정하였다. 이날부터 낭청

5원, 감조관 4원이 매일 1원씩 돌아가면서 입직入直하였다.

○묘시卯時에 천추전千秋殿에 입주立柱하였다.(입주식은 위에 보인다.)

각색 공장은 2472명이며, 담모군은 230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0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5644냥 3전이다.(교하 내시內侍 김원학金元鶴 탄炭 50석 ○경성 유학 김중환金重煥 1000냥 ○곤양 진사 조기용趙基鏞 2000냥 선납 ○부사과 조용규趙龍圭 2000냥 선납 ○석성 이민 3209냥 3전 ○길주 양반 안희일安禧一 1600냥 2차 ○구례 양반 김상형金相滢 1000냥 2차 ○구례 전 오위장 김치환金致桓 3000냥 2차 ○영천 민인 1만 냥)

자원군은 16동에서 450명이다.

98 부묘(祔廟): 3년 상을 마친 뒤에 국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을 말한다.

8월
맑음

각색 공장은 2512명이며, 담모군은 221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9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209냥이다.[서산 전 장령 한영조韓永祖 2000냥 ○평해

유학 이계천李啓千 3000냥 2차 ○울산 수령 조연승曹演承 1000냥]

자원군은 17동에서 577명이다.

9월
맑음

광화문에 부계浮階를 설치하였다. 녹로군輓轡軍 31명, 담군擔軍 215명, 목수와 석수 각 20명, 기계장機械匠 3명이 대종大鐘(동대문 안에서 가져 온 종)을 문루로 끌어올려 이에 214냥 4전을 내려 주었다.

○이날 대원위가 광화문 문루에 나갔는데 마침 선천宣川에서 와서 흰 꿩[白雉]을 바치므로 그대로 대전에 바쳤다.[이때 또 회양淮陽에서 올린 흰 꿩이 있었으며, 진천鎭川 또 한 한 줄기에 16개의 열매가 달린 옥수수가 있어 운현궁雲峴宮에 바쳤다.] 국왕이 모두 친히 서문序文을 지어서 기쁨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여러 종신과 의빈 및 승지, 사관, 여러 각신, 여러 유신에게 반포해 내려서 모두 화답하는 글을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어제백치서御製白雉序

주周 나라 성왕成王 때에 월상씨⁹⁹가 바친 흰 꿩의 상서로움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안다. 얼마 전에 동관서토東關西土의 백성들이 연이어 흰 꿩을 바치니 참으로 훌륭하고 장한 일이다. 실로 우리 종묘사직의 묵우¹⁰⁰와 성모聖母의 덕화德化에 힘입어 수천 년 동안 드물게 있는 상

99 월상씨(越裳氏): 중국에서 먼 남쪽의 정치세력으로 지금의 베트남 지역의 나라를 말한다. 월상씨에서 주나라 성왕(成王)에게 흰 꿩을 바치며 '하늘의 모진 바람과 바다의 험한 파도가 없는 지 3년이나 되니, 아마도 중국에 성인이 있는 것임이다.'라고 조공을 바친 이유를 말하였다고 한다.

100 묵우(默佑):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돕는 것을 말한다.

서로움이 이에 이르니 실로 만억 년의 무궁한 경사이다.

○옥당서玉糖序

호중湖中(충청도)의 선비들이 한 줄기에 16개의 열매가 달린 옥수수를 바치니 진실로 하나의 기이하고도 상서로운 징조이다. 감천甘泉의 지초¹⁰¹와 어양¹⁰²의 보리는 많은 줄기와 두개의 이삭을 가진 것으로 다만 고사古事에는 간혹 있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해 와전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옥수수는 내가 친히 보았다. 월상씨의 흰 꿩은 원성元聖이 성왕成王에게 상서로움을 바친 것이니 금일의 옥수수는 바로 우리 자성慈聖의 덕화德化가 이른 것이다. 아, 실상은 헤아릴 수가 없도다. 태모太母의 포용하고 너그러우며 빛나고 광대하신 덕으로 만물을 형통하게 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또한 백, 천, 억의 숫자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우리 성모聖母가 내려 주신 것이다.

각색 공장은 2533명이고, 담모군은 24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4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55냥이다.〔적성 유학 경선慶銑 백탄 20석〕

자원군은 18동에서 859명이다.

10일

맑음

광화문 서협문루西挾門樓에 별도로 주랑柱樑을 설치하고 대종을 매달았다. 대개 이 종이 동문東門 안에 있을 때 옆에 한 그루의 진목眞木이 있었는데 자라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 마치 서로 지켜주는 것과 같았다. 수년 전에 이미 베어 두어 종루鐘樓를 중수重修할 때 사용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으며, 어영청 또한 쓸 곳이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였다.

101 지초(芝草): 버섯의 한 종류로,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겼다. 지초의 뿌리는 약재와 물감으로 쓰인다.

102 어양(漁陽): 중국 하북성(河北省) 밀운현(密雲縣)에 있는 지명으로 당나라 때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에 이르러 들어와 이 종의 들보가 되니 그 처음과 끝이 서로 맞는 것이 실로 우연이 아니다. 이에 살창[箭窓]을 두르고 동서로 문을 달았다.

각색 공장은 2559명이고, 담모군은 246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20냥이다.[적성 유학 이경오李景五 1000냥]

자원군은 44동에서 4193명이며 그중 예목군曳木軍은 1183명이다.

11일

맑음

각색 공장은 2561명이고, 담모군은 245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1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062냥이다.[진천 민인 2000냥 ○적성 유학 백낙희白樂

喜 1000냥 ○임천 부사과 김홍규金鴻逵 5000냥 2차]

자원군은 16동에서 552명이다.

12일

맑음

예조 판서 김병국金炳國의 상소에 답하셨다.

“사전祀典은 지극히 경건하고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제후국에서도 해당 분야의 성신星辰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고사故事가 있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 전달한 내용은 실로 내 뜻에 맞을 뿐 아니라 대왕 대비의 하교를 경건히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니 경은 헤아려 살피도록 하라.”

○예조가 다시 전교를 받들어 예조 낭청을 보내서 시원임 대신들에게 의논을 수렴하였다.

“영돈녕부사 김(좌근左根)은 ‘송宋 나라는 진성¹⁰³에 제사하고, 진晉 나라는 삼성¹⁰⁴에 제사한 것이 경전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燕 나라의 분야가 미성¹⁰⁵과 기성¹⁰⁶이라는 것은 역대 천문지天文志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남두성¹⁰⁷까지 제사하자는 것은, 예신禮臣이 인용한 근거가 매우 분명하니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은, ‘성축聖祝을 설행하여 모든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비는 일은 성인聖人이 펴는 큰 정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성¹⁰⁸과 수성¹⁰⁹ 두 별에 대해 군국郡國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한漢 나라의 제도입니다. 더구나 분야가 분명하게 있으니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송宋 나라는 진성辰星에, 진晉 나라는 삼성參星에 제사한 것은 『좌전左傳』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조의 신하가 요청한 것은 그 예법이 근거를 둘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 남두南斗와 미성, 기성의 도수에 대해서는, 신이 감석가甘石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억측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판돈녕부사 이경재¹¹⁰는 ‘여러 성상星象 및 역대歷代 지지地志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강역은 석목析木의 다음에 있으니, 미성尾星, 기성箕星, 두성斗星은 거의 다른 제사인 것 같습니

103 진성(辰星):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水星)을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1년의 계절을 정하기 위한 관측 기준이 되는 별을 ‘진(辰)’이라고 했다.

104 삼성(參星): 28수(宿)의 별자리로 서방에 속한다.

105 미성(尾星): 28수(宿)의 별자리로 동방에 속한다.

106 기성(箕星): 28수(宿)의 별자리로 동방에 속한다.

107 남두성(南斗星): 28수 가운데 8번째 별자리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28수가 방위에 따라 4가지 신령한 동물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여겼는데 두성(斗星)은 그중에서 북방 현무(玄武)에 속하는 일곱 별자리 중에서 첫째 별자리이다.

108 영성(靈星): 농사를 주관하는 농업신으로 예로부터 동남쪽에 사당을 두고 농사를 잘되게 해달라고 영성에게 기원했다고 한다.

109 수성(壽星):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이다. 노인성(老人星), 남극성(南極星)이라고도 불린다. 수성이 나타날 때는 국가가 편안해지고 왕의 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보이지 않을 때는 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110 이경재(李景在): 『경복궁영건일기』에는 이유원(李裕元)으로 쓰여 있으나,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이경재로 나와 있다. 『승정원일기』에 이유원의 관직이 판중추부사로 나와 있어 이경재로 번역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년 11월 13일)

다. 그러나 방성¹¹¹과 심성¹¹²이 모두 송나라의 분야에 속하지만 제사는 심성을 위주로 지내고, 삼성^{參星}과 자성¹¹³이 모두 진^晉 나라 분야의 별이지만 제사는 삼성을 위주로 지내니, 해당하는 분야의 별에 대하여 제사 지낼 때 아마도 별도로 위주로 삼은 것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그러나 분야에 관한 명나라의 책에 이르기를, 「요동^{遼東}에서는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이 분야가 되어, 통주^{通州}, 제주^{薊州}, 선주^{善州}, 안주^{安州}는 미성이, 조선^{朝鮮}은 기성이 분야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마땅히 기성을 위주로 해야 할 듯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좌의정¹¹⁴ 김병학^{金炳學}은 ‘제후의 나라에 해당하는 분야의 별자리는 송^宋 나라는 진성이고 진^晉 나라는 삼성임을 상고해 알 수가 있으니, 미성과 기성에 제사하는 것도 여러 사람의 여망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주상의 재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였다.

“미성과 기성이 우리 동방의 분야가 된다는 말은 이미 정론이 있으며, 여러 대신의 의견이 또한 이러하니, 제단의 의식절차는 한결같이 남단^{南壇}의 예대로 해야 할 것이다. 방위와 날짜를 정하는 등의 절차를 예조^{禮曹}에서 거행하게 하고, 제단을 쌓는 일은 어영청^{御營廳}에서 거행하게 하라.”

○제단의 명호는 성단^{星壇}으로 정하고, 단의 처소는 혜화문^{惠化門} 밖 숭신방^{崇信坊} 어창계^{御倉契}에 만들도록 정하며 제향은 정월^{正月} 상인일¹¹⁵에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였다.

각색 공장은 2405명이고, 담모군은 2587명이다.

111 방성(房星): 28수의 넷째 별자리의 별들로 말의 수호신이다.

112 심성(心星): 28수의 다섯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을 말한다.

113 자성(觜星): 28수의 열 아홉번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로 서방 백호(白虎)를 이루는 별이다.

114 『경복궁영건일기』에는 우의정으로 써 있으나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좌의정으로 나와 있어 이에 따라 좌의정으로 번역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2년 11월 13일)

115 상인일(上寅日): 음력 정월의 첫 번째 인일을 말한다. 인(寅)은 동방(東方)으로 떠르는 범(호랑이)에 해당하여 상인일을 첫 호랑이날, 범날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호환(虎患)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남과 서로 왕래를 삼가했으며, 여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4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67냥이다.〔횡성 민인 1125냥 2차 ○함창 민인 1000냥 ○맹산 민인 1301
냥 ○온양 민인 1000냥 ○양주 유학 안효설(安孝設) 1000냥〕

자원군은 14동에서 473명이다.

13일

비. 개동부터 인장까
지수심은 1치 1푼

각색 공장은 2415명이고, 담모군은 258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547냥이다.〔영평 민인 1037냥 ○서산 양반 한영조(韓永
祖) 2000냥 2차〕

자원군은 2동에서 2명이다.

14일

맑음

한 달 사이 도성 내 한 치 정도 눈이 왔으나 쌓이지 않았고, 날이 따뜻
한 것이 봄과 같아 공장들이 추워 보이지 않았고 토목의 공역에 조금도
방해되는 일이 없었다. 또 강물이 얼지 않아 뱃길이 사방으로 통해 땀
나무와 곡물이 몰려들어 시중의 물가가 도로 내렸다. 어제 찬비[寒雨]가
내린 뒤에 날이 다시 따뜻해졌으니 겨울철에 이같이 공역을 마치는 것
도 또한 기이한 일이다.

각색 공장은 2493명이고, 담모군은 224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4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6326냥 2전 6푼이다.〔태천 민인 1177냥 ○명천 민인 8000냥 ○길주 민
인 8000냥 ○나주 민인 1만 6459냥 2전 6푼〕

자원군은 11동에서 268명이다.

각색 공장은 2575명이고, 담모군은 2476명이다.

15일

맑음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2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007냥이다.〔공주 민인 6500냥 선납 ○길주 민인 2000냥 ○무안 한치조韓致肇 1000냥〕

자원군은 21동에서 2013명이며, 그중 용산강 예목군曳木軍이 575명이다.

16일

맑음

자시子時에 함원전과 인지당에 상량하였다. 고사告祀 때 제물과 납문納文의 예식은 다른 전각과 동일하였다. 진설한 것은 대미大米와 소미小米 각 1섬이며, 백목白木 5필, 돈 50냥이다.

함원전 헌관은 남영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독상량문관讀上樑文官은 부사과 이창호李昌鎬, 사향관司香官은 예조 정랑 김병수金炳洙, 성균관 전적차세걸車世杰, 집사執事는 선공감 부정副正 홍배후洪配厚, 종묘 직장 이원진李源進이다. 인지당의 헌관은 예조 판서 김병국金炳國, 독상량문관은 부사과 홍원식洪遠植, 사향관司香官은 성균관 직장 김병철金秉喆, 성균관 전적 박기양朴基陽, 집사는 형조 좌랑 박헌양朴憲陽, 제용감 봉사 이경로李景魯이다.

함원전 상량문

아뢰입니다. 황극 12만 9000년은 회운세¹¹⁶의 앞에서 통할하고, 『대역大易(주역)』 384효는 형리정亨利貞의 위에서 포괄하도다. 태초를 일으켜 하나를 세우고 못 선善을 모아 셋을 머금었도다.¹¹⁷ 오묘한 도는 한이 없고 천지 사이에 가득 찬 것은 기氣이며, 지성至誠은 쉽이 없이 음양오행을 체현하여 펼쳤도다. 만물의 변화와 광대光大함은 곤의 상에서 머금은 문채

116 황극(皇極) … 회운세(會運世):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관물편(觀物篇)」에 따르면 세상이 열린 뒤부터 소멸되기까지의 한 주기를 1원(元)이라고 하는데 1원은 12회(會)이고 1회는 30운(運)이며, 1운은 12세(世)이고 1세는 30년(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원은 12만 9600년이 된다.

117 셋을 머금었도다: 원문은 '函三'인데 천(天), 지(地), 인(人)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뜻이다.

를 펼쳤고, 왕 정월의 대통[王春大統]은 『공양전公羊傳』에 시원始元을 드러내었도다. 이런 까닭에 일월성신으로 경위함에 성인이 궁실을 짓고, 태산의 반석으로 터를 닦음에 왕자가 터를 닦고 집을 지음에 그 가당한 이름을 드러내어 큰 뜻을 밝혔도다. 경복궁 조희장소인 정아正衙가 만들어질 때 함원별전含元別殿의 크고 융성함이 처음 있었도다. 백수白獸와 창룡蒼龍이 왕궁을 고리처럼 호위함에 인왕산은 오른쪽, 응봉산은 왼쪽에 있도다. 구름 창 안개 누각이 복도에 고리처럼 이어지니 교태전交泰殿이 중간에 있고 인지당이 동쪽에 있도다. 왕가에 육침¹¹⁸과 육궁六宮(황후의 궁중)이 있어 자극紫極(임금이 거처)의 별자리가 밝게 벌여 있고, 후비는 태임太姪이나 태사太姒와 같아 황상黃裳(왕비)의 가르침이 화목하게 펼쳐졌도다. 그 거처는 넓고 크며 고명하니 조용하고 정숙함에서 상을 취했도다. 「갈담」¹¹⁹의 채소를 캐는 교화는 「권이」¹²⁰의 관직을 살핌을 이루었고, 무성한 소나무와 대나무¹²¹의 칭송은 부들자리에 편안히 자는 것¹²²과 맞았도다. 지방¹²³과 초벽¹²⁴에 패옥이 맑게 새벽을 울리고 옥으로 된 계단에 비단 베들이 환히 밤을 밝혔도다. 이로써 자성齋盛을 마련하고 제사 옷을 준비하여, 한 나라의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부인은 부인답게 하여 집안을 바로잡았도다. 붉게 단청 칠하고 흙을 바르고 띠풀 바르니 만년동안 자자손손 끊임이 없었도다. 아!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항상된 이치이나, 흥성함에 머무는 것은 때가 우연은 아니도다. 영광전靈光殿이 홀로 있음에 더 이상 좋은 옥과 무늬 돌은 없고 백량대栢梁臺가 다시 일어남에 봉궐鳳闕과 상중商中을 볼 것이로다.

118 육침(六寢): 임금이 거처는 정무를 보는 노침(路寢)이 하나이고, 평소에 거주하는 소침(小寢)이 다섯 개이므로 이를 합쳐서 육침이라고 한다.

119갈담(葛覃): 『시경』의 편명으로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120권이(卷耳): 『시경』의 편명으로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121무성한 소나무와 대나무: 『시경』 「소아」에 나오는 말로 건물의 축성을 칭송하는 말이다.

122부들자리에 편안히 자는 것: 『시경』 「소아」에 나오는 내용으로 집을 짓고나서 집의 안락함을 칭송한 것이다.

123지방(芝房): 지초(芝草)가 나는 곳으로 상서로운 곳을 의미한다.

124초벽(椒壁): 후비(后妃)의 궁전, 또는 후비를 말하다. 산초 열매를 섞어 바른 벽을 초벽이라고 하는데 산초는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자손의 번성을 축원하는 뜻이라고 한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덕은 명정에 무성하고 대업은 쑥대에 번성하니 뛰어난 재주에 배움을 좋아한 것은 상관리¹²⁵에서 시작되었고, 왕을 조회할 때 얼굴색 옹모 웃고 온화하여 장락궁^{長樂宮}의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기쁨을 받들었도다. 중서성^{中書省}을 넓히니 황각^{黃閣}의 청유^{靑帷}는 깊고 넓었으며, 종정^{宗正}의 관청을 증수^{增修}하니 은하수 옥빛 물결은 더없이 광대했도다. 이에 성상의 크게 행하고자 하는 뜻이 곧 선왕께서 일찍이 행차했던 기틀에 있도다. 이에 규열^{圭臬}을 바로잡아 노반과 공수¹²⁶를 부리고 구례의 길을 지나 규구에 합했도다. 좋은 가래나무와 돌비석이 산해관^{山海關}에서 나와 어지럽게 모여 밤을 이어 달리고 과룡^{軻輅}과 금작^{金爵}이 시장과 조정에 도달하니 갑자기 무지개 드리우고 노을이 일어났도다. 신령이 이루어짐이 하루도 되지 않으니 기뻐하는 도리로 백성들에게 먼저 행하였고 자연스러운 화기가 하늘에 응하니 하늘 위에 자리하여 임해 계셨도다. 왕궁에 자추성^{紫墀}을 본받아 정서쪽에 궁문을 가리키도다. 태후궁은 제좌^{帝座}의 옆에 닿았고 객경^{客局}(손님이 묵는 방의 빗장)은 비단으로 꾸며 자성^{紫庭}에 섞어 놓았도다. 총장¹²⁷의 자리는 칠연¹²⁸으로 방을 계산했도다. 은하수 처마에 걸리고 비상하는 규룡은 성대하도다. 상서로운 구름무늬 두공에 나타나고 말문양 도리는 날아오르는 것 같도다. 저구새 노니는 물가에서 마름나물 캐니 밤비^[夜雨]는 태액지¹²⁹에 물결을 더하고 건관¹³⁰에서 머리 장식과 예복을 입고 있으니 봄바람은 상전^{桑田}에 맑은 바람 불었도다. 환히 빛나는 두 글자 문미의 편액은 일원-

125 상관리(尙冠里): 『한서(漢書)』 「선제기(宣帝紀)」에 따르면 장안성의 남쪽에 있던 마을 이름이며 경조윤(京兆尹)의 치소가 있었다고 한다.

126 노반(魯班)과 공수(工匠): 노반은 춘추 시대의 장인(匠人)인 공수반(公輸般)이다. 공수는 요(堯) 임금 때의 장인이다. 모두 이름난 장인으로 건축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127 총장(總章): 『예기』 「월령」의 내용으로 천자가 거거하는 대침(大寢)의 서쪽 방을 말한다.

128 칠연(七筵): 연(筵)은 9척을 1단위로 하는 자를 말한다. 『주례』 「동관고공기 장인」에 “주나라 사람의 명당은 길이 9척의 연을 기준으로 한다. 동서로 9연이고, 남북으로 7연이다. 당의 높이는 1연이다. 다섯 개의 방이 있는데, 방은 각각 2연이다.”라고 하였다.

129 태액지(太液池): 한 무제(漢武帝)가 세운 궁원(宮苑) 안의 연못이다.

130 건관(萐館): 왕비가 궁중에서 누에를 치던 곳, 즉 잠실(蠶室)이다.

元의 깊은 이치를 상징하도다. 백성을 교화하고 이끈 것은 사덕¹³¹을 포함하고, 인을 몸소 행하여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도다. 신추神樞는 천지인의 사이에서 운행하고 성인의 도는 넘쳐서 만물을 기르도다. 무지개 같은 들보가 해를 떠받드는 것을 보니 마침 봉관의 동지니 궁전 뜰에 매화 창문을 열어 일양一陽의 기운을 받아들이도다. 궁녀는 비단수를 놓아 열매 가득 열린 꽃과 나무 그림을 이루도다. 이에 달구질소리에 답하며 송축하는 말을 지어 올리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만물은 동에서 생겨나니

物生于東

우리 황조皇祖를 생각하니

念我皇祖

진실로 동쪽을 크게 했도다.

允荒大東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바람은 남쪽에서 훈훈하니

風薰于南

화목한 집안의 교화가

穆穆壺化

곧 「주남」과 「소남」을 드날리도다.

載颺二南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곡식은 서쪽에서 이루어지니

穡成于西

주나라가 집을 받은 것에 짝하여

媲周與宅

상제가 이에 서쪽을 돌아보도다.

帝迺眷西

131 사덕(四德): 효(孝), 제(悌), 충(忠), 신(信) 또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말한다.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북두성 북쪽에서 잔질하니	斗挹于北
어진 이를 추천하는데 오매불망하여	寤寐進賢
우리 궁궐 북쪽을 돕도다.	輔我宸北

들보 위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해와 달이 위에 있으니	儺日于上
백성들은 왕후의 덕이라	民曰后德
하고 부모와 태상왕이 되도다.	父母太上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아랫사람에게 순하니	聽順于下
찬란히 고리 모양 옥을 주어	有煌授環
교목이 아래로 미치도다.	樛木逮下

바라옵건대 상량한 후에 모난 창은 채색을 머금고 둥근 우물은 꽃이 피기를. 온조와 빈
 번¹³² 같은 수초로 청묘淸廟에서 국그릇과 제기에 올리는 것을 돕고, 현황玄黃 색과 주록朱
 綠 색으로 명당에서 보불佛龕의 문장을 빛나게 하기를. 매연¹³³이 상서로움을 드러내어 백대
 에 지손을 번창하고 썩이 나는 듯한 처마가 더욱 빛나서 천추千秋에 기둥과 처마 끝을 오래
 전하게 하소서.

132 온조(溫藻)와 빈번(蘋蘩): 변변치 않지만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수를 뜻한다.

133 매연(媒燕): 『예기』 「월령」의 내용으로 제비가 날아오는 따뜻한 봄철에 제왕의 후계자를 얻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을 말
 한다. 보통 연매라고 한다.

인지당麟趾堂 상량문

삼가 아뢰입니다. 집을 짓는데 선조를 이으니 용머리를 올려 화려한 집은 융성해졌고, 후비를 내려주고 자손을 따르게 하니 「인지麟趾」 편을 읊조려 성상의 편액이 다시 게시되었도다. 위에 원하는 바는 앞선 분보다 뛰어나도다. 생각건대 예전 궁궐의 인당麟堂(인지당)은 곧 우리 선조들의 연침燕寢이도다. 금근거¹³⁴와 괴마¹³⁵의 행차는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조절하여 기거를 적당히 하였고, 주불¹³⁶과 웅비¹³⁷의 상서로움은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복록을 면면히 이었도다. 용마루와 서까래는 교태전交泰殿 가까운 곳까지 이어져 체모가 고요하면서 엄숙하였고, 마룻대와 추녀 끝은 도읍을 정한 첫해부터 비롯되어 규모는 웅장하고 원대하다. 시원스러운 정면은 밝음을 신령함으로 삼았도다. 왕후는 문채를 머금어 곤상坤象에 부합하는 것 같고,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니 어질고 후덕함이 「관저關雎」 편에 부응하였도다. 멀리 사물에서 취하고 가까이 자신에게 취하여 비유하니 이 덕을 절실히 가졌도다. 그러므로 이 복을 누려 축원하는 바가 깊었도다. 선조의 공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지난 일 아직 추술追述할 만하도다. 땅은 신령이 가호하니 길함이 나란히 이룬다는 것을 알겠고 하늘도 기수의 굴신屈伸을 이길 수 없으니 누가 흥함과 쇠함이 번갈아 오는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중앙에 운전하고 사방을 임제臨制하는 것과 같아 실로 한양을 장대하게 하여 천하에 현시하는 것이고 동궐과 서궐의 웅장한 거처는 모두 밝은 정사 행하시던 장소이니 앞뒤 성인 모두 같은 이치로 무너지고 떨어진 것을 수리할 때를 오랫동안 기다렸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계선 경사는 종묘에 걸맞고 도는 성인의 경지까지 높아 천하 사람 들 덕을 우러르니 어진 명성과 어진 마음이고 궁 안 사람들 받들어 기뻐하니 자애로움과 효에 그쳤도다. 중정宗正으로 한 집안의 마땅함을 돈독히 함에 보옥을 나누어 친족에게 주었고, 정치의 근본으로 세 관직의 어진 사람에게 맡겨 예복을 모아 도를 논했도다. 검소한

134 금근거(金根車):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천자의 법가(法駕)를 가리키는 말로, 줄여서 금근이라고도 한다.

135 괴마(驪馬): 왕후의 수레를 끄는 말이다. 6마리의 괴마가 왕후의 수레를 끈다.

136 주불(朱芻): 『시경』 「대아」에 나오는 말로 천자 또는 제후의 복색을 뜻한다.

137 웅비(熊羆): 『시경』 「대아」에 나오는 말로 왕자를 낳을 징조를 말한다.

덕은 우 임금의 비실을 본받았으니, 열네 성인이 전한 기틀이고, 깊은 정성은 순임금의 견장¹³⁸을 사모했으니, 삼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미처 이루지 못한 전례를 들었도다. 자기 생각을 끊고 여러 신하와 상의하여 길함을 얻고 옛 제도를 따라 공정하게 일을 행하였도다. 궁중의 여러 전각 먼저 완성됨에 백성들의 힘으로 기뻐하고 남북의 정문 세워지다 내 마음과 같이 뺨 뚫렸도다. 큰 기틀은 천으로 치자면 이 인지당은 백으로 칭송해야 하도다. 예닐곱의 어진 임금 돌아보자면 누차 곡교¹³⁹와 고매¹⁴⁰의 징조에 응하니 홍범구주의 다섯 번째 복과 장수, 편안함뿐만 아니라, 화봉^{華封}의 자식을 많이 바라는 축원¹⁴¹에도 부합하도다. 운수가 태평으로 돌아왔으니 어찌 좋은 제도로 변경함이 없겠는가? 신보산^{新甫山}의 측백나무와 조래산의 소나무¹⁴²에 재목 다 쓸 수 없고 노반의 먹줄과 공수반의 먹에 지도리와 말뚝은 각각 마땅함을 얻었도다. 순식간에 백도^{百堵}가 모두 일어나고 홀연히 여덟 기둥 높이 솟았도다. 금 문고리와 옥문 완연히 예전의 법도와 같고 수놓은 두공과 꽃무늬 창은 하늘 높이 솟은 누각을 빛나게 하도다. 이에 곳곳마다 궁전이 안정되자 자손들 번성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비로소 내려지도다. 계도하고 보우하는 신령한 전통을 이어받으니 꿩이 날고 새 놀라듯 하여 군자가 오를 바로다. 길이 전하는 상서로움 맞이하니 어찌 사슴 몸에 말발굽을 한 기린뿐이겠는가? 왕자의 상서로운 조짐이도다. 강물이 모여드는 것 같은 칭송을 올려 하루도 안 되어 이룬 노고를 위로하도다.

138 견장(見牆): 지극히 사모하여 그리워하는 심정을 뜻한다.

139 곡교(舊郊): 『예기』 「제법(祭法)」의 내용으로 곡은 제곡(帝嚳)을 말하고 직은 후직(后稷)을 말한다.

140 고매(高禪): 『예기』 「월령」에 나오는 내용이다. 매는 혼인과 자녀의 생산을 주관하는 신을 말하고, 고는 존칭이다. 고대 제왕이 제비가 오는 봄날에 매신(禪神)에게 제사를 지내며 후사(後嗣)를 구한 연매(燕禪)의 관습이 있었다.

141 화봉(華封)의 … 축원: 『장자』 「천지」에 “요(堯)임금이 화봉(華封: 지금의 용계현 서북) 지방을 순행하였을 때, 화봉인(華封人: 화땅에 봉해진 사람)이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聖人)은 수(壽)하시고, 성인(聖人)은 부(富)하시고, 성인(聖人)은 다남(多男)하시라.’고 축복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화봉 삼축(華封三祝)이라고 한다.

142 신보산(新甫山)의 … 소나무: 조래산은 중국 산둥성 태안현(泰安縣) 동남쪽에 있는 소나무숲으로 유명한 산이다. 노(魯) 나라 희공(僖公)이 사당을 지을 때 조래산의 소나무와 신보산의 측백나무를 베어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청연루 높고 성상의 기운 통하니

清讌樓高御氣通

첫 번째로 나와 아들이 되고 진방震方에서 나오니

一索成男方出震

상서로운 아침 해 먼저 비취 꿩 무늬 황후의 제복 붉도다.

瑞暾先照翟褕紅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높은 봉우리 곧바로 푸른 처마와 가지런하니

高峰直與碧簷齊

만년의 가지 위에 새끼 거느린 봉황이

萬年枝上將雛鳳

동쪽으로 와서 옛 보금자리 찾도다.

來向朝陽覓舊棲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견관의 궁녀 새벽에 누에를 먹이니

蒹館宮娥曉飼蠶

채상대採桑臺(궁궐의 누에 치는 곳)로 가지고 가며

携向採桑臺畔去

뜰 가득 방초(芳草)는 원추리라네.

滿庭芳草盡宜男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오랜 세월 화산華山이 오래도록 나라의 진산鎭山이 되니

終古華山長鎭國

상서로운 기운 충분하고 맑은 기운 엉기며

磅礴扶輿淑氣凝

상서로움과 복을 넉넉히 하여 기름이 끝이 없도다.

衍祥毓祉無窮極

들보 위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은하수는 아득하고 하늘은 광활하니

河漢迢迢天宇曠

공자와 석가모니 언제면 봉황을 친히 안고 와서

孔釋何時抱送來

현효성¹⁴³은 상서롭게 비치고 기성機星은 왕성할까?

玄杓瑞彩機星旺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제비 날며 큰 집을 이루니

賀燕飛飛成大廈

두터운 땅 무너지지 않고 국운은 면면히 이어지며

厚地不騫寶曆綿

자손들은 큰 복을 받도다.

文子文孫膺純嘏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자손들을 보우하여 좋은 계책 남기시어 많은 자손이 널리 읍조리길.
어진 발자취 길함을 알 수 있으니 보는 것 밝아 예는 닦여지길. 편액 상서로워 더욱 높으니
성인이 일어나 만물이 쳐다보기를. 성대한 덕과 공업 더없이 높아 복을 내리심이 두루 하시
길. 태화와 원기가 모이니 복을 내려 효자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보국승록대부 행의정부 좌찬성 겸 병조 판서 신 김병기金炳冀가 전교를 받들어 삼가 짓다.

각색 공장은 2593명이고, 담모군은 255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926냥이다.[한영조韓永祖 1000냥 3차 ○김용구金龍九 3000냥 3차 ○김홍구金鴻九 7000냥 3차 ○초산 민인 1961냥 ○강릉 유학 김연응金演應 2000냥 2차]

자원군은 25동에서 832명이다.

17일

맑음

금위영의 담군擔軍 180명 및 삼청동三清洞에 자원하여 부군赴軍한 150
명이 삼청동에서 누주석樓柱石 1괴塊를 끌고 왔다. 40냥 5전을 예졸曳卒
등에게 내려 주었다.

143 현효성(玄杓星): 현효는 하늘 360도를 12개로 나눈 것 중 하나이며, 현효성은 그 구역의 별을 말한다.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쓰려고 지정한 석회石灰를 연안延安, 김천金川 두 고을에 분정했는데, 아직도 올라오지 않으니 어찌 된 곡절인가. 지금 들여 쓰는 것을 보면 매우 시급하다.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두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속히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47명이고, 담모군은 266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2냥이다.[이용섭李龍燮 백지白紙 1괴]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547냥이다.[남양 전 침정 김원규金元奎 1000냥 2차 ○임피 민인 2227냥 ○대

구 하리下吏 정노윤鄭魯潤 1000냥 2차 ○박양진朴陽鎭 은구대전隱溝代錢 500냥]

자원군은 27동에서 837명이다.

18일

맑음

어영청이 영풍정映楓亭에서 누주석樓柱石 1괴를 신고 왔다.

각색 공장은 2570명이고, 담모군은 205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2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705냥이다.[이원 전 주부 장세흠張世洽 5000냥]

자원군은 20동에서 582명이다.

19일

밤에 미설微雪

성역城役은 모두 날이 추워 공역을 정지하였다. 여러 전각의 개와蓋瓦도 강와¹⁴⁴로 덮였다.

144 강와(强瓦): 겨울철에 공사를 중지하고 임시로 덮어 두던 기와로 추정된다.

각색 공장은 1988명이고, 담포군은 1554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7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100냥이다.〔태인 유학 김종순金鍾淳 1300냥〕

자원군은 28동에서 792명이다.

20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대소 목물木物은 밤을 새서라도 베어내 9월 안으로 운반해 납부하도록 이미 평창平昌, 영월寧越에 관문을 보냈다. 지금 동짓달이 되었는데, 한 개의 목물도 아직 내려보내지 않았으니, 영문에서 초기에 신척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다. 역사役事가 너무나도 시급한데 각 읍에서 거행하는 것이 이처럼 더디니 매우 놀랍다. 따로 각 로路의 작인作人들에게 신척하여 전에 보낸 관문의 수효대로 베어낸 후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서 지체 없이 끌고 와 오는 2월 안으로 경강에 도착하도록 하라.

삼남, 양서兩西 및 동북영東北營에 보내는 관문

대원위 분부에, ‘경복궁을 영건하는 것은 비단 수백 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는 오늘날 부득이한 거조이니 이른바 각 도, 각 읍의 민인들의 원납을 어찌 강제로 명령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어찌 강제로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원납이 고르지 않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므로 그동안 관척¹⁴⁵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각 읍의 이속吏屬들이 사체가 어그러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실로 조금 넉넉하여 많이 바칠 수 있는 백성에게는 매번 뇌물을 받고 액수를 줄여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여 제 몸조차 보존하지 못하는 부류에게

145 관척(關飭): 관문을 보내어 신척한 것을 말한다.

는 이속들이 간혹 원망을 품고 많은 돈을 강제로 거둔다. 이 때문에 온 경내가 소요騷擾하여 백성들이 비방하고 떠든다.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보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는 예사로이 간과할 수 없기에 이에 또 신칙하니 감사와 수령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잘 알아 해당 고을의 이속들에게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다시는 감히 조금이라도 간악함이 용납되는 폐가 없도록 한다.’ 하였다. 이 관문의 내용을 진문眞文과 언문諺文으로 옮겨 적고 방방곡곡에 효유曉諭하여 전과 같이 혼잡한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93명이고, 담모군은 152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960냥이다.〔청양 민인 3509냥〕

자원군은 24동에서 992명이다.

21일

맑음

포천현에 보내는 관문

본 군 북면北面 기지리機池里의 양반 정가鄭哥의 집에서 사양산의 수목과 매탄埋炭을 원납한다고 하므로 이미 관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른바 정가鄭哥가 양반 조가趙哥의 구목邱木(무덤가의 나무)과 매탄을 원납한다는 핑계로 억지로 빼앗아 개인적으로 팔아버리고는 아직도 한 섬도 원납한 것이 없으니, 그 행한 바를 살피면 너무나도 놀랍다. 이미 베어내어 솥으로 구운 것[埋炭]은 일일이 수합해 올려보내고 양반 조가의 구목은 다시는 베어내지 말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60명이고, 담모군은 149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14냥이다.

자원군은 23동에서 1628명이며, 그중 용산강龍山江 예목군曳木軍이 322명이다.

22일

맑음

오시午時에 자미당紫薇堂에 정초定礎하였다. 진설한 것은 배와 무명 각 5필, 대미大米와 소미小米 각 2섬, 돈 50냥이다. 그 밖의 절차는 다른 전각과 같고 당상과 낭청이 일제히 나아가 참석하였다.

○금위영이 삼청동에서 누주석 1괴를 가우駕牛 45척, 복우卜牛 5척으로 신고 왔다.

각색 공장은 1853명이고, 담모군은 149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710냥이다.〔태인 유학 유기룡劉基龍 5000냥 2차〕

자원군은 27동에서 775명이다.

23일

맑음

광화문 동협문루東挾門樓에 오고午鼓를 두었다.〔길이는 3자 8치이며, 지름은 4자 8치이다.〕

각색 공장은 1833명이고, 담모군은 144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965냥이다.〔전 감역 조기준趙起駿 1200냥 ○금산 진사 정래휘鄭來輝 1000냥 2차〕

자원군은 23동에서 805명이다.

24일

흐리다가
밤에 미설微雪

누주석樓柱石 2괴를 훈련도감은 영풍정映楓亭 동쪽에서, 어영청은 영풍정 북쪽에서 운반해 왔다.

각색 공장은 1858명이고, 담모군은 144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302냥이다.[길주 민인 3300냥]

자원군은 24동에서 818명이다.

25일

맑음

전교하였다.

“날이 이토록 추우니 경복궁 역소의 공장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건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건호케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공장 1968명에게 한
명당 1전씩, 담모군 1669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280냥 2전 5푼을 나누어 주겠
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금위영과 어영청이 각각 누주석 1괴를 금위영은 삼청동에서, 어영청은 영풍정에서 신고
왔다.

○신시申時에 영추문迎秋門에 상량上樑했다. 진설한 것은 백목白木 5필, 대미大米 2섬, 소미小
米 1섬이다. 그 외 절차는 다른 문과 같다. 헌관은 우포도대장 이주철李周喆, 독상량문관讀上
樑文官은 부사과 이종준李鍾濬, 사향관司香官은 병조 좌랑 박래봉朴來鵬, 교서관은 교리 한금
렬韓兢烈, 집사는 상의원 직장 임경준任慶準, 평시서 주부 이덕초李惠初이다.

영추문 상량문

엿드려 생각건대,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면한 것이 어찌 임금의 자리를 위해 정양正陽의 자
리를 세웠겠는가? 이에 서쪽으로 이 집터를 돌아보고 금창전金闕殿과 함께 ‘영추迎秋’라는
이름을 편액으로 쓰게 되었도다. 오직 태미성太微星이 상제의 뜰에 응하고 총장總章은 우측
편실의 문을 열었도다. 지금에서 옛날을 돌아보면 오래되어도 새롭도다. 지금 경복궁 영건
의 계획을 돌아보니 실로 우리나라가 터를 다지고 집을 짓는 때였도다. 북쪽 산의 간룡幹龍
(산맥 중에 주맥)의 기운을 이어받아 만년에 중황中黃의 궁궐을 열었고 동궁 두 궁문의 위의

에 힘쓰니 신령들이 상자^{上紫}의 부고^{府庫}를 호위했다. 이때 형벌은 쓰지 않아 집과 사람이 많아져 한나라 서경의 지극한 다스림과 같았다. 위에 있으면서 덕이 선조를 닮아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국왕이 계속 이어가니 주나라 동쪽 낙양의 햇수와 다를 바 없다. 평이 날고 새가 놀라는 모양으로 형세를 장대하게 하니, 아 신묘한 기틀 길이 왕의 거처로 정했다.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서리는 모양으로 길상을 모으니 인화^{人和} 또한 지리^{地利}를 기다리도다. 이에 중금^{中禁}은 네 개의 문으로 흰히 열었고 서액¹⁴⁶은 차례가 삼추^{三秋}(가을의 석 달)에 속하도다. 적지¹⁴⁷에 조정의 위^{威儀}를 끌어와 담당관리가 새벽에 열고 저녁에 닫고 소륙^{素陸}(맨땅)에 맑은 기운을 들이니 그 용모는 하늘은 높고 해는 밝도다. 아! 어지러운 때에 오랑캐의 옛 난리를 어찌 차마 말하리? 또한 성하고 쇠하는 데 정해진 수가 있어 화개전^{華蓋殿}의 중건은 여전히 더했다. 정시중^{鄭侍中}(정몽주)이 올린 봉호는 아직도 전하는데 태평시대를 쫓아가지 못해 개탄스럽네. 유상국^{柳相國}(유성룡)의 기몽^{記夢}(꿈을 적은 글)은 근거할 만하니 지금 조정에 기다리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명당의 다스림을 열고 궁궐을 소박하게 한 겸손한 덕을 본받았다. 상관리^{尙冠里}에 영거^{輦車}(수레의 일종)가 들어간 것은 인묘^{仁廟}의 왕통을 잇는 주기와 부합하고 무공을 일으킨 옛 집이 증수되니 운궁 경근의 효¹⁴⁸를 독실히 하였고. 정본당^{政本堂}의 기둥과 처마가 다시 열리니 삼공을 예우하고 중정부^{宗正府}의 문란^{門闌}이 장대하니 구족과 돈독히 지내도다. 노영광전^{魯靈光殿}의 좋은 터에 은나라 노침의 웅장한 규모를 강구했다. 전각과 대와 연못이 모두 옛 이름을 따르고 좌임향병^{坐壬向丙} 자리에 큰 기틀을 닦았으며 정묘와 사직, 조정과 시장이 자리를 바로잡아 건사월 좋은 시절^{建巳良辰}에 시작하는 날을 선택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선왕의 관에 비교하길 원하여 4320보의 너비를 살

146 서액(西掖): 중서성(中書省)의 별칭이다. 궁성의 서쪽에 있으므로 서액이라고 한다.

147 적지(赤墀): 붉은 칠을 한 섬돌로 대궐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옛날에 황제가 거처하는 궁전의 섬돌 바닥은 붉은 칠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148 운궁(雲宮) 경근(敬親)의 효(孝): 운궁은 흥선대원군의 궁인 윤현궁을 말하고 경근은 경근문(敬親門)을 말한다. 어가가 경근문을 통하여 윤현궁에 들어가서 대원군을 뵈었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뿔고 성인의 생각이 수거修舉에 힘쓰니 그동안 274년이었도다. 가까이 경성과 변읍이 있고
 멀리 기호지방에 이르러, 노소와 부녀, 어린아이들이 춤추며 다투어 나아오니 안은 당우堂
 宇이고 밖은 낭무廊廡에 이르도록 장상將相과 공경公卿이 동공董功을 담당하였도다. 천도天
 道가 순환을 좋아함을 볼 수 있고, 지운地運이 다시 왕성해 지는 것도 징험하였도다. 세금은
 가난한 백성에게 번거롭게 매기지 않고 의로움에서 뜻을 내어 공사비용을 대신했도다. 내
 저內儲에 특히 반포하여 매번 힘을 아껴 궁핍한 마음 드리웠도다. 화려한 누각에 존귀한 자
 리 주명朱明의 거처를 열었고 옥 처마 금장식 문고리에 군주의 기상御氣 자금紫禁의 안으
 로 통했도다. 층층히 올라간 누각과 기둥 서로 마주보고 일어나니 하늘만큼 높은 장락전長
 樂殿의 주렴이고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열리니 땅은 두루 담장이 세워져 옥으로 만든
 장신구에 가깝도다. 아! 우액右掖(오른쪽 액문)은 궁궐 문을 열었고 서륙¹⁴⁹은 가을시절에 응
 하도다. 건곤이 사립문에 있으니 은촛불이 하늘을 향하는 길을 당기고, 산하山河가 문을 부
 축하니 토규土圭로 석양을 잰 터를 내려다보도다. 궁궐 새벽 중에 어약魚鑰(물고기 모양 자물
 통)을 열어 다시 젊은 관원을 들이고¹⁵⁰ 북두칠성에 일월오성을 누르니 단풍나무 숲에 이슬
 내리는 가을이도다. 문채 나는 문을 열어 흡속 조화로운 기운 거처하게 하고 수놓은 문을
 열어 천하의 뛰어난 인재 불러들이도다. 무지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문기둥과 문설주 더
 옥 새로운 것을 다투어 보고 의젓하게 호랑이 표범이 문을 지키니 고응皋應이 우뚝 솟은 것
 같네. 삼방을 나란히 하여 이처럼 늘어서 구진鉤陳과 태을太乙의 모양을 무성하게 하고 두
 글자를 표시하여 액자가 걸리니 금상金商과 정유正酉의 자리를 가리키도다. 점괘에 동인同人
 괘 나와 들고 남에 허물이 없으니 소호¹⁵¹로 하여금 상서롭지 않음을 꾸짖도다. 이 천축백
 도千竺百堵의 법규로 오랜 공업을 넓힐 수 없으면 어찌 정전이 구중궁궐 제도를 여는 것을
 내 마음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우리 공인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 의로운 교화를 도우
 니 백성들이 문미를 보고 태평의 다스림을 입도다. 감히 축도하는 기원을 드러내어 삼가 송

149 서륙(西陸): 28수 중 서방에 있는 백호(白虎) 7수를 말한다.

150 젊은 관원을 들이고: 원문의 '青春冠冕'은 푸른 봄날의 벼슬아치, 즉 젊은 관원을 말한다.

151 소호(少皞): 중국 태고의 소호씨를 말한다. 금천씨(金天氏)라고도 부르며 가을을 주관하는 신이다.

축하고 상량문의 창성함을 대신하여 들보를 올리는 것을 돕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낙산의 아침 해 하늘 가득 붉으니

駱山朝日滿天紅

마침내 팔방에서 생기를 머금게 하고

遂令八域含生類

모두 봄바람 온화한 기운 속에 있게 하도다.

盡在春風和氣中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인경봉^{인경봉} 높이 푸른 기운을 적시니

引慶峰高滴翠嵐

이 산으로 주상의 자리를 기원하여

願把茲山祈寶曆

만세를 외치는 소리 매번 세 번 듣도다.

萬呼殿陛每聞三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저녁 구름에 멀리 바라보니 사교^{사교}는 낮게 펼쳐지니,

黃雲一望四郊低

주나라 팔백 년 기업^{기업}을 이루고

成周八百年基業

집집마다 곡식 창고 가지런하길 칭송하도다.

頌在家家億廩齊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삼각산은 구름 밖으로 솟구치니

三角祖山雲外矗

부여^{부여}(상서로운 기운)를 길이 전송하여 원기가 와서

長送扶輿元氣來

용이 날고 봉황 춤추어 나라를 보위하소서.

龍飛鳳舞衛邦國

들보 위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북성성^태은 늘 북극^북이 있어 상서로운 채색 왕성하니

太一常居瑞彩旺

말씀드립니다 삼원三垣 이십팔전二十八躔(28수)이

寄語三垣廿八躔

수레에 바퀴살이 모여들듯이 길이 향합니다.

如車湊輻長相向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수많은 민가 곳곳에 있어 기와는 물고기 비늘 같으니

間閭撲地魚鱗瓦

희희낙락 춘대春臺에 오르는 것 같아

熙熙有若春臺登

강구康衢의 격양가 부르는 사람을 모두 세소서.

盡數康衢擊壤者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구리 문고리 일월과 길이 회전하고 복두성은 천지와 유구하길.

태평한 때 태어나고 늙어 백성들에게 오복과 구주를 하사하기를.

무궁한 명성 있으며 무궁한 기틀 세워 명군을 받들어 천추만세 하소서.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8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338냥이다.(전주 전 현감 정언술鄭彦述 1만 냥 4차)

자원군은 19동에서 570명이다.

26일

맑다가 밤에
비설飛雪

금위영이 누주석 2괴(삼청동)를 실어 운반했다. 훈련도감과 어영청 또한
각각 1괴(모두 영풍정)를 실어 운반했다.

각색 공장은 1812명이고, 담모군은 146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6303냥 6전이다.(덕원 유학 정윤주鄭胤柱 1000냥 ○박중민朴重旻 2000냥
2차 ○대구 민인 3000냥, 철원 민인 1607냥 7전 5푼 ○함양 민인 2만 6188냥)

자원군은 29동에서 2662명이며, 그중 용산강龍山江 예목군曳木軍이 685명이다.

어영청이 누주석 1괴(영풍정)를 신고 왔다.

함경 감영에 보내는 관문

전에 함흥咸興의 출신出身 정용겸鄭龍謙이 영건 공역을 도울 때 그의 동서[友壻]인 본부 사람 안정국安定國이 증서를 작성[成標]하고 일을 맡았다가 내키지 않아 미루었다. 이에 대해 마땅히 관문을 내어야 했으나, 본 일이 모호하고 참고할 만한 증거도 분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용겸이 전담한 연못의 공역은 이로 인해 중지하고 앞으로 상황을 살펴서 잠시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정용겸이 근래 안정국의 사서¹⁵²를 가지고 와서 호소하였는데, 이 사서를 보니, 안정국의 터무니없는 정상이 마침내 남김없이 드러났다. 전에 이미 성표하고 기꺼이 부역을 하기로 해놓고 다시 무슨 후회를 하면서 물림으로써 막중한 국가의 공역을 잠깐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지하여 창피하게 만들었으니, 안정국의 마음가짐이 어찌 간교하고 흉악하지 않겠는가. 그는 먼 지방의 일개 하찮은 녀석으로, 큰 공역을 조롱하는 것이 감히 이와 같으니 이처럼 인륜이 없고 법을 멸시하는 부류는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사서를 이에 점련粘連하여 관문을 내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위의 안정국에 대해 장차將差를 정해 날짜를 계산하여 잡아 올려서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대원위 분부에, ‘각 읍의 원납전에 대해 이속吏屬들이 뇌물을 받고 멋대로 조종하지 말도록 전에 엄하고 분명한 관칙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봉산鳳山 좌수座首 이기원李基元, 이방吏房 최경로崔景輅, 선파璿派 이복빈李復彬은 관칙을 내렸는데도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전보다 더욱 심하다고 하니 어찌 저와 같은 사체와 저와 같은 도리가 있단 말인가. 이들 무엄한 부류는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으니 우선 곡산谷山 진

¹⁵² 사서(私書): 비밀리에 하는 편지나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즉 어음, 예증권(預證券), 화물(貨物) 인환증 등을 말한다.

영_{鎭營}에 잡아 가두고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라.’ 하였다.

홍원현_{洪原縣}에 보내는 관문

대원위 분부에, ‘경성_{鏡城}에 사는 오위장_{五衛將} 현익상_{玄翼商}이 해당 고을 백성들의 원납전 1만 500냥에 짐삿을 더한 도합 1만 2075냥에 대해 전표_{錢標}를 받고 홍원현에 사는 박동인_{朴東寅}에게 환급_{換給}하여 그가 운반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위의 박가 놈이 물화를 사서 배로 실어 나르다가 낭패를 보았다고 하면서 끝내 가져다 내지 않으니 어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인가. 곧바로 해당 읍에 관문을 내리니 박가 놈의 재산을 즉시 수쇄_{收刷}하도록 하고, 만약 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의 가까운 친척을 하나같이 모두 잡아 가두고 반드시 요쇄¹⁵³한 후 진성¹⁵⁴을 갖추어 실어 나르고 원표_{原標}를 동봉하도록 한다.’ 하였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며칠 내로 수쇄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지체되어 바치는 데 잘못이 있으면 해당 고을의 아전과 향임의 상사_{上司}는 엄한 징계는 고사하고 책임이 돌아갈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44명이고, 담모군은 13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175냥이다.〔대구 하리 김귀윤_{金貴允} 1000냥 2차〕

자원군은 15동에서 457명이다.

153 요쇄(了刷): 빚을 죄다 갚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154 진성(陳省):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다른 관청 또는 개인에게 내어주거나 받아들이는 증명서를 말한다.

28일

맑음

어영청이 누주석 1괴를 운반해 왔다.

각색 공장은 1846명이고, 담모군은 124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2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4742냥이다.[김해 민인 1만 2000냥 ○전 오위장

정덕환鄭德煥 1100냥 3차]

자원군은 18동에서 617명이다.

29일

맑다가 밤에 눈

어영청이 누주석 1괴를 실어서 운반했다.

각색 공장은 1888명이고, 담모군은 1345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5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804냥이다.[서천 민인 2368냥. 2차 ○영흥 이익동李翼

東 1000냥 ○포천 유학 양락주楊洛周 백탄白炭 50석]

자원군은 15동에서 507명이다.

30일

맑음

각색 공장은 1846명이고, 담모군은 1305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43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052냥이다.[아산 민인 1732냥 ○연풍 민인 1000냥 2

차 ○길주 민인 1200냥 ○온양 민인 1000냥 선납 ○양성 민인 1000냥 선납]

자원군은 10동에서 332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11월 한 달 동안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34만 3696냥 8전 5푼이며, 중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8166냥 5전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도합 6만 8120명이고, 담모군은 도합 6만 1186명이다.

자원군은 561동에서 도합 2만 6013명이며, 복마는 60필이다.

을축년¹⁸⁶⁵, 고종2 12월

1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략을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2985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 3556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돈 476냥 3전을 나누

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육조^{六曹} 앞으로 원부군^{願赴軍}이 누주석 1괴를 떠 왔다.(금위영이 담당한 것으로 삼청동에서 떠 왔다.)

○사정전, 근정전, 근정문, 홍례문의 채목을 사촌리^{沙村里} 밖 도고^{都庫}에서 다듬었다. 일차로 다듬어서 운반해 들어왔는데, 대개 몸체가 큰 나무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것을 취하였다. 패장^{牌將} 한량^{閑良} 최명린^{崔明麟}, 어교^{御校} 김희순^{金喜淳}, 훈교^{訓校} 이홍식^{李泓植}이 공역을 감독하였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8582냥이다.(대흥 민인 1210냥 ○해미 민인 1만 1705냥 ○금산 민인 4000냥)

자원군은 27동에서 1056명이다.

2일

맑음

평안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할 때 역사가 너무 방대해 거행할 것이 많기 때문에 도내 각 읍에 거주하는 평양平壤 천정선千鼎善, 은산殷山 김왈충金曰忠, 삼등三登 장천경張天敬, 철산鐵山 김국민金國民, 강계江界 김찬숙金贊淑, 영리營吏 홍희련洪憲鍊, 토관土官 강성함康成誠 등 7인을 모두 본 도감의 패장牌將으로 차정하고 각각 관례官隸를 정하니 반드시 내년 정월 20일 안에 맞추어 일제히 올라와 대령하라는 뜻을 각 해당 고을에 거듭 밝혀서 알리도록 하라.

개성부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할 때 팔도 각 읍은 거의 다 원납했다. 그러나 오직 본 도本都만이 백성들의 원납 전 10여만 냥이 있다고 했으나 오히려 푼돈도 낸 것이 전혀 없으니 이 무슨 곡절인가. 지금 큰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모아둔 돈이 부족해 날마다 쓰는 장인의 급료도 배분할 것이 없다. 이에 특별히 관문을 보내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기한을 정해 독촉해서 거두어 반드시 올해 안으로 정해진 수를 올려보내도록 하라. 그런 연후에야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없을 것이다. 상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78명이고, 담모군은 126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612냥이다.(홍주 민인 1만 5070냥 ○홍주 유학 최봉환崔鳳煥 1000냥 ○홍주 출신 박태형朴泰亨 2000냥 ○홍주 전 사과 이현석李玄錫 1000냥. 전 현감 조병로趙秉魯 1000냥)

자원군은 13동에서 325명이다.

3일

맑음

축시丑時에 자미당紫薇堂에 입주立柱하였다.(입주하는 형식은 위에 보인다.)

○홍제원弘濟院의 서쪽 계곡에 큰 석교石橋가 하나 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며 물에 흘러내린 모래가 몇 장丈을 덮고 있다. 이날 철거해 와서 도성의 지대址臺 및 계체석階砌石의 재료로 사용하고 또 종친부 앞 석교의 대비용으로 두었다. 그러나 쌓인 모래를 개척하는데 공사

비가 많이 들어 오히려 새 돌을 떠 오는 것이 나올 것 같으므로 전부 철거하지는 않고 남겨 두었다.

각색 공장은 1801명이고, 담포군은 128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965냥이다.(수원 유학 최덕수崔德修 2000냥 ○울산 유학 임용복林容復 200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265명이다.

4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대원위 분부에, ‘근래의 인심은 비록 기강이 좋지 않아서 갈수록 해이해진다고 하지만 지금 성세聖世의 치하에서 막중한 역사에 어찌 이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인가. 도내 과천果川 냉정리冷井里에 사는 양반 김여경金汝景, 연천連川 남면南面에 사는 조한규趙漢奎, 같은 현縣

갈무리葛畝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金, 삭녕朔寧 가좌리佳佐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양반 윤尹, 죽산竹山 울현栗峴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양반 강姜, 용인龍仁 민제궁리閔齊宮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양반 민閔은 모두 토호土豪로 본성이 패악悖惡하여 무단하기 짝이 없고 여항閭巷에서 폐단을 저지르는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니다. 그중 가장 심한 것은 오로지 편재騙財를 일삼아서 심지어 백성들의 원납전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하였으니 이 같은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인들 차마 못하겠는가. 이들 무엄하고 거리낌 없는 부류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를 열게 할 수는 없다. 각 그 부근의

진영鎭營에 엄히 관문을 내어 상세하게 기찰하여 하나같이 모두 잡아 가둔 후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각색 공장은 1777명이고, 담모군은 123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715냥이다.〔청주 유학 최영식崔永植 5000냥 ○거창 교원校院 및 사민士民 등 3007냥〕

자원군은 4동에서 62명이다.

5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 때 쓸 각종 목물木物은 수요가 매우 많은데, 길고 두꺼운 정판¹⁵⁵이 가장 시급하므로 도내 인제땅에서 100냥을 베어내도록 한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해당 고을에 알려 밤을 새서라도 베어 내어 얼음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운반하여 납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02명이고, 담모군은 123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510냥 8전이다.〔홍주 김원여金元汝 1000냥〕

자원군은 5동에서 76명이다.

155 정판(正板): 목재를 반듯하게 켜서 판재로 다듬은 것이다.

6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들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1942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 1335명에게 한 명 당 돈 5푼씩, 도합 돈 260냥 9전 5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5200냥 6전이다.(안동 민인 1만 2819냥 ○거창 유학 이진악李鎭岳 2500

냥 2차 ○회덕 민인 2791냥 6전 ○연원 역민驛民 1115냥 ○군위 민인 3295냥 ○경성 유학 장택방張宅邦 1000

냥 ○광양 민인 1000냥 선납)

자원군은 7동에서 186명이다.

7일

맑음

강화부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순천부順天府 거마도巨磨島에서 베어낸 주량목柱樑木 중 낙안樂安 69그루, 광양光陽 70그루, 보성寶城 42그루 등은 이미 본 부의 포변浦邊에 도착하였는데 때가 궁동¹⁵⁶을 만나 세전歲前에 운반하여 납부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 인 방답防踏 침사僉使와 녹도鹿島 만호萬戶는 도로 내려보낼 것을 허락하고 영래 장교領來將校는 우선 머물면서 대기하도록 지금 바로 신척하도록 하라. 정박해 있는 목물은 모두 수량을 대조해서 맡긴 후에 열

156 궁동(窮冬): 겨울의 석 달(10월, 11월, 12월) 중에 막바지 달이라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음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튼튼한 배를 골라잡고, 본 부에서도 장교를 별도로 정해 각 해당 진교鎭校와 함께 지체 없이 경강京江으로 운반해 납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87명이고, 담모군은 119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783냥 9전이다.〔영월 민인 1706냥 9전 2차 ○칠곡 민인 4700냥〕

자원군은 6동에서 116명이다.

8월

맑음

사알司諫에게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였다.

“각 군영의 장신將臣이 영건소에 공무로 나갈 때는 반드시 평철릭平貼裏으로 하고, 포도대장도 이미 명소命召와 대장패大將牌를 찢으니 다룰 것이 없다. 또한 평철릭에 옥로玉鷺를 하고 공무에 나아가도록 분부하라.”

각색 공장은 1757명이고, 담모군은 115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36냥이다.〔경주 민인 7510냥 ○문경 민인 1296냥 2차〕

자원군은 5동에서 106명이다.

9월

흐리다가 밤에
미설微雪

묘시卯時에 천추전千秋殿에 상량하였다. 고사告祀 때 진설한 것은 대미大米와 소미小米는 각 1섬, 백목白木 5필, 돈 50냥이다. 기타 제물과 상량 절차는 다른 전각과 같다. 헌관獻官은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며, 독상량문관讀上樑文官은 부사과副司果 홍원식洪遠植, 사향관司香官은 예조 좌랑 조창교趙昌教, 성균관 사예司藝 탁경수卓景秀, 집사執事는 군자감 관관

정유수鄭兪秀, 제용감 부봉사副奉事 정대림丁大林이다.

천추전 상량문

아웁니다. 사월은 여름이니 좋은 시절을 점쳐 궁을 살피고 천년에 가을이니 옛 이름 살피 편액을 지었도다. 의리는 당¹⁵⁷ 나라 신하들이 금감¹⁵⁷을 바친 것이며, 제도는 한^漢나라 황실이 벽당¹⁵⁸을 재단한 것이도다. 예전에 앞뒤로 만년의 신령한 기틀 정함에 황궁은 천추별전¹⁵⁹을 세웠도다. 경성 둘레로 국고^{國庫}를 끌어당기니 호랑이 웅크리고 용이 서리며 대궐을 돕고 명당을 받들며 깊은 구중궁궐에 한가로이 거하도다. 천극^{天極}의 복도^{閣道}가 영실^{營室}에 이르니 인경산^{仁慶山}(서울의 남산)과 삼각산^{三角山} 중앙이며 예예와 삼사¹⁵⁹가 건장궁^{建章宮}에 들어서니 경복궁 서쪽이도다. 명명^{命名}된 의리를 돌아보면 대개 나라의 명운을 길게 할 생각을 취했도다. 황하가 한 번 맑아지는 때¹⁶⁰를 기다려 일을 시키고 다스리게 하고 송악의 삼호의 축원¹⁶¹을 올리니 이지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도다. 생각건대 성하고 쇠함이 무상하니 아파 기수도 면치 못하리로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니 때는 위축되고 일은 더디지만 예전 모습대로 새로 지으니 뜻과 일이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요임금의 뜰처럼 밝고 검소했으며 순임금의 문처럼 두루 통해 귀 밝았도다. 신인^{神人}의 뜻 깊으니 명을 받아 땅과 집을 크게 빛나게 하고 조종의 기업 크게 어루만지니 집을 짓는데 벽을 쌓기를 부지런히 하였도다. 촛불 비치는 춘대에서는 어진 명성 무성히 하여 아래로 이르게 하고 병풍 둘러친 여름 집에서는 화락함을 펼쳐 두루 흐르게 하였도다. 열두 성인이 전한 일을 아련히 떠올리며 삼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이루지 못한 성전을 닦았도다. 경사^{卿士}들의 대동지론^{大同之論}을 따르니 거북점과 시초점 모두 일치하고 비조사숙¹⁶²의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니 원대한 업적 빛나도다. 즐거운 낮빛으로

157 금감(金鑑): 당나라 현종 때 장구령(章九齡)이 지어 바친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을 말한다.

158 벽당(壁堂): 서까래 끝에 장식한 옥을 말한다.

159 예예(桺脂)와 삼사(駁姿): 예예와 삼사는 건장궁(建章宮)에 있던 전각의 이름으로 훌륭한 건물을 말한다.

160 황하(黃河)가 한 번 맑아지는 때: 황하는 원래 탁한 물이므로 맑아지기 어려우나 한 번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고 한다.

161 송악(嵩岳)의 삼호(三呼)의 축원: 즐거울 때 또는 연회할 때 세 번 송악을 외치고 축원을 한다는 말이다. 임금을 축원할 때 쓰는 말이다.

162 비조사숙(妣祖似續):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조상을 계승하여 궁실을 짓는다는 뜻이다.

고하니 크게 백성들의 마음 볼 수 있으니 어찌 끝까지 마쳐 길이 선조의 법에 허물이 없게 하지 않겠는가? 주간¹⁶³처럼 집을 짓고 초구¹⁶⁴처럼 별로 방위를 잡았도다. 화개전華蓋殿의 옛터 아직 남아 있으니 오른쪽은 평지고 왼쪽은 층계이며 옥대의 오랜 계획 살필 수 있으니 넓은 담에 아홉 개의 대자리도다. 내정당內正堂 영건을 끝내고 서쪽 침전의 영건 일을 일으켰도다. 신묘한 솜씨로 큰북 작은북을 울려 권면하는 소리를 감당할 수 없고¹⁶⁵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느릅나무 가래나무를 실어 날라 앞다투어 모았도다. 순식간에 화려한 서까래 하늘로 치솟고 어느새 웅장한 집에 무지개 들보를 세우니 아버지의 일에 자식이 달려가¹⁶⁶ 일이 사흘도 안 되어 끝나는 것 같아 신령이 베풀고 귀신이 세운 것 같아 형세가 만년에 우뚝 섰도다. 성대한 아름다움 펼쳐는 것은 지금 시작했으나 송축頌祝은 옛날부터 있어 왔도다. 궁궐을 짓는 일 은나라의 공이 전대보다 많음을 징험할 수 있고 작고 큰 언덕과 같으니 어찌 순임금과 문왕의 때가 차이가 나는 것에 그치겠는가? 이에 수많은 전각들 높고 커서 편안하게 거처하도다. 삼가 속된 노래 올려 노나라의 쇠락함을 위로하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먼저 부상扶桑의 아침 해 붉은 것을 보니

先觀扶桑曉旭紅

문신文臣의 춘첩자春帖子를 잘 축사하여

善頌詞臣春帖子

해마다 최고로 복되어 풍년들길 바라도다.

年年上瑞願年豐

163 주간(周干): 주나라 선왕(宣王)이 궁실을 지은 것을 축하한 노래인 『시경』 「소아」처럼 집을 지었다는 뜻이다.

164 초구(楚邱):춘추시대 제환공이 제후들을 이끌고 성을 쌓은 곳으로 여기서는 나라의 기반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165 큰북 … 없고: 『시경』 「대아」의 내용으로 백성들이 궁궐의 공역을 즐겁게 여기니 공역을 복돋는 북소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166 아버지의 … 달려가: 『시경』 「대아」의 내용으로 민심이 즐거워하여 자식이 아버지 일에 달려오듯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다.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오성^{五緯}이 창명하여 구성^{奎星}을 둘러싸서 모이니
선도 복숭아에 새로 열린 열매를 다시 바쳐
고관들의 축하행렬이 제나라에 떠돈 것처럼 되소서.

五緯昌明共聚奎
更獻蟠桃新結子
簪紳賀列拜趨齊

들보 남쪽에 던지세나.

拋樑南

남극성 빛을 더하여 오래 살아 셋(천지인)을 이루니
홀륭한 자손들 경사를 번성하게 하고
미덕이 수많은 아들로부터 비롯되소서.

極宿增輝壽作三
玉葉金枝繁衍慶
德音肇自百斯男

들보 북쪽에 던지세나.

拋樑北

못별들이 북극성을 둘러싸서 돌아가니
밝은 정사 아름다운 조짐에 합하고
감우^{甘雨}와 화풍^{和風}은 때마침 만억이도다.

衆星環拱歸于極
嚮明出治協休徵
甘雨和風時萬億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해와 달의 빛을 백성들이 우러르니
구중궁궐에 전^殿과 궁^宮이 열리고
태화^{太和}의 원기가 빛은 듯 순수하도다.

日月光華民所仰
闔闔九天開殿宮
太和元氣醇如釀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기쁨의 소리 온화한 기운 조야^{朝野}에 두루 퍼지니
대^臺와 못^沼에 자식처럼 온 백성을 보니
모두 요임금의 격양가로다.

歡聲協氣均朝野
請看臺沼子來民
盡是堯衢歌壤者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네 계절이 아름답고 온갖 복록이 모이기를. 왕골자리 대자리¹⁶⁷ 매우 편안하여 아침에 일을 보고 저녁에 편히 쉬시기를. 용마루와 처마 길이 공고하여 박후함은 땅에 짝하고 고후함은 하늘에 짝하기를. 그로써 백성들에게 베풀어 장수하고 건강하며 덕을 좋아하시길. 그 터는 밝은 임금을 만들어 하늘이 명철하고 길하고 오래 역임하라고 명하시길.

보국승록대부 행지중추부사 신 홍재철^{洪在喆}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짓다.

각색 공장은 1872명이고, 담모군은 99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620냥이다.〔선성 유학 이숙^{李湫} 4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360냥이다.〔길주 안희^{安禧} 2180냥 4차 ○안동 민인 1000냥 ○순흥^{順興} 민인 1000냥 선납〕

자원군은 13동에서 486명이며, 서교^{西郊}의 예목군^{曳木軍}은 12동에서 960명이다.

10일

맑음

광화문루 월대 좌우 남쪽 모퉁이에 ■■■각 1좌를 두었다. 높이 4자이다. 대개 근정전 월대에 둔 것을 모사하여 완성했다.〔근정전에 둔 것은 옛 제도에 있는 것으로 혹자는 이문¹⁶⁸이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다. 『대류총귀^{對類總龜}』를 살펴보면 ‘용이 아홉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일명 조풍^{嘲風}은 모험을 좋아하여 전각 귀퉁이^{殿角}에 세우고, 일명 치문^{蚩吻}은 삼키기를 좋아하여 전각 용마루^{殿脊}에 세웠다.’고 한다. 『박물지일편¹⁶⁹』에 이르기를 ‘이문^{螭吻}은 형상이 짐승과 같고 천성이 바라보기를 좋아하므로 전각 귀퉁이 위에 세우며, 만전^{螭螭}은 모양이 용과 같고 성격이 풍우를 좋아하므로 전각 용마루에 세운다.’

167 왕골자리 대자리: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왕후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168 이문(螭吻): 용의 아홉 아들로 알려진 동물 중 하나이다.

169 『박물지일편(博物志逸篇)』: 서진(西晉)의 학자 장화(張華)가 저술한 기문(奇聞), 전설집이다. 신선(神仙)과 이상한 인간, 동식물에 관한 기록을 주로 하고 거기에 민간전설 등이 있다.

고 한다. 대개 조풍이 일명 이문이다. 치문은 일명 만전(蟠蛇)이다. 『당회요』¹⁷⁰에 이르기를, ‘한 무제(漢武帝) 때 백량대(柏梁臺)가 불났는데 월나라 무당이 술법을 부리며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이름을 규(虬)라 하는 물고기가 있어 그 꼬리가 치(鰲)와 비슷한데 물결을 치면 비가 내리므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 전각 용마루에 두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였다. 또 혹자는 ‘백량대에 화재가 발생해 월나라 무당이 압승(壓勝)의 방법으로 곧 건장궁¹⁷¹을 세워 드디어 전각 용마루에 치미(鰲尾)의 모양을 만들었다.’ 하였다. 지금 전각 용마루에 물상(物像)이 많이 있으나 치미가 있는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했다.]

○건춘문 현판이 완성되었다. 묵본(墨本)에 녹색(綠書)이다.〔서사관은 금위영대장 이정하(李景夏)이다.〕 대개 동, 서, 남 3문의 편액은 본 문의 공역을 주관하는 장신(將臣)이 썼다. 오직 신무문은 금위영, 어영청 두 군영이 공역을 주관하였으나 금위대장과 어영대장이 이미 동문과 서문의 현판을 썼으므로 총융사에게 쓰게 했다.

각색 공장은 1603명이고, 담모군은 98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만 8348냥 2전이다.〔밀양 민인 3000냥 4차 ○남해 민인 1175냥 ○남양 민인 512냥 5전 ○내침의(內針鑿) 홍윤석(洪允奭) 1000냥 선납 ○보은 민인 3920냥 7전 ○청산 민인 3357냥 ○의령 민인 7500냥 ○강릉 전 참봉 김계구(金啓求) 1000냥 3차 ○안변 주일천(朱一天) 1000냥 ○양산 민인 9040냥 2차 ○하양 민인 5103냥 ○대구 민인 1000냥, 중성 민인 1만 냥〕

자원군은 10동에서 344명이다.

170 『당회요(唐會要)』: 중국 당나라의 국정과 제반 제도에 대한 연혁을 항목별로 분류 편찬한 책을 말한다.

171 건장궁(建章宮):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지은 궁전 이름이다. 장안현(長安縣)에 위치해 있는데 천문만호(千門萬戶)가 될 정도로 규모를 크게 지었다고 한다.

11일

맑음

한 해가 저물어 가므로 이날부터 먼저 먼 지역의 장색(匠色)을 내보내고, 해가 지나 올라오도록 하였다. 대개 거리의 원근에 따라 급유¹⁷²의 선후(先後)와 궤신(軌身)에 다과(多寡)가 있었으므로 북도(北道)의 장색이 먼저 돌아왔다.

각색 공장은 1782명이고, 담모군은 103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5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121냥 4전이다.〔적성 민인 1059냥 6전 ○ 평해 민인 7258냥 5전 ○ 영천 민인 1555냥 5전 ○ 전라 병사 조희원(趙義元) 1000냥 ○ 진산(珍山) 민인 1131냥 7전〕

자원군은 7동에서 174명이며, 온릉(溫陵)의 나무를 끌어 운반한 양주군(楊州軍)은 960명이다.

12일

맑음

평안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금 용천(龍川)에 사는 김이주(金履周)가 호소한 바를 보니, ‘저희 선대(先代)가 대대로 조정으로부터 보기 드문 큰 은전을 입어서 보답하려는 생각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궁궐 공역이 많아서 여러 친족과 모두 모여 의논을 내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쳐야 하는 때이니, 다른 사람이 낸 원납전의 예만큼만 할 수 없고 마땅히 재력을 모두 모아서 우리 몫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여러 친족이 모두 즐거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세 사람이 그 의견과 달라서 아직도 원납전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상경하여 역소를 둘러보니 연못의 독을 쌓는 것은 족히 담당하여 처리할 만하였으나, 재력을 모으는 사이에 어긋나는 의견이 있을까 두려운 까닭에 여러 족인(族人)의 이름을 이에 후록하여 우리러 아뢰오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축석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관

172 급유(給由): 관리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다. 그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문을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이 사람의 호소한 바가 과연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협잡하려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배 문건에 기록된 사람들의 성명을 열록(列錄)하여 관문을 내니 도착하는 즉시 후록한 각 사람을 불러서 엄히 사실을 밝히도록 하라. 그런 후 과연 8인의 가력(家力)이 이 수효의 재물을 마련할 수 있으면 굳이 김이주로 하여금 모두 모아서 공역을 돕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감영에서 일체 기록되어 있는 바를 따라 정해진 수효만큼 거두어서 즉시 올려보내 공사(公私) 양쪽이 편할 수 있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721명이고, 담모군은 98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290냥이다.(옥천 민인 3000냥 ○평해 이계영(李啓榮) 1000냥 2차 ○길주 민인 2000냥)

자원군은 7동에서 322명이다.

13일
맑음

훈련도감이 누주석 1괴를 싣고 왔다.(영풍정)

각색 공장은 1692명이고, 담모군은 102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2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997냥이다.(예산 민인 2715냥 2차)

자원군은 9동에서 364명이다.

14일

흐리다가 밤에 비

금위영이 누주석 1괴를 신고 왔다.(삼청동)

각색 공장은 1769명이고, 담포군은 1003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365냥이다.(안동 민인 1000냥 ○상주 민인 2000냥 선납)

자원군은 8동에서 294명이다.

15일

비, 어제 인정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심
은 5푼

축시丑時에 자미당紫薇堂에 상량上樑하였다. 진설한 것은 백목白木 10필, 대미大米와 소미小米 각 1섬, 돈 50냥이다. 그 나머지는 다른 전각과 같다. 헌관獻官은 대호군 박규수朴珪壽, 독상량문관讀上樑文官은 부사과 이창호李昌鎬, 사향관司香官은 예조 좌랑 김병수金秉洙, 병조 좌랑 유용함柳龍鎬, 집사執事 사옹원 첨정 김우근金友根, 사옹원 봉사 강영수姜穎秀이다.

자미당 상량문

아뢰니다. 맑은 기운은 주명朱明의 자리 눌러 옥 같은 대궐 새롭고 향기는 궁궐의 꽃을 취해 편액은 옛것을 그대로 이었도다. 참으로 도읍을 이곳에 정하니, 길이 많은 복을 받았도다. 삼가 생각건대, 한수 북쪽 도읍을 정했을 때, 내정당內正堂의 정사를 듣는 장소 있었도다.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을 받았으니 성인께서 대궐을 정한 까닭이며 해와 달이 다스리는 문장을 체득했으니 왕자가 내치를 삼간 까닭이도다. 옛날 우리 주상의 기명과 정명에 금척이 만역의 아름다운 명을 열었고, 국풍「주남周南」과「소남召南」에 사용하니 중정[黃裳]의 도가 육오六五의 길함에 합했도다. 내재內宰 구어九御의 직분을 가르침에 여름에는 누에실 뽑고 가을에는 곡식을 담았고 왕공王公 육침六寢의 규정에 따라 전殿에는 함원含元이 있고 각閣에는 비현丕顯이 있도다. 인의를 집과 길로 삼으니 수제치평修齊治平의 기틀이고 건으로 통할하고 곤으로 계승하니 박후고명博厚高明이 서로 짝하는 바도다. 부시眾惡가 희미하니 은하수 밝게 회전하는 빛 밝게 드러나고 처마 끝은 휘황찬란 봄꽃이 아름답게 핀 모양과 같도

다. 이에 자미紫薇의 아름다운 경치 취하고 청쇄객¹⁷³의 아름다운 이름 게시하네. 찬란하게 노을빛을 자른 것 같아 구영九楹과 팔창八窓에 제도가 있고, 이를 바라보니 족성簇星의 형상으로 네 계절과 여섯 기운이 편안함과 수고로움 조절하도다. 명랑하고 기쁘게 일어난 노래 아직 기뻐하니 영릉英陵의 태평성대이고 집안 군왕의 경사가 진실로 부합하니 「사간斯干」편의 후세에 남겨진 시도다. 이 흥망의 무상함을 어찌하겠는가? 번갈아 교체하는 기수氣數의 운행이 아님이 없도다. 중문重門 열리니 새매와 까치의 구의舊儀는 더 이상 없고 삼층의 계단 아직 남아 있어 용사龍蛇의 남은 위협만 탄식하도다. 취화¹⁷⁴가 역임歷臨하여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하시고 오늘 현리玄理(오묘한 이치)가 무한하게 왕복하니 천심天心도 의지하는 바 있는 것 같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교화는 집집마다 봉해줄 인재를 밝혔고 덕은 절검에 힘쓰셨도다. 상관리尙冠里에서 처음 사냥하던 때부터 태산 같은 견고함에 국세를 두었고 태모太母의 사물을 대하는 가르침에 힘입어 젖어 드는 중에 민생을 이끌었도다. 아! 조종 근검의 계획은 그대로 따르고 잃음이 없었으며 원유苑囿와 대臺와 못[沼]을 영건하는 일에 담박하게 억지로 함이 없었네. 그러나 잘 잇고 잘 기술한 방도는 오로지 기반을 다지는 거사에 있었네. 열네 성인이 오래도록 전한 것을 생각하니 국운을 징험할 수 있었도다. 이후 삼백여 년 겨를이 없어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을 이로부터 길하고 밝으라 명했도다. 『주역』은 「대장大壯」괘에서 궁실宮室과 동우棟宇를 취했고, 『서경』은 재재梓材 편에서 다듬고 깎는 일을 삼가 사용했네. 이에 옥란玉鸞을 부려 친히 살피니 상서로운 거북에 부합하여 크게 같도다.

태사太史가 영실성營室星을 살펴 화개華蓋의 지난 자취를 살필 수 있고, 사도司徒는 고공기考工記를 올려 옥대玉帶의 옛 도모를 징험할 수 있도다. 기산¹⁷⁵의 북소리를 감당하지 못할¹⁷⁶ 정도로 왼쪽에서 툭질하고 오른쪽에서 도끼질하며 초구楚邱를 그대로 따라 처마

173 청쇄객(靑瑣客): 궁중에 출입하며 황제의 측근에서 청요(淸要)의 직책을 수행하는 신하를 말한다.

174 취화(翠華): 푸른 깃털 장식의 깃발 혹은 수레이다. 대가(大駕)나 제왕의 대칭으로 쓰는 말이다.

175 기산(岐山): 주나라 고공단보(古公亶父)가 빈(邠)에서 기산으로 천도하여 왕조의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176 북소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경』 「대아」의 내용으로 백성들이 궁궐의 새로 짓는 공역을 즐거워하여 공사를 권면하는 북

로 돕고 문으로 이었도다. 이루와 노반의 먹줄과 도끼¹⁷⁷로 다투어 여러 솜씨 드러내고 회랑과 복도는 모두 이전 법도에 맞도다. 때는 음양[二儀] 교태[交泰]의 시기요 달은 일양[一陽]이 회복된 뒤도다. 규열¹⁷⁸이 바르게 되어 새가 놀라고 꿩이 나는 모양으로 새 건물 우뚝 솟았고 은근한 가르침을 널리 펼쳐 「중사[蟲斯]」와 「인지[麟趾]」의 남은 경사를 계승했네. 정전[正殿]과 편전[便殿]의 구별을 두어 후대 사람들이 더함이 없게 했고 대대로 성인의 기틀로 이어서 선왕의 건물에 비교할 수 있도다. 진실되구나! 끝을 도모하고 처음을 경영하였도다. 위대하구나! 뒤를 여유 있게 하고 앞을 밝혔도다. 안은 궁궐[宮掖]으로부터 밖은 조정에 이르도록 모두 천년을 외치고 멀리는 향읍 가까이는 도비에 이르도록 만민을 화합시켰도다. 삼가 구여¹⁷⁹의 기원을 바치고 육위[六偉]의 송(상량문)을 드날리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한 줄기 금빛이 해를 받들어 붉으니

一道金光捧日紅

나무마다 선도복숭아 일제히 열매를 맺고

樹樹瑤桃齊結子

육궁[六宮]의 아름다운 기운에 푸른 기운 울창하네.

六宮佳氣鬱蔥籠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들쭉날쭉 높은 궁궐에 새 편액[新題] 빛나니

參差高闕耀新題

경회루[慶會樓]에서 멀리 바라보아

試從慶會樓邊望

을 그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177 이루(離婁)와 노반(魯般)의 먹줄과 도끼: 이루는 황제(黃帝) 때 사람으로 백보 거리에서도 추호(秋毫)의 끝을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밝았다 한다. 이주(離朱)라고도 한다. 노반(魯般)은 노(魯) 나라의 교공(巧工) 공수반(公輸般)을 말한다.

178 규열(圭臬): 해 그림자를 재는 막대기이다. 주나라 때에는 집터를 정할 때 규열을 이용하여 사방(四方)을 바르게 잡았는데 이를 팔승법(八繩法)이라고 한다. 『주례』 「고공기」에 나온다.

179 구여(九如):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백성들이 임금을 축원하는 말로 쓰인다.

화합하는 기운과 소리 온 집에 가지런하네.

協氣歡聲萬戶齊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여사女史 낭랑琅琅하게 갈담葛覃을 수놓으니

女史琅琅繡葛覃

전각殿角의 훈풍薰風 수놓은 발[箔]을 걷고

殿角薰風開繡箔

계단 가득 방초芳草(향기로운 풀)며 의남초¹⁸⁰ 심었도다.

滿階芳草種宜男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우뚝 솟은 삼각산은 북극성에 참여하니

崔巍三角參宸極

궁의 등불은 밤마다 선기仙機를 짜고

宮燈夜夜織仙機

오색실로 장년長年을 수놓았도다.

繡出長年絲五色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감로甘露와 상운祥雲 큰 복을 드리우니

甘露祥雲垂景貺

보리寶蔭가 태을궁太乙宮에 늘 임하고

寶蔭常臨太乙宮

관주貫珠와 연벽連壁이 뽀뽀하게 서로 올리도다.

貫珠連壁森相嚮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무성한 대나무와 소나무는 『시경』 「소아」에 있고¹⁸¹

竹苞松茂登詩雅

자식 같이 달려온 많은 백성을 보니

須看多少子來民

태평가 부르는 배부른 백성들이도다.

摠是康衢鼓腹者

180 의남초(宜男草): 풀의 이름으로, 흰초(萱草)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임신한 부인이 허리에 차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차고 다녔다고 한다.

181 무성한 … 있고: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다.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해와 달은 유구함에 합하고 백령이 가호해 주시길. 장수와 부귀 편안
함에 황극皇極을 무성하게 하여 번창하고 불타게 해주시길.

금슬琴瑟과 종고鍾鼓에 아름다운 덕음을 퍼뜨려 군자가 거처하고 오르시길.

옥촛불과 춘대가 희락함이 수많은 백성과 같고 요와 순의 해가 높고 탕탕하여 천 년 만 년
전하시길.

보국송록대부 행지중추부사 신 윤치희尹致義가 전교를 받들어 삼가 짓다.

각색 공장은 1646명이고, 담모군은 78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435냥이다.〔길주 민인 1000냥 ○신녕 이민 1625냥〕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16일

비, 새벽부터 오사까
지 수심은 4푼

금위영이 누주석 1괴를 싣고 왔다.〔삼청동〕

각색 공장은 1670명이고, 담모군은 100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056냥이다.〔경기 감사 유치선俞致善 2000냥 ○순

천 민인 김성천金性天 1500냥 최봉악崔鳳岳 1500냥, 진사 김찬경金燦慶 1500냥 ○절충 이덕환李德煥 3000냥 ○

천안 민인 2000냥 ○단성 민인 3056냥 2차, 전라감영 서리 백낙서白洛瑞 각장各張 200냥立〕

자원군은 4동에서 70명이다.

17일

맑음

훈련도감이 누주석 1괴를 싣고 왔다.(영풍정)

각색 공장은 1535명이고, 담포군은 997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514냥 2전이다.(잡산 민인 950냥 선납 ○이

원 민인 6500냥 ○단천 민인 2686냥 2전 ○북청 민인 2000냥 ○황간 이민 4034냥 ○선산 유학 최병규崔炳奎

3000냥 선납)

자원군은 4동에서 70명이다.

18일

맑음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할 때 각 항목의 필요한 물품이 날로 많아져서 실로 갖추어 쓰기가 어려운 터에 각 도道의 원납전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지만, 오직 본 도만 수효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미납한 고을이 많다. 받는 대로 밤을 새서라도 올려보내 늦어서 죄를 받는 폐해가 없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622명이고, 담포군은 1037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41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42냥 2전이다.(지평 민인 1242냥 2전)

자원군은 4동에서 70명이다.

19일

맑음

각색 공장은 1609명이고, 담모군은 111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500냥이다.[명천 유학 이인수李仁秀가 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665냥이다.[영천 민인 1만 냥 2차]

자원군은 3동에서 62명이다.

20일

맑음

차대시 영의정 조[두순斗淳]가 계를 올려 아뢰었다.

“장생전¹⁸²의 터가 좁아서 옮겨 세우자는 논의가 있어 온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영건도감에서 편의에 따라 옮겨 세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이 답하였다.

“그대로 하라.”

[올해 7월 13일 어의동於義洞 인평대군人坪大君 본방本房 정침正寢에서 옮겨서 봉안했다.]

또 계를 올려 아뢰었다.

“좌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신병이 갑자기 심해졌으니, 말은 좌포도대장의 체직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이 답하였다.

“그대로 하라.”

신명순申命淳이 대신하였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좌포도대장 신명순을 본 도감의 당상으로 차하함이 어떻습니까?”

“윤택하다.”고 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1589명이고, 담모군은 1087명이다.

182 장생전(長生殿): 1395년(태조 4) 경복궁 창건 때 여러 공신들의 화상(畫像)을 봉안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00냥이다.〔초산 수령 이주흥李周興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395냥이다.〔철산 진사 이희재李熙載 2000냥 ○출신 유상민劉尙敏 1500냥

○유학 최인선崔隣善 1500냥 ○강치황姜致璜 1500냥 ○유기주劉基周 750냥 ○이진옥李辰玉 500냥, 김상규金尙奎 400냥, 박봉륜朴奉倫 500냥, 출신 유위량劉偉良 750냥, 유학 정성당鄭成唐 1250냥, 정득곤鄭得坤 1500냥, 최석승崔錫升 2000냥, 전 오위장 강이황姜以璜 2500냥 ○포천 유학 이종후李種厚 백탄白炭 100섬 ○진보군眞寶郡 민인 등 3000냥〕

자원군은 3동에서 102명이다.

21일

맑음

각색 공장은 1456명이고, 담모군은 97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1790냥 9전이다.〔안성 장터 민인 1900냥 ○진주

민인 9190냥 9전, 유학 강상기姜相基 1000냥, 유철환俞喆煥 1000냥, 덕천서원德川書院 1000냥 ○경주 민인 7160냥〕

자원군은 4동에서 132명이다.

22일

맑음

본 도감에서 별간역 이하의 세찬歲饌을 마련하였다. 별간역은 15원員이고, 각 15냥이다.

○계사計士 7원, 구료관救療官 4원, 패장牌將 38인, 녹사錄事 2인, 서리書吏 54인, 도청고지기都廳庫直 8인, 각 10냥

○서사書寫 2인, 각방 서원書員 3인, 고지기 3인, 일차서日次書 1인 각 5냥

○사령使令 21명, 사환기수使喚旗手 21명, 군사 58명, 각 3냥

○포교 2명, 양의사兩醫司(혜민서와 활인서) 공인貢人 4명, 각 5냥

○사환군使喚軍 2명, 포졸 2명, 각 2냥

○각색 공장 1353명, 각방各房 담군擔軍 222명 도합 1575명. 30명당 소 1척씩 도합 52척

반. 1척당 값 60냥씩 도합 돈 3150냥 상하 이상 도합 4888냥이다. 처음으로 공장들에게 소의 도살을 허락하였다. 이 일을 빙자하여 난도爛屠하는 폐단이 있을까 하여 다시금 엄히 금하였다.

각색 공장은 1451명이고, 담모군은 948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1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3119냥 5전이다. [진천 민인 3000냥 2차 ○안성 유학 안효직安孝稷 5000냥 ○함안 민인 4000냥 2차 ○금산 부사과 조진구曹鎭九 5000냥, 참봉 조진억曹鎭億 5000냥, 진사 조진만曹鎭萬 5000냥, 진사 조진백曹鎭百 5000냥]

자원군은 4동에서 132명이다.

23일

맑음

훈련도감에서 떠온 누주석 1괴를 신고 왔다. [영풍정]

각색 공장은 1427명이고, 담모군은 951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759냥이다. [울산 민인 1000냥 ○서흥 부사 서원보徐元輔 2000냥]

자원군은 4동에서 47명이다.

24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이상순李象恂이 아산 현감牙山縣監으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대신 형조 좌랑 이원진李源進으로 차하差下하겠습니다. 감조관監造官은 의금부도사 이만시李晩著이며, 선릉 직장宣陵直長 정대림丁大林은 상의원 직장으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직무가 서로 방해되니 해조에 구전하여 한가로운 관사와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이만시는 종친부 직장 조운한趙雲漢과 서로 바꿨으며, 정대립은 내섬시 직장 유치경俞致敬과 서로 바꿨다.]

묘시卯時에 만춘전萬春殿에 정초定礎하였다. 천추전千秋殿과 같다.

각색 공장은 1422명이고, 담포군은 92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82냥 2전이다.[경흥 민인 1132냥 ○청풍 민인 3050냥 ○안동 민인 2230냥, 화순 민인 952냥 ○길주 민인 1000냥]

자원군은 3동에서 17명이다.

25일

맑음

진시辰時에 건춘문建春門에 상량하였다. 고사告祀할 때 진설한 것은 백목白木 10필, 대미大米 4섬, 돈이다. 그 밖의 절차는 일제히 다른 문에 의거한다. 헌관은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 독상량문관은 사복시 정正 이종준李鍾濬, 사향관은 형조 좌랑 오인태吳仁泰, 승문원 판교判校 김지유金之有, 집사는 공조 정랑 김헌진金獻鎭, 내자시 봉사 이준영이다.

건춘문 상량문

아뢰입니다. 북극성을 둘러싼 못 별들을 『논어』에서는 왕정王政에 비유하였고 이월 달 봄에 만물을 내는 것은 『설문해자』에서는 문門의 형상으로 상징했도다. 문설주와 기둥은 새로 꾸몄으나 편액은 옛것을 그대로 따랐도다. 듣자니, 용마루와 처마를 높이 세워 해와 달을 씨줄과 날줄로 삼고, 대궐 문을 세워 건곤을 열고 닫았도다. 순임금 훈전¹⁸³의 사빈四賓의

183 훈전(薰殿): 당나라 때의 남훈전(南薰殿)을 말한다. 순임금이 지은「남풍가(南風歌)」의 '남풍지훈(南風之薰)'에서 따온 명칭이다.

거처같이 깊이 열려있고 주나라 호궁(蒿宮)의 왼쪽 편실처럼 엄정하게 서 있다. 선니¹⁸⁴가 상국(上國)을 유람하고 좌씨(左氏(좌구명左丘明))가 구장(舊章(춘추좌씨전))을 지은 것이 참으로 백성의 법칙이 되고 사사(司士)가 조정 의식을 바르게 하고 천관(天官)이 치법을 반포하니 왕의 거처를 장성하게 할 수 있었도다. 이 때문에 백수(白獸)와 창룡(蒼龍)이 춘하추동에 삼엄하게 늘어서고 구리로 만든 치미(鷄尾)와 철로 만든 궁궐문¹⁸⁵이 동서남북으로 날아가도다. 규룡(虯龍)의 물시계 멈추니 문빛장 열리고,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 나아오니 젊은 선비들 엄숙하며 우리 성인이 황극을 세우니 경복궁 정전은 우뚝 솟았도다. 꿈속의 금척(金尺) 상서로움 드러내니 한양을 터전으로 삼아 궁궐 문을 열었고, 토규¹⁸⁶로 해 그림자 재니 청륙(靑陸(달이 운행하는 길, 청도))의 진산(鎭山)이 되어 문지도리를 운행하도다. 맑은 은하수 앞에 두고 신령한 숭산(嵩山)을 등 뒤에 하여 천리에 삼한(三韓) 땅을 당기고 길이를 헤아리고 면적을 살펴 도성 거리에 궁문을 세웠도다. 왕가(王家) 육침(六寢)의 논의에 근거하여 근정전(勤政殿)은 노침(路寢(임금이 정사를 보는 곳))이 되고 강녕전(康寧殿)은 소침(小寢(임금이 평소 거처하는 곳))이 되도다. 제후 삼문(三門)의 제도로 살펴보니, 홍례문(弘禮門)은 응문(應門(궁성의 정문))과 같고 광화문은 고문¹⁸⁷과 같도다. 창유(蒼維)에 바른 자리를 표시하고 황금 편액에 건춘(建春)이라 게시하도다. 하늘의 칠수(七宿)에 응하니 뜻은 인(寅) 방향에 손님이 되어 합하고 태세성(太歲星)의 삼원(三元)에 거처하니 조화(造化)는 상제(上帝)에 부합하도다. 닭소리 새벽을 알리니 뜨는 해의 안녕과 화평을 가리키고 물고기모양 자물쇠가 새벽에 뿔히니 어진 하늘의 대덕(大德)을 발하도다. 궁궐은 아득하여 은하수 별빛과 비스듬히 연결되고 누각의 용마루와 서까래 휘황찬란하여 멀리 무지개의 형상을 띠었도다. 옥률(玉律)이 회전하는 차레를 처음으로 하고 붉은 궁문의 지탱하는 공(功)을 높이도다. 어찌 사탁(司鐸)이 주나라 사람에게 명하는가? 영광전(靈光殿)에 노전(魯殿)이 우뚝 선 것은 더 이상 없으리. 아! 팔방에서 우러러 보는 곳 성쇠에 일정함이 없고 백

184 선니(宣尼): 공자의 별칭이다. 한 평제(漢平帝) 원시(元始) 원년에 추시(追諡)하여 포성선니공(褒成宣尼公)이라고 하였다.

185 철로 만든 궁궐문(鐵鳳): 철봉궐(鐵鳳闕)을 말한다. 문 꼭대기에 철제 봉황을 달아 놓은 도성 궁궐 문이다.

186 토규(土圭): 중국 고대의 옥기(玉器)로서, 해의 그림자를 측량하던 기구이다.

187 고문(皋門): 천자의 궁궐에 있는 5문 중 하나로, 5문은 고문(皋門), 고문(庫門), 치문(稚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이다.

년의 태평시대 이래로 흥망은 정해진 날이 있다. 후시전조¹⁸⁸의 옛 제도 생각하고 천문만호의 증수를 기대하도다. 계단에 이끼 무성하니 대궐문 부동^{類同}의 옛터를 기억하고 상림^{上林}의 나무 늙어 취화^{翠華}로 유람하던 해 생각하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덕은 요의 뜰만큼 높고 도는 문왕의 언덕에 올랐도다. 인의의 집이 밝고 지혜로운 마음에 천지사방을 채웠고 천지의 규구는 주상의 지혜에 천지인삼의^{三儀}를 관통하였도다. 초가집과 작목 서까래의 경계로 검소하고 근면하지만 벽을 바르고 지붕을 이며 붉은 색칠을 하는 일로 터를 다지고 집을 지었도다. 새 일을 공경하여 밝은 시운에 따라 옛터를 살피서 궁궐을 지을 일을 생각하셨도다. 태후께서 계승의 일을 자문하니 상제와 조종이 돌아보고, 거북점과 시초점이 길한 조짐을 알리니 백성들과 관리가 대동이라 말하도다. 『시경』 「사간」편의 위아래 대자리와 왕골자리¹⁸⁹와 같이 장중하며 미전^{美典}을 상고하고, 장락궁^{長樂宮}의 오른쪽은 평평하게 하고 왼쪽을 이를 낸 것은, 법식이 큰 계책에 합치하도다. 좋은 채목과 옥과 녹나무는 각각 대들보의 쓰임을 드러내었고, 뛰어난 솜씨는 먹줄과 자의 공인에게 다투어 나아갔도다. 정전의 장엄함을 바라보니 동문이 앞서 우뚝 섰도다. 용머리 치켜 올려 높이 드니 그림자가 옥자루 누르고 물고기 꼬리 뿔어내어 횡으로 서리니 형세는 푸른 하늘과 나란하도다. 황금빛 문고리 붉은 문짝은 법일의 다스림을 두루 펼치고 왕의 수레 푸른 깃발은 봄을 맞이하는 수레를 이루었도다. 왕궁 오치¹⁹⁰의 기운은 구망을 맞이하고, 궁궐의 문채는 양곡에 떠있도다. 안개 속 궁궐에 꽃 피었을 때가 교매^{郊祿} 제사로 왕자가 탄생한 때이며 궁궐 버드나무에 부는 동풍은 전사와 빼꾸기의 때를 재촉하도다. 삼가 기원하는 바를 펼쳐 들보 드는 것을 돕도다.

188 후시전조(後市前朝): 『주례』에 따라 도성의 궁궐 앞에 조정(朝廷)을 뒤쪽에 시장을 두는 것을 말한다.

189 위아래 대자리와 왕골자리: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왕후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190 오치(五雉): 『주례』 「고공기」에 따르면 왕궁(王宮) 문우(門隅)의 제도는 오치(五雉), 궁우(宮隅)의 제도는 칠치(七雉), 성우(城隅)의 제도는 구치(九雉)라고 한다. 또한 치(雉)는 길이가 세 길, 높이가 한 길이라고 한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여명이 붉게 타오르니

大昕赭紅

풀뿌리 발아하여

蒞茲甲拆

화락하고 환히 빛나도다.

闡澤昭融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크게 안녕함을 내리니

惟皇降提

모으고 수확하여

乃摯乃穫

백성들을 먹여 살리도다.

乃粒烝黎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관악산 쪽빛으로 무성하니

冠岳堆藍

열수冽水가 옷깃처럼 두르고

冽水襟之

찰싹 그물 소리 멀리까지 들리도다.

滅滅遐覃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성인의 도 지극히 높으니

聖道峻極

넓은 교화가 싹터

大化發育

나라를 편안히 하도다.

用寧王國

들보 위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함예성含譽星 밝게 빛나니

含譽晃朗

간艮상이 대궐이 되어

惟艮爲闕

만민이 우러르도다.

萬民所仰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조야朝野에

于朝于野

덕은 커져 버드나무 무성하고

茂楊甫德

궁문 왼쪽에 이르도다.

格皇門左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만물 화순하고 오성[五辰]이 왕성함을 펴뜨리길. 여덟 기둥은 중황中黃의 땅을 받들어 부상搏桑에 터전을 다지고 네 모퉁이는 태자의 궁을 호위하여 석목析木에 상서로움 드러나길. 태산泰山의 반석磐石은 대업을 정하여 끝이 없고 한 가닥 옥과 한 덩이 금은 큰 기강 세워 쇠함이 없기를.

소동문小東門(을진乙辰 방향)을 건조하였으니 곧 이날 진시이다. 지난 13일에 터를 닦아 이때 완공을 알렸다. 대개 동서에 응당 이 소문을 두어야 했으므로 병인년 6월에 새로 쌓은 성을 허물고 영추문迎秋門 남쪽 수십 보 정도에 소서문小西門을 설립하였다. 이때 축성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각 항목의 집기 가운데 노천에 둔 것이 많았다. 노천에 둔 집기에 대해서는 표하군은 특별히 밤에 순찰 돌고 낮에 퇴근하기 때문에 각 군영의 중군이 입직할 때 낮에는 본영 장교 한 명과 뇌자牢子 10명 등이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순찰을 거행하였는데, 성역이 마무리되고 문관 당상이 돌아가며 입직하게 되면서 군영 중군은 입직하지 않게 되고 이 규식도 사라졌다.

각색 공장은 1355명이고, 담모군은 88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전 수문장 이희진李喜晉 500냥, 유학 이희관李喜觀 5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4574냥 3전이다.[부령 민인 2460냥 ○홍산 민인 4104냥 ○북청 민인 3000냥 ○강릉 전 감역관 김연대金演大 1000냥 2차 ○태안 민인 7650냥, 전 오위장 유시풍柳時豐 1000냥, 출신 유시묵柳時默 1000냥, 출신 김근홍金根弘 1100냥, 한량 박기원朴基元 950냥, 전 오위장 심이형沈履亨 1300냥 ○안성 민인 770냥 ○단성 민인 1191냥 1전 ○전 주부 이준모李俊謨 3000냥 필납畢納 ○노성 민인 4746냥 2전] 자원군은 연말이 가까워 오지 않았다.

26일

맑음

각 처 목석^{木石}의 공사는 모두 정지하였다. 다만 이방^{二房}의 석수^{石手} 및
신무문 석수는 그대로 머무르며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당상
과 낭청은 입직하는 예에 따라 출근하였으며, 별간역^{別看役}, 패장, 서리
및 목역소^{木役所} 소임 목수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준비하고 기다렸다.

공장은 149명이고, 담모군은 5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28냥이다.〔옥천 민인 6087냥. 선남 ○상주 민인 1000냥 ○안성 민인 745
냥 ○안동 민인 1665냥 ○영산군^{靈山郡} 대소민인^{大小民人} 등 1071냥〕

27일

맑음

공장은 128명이고, 담모군은 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7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6900냥이다.〔대구 서리 김귀원^{金貴元} 2000냥 필
납^{畢納} ○선산 유학 최병규^{崔炳奎} 1000냥 ○충주 민인 1만 8205냥 ○이원 민인 1200냥
○진주 수령 이항익^{李恒翼} 1000냥 ○삭녕 인정윤^{印貞潤} 1000냥〕

28일

맑음

공장은 124명이고, 담모군은 5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485냥이다.〔박양진^{朴陽鎭} 은구대전^{隱溝代錢} 400냥
○경주 민인 7902냥 ○고성 민인 6000냥 2차 ○전주 백동한^{白東翰} 1000냥 ○상주 민
인 등 1000냥 ○영동 민인 3000냥〕

29일

맑음

공장은 109명이고, 담모군은 51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644냥이다.(춘천 민인 5244냥 ○김제 민인 1950

냥, 김순재金淳宰 1000냥 3차, 한봉교韓鳳敎 3000냥 ○김두순金斗淳 2000냥]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12월 한 달 동안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42만 7477냥 2전이며, 중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만 1886냥 5전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4만 1772명이다.

담모군은 2만 9196명이다.

자원군은 178동에서 도합 6800명이다.

경복궁영건일기

4

병인년¹⁸⁶⁶, 고종3 1월

1일
맑음

석수^{石手} 25명 가운데 그대로 머무르며 설을 지낸 자에게는 아침과 저녁의 식대를 지급하였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2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285냥 8전이다.〔고산 민인이 냈다.〕

2일
맑음

2방^{二房}에서 석역^{石役}을 시작하였다.

공장은 62명이고, 모군은 2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0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000냥이다.〔청송 민인이 냈다.〕

3일
맑음

좌우 십자각과 도성의 석역이 모두 시작되었다.

각색 공장은 203명이고, 모군은 5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9637냥이다.[영변 이민 2만 9315냥]

4일
맑음

각색 공장은 475명이고,[석수, 니장泥匠, 야장冶匠] 담모군은 16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66냥이다.[금위대장 이정하李景夏 5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360냥이다.[충주 수령 민우세閔禹世 1000냥 2차 ○철
원 민인 4300냥]

5일
맑음

각색 공장은 556명이고, 담모군은 18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00냥이다.[삼척 수령 이정李塏 300냥]

6일
맑음

패장(훈교訓校 정응현鄭應賢)을 관악산 정상에 보냈다. 당일 사시巳時에 나무를 베어 솥을 만들었는데, 산꼭대기의 자방¹에 솥을 두고 솥을 구어 6섬을 얻었다. 이달 26일 사시에 근정전의 술해방²과 경회루지慶會樓

1 자방(子方): 24방위의 하나로, 정북 방향을 중심으로 좌우 15도 각도 안의 방위이다.

2 술해방(戌亥方): 술방(戌方)과 해방(亥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북서 방향의 양쪽으로 15도가 되는 두 방위이다.

池의 북쪽 제방 위에 감괘³ 모양처럼 땅을 파고 솥을 묻어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줄이는데 사용하였다. 대개 술^戊은 화^火의 고장⁴이 되고, 해^亥는 화^火의 포절⁵이 되기 때문이다.

○관악산 정상에도 우물을 판다. 석면^{石面}은 육각으로 뚫었다. 연못의 지름은 3자가 되며, 깊이는 2자 남짓이다.

각색 공장은 722명이고, 담포군은 34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4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445냥 2전이다.(안주 민인 1만 925냥)

7일

맑음

각색 공장은 807명이고, 담포군은 51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94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88냥이다.(삼가 민인 1만 585냥)

8일

비. 개동부터 사시까지
지수심은 4푼

해시^{亥時}에 각 처에서 개역^{開役}하는 고사^{告祀}를 행하였다. 소나 돼지를 제물로 사용했고, 공장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어 공역을 시작하였다.

3 감괘(坎卦): 『주역』 64괘 중 29번째의 괘명으로, 감괘는 팔괘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감괘가 두 개 겹쳐져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 태극기에서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 ☰, ☷, ☵, ☴) 모양을 볼 수 있다.

4 고장(庫藏): 진(辰), 술(戌), 축(丑), 미(未)를 이르는데, 고장이 진일 경우는 수국(水局), 술일 경우는 화국(火局), 축일 경우는 금국(金局), 미일 경우는 목국(木局)이다. 여기서는 술의 고장이라 하여 불 속에 던져 넣는 형상을 말하고 있다.

5 포절(胞絶): 포(胞)는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데, 이는 곧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근원처이다. 절(絶)이라고도 말한다.

각색 공장은 738명이고, 담모군은 30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891냥 6전 4푼이다.[강릉 진사 최병윤崔秉潤 3500냥 2차 ○여주 출신 김윤석金允錫 2000냥 2차]

9일
맑음

가까운 곳의 목수가 먼저 도착해 공역에 나아갔다. 이날부터 각 처의 목역木役이 시작되었다.

각색 공장은 1569명이고, 담모군은 115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367냥이다.[유학 이단하李端夏 문중 1373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6냥이다.[회령 민인 2만 9486냥]

10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1792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 1107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돈 202냥 5전 5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11냥 8전이다.

자원군은 4동에서 121명이다. 기旗 위에 3, 4차를 썼는데 10여 차에 이르기기도 했다.

11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금 훈련도감의 이문^{移文}을 받아보니, ‘영건소에 쓸 목재와 석물을 운반할 수레를 만드는 데 들어갈 괴목⁶ 1그루와 진목^{眞木} 100개는 시흥^{始興} 방하곶^{方下窟}에 있는 양반 이씨^{李氏}의 원림^{園林}에서 낙인^{烙印}을 찍고, 진목 80그루는 가리봉^{加里峰} 조씨^{趙氏} 집안의 원림에서 낙인을 찍도록 하고, 즉시 해당 현^縣에 알려 베어내서 실어오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즉각 관문을 보내니 즉시 알려져 지체 없이 베어내어 납부하도록 하라.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금 보니 봄철의 얼음이 완전히 녹았고 지맥도 이미 풀렸으니, 기와를 굽는 구역은 바로 이때가 적기^{適期}일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와장^{瓦匠}이 원래 수가 적어 거행할 수 없으므로 도내 각 읍의 숨씨 좋은 와장 명단을 지금 후록하여 관문을 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일이 잡아서 장교를 정해 밤을 새워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663명이고, 담모군은 122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224냥 2전이다. [진해 민인 1300냥 ○ 함흥 안정국^{安貞國} 1만 냥 2차 ○ 순흥 민인 800냥]

자원군은 4동에서 151명이다.

6 괴목(槐木): 느티나무이다. 결이 곱고 단단해서 고급 건축 용재로 쓰였다. 특히 비바람에 강해서 누각 기둥으로 사용하였다.

12일

맑음

함원전^{含元殿}은 온돌로 하고 승각반자^{崇閣班子}를 짰다. 무릇 여러 전당^殿堂의 온돌에는 2층 승각반자를 갖추었다.

각색 공장은 1618명이고, 담모군은 130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4냥이다.^(전 도사 이용화^{李容華} 10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787냥이다.^(금산 민인 5000냥 ○안동 민인 730냥)

자원군은 7동에서 182명이다.

13일

맑음

근정전^{勤政殿} 옛 월대^{月臺}의 석재^{石材}를 다시 다듬고자 하여 하층^{下層} 앞면 중 이전에 훼손된 면의 이면^{裏面}에 층층이 못을 박아 보니 물이 스민 적이 없어 새것 같았다. 경회루 옛 첨계⁷도 이와 같았으니, 대개 옛사람의 규모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였다. 21일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였다.

각색 공장은 1855명이고, 담모군은 150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2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80냥이다.^(운양 민인 1000냥 ○정산 민인 680냥)

자원군은 3동에서 62명이다.

7 첨계(簷階): 건물을 세울 때 기단 위에 방전(方輦: 바닥에 까는 네모난 돌)을 한 단 더 깔고 나서 건물을 올리는데, 첨계는 건물 밖으로 방전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14일

맑음

신무문 왼쪽 제1수문水門은 곧 원지苑池의 북쪽 수로이다. 그런데 금위영이 축성하는 자표字標 안에 있으므로, 제2수문(문소전文昭殿 옛터 뒤의 수로), 제3수문(건춘문建春門의 북쪽 수구水口)과 함께 모두 금위영이 쌓았다. 제1수문은 즉 을축년(1865, 고종2) 9월 19일부터 공역을 시작하여 차례로 수로를 박석磚石으로 깔고, 12월 22일에 이르러 수문을 세웠다. 석

주石柱는 무릇 4중으로 도합 70개이며, 석주의 높이는 2자 8치이다. 수로는 모두 너비 31자이며, 수문은 24혈穴로 위는 간의대簡儀臺에서 부서진 수청석⁸으로 덮었다. 이날 조성되었다. [장색匠色과 담모擔募의 수는 축성역기築城役記 밑에 들어있으며, 수문도 같다.]

○제2수문은 올해 5월 15일에 탕주⁹ 18개를 세우고, 17일에 조성하는데, 수문은 무릇 10혈이며, 수도는 모두 너비가 13자이며 탕주 높이는 3자이다.

○제3수문은 올해 4월 19일에 ■■■ 공역을 시작하였다. 탕주를 4중으로 세웠는데 무릇 외주外柱는 7개, 내주內柱는 4개, 중주中柱는 5개이며, 모두 높이는 2자 ■■■ 너비는 8자이다. 29일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은구隱溝가 완성된 후에 보니 수문이 은구보다 높아서 ■■■ 수문 밑으로 또 수문을 내었는데 수로는 모두 너비 6자이며, 수문 3혈은 정묘년(1867, 고종4) 가을에 완성되었다.

〈부전지〉 궁성의 수문은 무릇 6처소이다. 신무문의 동쪽 제1수문은 즉 후록後麓의 큰 물을 받아 원지의 서쪽에 이르렀다가 동쪽으로 연못 물을 받고 서쪽은 신무문 내 동변의 물을 받아 흥복전興福殿에 이른다. 서측에 이르러서는 좌우 은구를 받았다가 경회루 북쪽에 이르러서는 연못(용두석龍頭石을 두어 물을 연못으로 토해냈다.)으로 물길이 나뉘지는데 〈본류는〉 서금천西禁川 [수문의 석주는 4중으로 도합 70개이며, 높이는 2자 8치, 수문은 24개의 구멍으로 위는 간의대의 철거된 수청석으로 덮었고 수도水道는 너비 31자이다. 을축 9월 19일 공역을 시작하여 이날 완성되었다.]으로 들어간다.

제2수문 또한 후록의 물(수문은 11두竇이며, 석주는 18개, 수도는 너비 13자로 올해 5월 15일에 역사가

8 수청석(水靑石): 투명한 청색을 띠는 석재로, 구체적인 암석의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9 탕주(撐柱): 건물이나 석탑의 기단 면석 사이에 세우거나 기둥 모양을 도드라지게 세운 기둥을 말한다.

시작되어 18일에 완성되었다.)을 받아 선원전璿源殿 서쪽에 이르러 은구가 되었다가 만경전萬慶殿의 동편 나인간을 지나 좌우의 은구를 받은 뒤 춘문의 북쪽 수문(석주는 4중으로 도합 16개이며, 높이는 2자이다. 수도는 너비 8자이며, 올해 4월 19일에 공역을 시작하여 29일에 완성되었다. 은구가 완성됨에 미쳐 보면 수문의 지세地勢가 은구보다 높으므로 수문의 도랑에 수문을 개천改穿하고, 수도는 너비 6자이며, 수문은 3두가 되고 정묘 가을에 완성되었다.)으로 빠져나간다.

교태전 서쪽은 도회都會의 도랑이 천교 서쪽(모처某處)으로 나가고, 동쪽은 금천교 동쪽으로 나가니 대개 이 도랑은 도회처에서 금천에 이르기까지 도랑의 전형이 있어 인력과 석재에 드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영추문의 북쪽 수문은 후교朽橋의 물을 받아 금천(이미 위에 보인다.)이 되어 광화문 동쪽 수문(홍예수문虹霓水門)으로 나간다.麒麟坪의 연못 물 및 사복시의 은구는 광화문 서쪽 수문(홍예수문)으로 나간다. </부전지>

각색 공장은 1834명이고, 담모군은 129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500냥이다.(명천 유학 김학수金學洙 1500냥 ○안동 민인 1000냥)

자원군은 2동에서 32명이다.

15일

맑음

팔도에 보내는 관문

이번 궁궐 공역은 위에서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와 백성이 뒷 사람에게 도움을 바친 이유가 모두 지금의 형편상 너무나도 부득이한 것에서 나왔다. 매년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탕을 생각하면 지극히 어렵고 또 어려워서 온통 불쌍하고 가엾다. 무릇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여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들을 보살피느라 설혹 농사를 짓고 천을 짜더라도 그 남은 힘으로는 또한 천으로 몸을 가리고 곡식으로 배를 채우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여름 이래 전국의 서민이 재물을 헐어 공역을 도운 것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모두 의로운 마음을 내어 나라를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한 결과이다. 따라서

백성의 위에 있는 자로서 어찌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차마 이렇게 하는 까닭은 또한 한 번 수고로움으로 오랫동안 평안하고자 하는 뜻이다.

무릇 원납에 관계된 돈은 그 중요함이 어떠한가. 근래 들으니 모리배가 영건소의 의향^{意向}이라고 가탁하여 순영^{巡營}을 속여 위의 돈을 획송¹⁰한 후 몇대로 내다 팔면서 경차^{京差}에게 환급한다는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다. 이는 비단 당사자가 무덤하고 거리낌 없어서일 뿐이 아니다. 이를 들어주는 것은 무슨 일의 체모인가. 백성들로 하여금 바쳐서 돕게 할 때 수백에서 천이 되고 수천에서 만이 되니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은 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 그런데 갑자기 원납전을 자기 이익만 꾀하는 부류에게 주어 그 행상하고 이익을 꾀하는 짓을 방임하니, 저 도움을 주는 백성들이 장차 임금에게 원망이 없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분하고 원망스럽다. 비록 여러 읍으로 말하더라도 호^戶마다 빈부가 있고 재물은 다소가 있는데 장리^{將吏}들 대부분이 오직 조종할 것만 생각한다. 아래에서부터 거저먹는 것은 열에 여덟, 아홉이고 위로 바친 것은 결국 보잘 것 없는데 곳곳이 모두 그렇다고 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가없는 저 잔맹¹¹들이 두루 그 피해를 입을 것이니 위에 있는 자가 홀로 그 원망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감영과 각 읍을 따질 것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것은 죄이다. 알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도 죄이다. 깊은 근심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관문을 내니 모리배가 환용^{換用}하는 습속과 장리^{將吏} 등이 조종하는 폐해를 일체 금단하여서 감히 전과 같은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은 후로 다시 만약 이러한 얘기가 들린다면 감사와 수령에 대한 논죄를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사로이 처리하지 말고 명심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이런 뜻을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도내 각 읍에 윤관¹²하여 이를 방곡에 걸어놓도록 하라. 이상의 대원위 분부를 받들어 관문을 내니, 도착하는 즉시 삼현령^{三懸鈴}으로 알려

10 획송(劃送): 돈이나 곡식 따위의 일부를 떼어 내어 보내는 것을 말한다.

11 잔맹(殘氓):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일컫는 말이다.

12 윤관(輪關): 상관이 하관에게 회람시키는 관문을 말한다.

거행한 후에 상황을 우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47명이고, 담모군은 140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들어오지 않았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으로는 평산부平山府에서 부역전赴役錢 2000냥이 올라왔다.

자원군은 3동에서 22명이다.

16일

맑음

평안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난번 용천龍川에 사는 김이주金履周가 호소한 바로 인해 여러 친족의 원납전을 감영에서 거두어 올려보내라고 관문을 보낸 적이 있다. 지금 들으니 김이주의 호소는 잘못된 사실로 속임수를 쓴 것이며, 여러 김씨를 잡아들이는 사이에 한 동네가 소란스럽게 되어 폐단이 많았다고 한다. 원납전의 많고 적음은 오로지 그 무리의 역량에 따라 할 일이며, 원납을 내려는 뜻이 있고 없음도 강제적인 명령이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 간혀 있는 여러 사람은 즉시 놓아 보내도록 하고, 본 부(용천부)에 맡겨서 능력에 따라 거두어들이도록 하여 공사公私 양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1885명이고, 담모군은 167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5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750냥이다.[보성 수령 신석원申錫源 1000냥 ○대구 전 동지 이갑상李甲祥 1000냥]

자원군은 3동에서 22명이다.

17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목물^{木物}은 태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평구^{平邱} 능성위^{綾城尉} 묘에 있는 송목^{松木}을 베어내서 쓰기 위해 별도로 차인^{差人}을 정해 내려 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벌목을 허락하여 그가 빨리 옮겨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

와장^{瓦匠}을 올려보내는 일로 평안 감영에 관문을 보냈다.

각색 공장은 1929명이고, 담모군은 135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27냥이다.

자원군은 3동에서 22명이다.

18일

맑음

예조에 보내는 이문

장릉^{章陵} 화소^{火巢} 내의 진목^{眞木}과 회목^{檜木}을 베어내서 쓰기 위해 차인을 정해 내려보내도록 할 것.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새해가 되기 전에 2차 지정한 숙마^{熟麻}가 아직 한 근도 바쳐지지 않았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지금 보니 들여 쓸 일이 아주 시급하므로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알려서 해당 읍에 분정하고 속히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19명이고, 담모군은 192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100냥이다.〔제주 민인 1500냥 ○정의 이민 2200냥〕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19일

맑음

각색 공장은 1954명이고, 담포군은 1341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00냥이다.〔철산 전 오위장 김국민金國民이 냈다.〕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20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본 도감에서 사용하는 추단판楸楸板은 지난 가을에 차인을 정해 값을 주고 도내 인제현麟蹄縣에 내려보냈고, 그로 하여금 밤을 새서라도 값을 치르고 베어내도록 하였다. 해당 작인作人들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다만 소나무를 베어 이득을 취하는 것만을 탐하여 추단은 아직도 베지 않았고 또한 포구로 내보낸 것도 없으니 작인의 행위가 매우 통악스럽다. 지금 보니 들여 쓸 일이 가까워져 이에 별도로 관문을 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빨리 본 현에 알리고 별도로 장교를 정해 엄히 신칙하여 각 동洞에서 소임을 거느리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베어낸 후에 운반하도록 하라. 반드시 이번 달 안으로 뗏목을 묶어 흘려보내며 경유하는 각 읍의 진보鎭堡에서 수효에 맞추어 본다고 핑계 대면서 붙잡아 두고 토색하는 폐단을 일체 금단하여 폐해 없이 호송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093명이고, 담포군은 189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4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691냥이다.〔지례 민인 1651냥 ○화순 김영필金永弼 1만 냥〕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21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본 도감의 패장^{牌將}인 등산 첨사^{登山僉使} 박중근^{朴重根}은 지금 영건이 한창 바빠 부임지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곳의 변장^{邊將}을 해 조에서 구전^{口傳}으로 서로 바꾸게 하고, 그가 전념하여 거행하게 할 수 있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선적 첨사^{善積僉使}와 서로 바꾸었다.]

각색 공장은 2055명이고, 담모군은 193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600냥이다.

자원군은 6동에서 132명이다.

22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각 감영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공역에 쓸 목물^{木物} 중 어찌 긴급하지 않은 것이 없겠는가. 그런데 감영에서 직접 관문을 보내 배어 내는 동안 낭자한 폐단이 생기는 단서가 없지 않다고 한다. 지금부터 만약 본 도감의 관문이 없다면 어느 곳이든 따지지 말고 일절 배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내 각 해당 읍에 거듭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권세를 연줄 삼아 함부로 배어내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이상의 대원위 분부를 받들어 관문을 내니, 도착하는 즉시 신척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봉산 좌수^{鳳山座首} 이기원^{李基元}, 이방^{吏房} 최경로^{崔景輅}, 선파^{璿派} 이복빈^{李復彬}이 원납을 마 음대로 하여서 폐단을 일으키는 단서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곡산 진영^{谷山鎭營}에 잡아 가두라는 뜻으로 작년 12월에 관문을 보낸 바 있었다. 이 무리의 죄상은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으니,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위의 세 사람은 별도로 장라將羅를 정해 밤을 새워 압송하도록 하라.

양주목에 보내는 관문

양주목楊州牧의 송산松山 민락리民樂里 이청풍李清風 집안의 사양산私養山에 있는 송목松木 2000여 그루, 백자목栢子木 80여 그루는 이미 베어냈는데, 영건에 사용하도록 원납하고 싶다고 한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베어낸 수효에 따라 일일이 찾아내서 장교將校를 정해 밤을 새워 옮겨 납부하도록 하고, 그루 수를 책자로 만든 것과 거행한 상황을 우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187명이고, 담포군은 189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842냥이다.〔상주 유학 한상리韓庠履 2500냥〕

자원군은 6동에서 132명이다.

23일

맑음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대소 목물木物을 지난겨울 영월, 평창 등지에서 값을 주고 베어냈다. 지금 막 띄워 내려보내니 포구로 내올 때 부근의 민인을 징발해서 그들이 밤을 새워 끝어서 운반하게 하라.

평안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강계江界의 김찬숙金贊淑을 본 도감의 폐장으로 차출하니 즉시 보내라는 내용으로 지난겨울에 관문을 보낸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먼 곳의 사람이라서 사정상 올라와서 사역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을 참작하여 그 뜻을 수용해도 허락해도 혹 이상할 것이 없다.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보내지 말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123명이고, 담포군은 1917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29냥이다.〔홍주 민인 9129냥 ○강화 유학 홍병준(洪秉俊) 1000냥 3차〕

자원군은 6동에서 132명이다.

24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에 쓰일 석물(石物)은 불암(佛巖)에서 떠가지고 올 것이다. 그 때 문에 이용할 도로가 협착한 곳은 일일이 정비하라는 뜻으로 작년에 이미 관문을 내어 신칙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도로를 수치(修治)하지 않아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지체된다고 하니 이 무슨 까닭인가. 이에 다시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엄히 신칙하여 해당 목사(牧使)는 밤을 새워 정비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255명이고, 담포군은 1633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이면수(李冕秀)가 냈다. 전후로 도합 8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0냥이다.〔예산 수령 김정근(金延根)이 냈다.〕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25일

맑음

북영(北營)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사용되는 철물이 매우 시급하다. 그런데도 도내 분정(分定)한 읍 가운데 온성(溫城), 회령(會寧), 명천(明川), 북청(北靑)은 지금 이미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와서 바치지 않았다. 지방 고을의 거행이 어찌 이와 같은가. 해당 읍리는 마땅히 잡아 올려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잠시 보류하도록 하라. 이에 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신칙하고 각 해당 읍은 반드시 다음 달 안으로 와서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247명이고, 담포군은 200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냥 5전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550냥이다.〔함흥 관관 황종규 黃鍾奎 1000냥, 황간 수령 김병헌 金炳憲 200냥 2차〕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26일

맑음

각색 공장은 2223명이고, 담포군은 213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523냥 1전 5푼이다.〔영동 민인 3000냥 5전 5푼 ○

신창 민인 700냥〕

자원군은 1동에서 2명이다.

27일

맑음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할 때 지정한 820근을 아직도 바치지 않았고 분정한 책자도

아직 올려보내지 않아 빙고¹³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해당 읍에 알려져서 신척하고 와서 납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219명이고, 담포군은 213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000냥 5전 5푼이다.〔북청 민인 500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302명이다.

13 빙고(憑考):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여러 가지 근거에 비추어 상고(詳考)하는 것을 말한다.

28일

맑음

자미당紫薇堂 은구隱溝 공사를 시작하였다. 대개 각 전당殿堂과 각 처소의 은구는 터를 쌓을 때 시작해서 전우殿宇가 세워지는 대로 차례로 모여 합쳐졌다.

각색 공장은 2296명이고, 담포군은 233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430냥이다.〔평산 양반 신응배申應培 1000냥 2차〕

자원군은 12동에서 322명이다.

29일

맑음

신무문神武門의 동성東城 4칸이 저절로 무너졌고 4일에는 서성西城 5칸이 또 무너졌는데, 지난해 한창 겨울에 쌓았다가 잘 마르지 못해서이다. 원래는 높이가 20자, 너비는 10자 반으로 정하고 또 아래에 장대석長臺石을 3첩疊으로 두었지만, 가장자리가 너무 높아 쉽게 무너지므로 다시 높이 12자, 장대 2첩, 강석剛石 5첩으로 하였다. 수구水口의 첩 수는 구

애받지 않으나, 12자를 한계로 하였다.

○도청都廳에서 원납전을 받는 창고는 초가草家인데, 밤에 도둑이 건물에 올라왔다가 야간 순라에게 쫓겨났다.

각색 공장은 2311명이고, 담포군은 238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이병형李秉馨이 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164냥 2전이다.〔길주 김시환金始煥 800냥 ○길주 안희安禧 3330냥 선납〕

자원군은 12동에서 322명이다.

30일

맑음

각색 공장은 2370명이고, 담포군은 2353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곡산 수령 이인명李寅命이 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20냥이다.〔곡산 수령 오영운吳永運 500냥, 청안 민인 220냥〕

자원군은 8동에서 192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정월에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19만 917냥 9전 9푼이고, 중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만 2770냥 5전으로,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도합 4만 7913명이다.

담포군은 3만 9507명이다.

자원군은 90동에서 도합 2160명이다.

병인년^{1866, 고종3} 2월

1일

흐리다가 밤에 비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3620명에게 한 명당 1전씩, 담모군 3872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555냥 6전을 나누어 주

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 담모군(위의 초기에 보인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129냥 2전이다.〔서산 민인 1만 80냥 ○예안 낙천서원^{洛川書院} 및 대소

민^{大小民} 735냥 ○삼례역^{參禮驛} 이민^{吏民} 640냥 ○명천 유학 박계승^{朴繼昇} 1000냥〕

자원군은 9동에서 232명이다.

2일

비, 어제 인정부터
오늘 오시까지
수심은 3치 3분

성역城役이 비로 인해 정지되었는데, 다만 가가假家 안에서 목석木石을 다듬는 공역은 있었다.

○인시寅時에 만춘전萬春殿에 상량上樑하였다. 고사 때의 진설과 절차는 천추전千秋殿과 같았다. 헌관獻官은 대호군 박규수朴珪壽, 독상량문관讀上

樑文官은 부사과 이종준李鍾濬, 사향관司香官은 예조 정랑 김병수金炳洙,

예조 좌랑 조창교趙昌敎, 집사執事는 사재감 주부 이덕초李惠初, 내자시 봉사 이준영李俊永이다.

만춘전 상량문

아뢰입니다. 황극皇極이 복을 거두어 명철한 명령이 처음에 널리 받아졌네. 곤원이 천시를 받들어 늘 봄과 같이 만대萬代로 다시 돌아갔도다. 후인은 웅장한 공역을 열었고 부친은 몇몇한 법도에 부합했도다. 도읍이 정해졌을 때, 정아의 조회를 받던 곳이 있었도다. 명을 받고 집을 빛내니 복희가 덕을 기반으로 하고 현원軒輶이 공을 열었도다. 폭과 돌레를 측량하니 누경¹⁴이 형세를 헤아리고 소하¹⁵가 제도를 열었도다. 군자의 큰 복을 받는 의의를 취하여 우리 만년의 기틀을 크게 했도다. 못별들이 둘러싸는 모양을 우러러보고 사방 끝까지 공경했도다. 전조후시前朝後市의 원칙을 길이 보존하면서 백성을 기르는 바이고 모난 거울과 둥근 술은 이처럼 하늘을 법으로 삼고 땅을 본받았도다. 장추전長秋殿은 왼쪽이고 만춘전은 동쪽에 있고 구룡은 오래 가고 조정은 만수를 누렸도다. 별전別殿은 명해萌蓂(한참 자라남)로 은택을 받고 서경西京은 영춘내당迎春內堂 이도다. 태미太微와 자미紫微가 모두 왕의 처소가 되어 절로 명당의 법도를 이루고 또한 은색 실 푸른 실 각각 방위가 있어 궁전도 그윽하고 엄숙할 뿐만이 아니도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군주의 교화가 비릇되는 것이고 그윽하고 한가로움과 곧고 고요함은 음으로 돕는 공이 깊이 도와주는 바였도다. 어찌 미양전¹⁶의 황

14 누경(婁敬): 전한(前漢)의 정치가로 장안(長安) 천도를 주장한 인물이다. 한 고조의 사성(賜姓)으로 유경(劉敬)이 되었다.

15 소하(蕭何): 전한(前漢)의 정치가로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16 미양전(未央殿): 한 고조때 소하(蕭何)가 지은 궁전이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장안현(長安縣) 서북쪽에 있었다.

금담장[金憊]뿐이겠는가? 사현씨司垣氏의 목탁木鐸도 의지할 게 못되도다. 오래되었구나! 수거修舉의 법전이며, 삼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미처 이루지 못했으니 이 영건의 완성을 중시하는 것이 억조 백성들이 모두 원하는 바도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선 충명예지의 성聖을 홀로 타고나 조종의 태평성대의 융성함을 이어받았도다. 효성과 자애로움에 이르니 문왕에게 모친인 태임太任이 계셨고 이로써 전하고 이로써 받으니 우임금이 순임금 처음과 같네. 친족이 친해지고 요순의 백성들 고루 밝고 때는 화합하여 집에서부터 나라에 미쳤도다. 배움은 빛남이 있어 이어 밝히고 날로 이루니 역사와 경전이었던다. 처음 터를 다지고 집을 짓던 마음으로 펼쳐 정전을 영건하는 명을 크게 펼치셨도다. 제도는 우리 집안을 본받으니 봉황과 난새가 날개 치는 교태전交泰殿과 강녕전康寧殿이 절로 있고 형편은 옛 것을 본받으니 용과 거북을 새긴 도랑과 우물, 섬돌을 어찌하겠는가? 백도百堵를 짓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실어 나르는데 백성들이 아비 일에 자식이 오는 것처럼 하니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은 기뻐하도다. 먼저 대궐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연침燕寢의 터에 미치도다. 내외를 구별하여 궁을 지은 것은 옛 제도이고, 좌우로 집을 짓는다고 『시경詩經』에서도 말하지 않았던가? 이월 상순의 좋은 시절 고르니 길함과 덕에 합했도다. 우리 조정 처음 정사에 못 사람들의 시선을 치켜 올리니 끝없는 기쁨에 끝없는 명망이도다. 아름답구나! 지세의 이로움도 하늘의 뜻을 기다림만 못하도다. 희씨와 화씨¹⁷의 온방溫房을 부리고 망서望舒(달을 모는 사람)의 양실涼室을 열어 음양陰陽을 경위經緯로 다스렸고 궁궐에 연도輦道를 잇고 하늘에 임금의 자리를 통하니 일월과 같이 비추도다. 다 지어짐을 알리니 새롭지만 예스럽고 이름을 돌아보고 뒤를 드리우고 앞을 비추었도다. 중정의 덕은 크게 길한 의식에 합하고 하늘과 짝하여 만물을 기르고 창륙蒼陸은 발생의 조화를 열어 진방辰方을 쳐서 봄을 주관하도다. 음양의 인온綱緇에 맑은 기운 무성하게 하니 삼십 개의 궁이 모두 이러하고 유구함에 수명을 축원하니 8천 세를 주기로 여기네.¹⁸

17 희씨(義氏)와 화씨(和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들로 요임금이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사계절을 관장하게 하였다고 한다.

18 8천 세를 주기로 여기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의 내용으로 상고 시대의 대춘은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8천 년을

이 터가 만대의 태평함을 열어 이에 수많은 생명 절로 즐거움이 있도다. 지덕이 두터이 신는 것과 같아 송고함을 더하고 멀고 긴 봉록에 의탁하여 연로한 사람을 번창하게 하도다. 무성함이 송죽과 같아¹⁹ 길한 꿈이 이에 왕골자리를 깔아 점을 치고²⁰ 마름과 연꽃으로 무늬를 짜니 기이한 상징은 동정수東井宿를 누를 수 있도다. 우리 부역하는 사람 일제히 아름다운 노랫소리 듣도다.

어영차

兒郎偉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東

만년춘색이 발[簾]과 창[櫺]을 두르니

萬年春色繞簾櫺

화락한 만물이 모두 즐거워하며

熙熙品物皆爲樂

신묘한 효과를 발휘하여 성인의 마음을 우러러보도다

發育神功仰聖衷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西

옥돌이 옛적 편액[舊時題]을 밝게 비추니

璇璫昭煥舊時題

도도목²¹은 닭 우는 소리 기쁘게 듣고

桃都喜聽鷄三唱

금모는 쟁반 드니²² 안개 같은 소매는 낮게 드리우도다

金母擎盤霧袖低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南

관악산의 상서로운 기운 오랫동안 적시니

冠山瑞靄久濡涵

가을로 삼는다.

19 무성함이 송죽(松竹)과 같아: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다.

20 왕골자리를 깔아 점을 치고: 『시경』 「소아」의 내용으로 왕골자리를 잡자리로 깔아 후손을 낳는 점을 친다는 말이다.

21 도도목(桃都木):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로, 중국 동남쪽에 도도라는 이름의 거목(巨木)이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

22 금모(金母)는 쟁반 드니: 금모는 하늘의 옥황상제의 별실(別室)인 서왕모(西王母)를 말하며, 금모가 쟁반을 들었다는 말은 잔치를 벌였다는 뜻이다.

태양이 찬란한 슬갑을 수놓고

朱陽繡出煌煌蒂

우리나라에 크게 명하여 수많은 자식을 칭송하게 하네

景命吾邦頌百男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세.

拋樑北

무한한 하늘축[乾軸]이 함께 황극으로 돌아가니

無垠乾軸同歸極

구중궁궐에서 태화의 잔을 길이 올리고

九重長進泰和盃

북두성 자루로 사람들의 정성을 잔질하여 만년억년을 기원하도다

挹斗群忱祈萬億

들보 위로 떡을 던지세.

拋樑上

어지럽게 늘어선 못 상징들 우러러 보니

森羅衆象尊瞻仰

바람은 복도에 산들산들 불고 물시계 소리 더디며

風微閣道漏聲稀

한가한 날 임금의 놀이에 화려한 의장을 옮기도다

暇日宸遊移彩仗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세

拋樑下

온화한 바람과 좋은 비 베풀어 삼밭에 내리니

祥風甘雨禾麻野

아름다운 대택의 기틀에 지금부터

於休圖大宅中基

시작하여 웅장한 집에 거하도다

始自伊今居廣廈

바라옵건대 상량 후에 상서로운 조화를 이끌어 만물이 소생하고 크고 원대한 공업을 열어 백록을 총괄하소서. 세 양[三陽]이 이르러 절기는 태호太皞와 구망句芒이고 육궁六宮이 서로 기뻐하여 칭송한 바는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이기를. 담이 깎이고 다듬어지니 선왕에게서 아름다운 명을 받았고, 왕실의 군왕께서는 국운이 끝이 없기를. 땅의 신령함에 의거하여 깊은 속한 곳에 자리 잡아 태산반석의 편안함을 길이 정하시길. 밝은 해를 맞이하여 광명을 받아 들어 오래도록 항구한 도를 점쳐 이로우시길.

보국 승록대부 관중정경부사 겸 호조판서 신 이돈영李敦榮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짓다.

각색 공장은 1856명이고, 담모군은 732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4냥 2전이다.

자원군은 4동에서 62명이다.

3일

맑음

근정전勤政殿 월대 위에 대고大鼓를 설치하고 새벽마다 쳐서 공장과 담모군을 모아 점고點考하였다. 조식朝食 때는 방울을 흔들어 해산시켰다가 식후에도 북을 쳐서 불렀다. 3월에 이르면 또 정오에 북을 쳐서 점심시간[午膳暇]을 주었다.

각색 공장은 2340명이고, 담모군은 223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303냥 2푼이다.(단천 수령 유창로柳昌魯 1000냥 ○안동 민인 1200냥)

자원군은 15동에서 402명이다.

4일

맑음

철종 대왕의 어진御眞 4본(대소大小 2본은 임자년(1852, 철종3)에 그린 것이고, 2본은 신유년(1862, 철종12)에 그린 것이다.)을 이날 손시巽時에 중친부 천한전²³에 봉안하였다. 천한전은 중친부의 이전 직방대청으로 대개 여기에 임시로 봉안하였다가 정묘년(1867, 고종4) 정월 21일 손시에 새로 건설한 천한전(매 사맹삭四孟朔 15일은 중친, 의빈, 제 종정경과 각신 1원이 봉심한 후 어진御眞을 포쇄暴曬하고 중친부의 낭관도 모두 나아가 참여한다. 매월 삭망은 종정경 1원과 입직 낭관이 봉심하고 매

23 천한전(天漢殿): 경복궁 중건시에 철종 어진을 봉안하고자 만든 전각이다. 1875년(고종12)에 고종은 천한전에 봉안된 철종 어진을 경모궁의 망묘루로 옮겨 봉안하도록 명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12년 11월 25일)

5일은 입직낭관이 봉심한다.)에 다시 봉안하였고, 삼문 밖에 하마비를 세웠다. 이것은 □의궁²⁴ 문밖에 있던 것을 다시 연마하여 세운 것이다.

인제현 麟蹄縣에 보내는 관문

본 도감에서 사용하는 추단판 楸楸板을 베어내서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관문을 강원 감영으로 보냈다. 지금 보니 들어 쓸 일이 긴급하고 이번 가례²⁵에 써야 하는 바도 또한 급박하다. 그러므로 이에 별도로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교리 校吏를 정해 이미 보낸 패장과 함께 추단판과 두리목 豆里木을 베어 내 즉시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25명이고, 담모군은 234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만 1334냥 2전이다.〔상주 석후진 石厚鎭 1만 냥 ○대정 민인 1200냥, 서원현 민인 등 1만 냥〕

자원군은 9동에서 232명이다.

5일

맑음

전교하였다.

“호군 홍석중 洪奭鍾, 도승지 김병필 金炳弼을 모두 영건도감 제조에 추가로 차하 差下하고, 예조 참의 민승호 閔升鎬를 부제조에 추가로 차하하라.”

각색 공장은 2417명이고, 담모군은 244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819냥이다.〔제주 민인이 냐다〕

24 □의궁(□義宮): 창의궁(彰義宮), 어의궁(於義宮)의 두 곳 중 하나로 추정된다.

25 이번 가례(嘉禮):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고종 3년 3월에 친영례(親迎禮)를 행했다.([『고종실록』 고종 3년 3월 13일)

자원군은 9동에서 232명이다.

6일

맑음

호조에 보내는 이문

을축년(1865, 고종2) 4월부터 12월에 이르는 본 도감 각 방房에 실제 들어간 물종을 구별하여 후록後錄해서 이문하니, 이에 의거하여 회감²⁶할 것.

창살목[窓簾木] 360개, 차대연次大椽 559개, 무대연貿大椽 39개, 선자대연扇

子大椽 9개, 누주樓柱 2개, 홍좌판紅座板 46널, 두꺼운 정판[厚正板] 84널, 보

판²⁷ 220널, 백면지白綿紙 9권 10장, 가져모家猪毛 18근 10냥, 두석²⁸ 10근 1냥, 사어구중피²⁹ 1장, 사어피³⁰ 1장, 미후목³¹ 4개, 대절상목³² 2정丁, 파장³³ 320자, 번주홍燐朱紅 430근 8냥.

각색 공장은 2356명이고, 담모군은 238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0냥이다.

자원군은 6동에서 222명이다.

26 회감(會減):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셈해서 많은 수에서 적은 수를 상쇄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27 보판(補板): 마루 앞에 임시로 잇대어 만든 자리에 쓰이던 널조각이다.

28 두석(豆錫): 목가구에 붙이는 경첩, 자물쇠 등의 장식을 말한다.

29 사어구중피(沙魚口中皮): 상어의 입 속에 있는 가죽이다.

30 사어피(沙魚皮): 상어의 껍질이다.

31 미후목(彌猴木): 다래나무이다.

32 대절상목(大節常墨): 굵기가 큰 인쇄에 사용하는 보통 품질의 먹이다.

33 파장(破帳): 해진 휘장이다.

인지당麟趾堂 남쪽 지역에 1칸의 비각碑閣이 있는데 영조조英祖朝에 세운 것이다. 장차 인지당 행각의 기지基址를 닦고자 하여 그 각을 허물고 비碑(높이 3자 2치 5푼, 너비 1자 3치 5푼, 두께 8치)를 옮겼다. 앞면(어필御筆)에는 “정해년(1767, 영조43)에 친잠親蠶(7순7서七旬七書)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음기陰記에 “내가 즉위 43년인 74세 정해년 봄 3월 선잠단³⁴을 경복궁 옛 궁궐에 설치하였다. 이달 상순에 내전內殿과 함께 이르러서 내전이 먼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대축大祝, 집례執禮, 재축齋祝, 명부命婦가 예문에 의거하여 조전³⁵하였다. 이어서 남대南臺에서 채상례³⁶를 행하였다. 내전이 먼저 이 단에서 명부命婦의 예를 받았다. 대개 작헌酌獻, 채상採桑은 혜빈惠嬪, 세손빈世孫嬪, 부부인府夫人이 함께 예를 행하고, 잠부蠶婦도 절한 후 의례를 마쳤다. 나는 근정전 옛 터에 앉아 세손과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정전 옛 터에서 내전과 함께 자내自內의 예에 따른 하례를 받고 이후 회가回駕하였다. 친잠례는 실로 200년 후에 비로소 행해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의 뜻이겠는가. 특별히 친히 써서 비를 세운다. 음기는 호조 판서가 써서 새기게 하였다. 자헌대부 호조 판서 겸지경연사 신홍인한洪麟漢이 전교를 받들어 삼가 쓴다.”라고 쓰여 있다.

또다른 비碑가 연생전延生殿 뜰 남쪽 몇 보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앞면에 “채상대비採桑臺碑(높이 2자 3치 5푼, 너비 1자 5푼, 두께 7치)”라고 쓰여 있다.

각색 공장은 2388명이고, 담모군은 244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700냥이다.(자인 민인 3550냥)

자원군은 6동에서 202명이다.

34 선잠단(先蠶壇): 누에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자 잠신(蠶神)으로 알려진 중국 고대 황제의 비(妃) 서릉씨(西陵氏)를 제향하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35 조전(助奠): 제례(祭禮) 때에 치전(致奠)을 돕는 일이다.

36 채상례(採桑禮): 뽕나무 잎을 따는 의례이다.

광화문 서쪽에 있는 대종大鐘[부어교³⁷ 남쪽 지역에 종각 기지가 있는데 이미 위에 보인다]을 문 안으로 끌고 들어와 부순 후, 전각의 토수吐首와 전정殿庭에 둘 향로 등을 주조하였다. 올해 11월에 이르러서는 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할 때도 사용하였다. 대개 이 종은 세조조에 주조한 것으로, 길이 9자 2치, 지름 6자 5치, 두께 9치 7푼이다. 각刻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신주종명병서 朝鮮國新鑄鍾銘並序

수충협책정난동덕좌익공신 승정대부 의정부우찬성 보문각대제학 지춘추관사 겸판병조사 성균대사성 고령군 신 신숙주申叔舟가 전교를 받들어 짓고, 통정대부 첨지돈녕부사 신 강희안姜希顔이 교를 받들어 쓴다.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승평昇平의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군정軍政을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시고 이에 유사에 명하여 큰 종을 지어 사정전思政殿 앞 행랑[지금은 바로 광화문 밖에 있으며, 옮긴 시기는 알 수 없다]에 두고 금군禁軍을 호령하여 일제히 단속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왕조는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창업하여 개국하시고, 태종 공정대왕恭定大王께서 전대前代의 공업功業을 빛나게 이으셨으며, 세종 장헌대왕에 이르러 공업功業을 유지하고 조심히 지키면서 문文으로 다스리시니 사방이 편안하여 백성은 난리를 보지 않은 지가 20여 년이었다.

문종文宗께서 단명하시고 사왕嗣王은 어려서 권간權姦들이 나라를 주무르며 조정을 혼탁하고 어지럽게 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 전하께서 영무英武를 분발하시고 충의를 격려하시어 큰 난리를 진압하고 드디어 대업을 안정시켰다. 중흥의 때를 당하여 정사를 닦고 형벌을 밝히며 법을 고치고 폐단을 제거하여 조종祖宗의 구습을 모두 회복하였다. 동시에 먼저 군정에 힘써 분발하고 펼쳐 일어나는 기운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

37 부어교(鮑魚橋): 경복궁 서쪽 효자로 입구의 대은암천에 있던 다리이다. 북어수교(北御水橋), 봉어교, 봉어다리 등으로 불렸다.

었다. 이에 1년이 다 못 가서 조야朝野가 안정되고 금위禁衛가 엄숙하고 중외中外가 편안해졌다. 북쪽 오랑캐와 해구海寇가 모두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고자 연이어 앞을 다투니, 편안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며 사려가 깊고 원대하여 중흥의 업적을 이루게 하신 것이 너무도 지극하다 하겠다. 무릇 큰 업을 세우면 반드시 종정鍾鼎에 새기는 것이니 이는 공덕을 밝히고 충훈忠勳을 기록함으로써 큰 아름다움을 남기어 후세에 보이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기大器가 이루어짐에 있어 어찌 명을 지어 후세에 보이지 아니할 수 있으리오. 신 숙주는 삼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명銘을 짓는다. 명문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크신 우리 태조	於皇我祖
어느덧 동방을 소유하셨네	奄有大東
성군聖君과 성군이 서로 이어	聖聖相承
교화가 더욱 높았구려	化理彌隆
다스림은 항상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	治不常安
상제께서 경계警戒를 보이셨네	帝乃示警
그 운수 중도에 막히어	大運中否
국정이 바르지 못하였네	邦用不靖
권간들이 흐려놓고	權姦濁亂
국병을 제멋대로 하니	國柄是擅
독정毒政과 학정虐政이 달구어져	毒燎虐焰
이내 불붙듯이 번지었네	乃燬乃扇
하늘이 우리 임금을 돌보셔서	天眷我王
용맹과 지혜를 내려주시며	勇智是錫
신무를 분발하여	曰奮神武
종사를 안정하라 하셨네	以定宗祏
충현들이 힘을 다하는 일이	忠賢効力
밤나방 촛불에 뛰어들 듯이 하니	宵蛾赴燭

이에 큰 난을 평정함이
 하룻밤을 안 넘겼네
 안팎이 모두 평온해져
 노래 부르며 즐기네
 이때라 우리 임금
 기강을 정돈하고
 옛 법을 회복하여
 펼치지 아니한 것 없네
 편안하다고 믿어 버리지 않고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며
 중흥을 보전하고자
 먼저 군정軍政에 힘쓰셨네
 이에 큰 종을 만들어
 궁중에 달았구려
 두들겨 소리 올리면
 군대가 열 지어 일어서
 질서 정연하게
 우리 큰 공업功業을 굳게 하고
 위풍이 진동하여
 넘실넘실 멀리 미치니
 산 되놈 섬 오랑캐
 위력에 떨고 덕에 굴복하여
 예물 들고 보물을 바치며
 문을 두들기고 조회하네
 요사스런 기운은 깨끗이 사라지고
 사망은 걱정이 없으며

迺靖大難
 曾不終夕
 中外寧謐
 謳謠悅懌
 惟時我王
 整頓紀綱
 復我舊典
 罔有不張
 安不可憑
 危不可忘
 思保中興
 先務于戎
 爰鑄大鐘
 懸之禁中
 鼓之鏗鉤
 貔貅振列
 整整堂堂
 壯我鴻業
 威風震赫
 浩浩遠涉
 山戎島夷
 怛威服德
 執贄獻琛
 扣關臣服
 妖氣淨盡
 四境無虞

백성은 생업을 즐기어	民樂于生
평화롭고 자유롭네	魚魚于于
아, 크신 우리 임금	於皇我王
순, 우의 짝이시라	舜禹爲徒
비록 선열을 이었지만	雖承先烈
실제로는 왕업을 창조하셨네	實創王圖
충훈들이 옆에 붙어	忠勳攀附
우리 영무 보좌하니	贊我英武
능히 큰 공을 세우고	克建丕績
우리 동방 복되게 하였네	惠我東土
이 큰 종에 새겨서	勒玆巨鐘
궁궐과 짝하게 하니	郊鄜與偶
아, 억만 년을 지내도록	於千億載
길이길이 썩지 않으리	永垂不朽

유명^{有明} 천순^{天順} 원년(1457, 세조3) 3월 일

양녕대군(이제^{李穡}), 효령대군(孝寧大君^[보補]), 영응대군(영^瑛),³⁸ 경녕군(비^比),³⁹ 함녕군(인^仁),⁴⁰
근녕군(농^農),⁴¹ 희령군(타^陀),⁴² 익녕군(치^祗)⁴³

38 영응대군(永膺大君): 세종의 여덟째 아들이다. 정충경(鄭忠敬)의 딸과 결혼하였고, 후취로 송복원(宋復元)의 딸을 맞아 들였으며, 후에 연안 김씨(延安金氏)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았다.

39 경녕군(敬寧君): 태종의 첫째 서자이며, 어머니는 효빈(孝嬪) 김씨(金氏)이다. 부인은 김관(金灌)의 딸이다. 묘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음동마을에 있다.

40 함녕군(咸寧君): 태종의 둘째 서자이며, 어머니는 신빈(信嬪) 신씨(辛氏)이다. 부인은 좌의정 최사강(崔士康)의 딸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에 함녕군 이인을 제향하는 사당인 영민사(英敏祠)가 있다.

41 근녕군(謹寧君): 태종의 네 번째 서자이며, 어머니는 후궁 신빈(信嬪) 신씨(辛氏)이다. 부인은 태안군부인(泰安郡夫人) 허씨(許氏)이다. 처음에 정윤(正尹)에 봉해졌다가 1424년(세종6) 군(君)에 봉해졌다.

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각색 공장은 2274명이고, 담포군은 236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318냥이다.[함창 민인이 냈다.]

자원군은 6동에서 202명이다.

9일

맑음

경기 감영, 공충 감영, 전라 감영, 강원 감영 및 개성부, 강화부, 교동 부喬桐府, 영종진永宗鎭에 보내는 관문

도성 백성들의 생계는 오로지 미곡선의 많고 적음에 있다. 그런데 연이어 들으니, 곳곳의 포구浦口에서 영건으로 인해 나무를 운반하는데 필요하다고 칭하며 미곡선을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잡아두고, 심지어는 너물을 받고 조종하는 폐단마저 있다고 한다. 진실로 전해오는 말과 같다면 연해沿海 각 포구의 임장任掌이라는 자는 그들의 모리하는 도구가 될 뿐이란 말인가? 이같이 관문으로 신칙한 후에도 만에 하나 전의 습성을 고치지 않는다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영건소에서 알지 못할 리가 없다. 비록 한 척의 미곡선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각 해당 포구의 임장에게는 단연코 마땅히 일률一律을 시행하고 신칙하지 않은 각 해당 지방관은 먼저 파직하고 후에 잡아들일 것이니, 명심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이 관문의 말을 일일이 연강의 각 포구에 방으로 걸어 한 명의 백성이라도 알지 못하는 폐가 없도록 하라. 석수石手를 올려보내는 일로 강화부에 관문을 보냈다.

42 회령군(熙寧君): 태종의 여섯 번째 서자이며, 어머니는 숙의(淑儀) 최씨(崔氏)이다. 고종 때에 현록대부 영종정경으로 추증되었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에 회령군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이정사(夷靖祠)가 있다.

43 익령군(益寧君): 태종의 여덟 번째 서자이며, 어머니는 후궁 선빈(善嬪) 안씨(安氏)이다.

각색 공장은 2329명이고, 담포군은 239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18냥이다.〔예산 민인 773냥 ○진천 민인 1144냥〕

자원군은 9동에서 192명이다.

10일

저물녘에 바람이
불다가 비설飛雪

지난 6일 철종 대왕을 종묘에 부묘하였고, 이날은 삼전⁴⁴에 존호〔을축년
(1865, 고종2) 11월 7일 장章에 상세히 보인다.〕를 올렸다.

진하陳賀 후 별단

낭청 임면수林冕洙·홍배후洪配厚·김병수金秉洙·홍재원洪在元·김경진金

敬鎭·정유수鄭愉秀는 모두 승서陞敍

감조관監造官 임경준任慶準·이석응李錫應·정직용鄭稷容·이만시李晩蓍·이준영李俊永·강영
수姜穎秀, 별공작別工作 정광시鄭匡始는 모두 승륙陞六

본 도감에서 초기하였다.

“그 대신 사재감 봉사 김영식金英植, 제용감 봉사 서상조徐相朝, 사도시 봉사 정대식丁大弼,
내자시 봉사 홍재석洪在錫, 내섬시 봉사 조희식趙熙軾, 장흥고 봉사 박수만朴受晩을 차하하여
직임을 보게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2467명이고, 담포군은 236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250냥이다.〔유학 이강순李綱洵 700냥 ○이방언李邦彦 2000냥〕

44 삼전(三殿):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898냥 2전이다.〔충주 유학 최송수崔松秀 1000냥 ○파주 민인 600냥 ○천안 민인 1798냥 2전 필납畢納 ○공주 민인 1만 500냥 2차〕
 자원군은 8동에서 152명이다.

11월

바람

화성부華城府에 보내는 관문

최근 폐악한 무리가 영건도감을 빙자하여 인가人家의 구목邱木을 거리낌 없이 함부로 베어냈다. 이 일은 모리배들이 모리 협잡한 데 불과하지만 원망을 호소하는 소리가 날로 들리니, 이에 그 무리들을 엄히 징계하여 이 폐단을 엄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들으니 화성부 양간면楊礪面 선전관宣傳官 신씨申氏의 집 선산先山에 들보나 서까래도 될 수 없는 옹이가 있는 어린 나무를 모처의 권용權用이라는 자가 도감都監의 목수라고 거짓 칭하고, 또 화성부의 전령이라고 위협하며 민정民丁을 많이 거느리고서 하루도 되지 않아 산의 나무를 남김없이 베어 버렸다고 한다. 최근까지 도감에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관문을 낸 적이 없으니 권가놈이 〈도감을〉 빙자하여 가탁한 것은 정녕코 의심할 것이 없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이른바 권용이라는 놈을 잡아서 화성부 옥에 가두고, 그의 내력과 한 일을 조사하여 이미 베어낸 나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효를 살핀 후 책자로 만들어 올려보내고 나무는 즉시 운반하여 납부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367명이고, 담모군은 241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4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22냥 8전이다.〔상주 민인 1600냥〕

자원군은 8동에서 150명이다.

12일

맑음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각종 목물木物은 정말로 수요가 많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여 강원 감영에서 사들이기도 하고, 삼남 등지에 지정하기도 하였다. 해서海西는 처음에는 지정하는 것과 값을 지불하여 사들이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듣자니 어떤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도내 백령白翎 땅에서 베어 내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반드시 서울과 지방의 모리배들이 빙자하여 사사로운 계책을 꾸민 것이다. 즉시 백령진에 관문을 보내어 이른바 공문이라는 것을 찾아 올려 보낼 것이며, 불법적으로 베어낸 사람 또한 잡아서 올려 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32명이고, 담포군은 246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142냥 8전이다.(순천 민인 3000냥)

자원군은 8동에서 182명이다.

13일

맑음

신창현新昌縣, 온양군溫陽郡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쓸 초둔草屯을 사들이기 위해 차인을 정해 내려보냈는데, 신창현의 거민들이 앞서 돈을 받았는데도 오로지 게으름을 일삼으며 끝내 갖춰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 미납인의 성명과 초둔의 수요를 후록하여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관정官庭에 잡아들여 기한을 정해 해당 차인에게 지급한 후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60명이고, 담포군은 262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446냥이다.[김제 민인 3626냥 2차 ○남양 수령 정태호鄭泰好 300냥 ○삼등 장
천경張天擎 1500냥 3차 ○수원 진사 이익운李翊運 1000냥]
자원군은 8동에서 201명이다.

14일

맑음

각 문의 수문장청守門將廳이 모두 완성되었다. 오직 광화문만 동서東西
양청兩廳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청西廳은 각 문 수장守將의 도청都廳이므
로 지어진 규모가 다른 곳보다 컸다.[간가⁴⁵는 □□에 자세히 보인다.]

각색 공장은 2343명이고, 담모군은 263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여주 부사과 이병주李秉周가 냈다.]

자원군은 8동에서 201명이다.

15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정유수鄭愉秀를 단성 현감으로 옮겨 제수하고 그 대신 공조 좌랑
민영상閔永商을 차하해서 그에게 직임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2방二房 야장冶匠의 가가假家 12칸과 훈련도감 담당의 십자각 석수의 가가 5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즉시 수리하였다.

45 간가(間架): 전통 건축은 기둥과 보에 의해 칸과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간가는 간살(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간격)의 넓이
를 이른다.

각색 공장은 2541명이고, 담포군은 271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492냥 7전이다.〔경주 민인 5620냥 ○부여 민인 845냥 7전 ○황간 민인 27냥〕

자원군은 5동에서 321명이다.

16일

맑음

예조에 보내는 이문

사릉⁴⁶의 화소^{火巢} 내 회목^{檜木} 9개, 광릉^{光陵} 화소 내 회목 3개, 송목^{松木} 3개, 백자목^{栢子木} 4개, 현릉⁴⁷ 화소 내 회목 8개, 인릉⁴⁸ 화소 내 회목 12개는 사용하는데 합당하기 때문에 베어내고자 차인을 정해 내려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각 능에 알려져 지체 없이 베어내도록 할 것.

각색 공장은 2416명이고, 담포군은 2789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583냥 5전이다.〔합천 민인 1만 453냥 5전 ○진주 민인 5000냥〕

자원군은 4동에서 301명이다.

17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박헌양^{朴憲陽}은 종묘 영^{宗廟}으로 옮겨 제수되었습니다. 직무가 서로 방해되니 해조에서 구전으로 한가한 관서와 서로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형조 좌랑 홍순형^{洪淳亨}과 서로 바꾸었다.〕

46 사릉(思陵): 단종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의 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다.

47 현릉(獻陵): 태종과 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쌍릉이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현인릉길에 있다.

48 인릉(仁陵): 순조와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金氏)의 능이다. 서울시 서초구 현인릉길에 있다.

공충 수사에게 보내는 관문

전에 지정한 재목은 이미 모두 써버렸기에 법전法殿 영건에 들어갈 목물의 태반이 부족하다. 체목體木 1000개, 별대연別大椽⁴⁹ 1000개를 헤아려 지정하니, 도착하는 즉시 베어내서 빨리 운반하여 바치도록 하라. 선척에 들어가는 잡비는 각 해당 읍에 분정한 것이 있으니, 수영에서 취합하여 내려간 계사計士와 패장牌將에게 내주어 즉시 운반하여 바치도록 하라.

경기 감영 및 광주부에 보내는 관문

어영청의 이문移文을 받아보니, ‘영건에 쓸 나무와 석재를 운반하는 수레와 담기擔機에 들어가는 진목眞木, 괴목槐木, 회목檜木을 베어오기 위해 별도로 본청의 장교 최수형崔秀衡을 정해 도내 시흥始興, 부평富平, 안산安山, 과천果川, 용인龍仁, 양주楊州 등지로 내려보내니 베어낼 때 하나같이 해당 장교가 골라잡는 대로 지체 없이 베도록 해당 도에 관문을 보냈니 다.’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빨리 알리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267명이고, 담포군은 2250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500냥이다.〔경성 안국찬安國贊 1000냥 ○안동 민인 2500냥〕

자원군은 6동에서 376명이다.

18일

맑음

본 도감의 당상인 어영대장御營大將 허계許槩가 병으로 인해 체직해 달라는 소를 올렸다. 전교하였다.

“어영대장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대신 총융사摠戎使 이현직李顯稷을 제수하고, 총융사는 새로 통망⁵⁰하여 들이라.”

49 별대연(別大椽): 부연(附椽: 긴 서까래 끝에 얹어 높이 솟게 만드는 서까래)을 달기 위하여 네모지게 다듬은 추녀이다.

50 통망(通望): 벼슬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말한다.

이주철李周喆이 낙점되었다.

○영추문迎秋門 내에서 옛 석교石橋를 얻었다.(금천⁵¹의 물길을 여기에서 다시 왔다. 정묘년(1867, 고종 4) 7월에 보인다.)

각색 공장은 2472명이고, 담포군은 289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200냥이다.(김해 민인 5000냥 2차 ○지례 민인 200냥 ○경주 진사 최만희崔晩喜 1000냥 3차)

자원군은 7동에서 426명이다.

19일

맑음

종친부宗親府를 개건改建하는 공역을 시작하였다.(묘시卯時) 좌우로 철거한 인가가 도합 104호이며, 값은 4만 2587냥이 된다.

경상 감영에 보내는 관문

본 도감의 영건 역사가 갈수록 더욱 커지므로 경상도 김해金海에 사는 최영달崔永達을 패장으로 차정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빨리 알려져서 반드시 다음 달 스무날 전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공충 감영, 황해 감영 및 강화부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 때 목물木物을 다듬는 공역이 너무도 크고 시급한데, 서울에 사는 선장船匠으로 는 절대로 기일에 맞출 가망이 없다. 도내의 웅진瓮津, 장연長淵, 숙곶宿串 등지와 서산瑞山, 태안泰安, 결성結城, 보령保寧, 비인庇仁, 홍주洪州 등지, 갑곶리甲串里, 송정松亭, 산리포山里浦

51 금천(錦川): 궁궐 전면부에 외부와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조성한 개천이다.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금천(禁川)으로도 불렸다.

등지에 선장^{船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며 생활한다고 한다. 성명은 비록 적시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이미 탐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각 해당 읍에 알려져 장라^{將羅}를 정해 일일이 찾아 밤을 새서라도 잡아 올려서 관문을 다시 신척하는 번거로운 폐해가 없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64명이고, 담모군은 292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6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790냥이다.〔안동 민인 2400냥 ○파주 목사 오하영^{吳夏泳} 300냥〕

자원군은 7동에서 439명이다.

20일

비, 개동에서 인정까지
수심은 1치 3푼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단구거^{單驅車} 100량^輛을 완전하고 튼튼한 것으로 다음 달 내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 때 쓸 통영^{統營}에 지정한 각종 목물^{木物}을 실은 선척은 모두 해당 도의 조운선이다. 만약 곧바로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올해 조운은 분명 낭패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연해 각 읍에서 지토선^{地土船}과 지나가는 배들을 임대하여 분배하여 신도록 하며, 조운선은 즉시 돌려보내라는 뜻으로 작년 겨울에 관문을 낸 바가 있었다. 지금 조운선이 돌아갔다는 소식이 아직도 들리지 않아 조운이 제 시기보다 늦어져 낭패를 볼 지경이다. 해당 도의 논보⁵²가 지금 다시 도착하였다. 이에 또 관문을 보내니 목물을 실은 조운선이 언제 본도에 도착하여 정박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배를 빌려 운반을 독려했고 조운선은 언제 돌려보냈는지에 대

52 논보(論報):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자기 의견을 달아 보고하는 것을 이른다.

해 삼현령三懸鈴으로 연해 각 읍에 알려져 거행하고 상황을 소상하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77명이고, 담포군은 119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6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냥이다.(함흥 민인이 냈다.)

자원군은 비로 인해 오지 않았다.

21일

맑음

함경 감영에 보내는 관문

방금 어영청의 이문을 받아보니, ‘영건에 사용되는 철물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단천端川에 사는 김택곤金宅坤을 철을 사는 감관監官으로 차정해서 작년 겨울에 값을 주고 북영에 내려보내 철을 사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1근도 바친 것이 없어 공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하였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엄히 신칙하고 해당 부는 채취한 철을 일일이 수합하여 밤을 새워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35명이고, 담포군은 254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510냥이다.(유학 이복빈李復彬 35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00냥이다.

자원군은 5동에서 364명이다.

22일

맑음

경기 감영,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영건에 각종 목물木物의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각처에서 이미 베어낸 목물은 대소를 따지지 말고 밤을 새워 운반해 온 연후에야 기한에 맞춰서 들여 쓸 수 있다. 그러나 도내 남양南陽, 비인庇仁, 남포藍

浦에서는 작년 가을에 베어 둔 목물은 지금까지 지연되어 막중한 큰 역사가 지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삼현령(三懸鈴)으로 알려져 다음 달 초순 안에 모든 수효를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83명이고, 담포군은 286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800냥이다.〔연산 민인 1300냥 ○봉산 서리 최경로(崔景輅) 1000냥〕

자원군은 8동에서 411명이다.

23일

맑음

각색 공장은 2534명이고, 담포군은 2895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00냥이다.〔강기환(姜琦煥) 900냥 5차 ○안동 민인 700냥〕

자원군은 17동에서 810명이다.

24일

맑음

각색 공장은 2392이고, 담포군은 301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145냥 6전이다.〔안동 민인 800냥〕

자원군은 9동에서 441명이다.

각색 공장은 2582명이고, 담포군은 3120명이다.

25일

맑음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606냥이다.〔봉산 좌수 이기윤李基胤 2000냥 ○상주 민

인 2500냥 ○이천 민인 906냥 ○직산 수령 정명원鄭明源 20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331명이다.

26일

맑음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좌우수영左右水營의 관할 및 가리포加里浦 등 각 봉산⁵³의 풍락송風落松에 대해 분급한 수효와 판매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도부⁵⁴하였다.

길이가 짧아 쓰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내다 팔아 돈으로 만들었는데, 도합 1만 1596냥 6전 2푼이다. 즉시 올려보내 공역에 쓰도록 할 것이

며, 상납하기 위해 봉표封標해 둔 나무는 도합 188그루이니 또한 배에 실어서 올려보내도록 할 일.

각색 공장은 2490명이고, 담모군은 31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393냥이다.〔칠원 수령 유진국兪鎭國 200냥⁵⁵ ○양성 민인 1212냥 ○안동 민인 2350냥〕

자원군은 14동에서 491명이다.

53 봉산(封山): 나라에서 나무베는 것을 금지한 산이다.

54 도부(到付): 공문서나 공식지령이 도달되어 받은 것을 말한다.

55 200냥: 『경복궁영건일기』에는 ‘二百’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27일

맑음

각색 공장은 2563명이고, 담모군은 319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7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200냥이다.〔공충 감사 신억申億 3000냥, 처 정부인貞夫人

人 □씨 200냥〕

자원군은 27동에서 749명이다.

28일

맑음

각색 공장은 2612명이고, 담모군은 37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547냥이다.〔강릉 전 봉사 김계구金啓求 1000냥 4차 ○

명천 유학 최석구崔錫九 700냥 ○대구 민인 1617냥〕

자원군은 17동에서 606명이다.

29일

맑음

흙경각欽敬閣의 터를 닦았고, 서궐西闕 어조당魚藻堂의 재목을 옮겨와 건립하였다.

○지난겨울 전각殿閣의 지붕을 강와⁵⁶로 덮어 두었던 것을 다시 기와로 덮었는데 뒷면 음지는 옛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 무릇 기와 및 축성築

城, 도벽塗壁, 은구隱溝, 온돌溫垆의 모든 흙은 모두 석회를 반씩 넣고 곱

게 땀아 사용하였다.

각색 공장은 2670명이고, 담모군은 328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00냥이다.〔전 도사 이희적李熙績이 냈다.〕

56 강와(强瓦): 겨울철에 공사를 중지하고 임시로 덮어 두던 기와로 추정되는데 실체는 미상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290냥이다.[상주 유학 한상리韓庠履 290냥 ○강진 진사 김숙金瑬 1000냥 3차]
자원군은 15동에서 586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2월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14만 3772냥 2푼이며, 종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만 2632냥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입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도합 7만 1472명이다.

담포군은 7만 6315명이다.

자원군은 265동에서 모두 9516명이다.

병인년^{1866, 고종3} 3월

1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啓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에게 견호케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공장 2704명에게 한 명당 1전씩, 담모군 3502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446냥 5전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자경전^{慈慶殿}의 터를 닦았다.

각색 공장은 2631명이고, 담모군은 334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308냥이다.[전 수문장 이희진^{李喜晉} 500냥, 유학 이희관^{李喜觀} 5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948냥이다.[홍주 민인 1000냥]

자원군은 16동에서 611명이다.

2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법궁法宮의 영건에 사용되는 양목樑木으로 송목松木, 회목檜木, 백자목栢子木 8개를 광릉光陵 경내에서 베고, 회목 9개를 사릉思陵 경내에서 베어 두었다. 부근 백성들을 징발하여 두 능의 동구洞口로 끌어내 밤을 새워 운반해 오도록 하라.

또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기계 및 석물을 끄는 데 사용하는 생갈生葛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금으로는> 배정해서 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5000동同을 다시 지정하니, 도착하는 즉시 생산하는 각 읍에 분정하여 다음 달 내로 돈으로 대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483명이고, 담모군은 337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3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075냥 6전이다.〔통제사 김건일金鍵一 1000냥 선납〕

자원군은 22동에서 818명이다.

3일

맑음

광화문 앞에 월대月臺를 쌓았다. 모군募軍이 궁 안에 쌓아둔 잡토雜土를 지고 왔는데, 실로 4만여 짐에 이르렀다. 한 짐당 1푼을 값으로 지급하였다.

각색 공장은 2570명이고, 담모군은 349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4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311냥 2푼이다.〔결성 민인 1100냥 ○안동 민인 123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346명이다.

4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가평^{加平} 개곡리^{開谷里} 사양산에 있는 나무를 값을 주고 사서 베어오기 위해 차인을 정해 내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읍에 알려져 지체 없이 벌목을 허락하도록 하라.

또 <경기 감영에> 보낸 관문

훈련도감의 이문을 받아보니, ‘영건 때 사용하는 목물과 석재를 운반할 수레와 담기^{擔機}에 사용할 진목^{眞木}, 괴목^{槐木}을 베어내기 위해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도내로 내려보냈습니다. 교하^{交河}, 연담^{蓮潭}, 홍재령^{洪載寧} 원림^{園林}의 진목 100그루, 연산리^{連山里} 이토산^{李兔山} 원림의 진목 80그루, 괴목 1그루, 파주 장포동^{長浦洞} 괴목 3그루, 광광리^{廣廣里} 성괴산^{成槐山} 원림의 괴목 11그루, 양래동^{陽來洞} 동구^{洞口}의 진목 30그루, 괴목 2그루, 적성^{積城} 진림리^{眞林里} 수구^{水口}의 진목 50그루를 베어내기 위해 내려갑니다.’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알려져 각 해당 읍에서 지체 없이 베어낼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586명이고, 담모군은 350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47냥 1전이다.

자원군은 14동에서 371명이며, 말은 20필이다.

5일

맑음

밤에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낭청 이덕초^{李惠初}를 진감^{鎭監} 현감^{鎭岑縣監}으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그 대신 전생서 판관 성대영⁵⁷을 차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7 성대영(成大永): 『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5일조 기사에는 전생서 판관이 성대영이 아닌 함대영(咸大永)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고종실록』에 함대영은 보이지 않고 고종 14년 4월 15일 기사에 성대영이 무장 현감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성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계를 올려 아뢰었다.

“오늘 2경 무렵 동십자각東十字閣 근처에 있는 훈련도감 화공畫工의 가가假家에서 불이 나서 나무를 다듬는 가가 800여 칸과 다듬어 놓은 목재까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불 끄는 것을 감독하고 신척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의정부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지난밤 영건하다 실화失火로 불에 탄 것이 수백 칸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미 다듬어 놓은 채목도 대부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불을 끄는 도구가 있었고 야간 경비를 하는 병졸도 있었으나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앉아서 불이 번지는 것을 구경만 하였으니, 평소에 신척하지 못한 잘못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해 입직 당상은 현고⁵⁸하였으니 견책하여 파면하는 형벌을 시행하고, 상직上直한 장교와 원역員役 및 불이 난 곳을 지키던 군졸들은 형조에 회부하여 엄히 형신한 후에 유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입직당상은 즉 훈련대장 임태영이다. ○이 의정부의 초기는 6일에 계를 올려 아뢴 것이다.)

전교하였다.

“이미 신척하였으니 훈련대장 임태영을 용서하라.”

전교하였다.

“훈련대장을 이미 용서하였으니, 형조로 이송한 훈련도감 장교와 군속들을 특별히 풀어주도록 하라.”

임태영의 상소(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내용이다.)에 답하셨다.

“상호군 임태영에게 일전에 경고한 것은 일의 체모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단속하는 데 한층 더 힘쓰도록 하라.”

대영으로 번역하였다.

58 현고(現告): 국가의 행정 지시 사항이나 일반 범죄 사실 등을 해당 관청이나 관원에게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이다.

[이상 전교는 모두 8일에 내린 것이다.]

각색 공장은 2494명이고, 담포군은 307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5660냥이다. [김천 민인 5000냥 ○종성 민인 1만 냥]

자원군은 17동에서 626명이며, 말은 24필이다.

6일

맑음

고양高陽 용두리龍頭里의 원부군願赴軍(4차)이 상원上苑에 있는 논을 갈고 씨 5말을 뿌렸다.

각색 공장은 2529명이고, 담포군은 338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285냥이다. [남포 민인 1000냥 ○광양 민인 185냥]

자원군은 17동에서 796명이다.

7일

맑다가 밤에 비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와서瓦署와 관계된 진흙을 밟는 소 4마리는 경기 내 각 읍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분정하여 올려보내 사용하는 것이다. 시흥始興, 교하交河의 소 1마리는 모두 힘이 없고 아위어 쓸 수가 없으므로 이미 되돌려 보냈는데, 아직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바치지 않고 있다. 용인龍仁에서는 처음부터 올라온 것이 없다. 기와 굽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나라의 큰 역사가 낭패스러운 지경이 되었으니, 거행하는 것을 헤아려 보면 매우 가증스럽고 추악하다. 세 읍의 수리⁵⁹와

59 수리(首吏): 우두머리가 되는 아전, 즉 이방(吏房)이다.

수향⁶⁰은 우선 별도로 교리校吏를 정하여 밤을 새워 압송하여 특별히 징계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애초 올라오지 않은 소는 반드시 크고 건실한 것으로 각별히 뽑아서 기한을 정해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522명이고, 담포군은 341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321냥 8전이다.[전라 우수영 민인 6950냥 ○태안 민인 1579냥 ○청송 대전

사大典寺 승려 장문壯旻 정철釘鐵 130근]

자원군은 23동에서 853명이다.

8일

비. 어제 인정부터
오늘 개동까지 수심
은 6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어영청의 이문을 받아보니, ‘본영에서 영건하는 재목과 석물을 운반하는 수레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진목眞木, 괴목槐木을 후록하니, 각 읍에서 이미 베어 둔 것은 일일이 수를 대조하여 즉시 포구로 내보내 때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

착하는 즉시 관문을 베껴 보내 각 해당 읍에서 신속히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330명이고, 담포군은 148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270냥이다.[명천 민인 1500냥 ○광주 유학 강두팔姜斗八 300냥 2차 ○홍천 진

사 이덕용李德用 500냥 3차]

자원군은 비로 인해 이르지 못하였다.

60 수향(首鄉):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鄉廳)의 가장 높은 직임, 즉 좌수(座首)이다.

9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도청都廳 홍원식洪遠植이 집의執義에 제수되었습니다. 직무가 서로 방해되니, 맡게 된 대간직을 우선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2531명이고, 담모군은 339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582냥이다.[경주 민인 2582냥 ○평산 신용배申應培 2000냥 3차 ○해주 진사
임재식林在植 5000냥 2차]

자원군은 11동에서 481명이다.

10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근정전勤政殿과 사정전思政殿을 영건하는 길한 일시를 일관에게 택하게 하니, 개기開基는 오는 6월 8일 묘시卯時, 축대築臺는 6월 24일 묘시, 정초定礎는 8월 25일 미시未時가 모두 길하다고 합니다. 이 일시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입주와 상량 일자는 초기에 올해 12월 8일로 나온다.]

각색 공장은 2593명이고, 담모군은 329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284냥 3전이다.[부평 민인 64냥 3전 ○명천 동요량董堯亮 1400냥 ○임실 수령 서증보徐曾輔 500냥 2차]

자원군은 12동에서 524명이다.

11일

맑음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홍주洪州, 결성結城, 보령寶寧, 비인庇仁, 남포藍浦, 서산瑞山, 태안泰安 등지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선장船匠을 각 20명으로 한정하여 연장을 갖추어 올려보내도록 하라.

공충 수영에 보내는 관문

그 수영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솜씨 좋은 선장을 20명으로 한정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507명이고, 담모군은 356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16냥이다.[유학 이만구李晩九가 났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277냥 8전이다.[진주 감목관 민용길閔龍吉 300냥 2차 ○공주 민인 4957냥 8

전 ○전라 수사 윤선응尹善應 1000냥]

자원군은 9동에서 324명이다.

12일

미우微雨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지평砥平에 사는 외장瓦匠 김천서金千西가 솜씨가 좋다 하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밤을 새워 올려보내도록 해당 현에 알리도록 하라.

또 경기 감영에 보낸 관문

도내 안성현에 기거岐鉅(톱의 일종)를 업으로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현에 알려져서 60명을 한정하여 연장을 갖추어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509명이고, 담모군은 321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00냥이다.[양구 수령 이과중李果重이 났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000냥이다.[연일 민인이 냈다.]

자원군은 8동에서 384명이다.

13일

흐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광양^{光陽}에 지정한 나무 2개를 실은 배가 운반해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통진^{通津} 세암리^{細巖里} 포구에 정박했는데, 해당 동의 임장^{任掌}들이 저내서 가졌다고 한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추급⁶¹하여 환납^{還納}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36명이고, 담모군은 344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2912냥 5전이다.[삭녕 유학 남이창^{南履昌} 200냥 2차 ○경주 민인 9498냥
○동극량⁶² 600냥 2차 ○순흥 민인 1604냥 5전]

자원군은 7동에서 401명이다.

14일

맑음

공역을 시작할 때부터 장색^{匠色}의 품삯은 호조가 상정^{詳定}한 것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연기⁶³가 너무 높아 1전을 더 지급하였고, 28일에 이르러서는 담모군에게 다시 5푼을 더해 주었다.

각색 공장은 2650명이고, 담모군은 3621명이다.

61 추급(推給): 찾아서 내어 준다는 의미이다.

62 동극량(董克亮): 『승정원일기』에는 ‘董克亮’으로 나오는데, 『경복궁영건일기』에서는 모두 ‘董克亮’으로 되어 있다.

63 연기(煙價): 주막이나 여관의 밥값을 말한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970냥이다.

자원군은 8동에서 451명이다.

15일

맑음

동부東部를 시작으로 또 잡식을 원납願納하였다.

남양부南陽府에 보내는 관문

영건에 쓸 초둔⁶⁴을 차인을 정해 예산禮山 땅으로 내려보내 561냥을 사 들어 신고 왔다. 그런데 남양南陽 부흥포復興浦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파손되어 각처로 흩어졌는데, 무지한 부흥포 백성들이 몰래 수습하여 발매發賣하기도 하고 은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단지 158부浮이며, 나머지 403부는 사사로운 힘으로는 찾아내어 오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장차將差를 많이 내보내어 해당 백성이 거둔 초둔을 일일이 추급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21명이고, 담포군은 371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1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110냥이다.〔무안 문주현文周顯 3000냥 2차〕

자원군은 9동에서 551명이다.

64 초둔(草屯): 땀, 짙,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이다.

16일

맑음

팔도에 보내는 관문

이번 각 전당의 석역石役이 너무 많아서 올라 온 약간의 석수石手로는 기일을 맞출 길이 전혀 없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각 읍에 알려져 일일이 찾아 올려보내도록 하라.

여주목에 보내는 관문

본 목 청량淸涼 홍씨洪氏 집안의 사양산에 있는 송목松木 중에 적합한 재목 80개를 베어서 운반해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15명이고, 담모군은 362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165냥이다.[안동 민인 1700냥 ○안성 유학 안효직安孝稷 1000냥 2차 ○

인동 민인 6700냥 ○삭녕 좌수 김려중金麗重 500냥 3차 ○지례 민인 365냥 2차]

자원군은 7동에서 351명이다.

17일

맑음

전라 감영에 보내는 관문

영건하는 역사의 모든 거행이 규모가 매우 크므로 임피臨陂에 사는 백성 최유달崔有達을 본 도감의 패장으로 차정하니 해당 읍에 알려져 신속히 올려보내도록 하라.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원주原州 사자산獅子山에 베어낸 송목松木과 회목檜木 33개를 즉시 운반하여 바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25명이고, 담모군은 375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29냥 2전이다.[양천 민인이 냈다.]

자원군은 7동에서 351명이다.

18일

맑음

대원위가 소를 지급하여 호케하였다. 도청과 1방房, 2방, 3방의 원역員役 등에게 두 마리, 별간역 및 주청籌廳(산학청)에 두 마리, 도청의 패장, 구료관敎療官 및 포교에게 두 마리, 각 방房 사령 및 사환기수使喚旗手에게 한 마리, 삼영三營의 패장 등에게 세 마리이다. 이튿날에는 또 공장, 담모군에게 호케하였다. 삼영은 각 한 마리, 1방, 2방, 3방은 다섯 마리

이다.[원역에서 패장에 이르는 수는 이미 첫 권에 보인다. 삼영의 공장, 담모군은 도합 3547명이며, 1방, 2방, 3방은 2749명이다.]

어영대장 이현직李顯稷이 조사한 결과, 본 영의 군졸 가운데 거짓으로 기록하고 급료를 받은 자가 80명인데, 한 명 당 부역군 30명을 내게 하여 그 벌을 대신하게 하니, 도합 2400명이었다. 매일 200명씩 영추문, 신무문의 해당 축성소築城所에 나누어 일을 시켰다.

각색 공장은 2681명이고, 담모군은 357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300냥이다.[명천 김흥백金興伯 4000냥 ○상주 한상리韓庠履 1000냥 2차 ○영산 수령 남종응南鍾應 1000냥 ○금정 찰방 홍기종洪岐宗 300냥]

자원군은 10동에서 411명이다.

19일

맑음

화성부 내의 인거장^{引鉅匠}을 보내는 일로 관문을 보냈다. 화성^{華城}, 제릉⁶⁵, 후릉⁶⁶ 경내와 본 도^都 각처의 사양산에 과연 사용할 만한 재목이 약간 있다고 하므로 일일이 베어낸 후, 밤을 새워 운반하여 상납하라는 일로 개성부에 관문을 보냈다.

각색 공장은 2690명이고, 담모군은 360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500냥이다.〔동극량^{董克亮} 1300냥 ○상주 한상리 200냥⁶⁷〕

자원군은 9동에서 381명이다.

20일

맑음

경성부^{鏡城府}에 보내는 관문

지금 홍원^{洪原}에 사는 박내원^{朴乃元}이 호소한 바를 받아보니, ‘본 현에 사는 현익상^{玄翼商}은 본래 호방하고 사나운 부류인데, 지난해 9월 원납전을 운반하여 서울로 올라올 때 함흥^{咸興} 퇴기^{退妓}의 집에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막중한 원납전을 낭비해 버렸으며, 더구나 퇴기 집에 머물던 박동인^{朴東寅}과 함께 원납전과 바꾸어 쓸 수표^{手標}를 만들고 관문^{關文}을 받아서 홍원현에 잡아 가둔 박가^{朴哥}의 여러 친척에게 부쳐서 만여 냥을 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玄가와 박^朴가 두 놈을 엄히 가두어 상세히 조사하신다면, 쌓아 둔 돈은 자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실정을 따라 조사하

65 제릉(齊陵): 태조 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대련리 부소산에 있다.

66 후릉(厚陵): 정종과 비 정안왕후(定安王后) 김씨(金氏)의 쌍릉이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영정리에 있다.

67 상주(尙州) 한상리(韓庠里) 200냥: 한상리의 경우 여러 차례 원납전을 냈다. 이날은 3차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복궁 영건일기』에는 ‘三次’라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납전을 납부하게 되면 재차, 3차, 4차 등으로 기록하는데,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여 징발하고자 할 즈음에 또 본 현에서 제급題給 받은 소지所志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고을의 원납전 1만 냥 중에서 3000냥은 과연 현가 놈의 거짓 청원으로 인해 현가에게 내주었고, 7000냥은 집 값으로 정해서 지금 쌓아 두었다고 한다. 박가의 소장에서 보고, 또 그 고을에서 내린 제급에서 현가 놈이 행한 바를 보니 대단히 통악스럽다. 이미 지급한 돈 3000냥은 기한을 정해서 현가에게 징출徵出하여 밤을 새워 올려보내고 쌓아 둔 돈 7000냥은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실어서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37명이고, 담모군은 360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5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761냥이다.[길주 박원영朴元榮 1000냥 ○상주 민인 1691냥 ○충주 수령 민우世閔禹世 2000냥]

자원군은 29동에서 1154명이다.

21일

맑음

각색 공장은 2593명이고, 담모군은 328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300냥이다.[길주 박원영朴元榮 1000냥 2차]

자원군은 7동에서 309명이다.

22일

맑음

각색 공장은 2681명이고, 담모군은 353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45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693냥이다.[영천 민인 2093냥]

자원군은 8동에서 379명이다.

23일

맑음

각색 공장은 2695명이고, 담모군은 361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1냥이다.

자원군은 9동에서 679명이다.

24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도청 이명응(李明應)을 가자(加資)하였으니, 그 대신 부교리 조경호(趙慶鎬)를 차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어영청이 불암(佛巖)에서 누주석(樓柱石) 1괴를 떠 왔다.

홍복전(興福殿)에 기단을 쌓았는데, 창의궁⁶⁸ 함일재(咸一齋) [영조의 잠저(潛邸)이다.]의 재목을 옮겨 건립하였고, 본궁 월대의 석재를 모두 허물어 각 역처에서 사용하였다.

각색 공장은 2773명이고, 담모군은 353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800냥이다. [유학 이운경(李雲慶)이 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0냥이다. [전의 민인이 냈다.]

자원군은 10동에서 471명이다.

25일

맑음

어영청에서 누주석(樓柱石) 1괴를 떠 왔다. [불암(佛巖)]

○문소전(文昭殿) 옛 터의 지대석(支臺石)을 종친부 천한전(天漢殿) 역소로 옮겨 사용하였다.

68 창의궁(彰義宮): 영조의 잠저이다. 한성부 북부 순화방(順和坊: 지금의 통의동 일대)에 있었다.

각색 공장은 2835명이고, 담모군은 351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809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630냥이다.[함창 유학 신영작申永爵 1000냥 ○안성 유학 안효직安孝稷 2000냥

3차 ○순천 유학 김기황金基璜 500냥]

자원군은 10동에서 431명이다.

26일

맑음

각색 공장은 2761명이고, 담모군은 337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6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147냥 5전이다.[온양 민인 1000냥 ○김해 민인 1110

냥 ○안동 부사과 유기영柳驥榮 1000냥 2차]

자원군은 10동에서 431명이다.

27일

맑음

호조에 보내는 이문

이번 영건의 을축년(1865, 고종2) 4월부터 병인년(1866, 고종3) 3월에 이르기까지 본 도감의 각 방房에서 쓴 각종 목물木物을 후록하여 이문하니, 이대로 회감會減 한다.

체목體木 55개, 누주樓柱 438개, 궁재宮材 94개, 차벽련次劈鍊 56개, 무대연質大椽 4개, 차대연次大椽 269개, 대연大椽 6개, 문내목文乃木 5개, 회룡통回籠桶 21좌, 녹로소탕⁶⁹ 4개, 주柱 8개, 도리⁷⁰ 4개, 기機 4개, 회룡回籠 4개, 살[箭] 8개, 홍두깨⁷¹ 1개, 동곳목⁷² 2개, 설목舌木 3개, 대가자⁷³ 4부部, 회부⁷⁴ 1좌, 두꺼운 정판正板 504넝, 보관⁷⁵ 114넝

69 녹로소탕(轆轤所湯): 녹로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던 기구이다. 다만 녹로소탕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도내 양근군楊根郡 양반 류씨柳氏의 집 구목邱木을 이른바 양반 윤대일尹大一이 그의 차인 현가玄哥를 중용하여 본 도감의 관문이라고 거짓으로 칭탁하고 거리낌 없이 베어낸 후 사사로이 팔거나 가재家材를 만들어서 온 산의 무성한 나무가 지금은 벌거벗은 지경이 되었다. 다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탄식할 뿐 아니라 그의 자손 된 자들은 매우 억울하다고 몇 달 전에 소장을 올렸으니, 관문을 위조하고 공公을 빙자하여 사익을 꾀하는 상황이 매우 무엄하다. 윤尹, 현玄 두 사람은 장교를 정해 우선 잡아 올리고 이미 베어버린 나무는 일일이 추급推給하라는 뜻으로 엄히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다. 그런데 오직 저 윤씨 양반만이 끝내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미 벤 목물을 한 개도 환급하지 않고 팔을 휘두르며 큰소리를 치며 잡혀 올 뜻이 없으니 어찌 이같이 무엄한 습속이 있단 말인가. 비록 수령에 대해 말하더라도 엄한 관문이 내린 중에 태만하게 놀고 세월만 보내면서 조금도 독촉하며 신칙하는 것이 없다. 일의 거행을 헤아려 볼 때 또한 매우 소홀하니 이는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영교營校를 별도로 정해 윤, 현 두 사람을 기필코 잡아 밤을 새워 압송하고 목물은 일일이 수효를 확인하여 책자로 만들고 도감으로 옮겨 바치고 관아에 귀속시켜 공역에 쓸 수 있도록 하라.

어영청이 누주석 1괴를 떠 왔다.(불암)

70 도리(道里): 보(褙) 좌우 양단 상부에 놓여 서까래를 지지하는 부재이다. 단면 형태에 따라 납도리, 굴도리로 구분되고, 사용 위치에 따라 종도리, 중도리(상중도리, 중중도리, 하중도리), 주심도리, 출목도리(외목도리, 내목도리), 외기도리 등으로 나뉜다. 이밖에 길이에 따라 험칸도리, 반도리, 단도리 등도 있다.

71 홍두깨[洪道介]: 다듬이질 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72 동곳목(童串木): 일반적으로 의궤류의 기록을 보면 동곳(童串)은 대패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대패 덧날막이 혹은 대팻집으로 추정된다. 덧날은 대팻날로 나무를 깎을 때 거스러미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팻날 위에 설치한 작은 날이다.

73 대가자(大架子): 크기가 큰 가자이다. 가자는 음식물을 담아 나르는 들것이다.

74 회부(灰釜): 재를 만드는 가마이다.

75 보판(步板): 계단 등의 디딤판이다.

각색 공장은 2604명이고, 담포군은 348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만 1228냥이다.〔안동 민인 930냥 ○안성 정사순鄭士淳 700냥 ○청도 민인 2만 3048냥 2차 ○평안도 토관 강성함康成誠 2000냥 ○평안 감영 영리 홍희련洪憲鍊 2000냥 ○봉산 수령 원세현元世顯 2000냥〕

자원군은 8동에서 381명이다.

28일

맑음

홍원현洪原縣에 보내는 관문

지난번 경성鏡城의 원납전을 거저먹은 일로 박동인朴東寅의 족속에게 대신 징수하라는 뜻으로 관문을 보냈었다. 다시 허와 실을 따져보니 이른바 현익상玄翼商이라는 놈은 본래 난류⁷⁶로 박동인과 한통속이 되어 바깥 쓸 수 있는 수표를 거짓으로 만들어 관문을 얻어 박가의 친족 중 살림이 제법 넉넉한 사람들에게 징수하려고 도모하였다. 원납전은 아직 경성현에 있으므로 이제 관칙⁷⁷으로 바치도록 독촉하라. 박가朴哥의 문중이 공연히 현가 놈의 교묘한 속임 때문에 함부로 억울하게 징수를 당한 상황이니 매우 불쌍하다. 친족에게 징수한다는 한 가지 조목은 특별히 명령을 거두어 다시는 침책侵責하지 말며 사실의 전말을 보고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15명이고, 담포군은 344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600냥이다.〔남병사 이기석李基碩 1000냥, 처 정부인 윤씨尹氏 100냥〕

자원군은 8동에서 360명이고, 말은 9필이다.〔철원 진사 황봉휴黃鳳休가 30명을 거느리고 와서 3일 부역하였다.〕

76 난류(亂類): 질서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함부로 하는 무리이다.

77 관칙(關飭):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보내던 공문으로, 오늘날의 훈령(訓令)과 비슷하다.

29일

맑음

각색 공장은 2756명이고, 담모군은 3276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유학 이시민李時敏이 냈다. 전후 도합 14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020냥이다.[적성 유학 경선慶銑 백탄白炭 40섬 ○춘천 유학 이견일李健一 1000냥 2차 ○옥천 수령 김병기金炳基 500냥 2차 ○용인 유학 이

준李埈 500냥 2차]

자원군은 8동에서 360명이고, 말은 9필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3월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14만 5589냥 8전 2푼이며, 중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7648냥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도합 7만 6026명이다.

담모군은 도합 9만 8665명이다.

자원군은 324동에서 도합 1만 3986명이다.

병인년^{1866, 고종3} 4월

1일

맑음

전교하였다.

“경복궁 역소의 공장^{工匠}들에게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견호케하도록 하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공장들에게 견호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장 2970명에게 한 명당 돈 1전씩, 담모군 3936명에게 한 명당 돈 5푼씩, 도합 돈 493냥 8전을 나

누어 주겠습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2734명이고, 담모군은 354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5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6180냥이다. [진주 유철환^{兪喆煥} 6000냥 ○진주 민인 5000냥 ○강릉^{岡陵} 전 감역 김연대^{金演大} 1000냥 3차 ○안변 부사 유성환^{兪晟煥} 500냥 ○장성 수령 민세호^{閔世鎬} 1000냥 ○옥천 진사 김동교^{金東敎} 2000냥 2차]

자원군은 8동에서 351명이다.

2일

맑음

황해 감영에 보내는 관문

봉산군鳳山郡의 원납전을 운반해 올 때 농사철이라 <배를>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 장차 본군의 조포에서 배로 실어 나른다 하니 실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별도로 장리將吏를 정해 배를 타고 영솔領率하여 끊이지 않고 운반해 서강西江 강머리에 정박시키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60명이고, 담모군은 362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3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50냥이다.

자원군은 8동에서 351명이다.

3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방금 훈련도감의 이문을 받아보니, ‘영건에 사용되는 목물木物을 운반하는 수레를 조성하기 위해 진목眞木 84개, 괴목槐木 10토막은 양근楊根에서 베었고, 진목 80개는 양주楊州에서 베었으며, 진목 153개는 교하交河에서 베어내 전부를 이미 끌어 운반해 포구로 내왔습니다.’ 하였다. 각 해당 읍에서 완전하고 견고한 배를 붙잡아 밤을 새워 경강京江으로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또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장릉長陵 경내에서 벤 연목椽木 400개는 해당 군에서 밤을 새워 경강으로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21명이고, 담모군은 36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유학 이시민李時敏이 냈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9789냥 2전이다.[의주 민인 1만 9550냥]

자원군은 20동에서 704명이다.

4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가평^{加平}의 양반 이씨의 집과 지평^{砥平} 병사^{兵使} 양씨^{梁氏}의 집 사양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서 쓰기 위해 이에 관문을 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읍에 알려 즉시 베는 일을 허락하여 밤을 새워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광주부^{廣州府}에 보내는 관문

헌릉^{獻陵}, 인릉^{仁陵} 경내에서 베어낸 회목^{檜木} 21개는 광주부에서 별도로 장교를 정해 밤을 새워 경강으로 운반해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65명이고, 담모군은 371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3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267냥이다.[상주 유학 한상^{韓庠履} 101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291명이다.

5일

맑음

의정부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방금 좌포도청의 보고를 보니, ‘영건도감 역소에서 비기^{秘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홍길유^{洪吉裕}의 성명과 주소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홍길유와 그의 형 병유^{秉裕}를 붙잡아다 따로 가두어 두고 신문하니 홍길유의 진술 안에 「나는

본래 용산^{龍山}에 살고 있으며, 오랫동안 몸이 붓는 병이 있는데 실은 약으로 치료하기가 어

려워 거짓으로 비기^{秘記}를 만들어 직접 쓰고 새겨서 몰래 성 밑에 두었다. 지금 이미 붙잡혔으므로 지만⁷⁸으로 공초^{供招}를 바칩니다.」라고 하였고, 홍병유의 진술 안에 「비록 동기^{同氣}일지라도 애초 마음속 계획은 정말 자세히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홍길유의 허다한 간사함을 절절이 자복하였습니다.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관계되니, 이렇게 흉악하고 패만한 놈을 본청에서 감히 자의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허망하게 잠꼬대 같은 괴상한 말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고 곤궁하게 되자 못할 짓을 서슴없이 하다가 자기가 지은 죄로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포도청에 붙잡혀 이미 다 실토하였습니다. 요망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조문이 있을 뿐만 아니니, 이 자를 심상히 처단한다면 앞으로의 폐단을 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청 죄인 홍길유를 군문^{軍門}에 내주어 효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경각시키소서. 그리고 동기간에 같은 집에서 살면서 동생의 일을 감히 몰랐다고 한단 말입니까. 홍병유는 형조로 이송하여 엄히 형신한 후에 유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거짓 비기를 조작한 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리석고 몰지각하여 도리어 깊이 벌할 것도 못 되니, 특별히 생명을 살리기 좋아하는 의리를 헤아려 해당 군영에 맡겨 군민^{軍民}을 대대적으로 모아 돌려 보인 후에 곤장 30대를 호되게 쳐서 멀리 떨어진 험악한 섬에 죽을 때까지 징배하도록 하라.” [이에 앞서 광화문 서쪽 성 밑에서 이 비기가 나왔었는데, 석회를 만드는 그릇 안의 재판^{灰板}에 비기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때 이르러 드러났다.]

각색 공장은 2619명이고, 담모군은 362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670냥이다. [안성 유학 안효직^{安孝稷} 800냥 4차 ○평양 박기원^{朴岐遠} 2000냥 2차]

자원군은 12동에서 341명이다.

78 지만(遲晩):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이다..

6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영건에서 재목과 석재를 운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삼척三陟의 대량大樑 2그루를 올려보낼 때 운송을 담당한 감관監官인 전 만호萬戶 최광수⁷⁹가 깊고 험한 바다를 건너 6개월 만에 마침내 무사히 도착하여 배를 대었습니다. 그 공로를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는 것이 합당하니, 특별히 오위장으로 상가賞加하여 해조에서 구전으로 가설 단부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2435명이고, 담모군은 358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1081냥이다.〔서원西原 민인 1만 79냥〕

자원군은 12동에서 341명이다.

7일

맑음

수원부水原府에 보내는 관문

수원부 양간면楊澗面 신봉진申鳳振의 사양산에 있는 송목松木 1000개를 베어내 기한에 맞춰 선척을 대어 경강에 이르러 정박시키도록 하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금 교하군交河郡의 보고를 접해 보니, ‘장릉長陵 경내에서 베어둔 연목椽木 400개는 본 읍의 선척으로는 절대로 기일에 맞춰 올려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매우 견고한 배 50척으로 한정해서 연해 각 읍에 분정하고, 교동부喬桐府에서 힘을 합쳐 운반하여 상

79 최광수(崔光秀): 『승정원일기』 고종 3년 4월 6일 기사에는 최윤수(崔允秀)로 되어 있다.

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689명이고, 담포군은 372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7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688냥이다.〔강계 민인 3288냥〕

자원군은 13동에서 346명이다.

8일

맑음

강녕전康寧殿 동서 퇴선간⁸⁰의 터를 닦았다.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양주목 청송면靑松面 산내리山內里 김가金哥의 사양산에서 합당한 송목松木을 베어오기 위해 차인을 정해 내려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목에 알려져 벌목을 허락하고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사직서에 보내는 관문

영건도감이 사직서에 보낸 관문에서, ‘영건에 사용되는 것이 중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신실神室 지척의 땅에서 이 25그루의 대송大松을 베어냈으니 도끼질하는 역부의 소란으로 이미 매우 편안하지 않은데다가 또 넘어뜨려 운반하면서 작은 크기나 중간 크기의 나무들이 꺾이고 쪼개지는 것이 몇 그루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어찌 황송하고 걱정됨이 크지 않겠는가. 이는 헤아려 볼 일이다.’ 하였다. 관문의 내용이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능침에 있는 몸체가 큰 나무를 이미 베어서 가져다 썼다. 유독 신실의 나무에 대해서만 황송하고 미안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벌목을 허락하여 때에 맞추어 쓸 수 있도록 하라.

80 퇴선간(退膳間): 국왕이나 세자가 물린 음식을 받아내던 곳이다.

강원 감영에 보내는 관문

이번 경북궁 영건 때 체대목體大木은 수요가 매우 많고 사용이 매우 시급하다. 도내의 인제麟蹄, 춘천春川, 영월寧越, 평창平昌 등지에서 체목體木 2만 개, 누주樓柱 3만 개, 궁재宮材 4만 개, 차벽련次劈鍊 4만 개, 선자대연扇子大椽, 별대연別大椽 각 5000개, 무대연貿大椽, 차대연次大椽 각 3만 개, 대공판⁸¹ 200널을 별도로 차인 최경화崔敬化를 정하여 이미 값을 주고 베었다. 지금 보아하니 하지夏至가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 경강에 옮겨 바치지 않았으니, 막중한 큰 역사가 참으로 낭패가 되었다. 이에 별도로 관문을 보내니, 도착 즉시 재빠르게 각 해당 읍과 해당 차인에게 엄히 신칙하여 대소 목물을 며칠 내로 뗏목에 묶어 흘려보내 일제히 경강에 도착하도록 하라.

또 <강원 감영에> 보낸 관문

영건에 쓸 각종 목물木物을 강원도 간성杆城 땅에서 값을 주고 베어냈고, 공장工匠과 모군募軍 등의 식량으로 정조⁸² 120섬을 그 군郡 사람 박달홍朴達弘에게 사들이도록 맡겼는데, 이놈이 감히 불측한 계략을 내어 맡긴 부분을 모두 도둑질하고 지금까지 한 포包의 곡식도 바치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해당 군에 관문을 보내어 기한을 정해 추급推給하게 하였다. 박가놈이 읍속⁸³과 체결하여 호지부지 세월만 보내다 목재 구입이 낭패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와 같은 지방 고을의 거행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다.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군의 수리首吏와 박달홍을 장치⁸⁴를 정해 밤을 새워 잡아 올리고 엄히 곤장을 쳐서 옥에 가둔 후 도둑질한 부분은 수대로 징수하여 바치며, 상황을 즉시 회답하도록 하라.

81 대공판(臺工板): 대공의 판목으로 여겨진다. 대공은 목조건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는 짧은 기둥이다.

82 정조(正租): 추수 후 타작을 끝낸 뒤 방아를 찧지 않은 벼를 말하며, 부세(賦稅) 명목으로 만들어진 벼를 뜻하기도 한다.

83 읍속(邑屬):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 사령 등 이속(吏屬)의 총칭이다.

84 장치(將差): 감사 혹은 고을 수령이 심부름으로 보내던 사람이다.

각색 공장은 2676명이고, 담포군은 364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30냥이다.

자원군은 12동에서 296명이다.

9일

아침에 비가 내리다
가 저물녘에 맑음.
묘사에서 사시까지
수심은 2푼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가평군加平郡 석거리石巨里 양반 이씨의 사양산에 있는 재목 654그루는 이미 베어두었다. 부근 민인을 징발하여 즉시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강화부에 보내는 관문

작년 큰 장마로 떠다니는 것을 잡아 둔 체목體木 130여 그루는 지금 사용이 시급하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밤을 새워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14명이고, 담포군은 323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21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냥이다.〔곡산 민인이 냈다.〕

자원군은 11동에서 256명이다.〔전라도 보부상 50명이 10일간 부역하였다.〕

10일

아침에 맑다가
미시 이후 비

이천부伊川府에 보내는 관문

작년 함경도 안변부安邊府에서 베어낸 대소大小 송목松木 819그루에서 이천부 경내에 실어 두었던 것을 즉시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하도록 한다. 또 길이가 가히 50자이고 지름이 2~3자 되는 3그루는 강변에 있다고 하니, 일체 뗏목으로 만들어 함께 운반하여 상납하도록 할 일.

각색 공장은 2752명이고, 담포군은 3901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7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000냥이다.[길주 최항률崔恒律 3000냥 ○순천 수령 유희柳陟 2000냥 ○안동 민인 1000냥]

자원군은 10동에서 351명이다.

11일

비, 어제 미사부터
오늘 개동까지
수심 2치 5푼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영건의 원납願納은 서울과 지방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인데, 근래 들리는 말에 농간을 부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전 별군직⁸⁵ 조존주趙存周의 일에 있어서는 이미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관朝官에 관계되는 일이니 해부該府에서 잡아 신문해서 처

별하게 하고, 그밖에 간섭한 놈들은 포도청에서 별도로 각별히 조사하여 법률대로 엄히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15일 의금부의 조목照目에 써있다.

“지난번에 조존주가, 영건의 원납은 소중함이 자별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간사한 것을 하여 소문이 시끄럽게 퍼졌습니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뢴 내용이 이미 틀림없는 사실이었는데도, 죄수의 공초에서 오로지 변명만 하니 더욱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부류를 규례대로 논단하고 말 수는 없으니, 멀리 유배 보내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85 별군직(別軍職): 조선 후기 임금을 시위(侍衛)하거나 간신 및 역적 등을 잡아내는 일을 맡은 무관(武官) 벼슬이다. 병자호란 때에 봉림대군(鳳林大君: 효종)을 시위한 박배원(朴培元), 신진익(申晉翼), 오효성(吳孝誠), 조양(趙壤), 장애성(張愛聲), 김지웅(金志雄), 박기성(朴起星), 장사민(張士敏) 등 8인의 장사군관(壯士軍官)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이다.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창원부에 원배遠配하였다.]

각색 공장은 2547명이고, 담모군은 2920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1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400냥이다.[임실 진사 최상익崔相翊 900냥 2차 ○명천 유학 동극량董克亮 1200냥 ○명천 출신 최응헌崔應軒 800냥 ○호군 정택선鄭宅善 800냥]

자원군은 7동에서 271명이다.

12일

흐림

안변부安邊府에 보내는 관문

경내에 고주高柱, 대동大棟 재목이 800여 그루가 있다고 하여 차인을 정해 내려보낸다. 즉시 벌목을 허락하고 이미 벤 나무와 함께 다음 달 그믐 안으로 상납하도록 한다.

각색 공장은 2679명이고, 담모군은 389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3320냥이다.[양구 민인 1220냥 ○전 장령 한영조韓永祖 1000냥 4차 ○고부 유학 박성근朴成根 정철正鐵 4500근]

자원군은 9동에서 311명이다.

13일

맑음

광화문 동서 수문 밖을 모두 준천⁸⁶하였다.

각색 공장은 2733명이고, 담모군은 4034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202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300냥이다.〔동극량董克亮이 냈다.〕

자원군은 11동에서 381명이다.

14일

흐림

동래부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殿堂의 도배塗糝에 들어갈 종이를 이제 마련해야 하는데, 반자⁸⁷에 바를 각종 왜릉화⁸⁸를 달리 구할 길이 없으므로 10만 장을 참작하여 지정한다. 도착하는 즉시 신속하게 마련하여 오는 7월 안으로 수에 맞춰 올려보내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98명이고, 담모군은 4083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700냥이다.

자원군은 9동에서 351명이다.

86 준천(濬川): 개천 물이 잘 흐르도록 바닥을 깊이 파내는 작업이다.

87 반자(班子): 천장의 바닥면을 가리기 위해 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88 왜릉화(倭菱花): 왜닥(닥나무)을 원료로 한 종이에 능화(마름꽃) 무늬를 찍은 종이, 일본의 능화문을 찍은 종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능화지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품질이 좋아 귀한 종으로 통용되었다.

15일

맑음

전라 감영, 경상 감영, 공충 감영에 보내는 관문

각 전당의 도배지를 전에 지정했던 바 있다. 지금 우선 절반 올라온 것을 보니 종이 품질이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해 마땅히 사용할 만한 것이 없다. 마땅히 모두 되돌려 보내야 하지만, 민폐가 염려되어 일단 받았다. 절반의 미납분이 또다시 전과 같다면, 실로 사용할 데가 없고 고을 백성의 폐만 커질 뿐이다. 모두 특별히 중단한다.

각색 공장은 2849명이고, 담모군은 396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1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460냥이다.〔경성 출신 김재환金在煥 1000냥〕

자원군은 10동에서 385명이다.

16일

맑음

성저城底의 훼손한 인가에 대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값을 지급하였다.〔와가瓦家는 매 칸마다 10냥, 초가草家는 5냥, 가가假家는 2냥씩이다.〕

진춘문 앞 동쪽 사간원 34호 내 와가瓦家 12칸 반, 초가 254칸 반, 광화문 밖 동서편 이하의 와가 865칸 반, 초가 898칸, 가가 17칸〔5월 6일 출급出給했다.〕,

광화문 밖 동서쪽 길가의 와가 623칸, 초가 445칸 반, 가가 55칸〔동월 12일 출급.〕,

광화문 밖 서편 가사家舍 중 와가 43칸 반, 초가 17칸의 값은 원납으로 다시 받았다.〔동월 16일 김진복金進福 다시 납부했다.〕

사헌부 기지基址 내 와가 293칸, 초가 369칸 반〔동월 21일 출급했다.〕,

어교⁸⁹ 종각계⁹⁰ 이하에서 작년에 훼손한 와가 8칸, 초가 40칸〔동월 19일 출급했다.〕

89 어교(魚橋): 광화문의 동쪽과 서쪽에 놓였던 다리로, 어교(御橋), 봉어다리 등으로도 불렸다.

90 종각계(鐘閣契): 서부(西部) 적선방(積善坊: 지금의 세종로, 적선동 일대)에 있었다.

삼청동 이곳^{犁串} 초가 62칸 반, 동수문교^{東水門橋} 주변 초가 11칸, 서수문교 은구^{隱溝} 초가 2칸 반[동월 24일 출급했다.]

연호궁^{延祐宮} 문 앞에서 석근교^{石根橋} 밑에 이르는 와가 26칸 반, 초가 443칸, 가가 5칸[동월 27일 출급했다.]

각색 공장은 2714명이고, 담모군은 403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안동^{安東} 민인이 됐다.]

자원군은 7동에서 311명이다.

17일

맑음

전교하였다.

“훈련대장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를 제수하고, 금위대장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후임에 총융사 이주철^{李周喆}을 제수하며, 총융사가 비어 있으니 상호군 신관호^{申觀浩}를 제수하라.”

○상호군 임태영^{任泰瑛}과 지사^{知事} 허계^{許槩}는 모두 노장^{老將}으로서 오랫동안 궁궐 공역에 수고해 왔다. 병으로 군무^{軍務}에서 물러난 지금 마땅히 뜻을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해서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총융사 신관호를 본 도감 제조로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겠습니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어영청이 누주석 1괴[불암]를 떠 왔다.

각색 공장은 2718명이고, 담모군은 411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300냥이다.[현풍 민인 1000냥]

자원군은 11동에서 420명이다.

18일

맑음

어영청이 누주석 1괴를 떠 왔다.

각색 공장은 2768명이고, 담모군은 4017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북청 진 참봉 문희용 文義溶 1000냥〕

자원군은 6동에서 281명이다.

19일

맑음

어영청이 영풍정 映楓亭에서 누주석 1괴를 떠 와서 해당 군영이 맡은 16괴의 운반이 끝났다.

각색 공장은 2781명이고, 담모군은 401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603냥이다.〔고령 민인 600냥〕

자원군은 5동에서 281명이다.

20일

맑음

동문 밖 살곶이다리〔矢串橋〕 천변의 석축을 허물어 사용하였다.

남병사 南兵使에 보내는 관문

지금 이원 利原의 김용성 金鎔成이 호소한 바를 보니, ‘저의 원납전 3000

냥에 대해 본 부에 사는 공이갑 孔以甲, 주진복 朱振福, 이영득 李英得, 단

천 端川에 사는 김연오 金連五, 합천에 사는 김인득 金仁得 등 5인이 포상 布商이라고 칭하면서

경중京中에 남겨둔 돈 4,5000냥이 있으니 이것과 서로 바꾸면 짐삿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환표를 받아서 포상의 도가都家에 가서 주었더니, 애초에 남겨둔 돈은 없으며 그냥 위표僞標였습니다. 이에 병영에 가서 호소하였지만, 은피⁹¹하거나 면피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막중한 원납전을 이놈의 무리들이 사람을 속이고 위표로 거리낌없이 도둑질한 것이 강도와 다름이 없으니, 다섯 놈을 잡아 엄형하고 즉시 찾아서 내어주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826명이고, 담모군은 387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만 3200냥이다.〔안주 전 참봉 신학주申學周 3000냥 ○봉산 민인 1만 냥〕

자원군은 5동에서 251명이다.

21일

맑음

만춘전萬春殿에 기화화사⁹² 김기엽金基燁이 단청의 품질이 안 좋다고 하면서 묘화⁹³를 붙이면서 게으름을 피웠다. 형조에서 해서海西 땅으로 유배〔정묘년(1867, 고종4) 8월 10일 석방했다.〕를 보내고, 모봉주牟鳳周에게 다시 단청하게 하였다.

각색 공장은 2771명이고, 담모군은 3992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1000냥이다.〔서산 전 장령 한영조韓永祖가 냈다.〕

자원군은 6동에서 301명이다.

91 은피(隱避): 은닉 등의 방법으로 범인의 체포, 도피자의 발견 등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92 기화화사(起畫畫師): 빛깔의 구별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먹으로 줄을 그리는 기화(起畫)를 전문으로 하던 화사이다.

93 묘화(描畵): 다른 그림을 본떠서 그리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 그린 그림을 이른다.

22일

맑음

예조에 보내는 이문

민회묘⁹⁴에 있는 진목眞木은 작년 겨울 낙인烙印한 것으로 수량을 맞춰서 배어 지급하도록 하도록 할 것.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지금 가평의 박기호朴夔祐가 호소한 바를 받아보니, ‘연목椽木 1만 개를 장차 물이 불어나기 전에 옮겨 납부해야 하는데, 두메산골에 거주하는 백성이 아주 적어 개인의 힘으로는 민정民丁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도감에서 본 군에 관문을 보내 모군募軍하게 하면 그 품삯은 제가 스스로 준비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관문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군에 알려져서 민정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며칠 내로 끌어 옮겨와 들여 쓰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833명이고, 담모군은 4144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00냥이다.〔평안 병사 이용상李容象 1000냥 ○부사과 최학승崔鶴昇 1000냥 ○

남원 문대호文大浩 추장지,⁹⁵ 방환,⁹⁶ 석장식錫粧飾 20건, 못 포함〕

자원군은 19동에서 764명이다.〔반촌민 500명이 3일간 부역하였다.〕

94 민회묘(愍懷墓):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소현세자의 빈 강씨(姜氏)의 묘이다. 죽음과 함께 폐서인이 되었는데, 1718년(숙종 44)에 복권되었다. 이로써 민회묘라고 불리다가 1870년(고종7)에 영회원(永懷園)으로 개칭되었다.

95 추장지[推障子]: 장지의 일종으로, 장지는 방에 간을 막아 끼우는 제구로 미닫이와 비슷하나 운두가 높고 문지방이 낮게 된 문이다.

96 방환(方環): 네모 형태로 만든 고리이다.

23일

신시 후에 비,
음산(陰塵)

안현⁹⁷ 도로에 깔린 박석(礧石)을 빼서 옮겨와 사용하였다.

각색 공장은 2906명이고, 담포군은 3497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50냥이다. [함종 유학 강주용(姜周用) 1000냥, 강태용(姜

泰用) 1000냥]

자원군은 6동에서 321명이다.

24일

맑음

경기 감영에 보내는 관문

경기 감영에 지정한 대량(大樑) 2개가 큰비로 표류하여 아직도 찾지를 못했다. 지금 듣자니 인천 오봉산(五鳳山)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강가(姜哥) 놈이 가지고 가서 판(板)을 만들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다만 토

막(吐莫) 2개라고 한다. 막중한 큰 역사에 쓰이는 물건을 일개 시골 백성

이 제멋대로 흠쳐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쓰니, 어찌 이처럼 무엄한 버릇이 있단 말인가. 강가 놈을 밤을 새워 압송하고 따로 별도로 엄히 징벌하도록 하라.

각색 공장은 2754명이고, 담포군은 4146명이다.

중친부에서 받은 돈은 3258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400냥이다. [전 장령 한영조(韓永祖) 2000냥 ○동극량(克亮) 400냥 ○수원 유수

조현영(趙獻永) 2000냥]

자원군은 5동에서 271명이다.

97 안현(安峴): 안국동(지금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 있던 고개이다.

25일

맑음

각색 공장은 2998명이고, 담포군은 4116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만 1420냥이다.〔강화 민인 5만 냥 ○임천 민인 1320냥〕

자원군은 3동에서 101명이다.

26일

맑음

근정전 고주목高柱木 1개를 강릉에서 올라온 금위영 군졸이 강가 나루 근처에서 끌고 들어왔다. 금위대장 이주철李周喆이 그 군졸에게 10냥의 돈을 상으로 주었다.

각색 공장은 2890명이고, 담포군은 4108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2000냥이다.〔덕원德源 안인희安仁禧 1000냥, 안성홍安性弘 1000냥〕

자원군은 3동에서 101명이다.

27일

맑음

오시午時에 자경전慈慶殿에 정초定礎하였고, 행각의 터를 닦았다.

선혜청에 보내는 이문

본 도감 담군擔軍의 옷감을 위해 선혜청에 있는 포 17동同을 옮겨 와 사용할 일로 대원위 분부를 받들었다. 이에 이문한다.

각색 공장은 2927명이고, 담포군은 4053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00냥이다.

자원군은 23동에서 406명이다.

28일

맑음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도청都廳 이종준李鍾濬을 가자加資하였습니다.[왕대비전의 홍역이 회복된 후 진하陳賀했을 때의 선교관⁹⁸이다.] 그 대신에 부교리 김성근金聲根을 차하함이 어떻습니까?”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각색 공장은 2909명이고, 담모군은 4091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4000냥이다.[북청 민인 3600냥 ○전 도사 강기환姜琦煥 150냥 6차]

자원군은 4동에서 161명이다.

29일

맑음

1방, 2방, 3방의 담군은 632명으로, 한 명당 단포短布 1필을 지급하였다.

선혜청에 보내는 이문

일전에 옮겨온 본청의 포 17동同은 담군擔軍의 옷감 수요인데, 이미 모두 나누어 주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또 지방의 공장工匠이 오랫동안 역소役所에서 일하고 있어 의복을 스스로 마련할 길이 사실상 없으니, 공평하게 대하는 정사에 있어서 또한 특별히 참작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포 20동을 다시 수송하니,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 이에 앞서 옮겨 온 포와 이번 포의 값은 도합 3700냥인데, 지금 지급할 일.

각색 공장은 2993명이고, 담모군은 4048명이다.

98 선교관(宣敎官): 국왕이 반포하는 교문(敎文)을 읽던 벼슬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500냥이다.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529냥 6전이다.
자원군은 4동에서 161명이다.

30일

흐림

각색 공장은 3065명이고, 담포군은 4039명이다.

종친부에서 받은 돈은 100냥이다.〔유학 이홍섭李鴻燮 17일을 시작으로 이날에 이르기까지 도합 1200냥〕

본 도감에서 받은 돈은 800냥이다.〔명천 안영학安永學 700냥〕

자원군은 4동에서 161명이다.

본 도감에서 계를 올려 아뢰었다.

“4월 본 도감에서 받은 원납전은 7279냥이고, 종친부에서 받은 원납전은 16만 9837냥 8전입니다. 별도로 책자 2건을 만들어 들입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1일⁹⁹

맑음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이날부터 장색, 모군 등을 방坊 밖으로 내보냈는데, 거리의 원근에 따라 급유給由의 선후先後를 두고 궤신餽驢에 다과多寡를 두었다.

99 『경복궁영건일기』 권4 권미(卷尾)의 배접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다. 내용상 권3, 을축년(1865년, 고종2) 12월 11일 기사에 해당한다.

찾아보기

가

- 가가假家 51, 191
- 가칠장假漆匠 112
- 각감閣監 287
- 간의대簡儀臺 186, 195, 253, 364
- 감결甘結 91
- 감조관監造官 50
- 강녕전康寧殿 152, 165, 221, 230, 254, 427
- 강녕전 상량문 260
- 강와强瓦 401
- 강희안姜希顔 385
- 개기開基 52, 69
- 개기 고유제開基告由祭 61
- 개판蓋板 202
- 거계車契 153
- 거도장鉅刀匠 112
- 거도장巨刀匠 98
- 거모도장去毛屠匠 146
- 건춘문建春門 110, 139, 186, 230, 289, 295, 364
- 건춘문 상량문 350
- 걸거장跣鉅匠 111
- 경감京監 199
- 경복궁 고유문景福宮告由文 61
- 『경복궁구지景福宮舊志』 64, 177
- 경성전慶成殿 139, 165, 230, 254, 255
- 경성전 상량문 268
- 경회루慶會樓 122, 363
- 경회루지慶會樓池 96, 104, 141, 177, 225, 359
- 계체階砌 40, 108, 135
- 고릉연觚稜椽 209
- 고립雇立 51
- 고사 360
- 고삭藁索 181
- 고주高柱 73, 142, 203
- 공이[築杵] 153
- 공회公會 50
- 관문 362, 368, 369, 372, 395
- 관악산 359, 360
- 관척關觿 420
- 광릉光陵 190
- 광화 어간문光化御間門 184
- 광화문光化門 110, 201, 203, 211, 222, 229, 230, 240, 295, 300, 365, 385, 404
- 광화문 상량문 272
- 광화문 서협문루西挾門樓 301

광화문 현판 272
 광화삼문 光化三門 139
 교태전 交泰殿 83, 165, 202, 209, 214, 230, 254, 365
 교태전 상량문 256
 구료관 救療官 53
 구일제 九日製 251
 궁재 宮材 70
 권두 權頭 108
 근정전 勤政殿 81, 359, 363, 381
 금동 金童 195
 금위영 110, 364
 금자 金字 272
 금척 金尺 256
 금천 錦川 365, 396
 금천교 365
 급수공덕자 汲水功德者 189
 기거 岐鉅 410
 기거장 岐鉅匠 111, 196
 기계장 機械匠 112
 기린평 麒麟坪 365
 기화화사 起畫畫師 436
 김병기 金炳冀 314
 김세균 金世均 289
 김세호 金世鎬 277
 김재수 金在洙 225
 김좌근 金左根 268

나

나용 挪用 70
 나인간 內人間 211
 남채전 藍菜田 189
 내홍예 內虹預 205, 286
 노인성 271
 녹로 輓轡 203

녹로군 輓轡軍 112
 녹로소탕 輓轡所湯 418
 뇌록 磊碌 175
 누주 樓柱 98
 누주석 樓柱石 138, 295, 318, 417
 니장 泥匠 111

다

단구거 單驅車 105, 153, 175, 210
 단주 短柱 203
 단확 丹腹 175
 달고환 撻古丸 152
 담군 擔軍 113, 221, 439
 담기 擔機 297, 405
 담모군 擔募軍 151
 당가 唐家 73
 당백전 385
 대가자 大架子 419
 대각장 大各張 88
 대고 大鼓 381
 대공판 臺工板 428
 대량 大樑 102, 142, 213, 233
 대보 大樑 221
 대소 인거장 大小引鉅匠 111
 대연 大椽 250
 대원위 157, 276, 414
 대작이 大斫耳 111
 대절상목 大節常墨 383
 대중 大鐘 216
 대호지 大好紙 251
 도랑 [新渠] 168
 도리 道里 419
 도청 都廳 49
 동십자각 東十字閣 406
 동표 銅表 253

동협문東挾門 295, 318
두리목豆里木 70, 250
두석豆錫 383
두석장豆錫匠 112
들보樑樑 73

마

마조장磨造匠 112
만경전萬慶殿 365
만녕전萬寧殿 294
만춘전萬春殿 211, 230, 350, 377, 436
만춘전 상량문 377
만화당萬和堂 294
매탄埋炭 140
명관命官 276
모군募軍 113
목역木役 361
목혜장木鞋匠 112
무대연貿大椽 98
무량와無樑瓦 209
묵서墨書 255, 285
묵질墨質 272, 286
문루門樓 286
문소전文昭殿 64, 168, 364, 417
문판門板 289
미후목彌猴木 383

바

박배장朴排匠 112
박석磚石 76, 154, 188, 438
반자班子 432
방전方輶 71
방초防草 71
방환方環 437

백문석白紋席 167
백서白書 286
백자판柏子板 203
백질白質 285
백탄白炭 280
번주홍燔朱紅 159, 383
벽련劈鍊 70, 204, 250
벽석璧石 289
별군직別軍職 430
별대연別大椽 395
별문석別紋席 167
별수미別收米 159
보계步階 286
보사제報謝祭 167
보토補土 92, 168
보판補板 383
보판步板 419
복마卜馬 51
봉화백 278, 290
부계浮階 112, 196, 203, 278, 300
부석소浮石所 110
부시철罽毼鐵 112
부어교鮑魚橋 385
부토군負土軍 113
북영 284
분세分稅 199
분원점分院店 197
붕사礮沙 197
비기秘記 424

사

사관소 254
사복시 365
사양산私養山 98, 208, 250
사정전思政殿 385

사현합 思賢閣 211
 산륜 散輪 163
 살곶이다리 435
 살창[箭窓] 302
 삼군부 三軍府 121
 삼현령 三懸鈴 93
 상량 上樑 83
 생갈 生葛 62, 194
 서금천 西禁川 364
 서사관 289
 서협문 西挾門 295
 석경루 石瓊樓 276
 석란 石欄 286
 석역 358, 359
 석축소 石築所 157
 선단석 綬端石 160, 163, 184
 선원전 璿源殿 365
 선자대연 扇子大椽 98
 선잡단 先蠶壇 384
 선장 船匠 111, 410
 선제 璇題 276
 선주인 282
 소동문 小東門 110
 소차지 小次知 287
 송목 松木 69, 426
 송전 松田 192
 송희정 宋熙正 230
 수구 水口 364, 374
 수도 364, 365
 수로 364
 수문 水門 364, 365
 수문장청 守門將廳 288, 393
 수상 水上 279
 수장 修粧 159
 수장목 修粧木 250
 수정전 修政殿 209

수진보작 壽進寶酌 277
 숙마 熟麻 63, 194
 승각반자 363
 승정전 崇政殿 211
 시량선 柴糧船 279
 시작 358, 359, 364
 신무문 神武門 110, 198, 204, 212, 223, 230,
 255, 286, 295, 364, 374
 신무문 상량문 235
 신석희 申錫禧 275
 신숙주 申叔舟 385
 십자각 十字閣 230, 359
 십품금 272

아

아교 阿膠 175
 안자장 鞍子匠 112
 안주[肴脯] 172
 양판 仰板 295
 애막 艾幕 191
 야로 冶爐 191
 야장 冶匠 112
 어간 254
 어간문 御間門 295
 어교 魚膠 63
 어영청 110
 어의궁 382
 어조당 魚藻堂 401
 엄석 掩石 95
 연가 煙價 411
 연목 椽木 70, 426
 연생전 延生殿 139, 165, 230, 254, 255
 연생전 상량문 264
 연장 鍊裝 196
 영건도감 14, 25

영추문迎秋門 110, 139, 155, 213, 230, 285,
 289, 295, 365, 396
 영추문 상량문 319
 영풍정映楓亭 188, 435
 옥당서玉糖序 301
 온돌 363
 와서瓦署 407
 와장瓦匠 134, 164, 410
 와토수瓦吐首 209
 왜릉화倭菱花 432
 외목隈木 132
 외홍예外虹預 205, 286
 용두석龍頭石 364
 우역牛疫 172
 원납전 110, 356, 366, 374
 원달고군圓槌古軍 113
 원미元米 143
 원세철元世澈 12, 13, 43
 월대月臺 97, 363, 404
 월문 289
 유둔油屯 154
 유희 253
 육상궁 283
 육의 264
 윤의선尹宜善 272
 윤치희尹致羲 289, 345
 은구隱溝 52, 76, 113, 364, 365, 374
 의소묘懿昭廟 297
 의정부 248
 이경재李景在 272
 이경하李景夏 230
 이년목二年木 88
 이돈영李敦榮 380
 이명적李明迪 56
 이승보李承輔 289
 이원명李源命 240

이유원李裕源 275
 이재면李載冕 230
 이재원李載元 230
 이주철李周喆 230
 이현직李顯稷 230, 286
 인거장引鉅匠 105, 415
 인지당麟趾堂 222, 224, 230, 287, 384
 인지당麟趾堂 상량문 311
 일영대日影臺 177
 임태영任泰瑛 230, 272
 입배入排 52
 입주立柱 83

자

자경당慈慶堂 287, 288
 자경전慈慶殿 403, 439
 자미당紫薇堂 287, 288, 289, 318, 374
 자미당 상량문 341
 자선당資善堂 294
 잡물고雜物庫 191
 잡토雜土 404
 장릉章陵 368
 장색匠色 51, 70, 171, 411
 장생전長生殿 347
 장지壯紙 88
 장차將差 428
 장추전 377
 전고錢庫 191
 전채화剪綵花 102
 정난중 217
 정도전鄭道傳 42, 224
 정범조鄭範朝 230
 정분丁紛 175
 정심합正心閣 211
 정조正祖 428

정철正鐵 192
 정초定礎 52
 제술관 289
 제호탕醴醐湯 143
 조각장彫刻匠 111
 조득림趙得林 240
 조보朝報 68
 조석원曹錫元 230
 조선국신주종명병서朝鮮國新鑄鍾銘竝序 385
 조성하趙成夏 230
 조역助役 145
 조영하趙寧夏 230
 조줄장造絛匠 112
 조지朝紙 68
 종루鐘樓 301
 종명鐘銘 217
 종친부宗親府 396
 주기舟旗 153
 준천濬川 432
 지과紙裹 171
 지정[卜定] 62
 지정군地定軍 113
 지토선地土船 252
 진목眞木 103
 진문眞文 188

차

참알參謁 156
 창의궁 382
 천추전千秋殿 208, 230, 285, 299, 333
 천한전天漢殿 381, 417
 철망장鐵網匠 112
 철토수鐵吐首 209
 첨계 363
 청룡사靑龍寺 189

청와靑瓦 196
 체대목體大木 137, 428
 체목體木 104
 초기草記 53
 초둔草屯 141, 153, 177, 412
 초주지草注紙 88
 총가목銃家木 150
 총융사摠戎使 395
 추단판楸楸板 203, 226, 369
 추장지[推障子] 437
 축성소築城所 414
 춘문 365
 치목治木 191
 치목소治木所 157
 치석治石 191
 치석소治石所 157
 칠송정七松亭 194
 칠정 265

타

태駄 90
 태마駄馬 51
 태평동太平洞 284
 통방외通方外 251
 퇴량退樑 150
 퇴선간退簾間 427
 퇴주退柱 122

파

파장破帳 383
 패장牌將 53
 패하석蟻石 94
 편목片木 254
 편액扁額 256

포진鋪陳 133
풍락송風落松 220

하

한계희 217
함원전含元殿 230, 254, 287, 363
함원전 상량문 306
함일재咸一齋 417
행회行會 279
허계許槩 230
허전장령虛傳將令 297
현고現告 406
홍길유洪吉裕 424
홍두깨[洪道介] 419
홍예 주춧돌[虹霓礎] 158
홍예문虹霓門 235

홍예수문虹霓水門 365
홍재철洪在喆 337
화소火巢 102, 368
황단黃丹 197
회감會減 383
회룡통回籠桶 150
회목檜木 102
회부灰釜 419
회상전會祥殿 211
효창묘孝昌墓 297
후백지厚白紙 88
훈련도감 110, 362
흠경각欽敬閣 177, 401
흥복전興福殿 294, 364, 417
흥정당興政堂 211
흥천사興天寺 216

번역

배우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진옥(☞문원씨앤디 부설연구소 소장)

유승희(충북대학교 강사)

김윤주(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데이터센터 연구원)

나영훈(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창수(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사업팀 연구교수)

해제

이우태(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배우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감수 · 교열 · 윤문

김동욱(경기대학교 명예교수)

홍순민(명지대학교 교수)

이우태(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정재정(서울역사자문관)

자료협조

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서관

서울사료총서 16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발 행 인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발 행 처	서울역사편찬원(history.seoul.go.kr)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02-413-9622)
기획·편집	박명호(시사편찬과장), 김현정, 서정현
발 행 일	2019년 6월 17일
판 매 가	30,000원 (3책 1set)
편집·인쇄	ANPR(031-955-9300)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043-01

ISBN 979-11-6071-068-7 94910
978-89-94033-03-7 94910 (세트)